

연구보고 2011-16

영유아기 자녀 부모 특성별 부모교육 강화 방안

김은설 장혜진 김문정 Susan Walker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리 말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무엇이 잘 키우는 것이고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울 수 있는지 부모는 늘 알고 싶어 하고 이를 위해 정보와 지식을 찾아본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부모는 이러한 일을 할 여유가 충분하지 않으며 직장 일 때문에 자녀를 돌보는 것마저 힘든 경우조차 많다. 특히 소득이 낮은 부모나 맞벌이,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등은 자녀 양육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기회를 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을 생각할 때 “영유아기 자녀 부모 특성별 부모교육 강화 방안”은 다양한 부모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적절하도록 부모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내실화를 기하여 정책적으로 영유아기 자녀 부모에 대한 부모교육을 강화하는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본 보고서는 정부 지원을 통해 부모교육 강화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부모교육의 현황을 제시하고, 요구조사를 통해 부모특성별로 필요로 되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고안하고 있으며, 특히 부모교육의 기본적인 내용의 바탕이 될 교육과정 개발까지 포괄함으로써 부모교육정책 개발을 위한 종합선물세트와 같다고 하겠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09년부터 3차년에 걸쳐 부모교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첫 해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과 부모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2010년에는 앞으로 부모가 될 청소년과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부모교육 실태와 내실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3년차인 2011년에 부모특성에 맞춘 부모교육 강화방안이라는 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부모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에 비해 이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며, 이러한 점에서 본 보고서를 비롯한 3개년 연구가 부모교육 관련 정책 추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연구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120여명의 대학교수님, 면접에 참여해주신 부모님, 그리고 특히 여러모로 지원해 주신 대구시달서구드림스타트센터, 성남시다문화정지원센터,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경남거창여성농업인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1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부모가 집에 있는 가정과 둘 다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가정과 저소득층에 속하는 가정, 부모가 모두 양육에 참여하는 가정과 한부모 가정, 부 또는 모가 외국 출신인 다문화 가정, 도시 가정과 농어촌 가정 등 다양한 가정의 부모 상황이 존재하고 이들이 가진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는 다를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음.
- ☐ 부모의 특성에 따라 부모교육의 내용을 선정할 수 있는 기초 토대가 될 기본적인 부모교육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이를 활발히 실행할 수 있는 부모특성별 부모교육의 실행 및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함.

2. 연구 내용

- ☐ 부모특성별로 구분하여 부모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함.
- ☐ 특성이 다른 부모별로 부모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요구를 수렴하고자 함. 본 연구에서 특성별로 구분된 부모의 집단은 맞벌이 부모, 저소득층 부모, 중상층 부모, 한부모, 다문화 부모 5개임.
- ☐ 국외의 우수 영유아기 자녀 부모대상 부모교육 제도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 영유아기 부모를 위한 기본 교육과정을 제시하고자 함. 우리나라에서 영유아를 둔 부모라면 알아야 할 자녀 양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부모교육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고찰하여 부모교육의 기본적 틀을 제시함.
- ☐ 부모특성에 따른 부모교육 실시의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3. 연구 방법

- ☐ 문헌자료를 검토함.
- ☐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참여 실태 파악 및 요구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함.
 - 영유아기 자녀를 둔 전국 1,002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도시저소득층 253명, 농어촌 199명, 한부모 150명, 맞벌이 250명, 다문화 부모 150명을 조사함.
- ☐ 기본 교육내용 개발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함. 델파이조사는 전국의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교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등 관련 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 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3차까지로 구성됨.
- ☐ 부모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설문지 개발 및 강화 방안 수립을 위해 포커스 집단 면접을 실시함.
- ☐ 일부 국외 우수 부모교육 제도 및 사례 조사를 위해 관련기관 방문, 면접 및 지역 전문가를 활용하여 자료 수집을 수행함.
- ☐ 전문가 회의를 개최함.

4.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현황

- ☐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에서는 필수서비스에 포함된 아동발달영역별 산전산후관리 및 부모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전체 영역에서 부모교육 서비스는 실인원 기준 총 30,083명(연인원 95,737명)에게 제공되었으며, 연간 총 서비스 일수는 5,388일이었음.
- ☐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00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모교육은 방문지도사의 방문교육과 센터 집체교육의 두 가지가 있음.
- ☐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모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국가 주도 센터는 찾아보기 힘들으나,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서울시가

2009년 6월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여성재단에 운영을 위탁하여 다양한 한부모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그 외 민간 단체로 대표적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가 운영하는 '한부모가정지원센터'를 들 수 있으며 한부모 대상 부모교육이 진행되고 있음.

- ☐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유일한 전문 공공기관으로써 부모교육이 주 사업은 아니지만 여성농민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영역 중 하나인 가족기능강화교육(일명 가족교육 사업)을 보면 생애주기별 교육, 가족성장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사업들이 포함되고 이 중 중요한 프로그램이 부모교육임. 영유아부모도 교육 대상이며 맞벌이 부부를 위한 교육도 하고 있음.
- ☐ 2011년 7월 현재 전국에는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포함하여 총 60개의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보육정보센터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는 홈페이지를 통한 육아정보 제공과 센터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있음.
- ☐ 유아교육진흥원은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각 지역별로 다양한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학부모 연수 대상은 대부분 공식적으로 해당 지역의 공·사립 유치원 학부모라고 제한을 두고 있기에, 학부모 프로그램도 영아보다는 유아 부모교육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은 전반적으로 교육청 사이트에 자녀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강의 양식이나 읽을 수 있도록 탑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일부 교육청에서는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이나 '좋은 학부모교실'을 일선 학교에서 개설하여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5.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요구 분석

가. 부모교육 참여 실태

- ☐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80.4%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응답자 중 아버지의 경우는 57.6%만이 들어봤다고 응답하여 어머니의 경우보다 그 비율이 적었음.

- 자녀의 발달 및 양육과 관련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느껴본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92.8%가 있다고 응답함.
- 현재 만 5세 이하인 자녀를 임신한 이후 온라인 교육을 제외한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에 대하여 26.4%가 있다고 함.
- 부모특성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맞벌이와 저소득 부모는 특히 1회짜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다문화 부모는 5회 이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음.
- 참여한 부모교육에 대해 알게 된 경로를 조사한 결과, 부모 특성에 상관없이 '기관의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알게 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부모의 특성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맞벌이 부모는 상대적으로 발달을 돕는 놀이 방법에 대한 부모교육 경험이 많았고 한부모와 저소득 부모는 바람직한 부모역할 및 훈육방법과 발달에 대한 이론적 내용에 대한 경험이, 다문화 부모는 영유아의 건강, 영양, 안전관리에 대한 부모교육이, 농어촌 부모는 바람직한 부모역할 및 훈육방법과 부모로서의 자질향상에 관한 부모교육 경험이 많았음.
- 부모교육에 참여했던 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일인 경우가 86.2%로 주말인 경우보다 훨씬 많았고 평일 중에서는 오전 시간이 전체 중에서 51.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평일 오후가 26.2%로 많았음.
- 부모들이 참여했던 부모교육의 주최 기관을 조사한 결과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이 37.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2.7%, 사회단체 및 사설기관이 11.5%로 많았음.
- 가구 특성별로 부모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가정에서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농어촌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의 만족도는 다른 가정들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음.
- 인터넷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본 경험에 대해서 62%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자녀 양육 정보를 위한 인터넷 사용 경험은 가구 특성별

로 맞벌이 가정에서 71.2%로 가장 높았음.

- ☐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시간 부족'이 31.0%로 가장 많으며 '자녀들의 방해'가 17.2%, '강사와의 상호작용 불가능'이 12.1%로 나타났음.

나.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 ☐ 전반적으로 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8.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에 그쳤으며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없었음.
- ☐ 향후 부모교육 기회에 대한 참여 의향에 대해서 응답자의 94.4%가 참여하겠다고 하였으며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한 응답자는 다문화 가정에서 29.3%, 농어촌 가정 22.1%로 조사되어 다른 가정들에 비해서 높은 참여 의향을 나타내었음.
- ☐ 향후 부모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1순위 내용으로 영유아의 정서·사회성 발달에 대한 지식이 25.2%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와의 대화 방법이 15.5%, 자녀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 방법이 10.5%로 조사되었음.
- ☐ 부모교육의 기간에 대한 선호를 살펴보면,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 형태는 단기교육으로서 1~5회 이내로 이루어지는 방식(54.1%)이 압도적이었음.
- ☐ 부모들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 부모교육의 시간은 평일 오전(30.4%)이며 다음으로 주말 오전(20.7%), 주말 오후(20.6%)가 비슷한 비율을 보였고 평일 오후, 평일 저녁 순으로 나타남.
- ☐ 부모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46.9%의 응답자가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가장 높은 선호를 보였음.
- ☐ 부모교육을 위한 가장 적절한 장소로 꼽은 곳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등 육아지원기관(30.0%)인 것으로 나타났음.
- ☐ '부모교육 강화를 위해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를 물었을 때 90%의 부모가 그러하다는 데 동의하였음. 부모교육에 대한 홍보

가 부족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82.8%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함.

6. 부모교육 교육과정 내용의 개발

□ 부모교육의 기본적인 교육과정 내용을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아동학과, 유아교육학과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쳤음.

□ 부모교육 교육과정 개발의 의의

- 영유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내용의 기본 틀을 제시함.
- 다양한 기관에서 개별적,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부모교육 기관으로 하여금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계획 수립 시 의지하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일반적인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농어촌, 한부모, 맞벌이, 다문화, 저소득층 등 특별한 요구를 가진 부모에게 적합한 맞춤형 부모교육 내용 및 지도의 주안점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부모특성을 가진 부모 대상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 교육 계획 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

□ 부모교육 교육과정 개발 과정

- 보다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련 학계의 현직 대학 교수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1차 조사의 참여자 수는 123명임.
- 제1차 델파이조사는 총 5개의 개방형 응답식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1)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개념 및 의의, (2)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영역 구성, (3)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영역별 핵심 내용, (4) 5개 부모특성 집단별 중점 부모교육 내용, (5) 부모교육 교육과정 활용 활성화 방안 등임.

- 제2차 델파이는 5점 리커트식 척도를 이용하여 주어진 각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표하게 하였고 연구자는 결과를 분석하여 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 최상위 항목부터 최하위항목까지 나열함.
- 제3차 델파이조사에서는 2차에서 상위로 선별된 70%의 선택지 수를 가지고 다시 3개 각 문항(교육과정 영역, 교육과정 영역별 내용, 부모집단별 중점 교육내용)별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을 실시함.

☐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영역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부모교육 교육과정은 4가지의 영역으로 구성됨. 영역의 선택은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평균점수가 높고 표준편차가 적었던 항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고 델파이결과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의 요인 부하량이 큰 항목 또한 하나의 조건이 되었음. 결과적으로 교육과정의 영역은 (1) **부모역할**, (2) **영유아발달**, (3) **가족의 이해**, (4) **자녀양육 및 지도**로 구성함.
- 최종적으로 개발된 부모교육 교육과정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인 기본과정과 부모특성별 맞춤형 교육내용으로 구성된 선택과정 2가지로 구성됨.

7.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강화 방안

가.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활용 전략

- ☐ 본 연구의 부모교육 교육과정은 부모교육을 행하는 기관에서 이를 기본 틀로 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이고 꾸준한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인구를 늘리고 부모교육 경험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해 가고자 하는 목적에 있음.
- ☐ 먼저 부모교육 교육과정이 개발되었음을 홍보하기 위한 브로슈어, 안내문, 관련 책자 등을 제작하여 전국 교육청, 건강가정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드림스타트센터 등 부모교육을 주도하고 하고 있는 기관과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배포함.

- 부모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해설서 및 운영지침을 제작하여 교육과정과 함께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부모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함. 부모교육 교육과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유익한 선택임을 기관과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함.
- 부모교육 교육과정에 따라 전문적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교육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교육자의 자격은 관련 대학의 교수나 유치원,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교사,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근무자 등이 됨.
- 부모교육 교육과정에 의거한 온라인 부모교육을 과목(영역/내용)별로 개설하여 부모들이 쉽게 접근하고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나. 부모교육에 대한 정책적 접근의 강화

- 교육의 대상으로서 ‘부모’를 두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업무 책임을 질 중앙 및 지방 정부에 담당자가 있어야 함.
 - 연간 부모교육 지원에 대한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평가까지 과정을 총괄할 인력이 요구됨.
 -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의 업무 협조가 필요함. 이는 평생교육, 가족복지의 측면과도 연결되어 있음.
-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진행하고 있는 기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얻게 되는 결과, 장점들을 매체 광고나 브로슈어 배포 등을 통해 알려야 함.
 - 인터넷을 통해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에서나 한번쯤 참여를 고려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 영유아들이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육아지원기관을 다니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부모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달체계는 이러한 기관임. 기관에 다니는 영유아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전문가를 활용한 부모교육을 지원할 수 있음.

다. 부모특성을 고려한 부모교육 방식의 다양화

☐ (맞벌이 부모를 위한) 온라인 교육과 직장 교육

- 맞벌이 부모들이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직장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임.
- 이러한 방법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회사나 기관 등 직장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부모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직원 복지 수준과 직장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부모교육 핫라인 전화 개설(다문화, 한부모가정 등 대상)

- 영유아 부모는 개별화된 문의와 전문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특성 집단별로 볼 때 도시 저소득층부모, 다문화부모, 한부모 가정 등에서 전화를 통한 지식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음.
- 집체 교육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부모들을 위해서 전화로 자녀양육에 대해 상담하거나 교육적 문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특히 다문화가정 부모의 경우 통역서비스도 함께 따라야 할 것이고 번역된 도서지급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 포커스 집단 면담에서는 가장 접근성이 높고 효과적인 부모교육 방식으로 누구나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TV 프로그램임이 드러났음. 특히 한부모 가정 등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참여 자체가 힘든 상황에서는 방송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가 큰 교육 방식일 수 있음.
- 한편, 스마트 폰이 일반화된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용 부모교육 어플리케이션을 제작, 활용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고 흥미로운 부모교육의 확대가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임.

차 례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2
3. 연구 방법	3
4. 연구 제한점	9
II. 이론적 배경	10
1. 영유아기 자녀 부모특성별 부모교육의 특징	10
2. 부모교육 교육과정	19
3. 실태 및 정책 분야 선행 연구	26
III. 외국의 부모교육 정책	33
1. 미국의 부모 교육	33
2. 싱가포르	48
IV.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현황	57
1. 부모 지원 기관별 부모교육 현황	57
2.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기관별 부모교육 현황	71
V.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요구 분석	76
1. 조사 참여자 특성	76
2. 부모교육 참여 실태	77
3.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99
4. 포커스집단 면접 분석에 의한 부모특성별 요구 분석	117
5. 소결	144

VI. 부모교육 기본 교육과정 내용 개발	147
1.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의의	147
2.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델파이조사 절차	148
3. 교육과정 영역 및 내용	151
4. 부모교육 교육과정 제안	162
VII.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강화 방안	166
1.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이용 활성화	166
2. 부모교육에 대한 정책적 접근의 강화	168
3. 부모특성을 고려한 부모교육 방식의 다양화	169
참고문헌	177
부 록	189
부록 1. 전국 보육정보센터의 부모교육 현황	191
부록 2. 학부모조사 설문지	194
부록 3. 델파이 설문지(1차)	203
부록 4. 델파이 설문지(2차)	206

표 차례

〈표 I-3-1〉	부모교육 실태 및 요구 조사 대상	5
〈표 I-3-2〉	부모대상 설문조사의 내용	6
〈표 I-3-3〉	부모교육 기본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델파이 조사 실시 개요	7
〈표 I-3-4〉	포커스 집단 면접 개요	8
〈표 II-1-1〉	부모지원 프로그램 소책자 목록	13
〈표 II-1-2〉	저소득가정 방문 프로그램 부모양육 역할 지표 및 활동 목록	13
〈표 II-1-3〉	한부모가족 교육프로그램의 개요	15
〈표 II-2-1〉	전수, 교류, 변혁 교육과정 비교	21
〈표 II-2-2〉	실천적 접근 방식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예시	25
〈표 III-2-1〉	PEPS 프로그램의 교육 주제(일부임)	56
〈표 IV-1-1〉	드림스타트의 서비스 유형	58
〈표 IV-1-2〉	드림스타트의 산전산후관리 및 부모교육 서비스	59
〈표 IV-1-3〉	발달영역별 부모교육 서비스 현황	59
〈표 IV-1-4〉	발달영역별 부모교육 서비스 현황(대구 달서구드림스타트센터)	60
〈표 IV-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형태 부모교육 내용과 시기	62
〈표 IV-1-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별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참여 가정수 (2010)	62
〈표 IV-1-7〉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이해 주요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	63
〈표 IV-1-8〉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이해 총 이용현황	64
〈표 IV-1-9〉	한부모가정지원센터의 연간 사업 계획(2009년 기준-상반기)	67
〈표 IV-1-10〉	여성농업인센터 사업내용	68
〈표 IV-1-11〉	여성농업인센터 부모교육 강좌 내용	68
〈표 IV-2-1〉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사업 프로그램 유형	70
〈표 IV-2-2〉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 운영현황(일부 사례)	71
〈표 IV-2-3〉	보육정보센터의 부모 대상 서비스 현황	72
〈표 IV-2-4〉	서비스유형별 프로그램 내용(서울시 M자치구 보육정보센터 사례)	72
〈표 IV-2-5〉	2011 유아교육진흥원 학부모연수 프로그램	73
〈표 IV-2-6〉	시·도교육청별 부모교육 관련 프로그램	75

〈표 V-1-1〉 조사 참여자 특성	77
〈표 V-2-1〉 부모교육이란 말을 들어본 경험	78
〈표 V-2-2〉 부모교육의 필요성 인식 경험 여부	79
〈표 V-2-3〉 자녀 임신 후 부모교육 참여 경험	79
〈표 V-2-4〉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80
〈표 V-2-5〉 참여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수	81
〈표 V-2-6〉 참여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별 참여 횟수	82
〈표 V-2-7〉 참여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총 횟수	82
〈표 V-2-8〉 참여한 부모교육에 대해 알게 된 경로	83
〈표 V-2-9〉 참여한 부모교육의 내용	84
〈표 V-2-10〉 가장 유용했던 부모교육의 내용	84
〈표 V-2-11〉 부모교육 참여 당시 해당 자녀의 연령	85
〈표 V-2-12〉 부모교육 개설 시간	86
〈표 V-2-13〉 부모교육 주최기관	86
〈표 V-2-14〉 부모교육 교육장소	87
〈표 V-2-15〉 부모교육 교육형태	88
〈표 V-2-16〉 부모교육 강사	88
〈표 V-2-17〉 부모교육에 대한 만족도	89
〈표 V-2-18〉 항목별 참여한 부모교육 만족도	90
〈표 V-2-19〉 부모 특성별 참여한 부모교육 만족도	90
〈표 V-2-20〉 인터넷에서 자녀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본 경험	91
〈표 V-2-21〉 인터넷에서 자녀양육 관련 정보 찾아보는 횟수(월 평균)	92
〈표 V-2-22〉 특정기관 주최 온라인 부모교육 참여 경험	93
〈표 V-2-23〉 참여한 온라인 부모교육 내용	94
〈표 V-2-24〉 온라인 부모교육을 알게 된 경로	95
〈표 V-2-25〉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96
〈표 V-2-26〉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	97
〈표 V-2-27〉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의향	98
〈표 V-2-28〉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활용하지 않는 이유	99
〈표 V-3-1〉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100
〈표 V-3-2〉 부모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101

〈표 V-3-3〉	향후 부모교육 기회 참여 의향 정도	102
〈표 V-3-4〉	가장 배우고 싶은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103
〈표 V-3-5〉	가구 특성별 가장 배우고 싶은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2개 선택) ·	103
〈표 V-3-6〉	영아기와 유아기 자녀의 부모교육 내용 차이 인식	104
〈표 V-3-7〉	영아기 자녀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내용 인식	105
〈표 V-3-8〉	유아기 자녀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내용 인식	105
〈표 V-3-9〉	영유아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내용(영/유아 구분 불필요 입장)	106
〈표 V-3-10〉	부모교육 운영방법 개선을 위한 의견: 적절한 교육기간	107
〈표 V-3-11〉	부모교육 운영방법 개선을 위한 의견: 적절한 개설기간	108
〈표 V-3-12〉	부모교육 운영방법 개선을 위한 의견: 적절한 교육집단 규모	109
〈표 V-3-13〉	부모교육 운영방법 개선을 위한 의견: 적절한 교육유형	110
〈표 V-3-14〉	부모교육 운영방법 개선을 위한 의견: 적절한 교육장소	111
〈표 V-3-15〉	부모교육 강화를 위해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112
〈표 V-3-16〉	부모교육 개선안: 부모교육 시간 동안 자녀 돌봄 서비스 제공 이 필요함	113
〈표 V-3-17〉	부모교육 중 아버지 교육의 기회가 충분함	113
〈표 V-3-18〉	부모교육은 첫 아이 임신 이후 1회 이상 참여를 의무화해야 함 ·	114
〈표 V-3-19〉	부모교육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	115
〈표 V-3-20〉	내가 원하면 부모교육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음	115
〈표 V-3-21〉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요청하면 기꺼이 자원봉사 할 수 있음 ·	116
〈표 V-4-1〉	저소득 부모 포커스집단 참여자	117
〈표 V-4-2〉	다문화 부모 포커스집단 참여자	124
〈표 V-4-3〉	맞벌이 부모 포커스집단 참여자	130
〈표 V-4-4〉	농촌 가정 부모 포커스집단 참여자	133
〈표 V-4-5〉	농촌 가정 부모 포커스집단 참여자	141
〈표 V-4-6〉	부모특성 집단별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비교	146
〈표 VI-3-1〉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영역 - 델파이 조사 결과	151
〈표 VI-3-2〉	부모교육 교육과정 영역 결정을 위한 요인분석 결과	153
〈표 VI-3-3〉	부모교육과정의 내용 - 델파이 조사 결과	154
〈표 VI-3-4〉	부모교육 교육과정 영역별 내용 결정을 위한 요인분석 결과	156

〈표 VI-3-5〉 부모 특성별 중점 교육 내용 1 - (도시) 저소득층 부모 대상 ...	158
〈표 VI-3-6〉 부모 특성별 중점 교육 내용 2 - 맞벌이 부모 대상	159
〈표 VI-3-7〉 부모 특성별 중점 교육 내용 3 - 한부모 대상	160
〈표 VI-3-8〉 부모 특성별 중점 교육 내용 4 - 다문화가정 부모 대상	161
〈표 VI-3-9〉 부모 특성별 중점 교육 내용 5 - 농어촌 부모 대상	162
〈표 VI-4-1〉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영역 및 내용 1 - 기본과정	164
〈표 VI-4-2〉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영역 및 내용 2 - 부모특성별 선택과정 ·	164

그림 차례

〔그림 II-1-1〕 농촌지역 부모교육 모형	19
〔그림 III-2-1〕 싱가포르의 학교 기반 부모교육 체계	52
〔그림 III-2-2〕 PEPS의 연간 시간 구성	54
〔그림 III-2-3〕 PEPS의 ‘구역 만남’ 구성 방식	54
〔그림 VI-2-1〕 텔파이 조사의 절차	150
〔그림 VI-4-1〕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구성	163
〔그림 VII-3-1〕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강화 방안	176

부표 차례

〈부표 1〉 보육정보센터별로 제공하는 부모 대상 서비스 종류	191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부모교육의 강화와 내실화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바, 2009년에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과 부모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고서가 출간되었고, 2010년에는 앞으로 부모가 될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예비부모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실태와 함께 제시하는 연구 작업이 이루어졌다(김은설 외, 2009; 2010). 육아정책의 일부로서 부모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이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연구들은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적 사업으로 부모에 대한 자녀양육 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해야 함을 또한 지적하고 있다. 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부모들이 점차 크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현대의 부모들이 접한 양육 환경과 가족 구성의 변화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의 부모는 과거와 달리 부모-자녀 중심 가족 형태에 적응해야 하고, 소수의 자녀에 집중하여 교육하고 만능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도 커진 만큼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정서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부모교육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가정-부모의 교육적 역할 기능 약화, 가치문화 전달자로서의 부모의 가치체계 혼란, 부모들을 위한 사회복지지원체계의 미비로 인해 부모교육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인간 발달의 관점에서 볼 때 영유아기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은 자녀의 전 인생을 지배할 자아형성과 인격발달에 지대한 것일 수 있으므로(Berk, 2005; Collins et al., 2000), 영유아기 부모에 대한 교육은 국가미래인적 자원의 바람직한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안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역할과 기술을 익히기 위한 일정기간의 교육이 필요하다. 의사나 교사, 기술자 등의 전문직업은 장기간의 교육을 요구하고 자격심사를 필요로 한다. 비교적 간단한 작업을 하는 직업조차 그 직업에 필요한 소양과 기술을 최소한의 기간 동안 습득할 것

을 요구한다. 부모라는 역할은 그러한 형식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일인가? 많은 학자들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자녀 양육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김희진, 2008; Galinsky, 1994).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연구를 보면(김은설 외, 2009; 2010), 현실적으로 부모가 된 이후나 되기 이전에도 부모로서의 가치관, 자녀양육 지식 등 관련 부모교육을 받을 기회는 매우 부족한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부모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요구됨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교육이 부모가 처한 상황이나 아동의 특성과 무관하게 동일한 형태와 주제로 모든 부모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유용하게 느끼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교육 프로그램 자체에 접근이 어렵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부나 모가 집에 있는 가정과 둘 다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유있는 가정과 저소득층에 속하는 가정, 부모가 모두 양육에 참여하는 가정과 한부모 가정, 부 또는 모가 외국 출신인 다문화 가정, 도시 가정과 농어촌 가정 등 다양한 가정의 부모 상황이 존재하고 이들이 가진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는 다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특성을 살펴 부모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무엇보다 각각의 프로그램이 유용할 수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그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요구에 맞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부모의 특성에 따라 부모교육의 내용을 선정할 수 있는 기초 토대가 될 기본적 부모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이를 활발히 실행할 수 있는 부모특성별 부모교육의 실행 및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특성별로 구분하여 부모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의 유형을 조사하고 각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할 것이다. 더불어 전국 지역별로 부모교육 실시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지역 차이를 살펴보고, 참여자 및 운영자 면담 등을 통해 부모교육 실시 실태 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다른 특성을 가진 부모별로 부모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요구를 수렴하고자 한다. 이 때 부모의 특성은 맞벌이, 외벌이 등 부모 근로형태가 있을 수 있고, 소득계층, 결혼 상태, 다문화 여부 등의 변인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특성별로 구분된 부모의 집단은 맞벌이 부모, 저소득층 부모, 중상층 부모, 한부모, 다문화 부모 5개이다. 이들 각 집단이 부모교육을 경험한 실태와 이에 대한 개선 의견, 요구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국외의 우수 영유아기 자녀 부모대상 부모교육 제도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국 등을 몇몇 국가의 부모특성에 따른 부모교육 제도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여 특징을 도출하고, 국내 적용 가능성을 위한 시사점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넷째, 영유아기 부모를 위한 기본 교육과정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영유아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자녀 양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부모교육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고찰하여 부모교육의 기본적 틀이 될 교육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모교육 기본교육과정은 영아 및 유아 부모로 구분하여 제시될 것이고, 부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부모집단에 해당되는 별도의 내용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 후 포함하고자 한다.

다섯째, 부모특성에 따른 부모교육 실시의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및 전략 등을 연구결과 분석에 기초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가. 문헌자료 검토

기존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부모교육의 방향을 수립하고자하는 목적에서, 기

존 영유아 부모대상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에 대해 자료를 수집·검토하며, 특히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별로 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여 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부모교육 현황을 살펴보았다.

나. 부모 대상 설문 조사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참여 실태 파악 및 요구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표집

본 연구에서 구분하고 있는 5개 부모특성 집단을 고려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대상을 표집하였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다문화, 한부모 등 무선표집으로 표집되기 어려운 집단은 드림스타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 해당 집단의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고 농어촌과 맞벌이의 경우는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을 선정하고 가구 방문을 함으로써 무작위 표집을 진행하였다. 표집된 각 집단은 개념상 상호 중복이 있을 수 있어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범위를 설정하고 진행하였다.

저소득층 부모는 도시저소득층으로 규정하고 한부모가정이거나 다문화가정이 아닌, 양부모 한국출신 가정의 부 또는 모이다. 그러나 이들 중 맞벌이인 경우는 통제하지 못하였으나 가구소득을 월 200만원이하로 규정하여 집단 성격을 제한하였다.

농어촌 부모는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로, 다문화가정은 농어촌 부모에서 제외하여 양부모 한국출신 부모만을 포함하였고 맞벌이 가정 또한 제외하였다.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 또한 다문화가정에 포함되는 경우는 아니며, 도시저소득층 표집과 중복되지 않는다. 표집이 매우 힘든 대상이었으므로,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대부분의 참여자 수를 확보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한부모가정 부 또는 모는 서울, 경기 지방 거주자로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맞벌이 부모는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등 6대 특별시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비율 표집하였다.

다문화가정 부모 또한 표집이 매우 어려운 대상이었으므로, 일부 지역(김천, 밀양, 성남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를 얻어 다문화가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전국 균등 표집이라기보다는 일부 지역에 편중된 표집이라는 한계가 있다. 조사시 외국 출신 부모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하거나 배우자 면접을 실시하였고 문항 하나하나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진행하여 응답자의 이해를 높이고자하는 노력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각 집단별 조사 참여자는 다음의 <표 I-3-1>과 같다.

〈표 I-3-1〉 부모교육 실태 및 요구 조사 대상

구 분		사례수(명)	%
전 체		1,002	100.0
가정 특성별	맞벌이가정	250	25.0
	한부모가정	150	15.0
	다문화가정	150	15.0
	농어촌가정	199	19.9
	(도시)저소득층가정	253	25.2
도시 규모별	대 도 시	682	68.1
	중 소 도시	46	4.6
	읍 면	274	27.3
거주지별	서 울	289	28.8
	부 산	91	9.1
	대 구	68	6.8
	인 천	91	9.1
	광 주	52	5.2
	대 전	53	5.3
	울 산	38	3.8
	경 기	52	5.2
	강 원	30	3.0
	충 북	42	4.2
	충 남	33	3.3
	전 북	25	2.5
	전 남	50	5.0
	경 북	49	4.9
	경 남	39	3.9

2) 조사 방법

모든 대상에 대해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원칙적으로 일대일 면접을 통해 설문지를 완성하고 수거하였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을 제외하고는 경우에 따라서 설문지를 남겨두고 부 또는 모가 완성하게 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다음 재 방문하여 수거하는 방식도 함께 활용하였다.

3) 설문내용

설문은 다음 <표 1-3-2>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표 1-3-2> 부모대상 설문조사의 내용

영역	문항 내용
부모 특성	- 지역, 성별, 학력 - 사회경제수준(직업, 소득, 계층인식) - 맞벌이 여부 - 한부모가정 여부 - 자녀 연령, 육아지원기관 이용 여부
부모교육 참여 실태	- 부모교육의 필요성 인식 - 부모교육 참여 경험(시기, 횟수, 동기) - 현재 수강 중인 부모교육 (주관 기관, 내용, 만족도, 기간 등) -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알게 된 계기 - 가장 유용했던 프로그램 - 참여하지 못한 경우의 이유 - 온라인 교육 이용 경험 및 평가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 향후 참여 의지 - 교육 내용에 대한 선호 의견 - 부모교육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 - 자녀 발달 시기별 필요한 부모교육 - 부모교육 실시 방법 상의 요구 (교육방법, 장소, 내용 등) - 온라인 부모교육 활용에 대한 의견
부모교육 강화 방안	- 강화 방안에 대한 동의정도 - 국가의 지원 정책 수립 필요성 - 부모교육 활성화 제언

다. 전문가 델파이조사

부모교육 기본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조사는 전국의 2, 3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교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등 관련 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 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개방형 자유응답식 질문으로 구성되는 1차부터 시작하여 객관식 5점 척도 문항으로 이루어진 3차까지 세 차례로 구성되었다.

각 회차가 거듭됨에 따라 조사 참여율은 줄었으나, 조사로서 의미있는 정도의 수는 확보할 수 있었다. 1차에서는 121명이 조사에 응하였고 2차에서는 76명이 응답하였다. 마지막 3차 델파이에는 56명이 참여하였다.

회차별 조사의 목적과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 I-3-3〉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과 조사 절차는 본 보고서의 VI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표 I-3-3〉 부모교육 기본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델파이 조사 실시 개요

대상	전문가(유아교육, 아동, 보육과 등 관련학과 대학 교수 500명)	
조사내용	1차 (자유응답식) - 참여자 121명	-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의의 -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영역 -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내용 -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교육과정 내용 - 부모교육 교육과정 활용을 위한 제언
	2차(리커트식 5점 척도) - 참여자 76명	- 1차 조사 결과 중 다빈도 항목 선정, 동의정도 파악 -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영역/내용 선정
	3차(리커트식 5점 척도) - 참여자 56명	- 2차 조사 결과의 편차 감소를 통한 의견 수렴 목적
조사방식	주 방식: 이메일 보조 방식: 팩스, 우편 등	

라. 포커스 집단 면접

부모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설문지 개발 및 강화 방안 수립을 위해 포커스집단 면접을 실시하였다. 포커스 집단은 부모특성별로 구분하여 동질 집단 5~7명을 모집하고, 면접에서는 부모교육에의 참여 경험과 의견, 요구 등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자 모집은 관련 단체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 바, 도시 저소득층 부모의

경우 대구시 달서구 드림스타트 센터, 다문화 부모 집단은 경기도 성남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그리고 한부모 집단은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농어촌 부모는 경상남도 거창군 여성농업인센터의 협조 하에 포커스 집단이 구성 될 수 있었다. 다만 맞벌이 부모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사무실 집중 건물에 참여자 모집 공고를 붙이고 신청자를 받아 적정 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면접 현황은 다음의 <표 I-3-4>와 같다.

<표 I-3-4> 포커스 집단 면접 개요

차수	대상	시기	내용	비고(지원기관)
1차	저소득층 가정 (모 7명)	2011. 6	- 참여 부모교육 및 감상 - 부모교육 참여 방식 - 온라인 부모교육 가능성 - 필요한 부모교육 내용 - 요구, 참여의 어려움 등	대구광역시 달서구드림스타트센터
2차	다문화 가정 (모 7명)	2011. 7		경기도 성남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3차	맞벌이 가정 (부2명, 모3명)	2011. 9		서울특별시 A 사업체 내 참여자모집
4차	한부모 가정 (모 5명)	2011. 8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5차	농어촌 부모 (부2명, 모4명)	2011. 8		경상남도 거창군 여성농업인센터

마. 해외 사례 방문 및 해외 전문가 활용

일부 국외 우수 부모교육 제도 및 사례 조사를 위해 관련기관 방문, 면접 및 지역 전문가를 활용하여 자료 수집을 수행하였다. 싱가포르의 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Youth, and Sports(MCYS)를 방문하여 부모교육 담당자를 면담하였고, 미국의 부모교육 제도 현황 및 교육과정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거주 부모교육 전문가(Dr. S. Walker, professor in University of Minnesota)를 공동연구진으로 포함하여 미국 사례를 집필하도록 하였다.

바.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전반적인 연구의 방향과 연구문제에 대한 검토 및 제안된 부모교육 기본교육 과정과 부모교육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의 목적으로 연구 초기와 연구 중반부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3차례에 걸친 육아정책연구 소내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연구내용을 충실히 하고자 하였다.

4. 연구 제한점

선행연구 검토에서도 살펴보았다시피,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09년 육아지원 기관 즉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주도하는 부모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를 수행한 바 있고, 2010년에는 부모가 되기 전 청소년 및 청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부모교육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각각은 연구보고서로 출간되어 몇몇 매체를 통해 연구 결과가 알려지기도 하였다. 부모교육과 관련한 3년차 연구인 본 연구에서는 앞선 두 연구와 범위가 겹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의 부모교육 현황을 조사하거나 예비부모의 부모교육 참여에 대한 자료는 수집하지 않았다. 즉, 본 연구는 육아지원기관 부모교육과 대학 등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은 제외한, 부모특성을 적절하게 보여주는 정부지원기관, 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부모교육 현황에만 관심을 두었음을 밝힌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부모교육 교육과정’은 지도방법이나 구체적인 해설서, 수업시수, 방법 등을 포함하지 않고 가르칠 내용에 대한 핵심 요소의 제안만을 뜻한다. 또한 교육과정이라고 하여 모든 부모가 모든 과정을 다 배워야 한다는 의미이기 보다는, 부모교육을 주도하는 센터, 기관 등에 프로그램 계획 수립 시 아이디어를 주고 특히 부모특성에 따라 집단별로 주의를 기울일 만한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부모교육의 내용적 측면을 강화하여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표는 부모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 성격상 정책 연구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연구 목표의 성취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서 본 보고서는 두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 대상인 부모특성에 따른 부모 집단의 요구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둘째, 부모집단의 요구와는 별개로(혹은 참조하고), 현대 한국사회의 영유아 부모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자녀 양육과 관련한 기본적 지식, 태도, 가치관 형성의 기초가 될 교육과정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부모교육기관과 교육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본 연구가 산출할 부모교육 기본 교육과정은 향후 우리나라 영유아기 자녀 부모교육의 기준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부모의 특성에 부합하는 내용이 추가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함으로써 교육과정의 활용도를 높이하고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세부 연구과제이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특성에 따른 부모교육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 기존의 부모교육과정이 어떠한 구조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1. 영유아기 자녀 부모특성별 부모교육의 특징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을 부모에게 전달하는 교육의 관점을 일반적으로 부모 교육이라 할 때, Morrison(1976)은 다음과 같이 부모교육을 정의하였다.

부모교육이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킴으로써, 부모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이를 토대로 부모 스스로 효과적인 자녀양육 방법과 기술을 개발하여 자녀에게 실천하고 적용하도록 지원해 주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즉 부모의 효율적인 부모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에게 제공하는 교육 활동이라 할 수 있다(이순형 외, 2011, p.10, 재인용).

이러한 부모교육은 현대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바, 사회가 다원화되고 가정의 형태가 전통사회의 그것과는 상이하게 변형되어 가고 있음으로 인해 소수의 자녀와 부모, 둘의 상호관계가 이전보다 더 긴밀해진 핵가족

내에서 부모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가정의 특성, 또는 그것을 초래하는 부모의 특성이 부모-자녀 관계를 다르게 만들어가고 부모 역할에 대한 요구가 조금씩 차이 나게 한다. 예를 들면 부모 중 한 명이 취업을 한 가정과 두 부모가 모두 취업을 한 맞벌이 가정이 가진 부모의 역할이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일반적인 가정에 비해 다문화가정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의 근심과 요구가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현대의 부모교육 설계자는 부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부모의 특성을 맞벌이 부모, 한부모, 다문화부모, 저소득층 부모 등으로 구분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기존 문헌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맞벌이 가족의 부모교육

이순형 등(2011)에 의하면, 맞벌이 가족의 상호작용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특성이 있다. 첫째, 맞벌이 가족의 부모와 자녀는 매일 분리를 일상적으로 경험한다. 맞벌이 가족의 자녀는 신생아 때부터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부모와의 분리와 만남의 경험이 매일 반복되면서 차츰 시간대별 리듬을 익히게 되고, 아침에는 불쾌한 이별, 저녁에는 반가운 만남이라는 일상에 익숙하게 된다. 둘째, 맞벌이 가족은 부모와 자녀의 접촉시간이 늘 부족하다. 취업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한 부모는 저녁 시간과 아침 시간에 잠시 영유아 자녀를 보고 상호 작용을 해야하므로,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는 밀착되고 집중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셋째, 맞벌이 가족의 부모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피곤하다. 즉 취업과 가사로 인한 이중노동은 신체적으로 부모를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평안하기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맞벌이 가족의 부모교육은 다음과 같은 점에 관심을 가지고 구성되어야 한다(이순형 외, 2011). 첫째, 맞벌이 부모는 영유아 자녀의 격리불안을 이해하고 심리적 안정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녀에게 부모의 근접성을 느끼고 사랑을 확신하도록 해 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맞벌이 부모는 영유아 자녀에게 특히 다양하고 풍부한 언어자극을 주도록 해야 한다. 낮 동안 시설에 맡겨지거나 대리양육자의 도움을 받게 되므로 일대일 상호작용이 어렵거나 양육자 특성에 따라 자극의 양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부모의 섬세한 관심과 풍부한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맞벌이 부모는 배우자의 피

곤을 이해하고 육아를 공동으로 수행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직장가정일에 매인 부모의 상황을 서로 이해하고 힘들더라도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고 참을성 있게 반응하는 대응하도록 상호 노력함이 필요하다.

나. 저소득 가족의 부모교육

저소득 가족 부모의 경우는 부모교육 내용에 대해 특별히 특징을 잡아 논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저소득 가정이라고 해서 소득이 높은 가정과 비교했을 때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과 태도가 다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저소득층은 가족의 특성에서 맞벌이일 가능성이 크고,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 가족이 저소득층에 속하는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가족의 부모교육에서 주의점들이 같이 적용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부모교육의 내용에 덧붙여 저소득이면서 가족이 가진 다른 특징들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소득 가정이면서 맞벌이 부모일 때에는 앞서 논의한 맞벌이 부모에 필요한 부모교육의 특징에 덧붙여 영유아기 자녀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경우 부족하기 쉬운 지적 자극을 주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저소득 맞벌이가구는 특히 유아 자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으므로 지적 자극을 주는 데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절에서는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된 기존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김희진(2005)은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의 의뢰로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한 측면인 부모지원 서비스 진행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매뉴얼에는 부모지원 프로그램 개발·실행·평가 시 고려할 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할 점으로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가족, 부모, 유아의 욕구 간 균형 유지, 둘째, 부모가 가진 장점을 활용하는 것과 부모에게 바람직한 가치, 태도, 행동양식 등을 제공하는 것, 셋째, 부모와 프로그램 진행자 간의 관계에서 독립성과 의존성 간의 균형 유지이다. 또한 실제 부모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소책자를 개발한 바, 소책자의 주제는 총 20개로 다음의 <표 II-1-1>과 같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영유아의 언어 및 수 지도, 놀이하기, 대화하기, 자녀 훈육 방법, 문제 행동, 성교육 등과 함께 손자녀 돌보기,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등 다양한 경우의 부모교육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표 II-1-1〉 부모지원 프로그램 소책자 목록

번호	주제	번호	주제
1	프로그램 소개	11	문제 행동에 따른 원인과 지도 방법
2	어린이집에서의 하루 일과	12	자녀의 또래 관계와 부모의 역할
3	자녀의 언어 교육(1주용)	13	유아기 성교육
4	자녀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도와주세요(4주용)	14	그림책과 부모의 역할
5	수·과학 활동과 부모의 역할	15	손자녀 돌보기
6	유아의 놀이와 부모의 역할	16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7	자녀와 대화하기	17	지역사회 자원 활용하기
8	형제 관계에서 부모의 역할	18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속의 예절
9	올바른 자녀 훈육 방법	19	알아두면 유용한 이웃과의 교제법
10	자녀의 문제 행동과 부모의 역할	20	프로그램을 마치며

자료: 김희진(2005). 삼성영유아 프로그램Ⅱ: 포괄적 보육 서비스 - 부모지원 프로그램. 삼성 아동교육문화센터. 서울: 다움세대. p. 263.

장명림 등(2010)은 0~5세 자녀가 있는 저소득가정과 탈북가정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자녀 연령별(만2세 미만,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로 20차시로 구성되어 있고, 주 1회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1차시는 30분~1시간 정도 소요된다. 또한 각 활동에 대하여 부모용 활동지와 가정방문자용 활동지를 분리해서 개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부모의 양육 역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및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 및 우울감을 해소할 기회의 제공을 목표로 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문헌연구를 기초로 14개의 부모 양육 역할 지표와 그에 따른 하위 역할을 선정하고 중요성에 따라 해당 역할에 대한 활동의 수를 정하였다. 부모 양육 역할 지표에 따른 활동명은 다음의 <표 II-1-2>와 같다.

〈표 II-1-2〉 저소득가정 방문 프로그램 부모양육 역할 지표 및 활동 목록

부모 양육 역할	하위 역할	활동명
기본적 욕구 충족의 역할	의복 제공	적절한 의복
	음식 제공	적절한 음식
	주거 제공	안전한 주거 환경
	건강 유지	건강습관과 예방접종 청결습관

(표 II-1-2 계속)

부모 양육 역할	하위 역할	활동명
발달 지원 및 교육의 역할	신체적 지원	적절한 운동
	인지적 지원	수학적 기초개념 과학적 기초개념
	언어적 지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사회적 지원	타인과의 관계
	정서적 지원	감정표현과 조절
	사회적 규범/가치형성 지원	예절지도 바람직한 훈육
	놀이 지원	적절한 놀이 적절한 놀잇감
	학습 지원	바람직한 학습 환경
		지역사회 기관 정보
사회 연계의 역할		자연과 문화 경험
		부모의 정신건강

출처: 장명립·이윤진·이정립 외(2010).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KICCE 부모교육 프로그램(개별용). 육아정책연구소. p. 6.

다. 한부모 가족 대상 부모교육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특별히 응집력이 클 것이다. 더불어 양부모가 있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과 달리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는 양육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한다(이순형 외, 2011). 대체로 한부모 가족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홀로 취업과 양육을 동시에 해야하므로 신체적·심리적으로 경험하는 피로가 크다.

한부모인 여성은 주로 취업이 쉬운 노동이나 서비스직에 머무는 경향이 커 경제적으로 빈곤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어려우므로, 저소득층에 머무르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가 쉽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긴장, 불안은 자녀에게 또한 편안한 심리적 환경을 만들어주기 힘들게 되므로, 부모 교육에서는 한부모가 느끼는 심리적 불안과 부적절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순형 등(2011)은 한부모가족 부모교육 내용으로서 첫째, 부부 사이 갈등이 자녀에게 심리적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할 것, 둘째, 이혼한 남편과 자녀의 정기적인 만남이 가져올 부모 역할에 대한 긍정적 결과를 고려할 것, 셋째, 자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유지, 넷째, 자녀의 심

리적 갈등과 고민에 대한 이해 등을 중요한 것으로 꼽았다.

1) 한부모가족 부모교육 프로그램

송현애(2007)는 부자가정의 잠재력과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단기 소집단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는 첫째, 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가사부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둘째, 자녀를 이해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셋째, 자녀와 함께하는 재혼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재혼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정립한다이다(송현애, 2007, p. 7). 본 프로그램은 총 5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1회 90분씩 실시하며 10명 내외의 소규모집단을 대상으로 하도록 개발되었다. 집단 구성 시에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한부모가족이 된 사유, 가족생활주기, 한부모가 된 기간을 고려하여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회기별 목표와 주요 교육내용은 다음 <표 II-1-3>과 같다. 내용을 살펴보면 주제는 크게 가사, 자녀양육, 재혼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버지만 있는 부자 한부모 가정에 특히 관심을 두고 있다.

<표 II-1-3> 한부모가족 교육프로그램의 개요

회	주제		목표	주요 교육내용
1	가사	가사의 달인되기	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태도를 습득하여 자신감 고취	- 살림살이의 지혜 - 시테크 - 구매의 기본 이해
2		가사부담 벗어나기	가사부담에 따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능력 함양	- 비공식적, 공식적 지원체계 -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방안
3	자녀 양육	우리아이 알아가기	자녀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부모역할 습득	- 부모됨의 유형 -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 이해
4		좋은 아버지 기틀세우기	자녀에 대한 감정표현 방법 습득	- 자녀에 대한 사람의 마음 전하기 - 자녀에 대한 관심갖기
5	재혼	재혼 바로보기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의 재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	- 재혼의 장, 단점 - 자녀와 함께 하는 재혼

출처: 송현애(2007). 한부모가정의 부(父)를 위한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생활과학회지, 16(1), p. 7.

2) 이혼 위기 부모대상 교육

유희정(2005)은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100개의 이혼하려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주제, 내용, 평가 등을 분석하였다. 이 중 56%는 법원과 연계하여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민간이나 비영리 사회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법원과는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전자는 대규모 강의실에서 주로 강연과 비디오 시청을 중심으로 한 두 번의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인지교육의 형태였고, 후자는 자발적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소집단을 구성하여 여러 번의 회기 동안 질의응답, 집단토론, 역할극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기술 습득을 하게 된다.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자녀의 욕구와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와 관련된 자녀양육 기술과 갈등 관리 기술 및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외에 가정 폭력에 관한 문제들과 법적인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이혼 후 자녀들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증대시키고, 부모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둘째, 부모의 변화를 통해 자녀가 부정적인 영향력의 감소와 긍정적인 영향력의 증가를 실제로 지각하고 사회·심리적으로 보다 잘 적응하는 것, 셋째, 전배우자간의 갈등이 감소되고, 협력적 부모관계가 증진됨에 따라 자녀를 둘러싼 법정 소송과 재소송이 감소되고, 이로 인한 법적,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는 것이다(유희정, 2005, p. 89).

이혼율이 높아진 우리나라 사회에서 한부모 가정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다문화가족 대상 부모교육

다문화가족은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이다. 영유아기 자녀의 양육이 어머니에게 의존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생각해 보면, 외국 출신 어머니가 한국에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과정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부모교육이 큰 역할을 해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러한 다문화가정 부모에 대해 부모교육의 기회가 많아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은 특히 가족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우고 어머니로부터 부족한 언어적 자극을 아버지나 어린이집 교사, 또래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알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문화가족의 경우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한국어능력의 부족에 기인하는 이유가 상당하기 때문에 부모교육은 한국어교육과 병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양육 지식, 발달 지식, 양육 기술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

민성혜 등(2011)은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 후 그 효과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개발 의도는 다문화지원센터 내에서 쉽게 활용가능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매뉴얼화 하는 것으로 총 8회기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문화가족 부모 자신 및 유아기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자녀들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과 교육방법 및 환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관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민성혜, 김정은·김리진, 2011, p. 39). 프로그램 개발 시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상과 그림을 활용한 구조화된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였고, 문화적 이질감을 줄이기 위하여 한국 속담과 손쉽게 하는 전통놀이를 중심으로, 강의 보다는 부모가 직접 경험하고 느끼도록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민성혜 외, 2011, p. 41).

- 다문화가족 부모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높여주는 부모교육
- 일상생활 속에서의 자녀 교육을 위한 모의수업 중심
- 효율적인 부모역할 습득을 위한 부모교육
- 교수-학습 방법으로 다양한 창의적 기법 적용
- 현장 적용이 용이한 지도안 형태 제시
-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한 교육

위와 같은 특징은 비단 다문화가정 부모뿐 아니라 모든 부모에게 적용되는 사항들이기는 하지만, 특히 자녀교육을 위한 교육방법을 강조하거나 경험하게 하고 부모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내용들은 개별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유의할 만 하다.

마. 농촌 부모 대상 부모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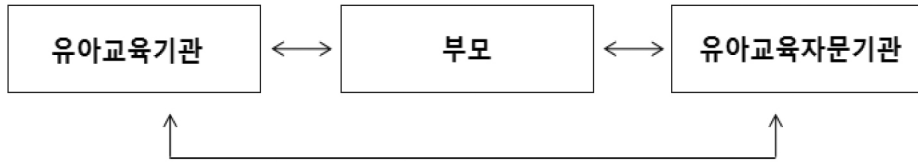
지금까지 시행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대도시 중산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농촌 지역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은 부진한 상태이다. 농촌은 사회, 경제, 문화, 교육적인 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부모교육이나 부모 상담을 더욱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모교육에 대한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최윤정·유가효, 2001). 농촌 부모 교육에 대한 요구는 이숙희(2002)의 연구에서도 공감하고 있다. 농촌 부모들은 장소나 시간, 비용 등의 제약으로 최소한의 부모 상담이나 부모 교육의 기회마저 제공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 현실에서 실제적인 부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의 시급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윤정과 유가효(2001)는 농촌지역사회에 적합한 부모교육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하였다. 연구를 통해서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농촌지역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와 지속성,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등을 알아봄으로써 농촌 부모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부모교육 참여 후의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를 부모 면담 내용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자녀 양육 및 교육 태도의 변화와 자녀 행동의 변화로 나타났다. 부모 교육의 부수적인 효과로는 부부 관계를 비롯한 여러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자기 성장이 있었다. 부모교육 재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으며 농촌사회에 부모교육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저렴한 비용', '농한기를 이용해 알맞은 시간 편성',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장소', '좋은 지역 강사의 확보 또는 홍보를 위해 지명도 있는 명강사 초빙', '사례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알기 쉽고 실천이 용이한 프로그램의 개발', '무엇보다 부모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개혁' 문제들이 선결되기를 요구하였다.

이숙희(2002)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부모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양육 태도와 기술, 아동 발달에 대한 전문적 지식,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한 아동심리의 이해, 다양한 사회 변화 속에 일어나는 가족 문제에 대한 이해, 가정 폭력에 대한 상담 및 예방 등을 펼쳐 나가기 위하여 부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원체제의 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모형은 농촌 지역 유아교육 모형, 농촌 유아상담 모형,

농촌 부모교육 모형이며 특징적인 점은 모형에 유아교육자문기관을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농촌 지역 부모교육 모형은 아래와 같다.



[그림 II-1-1] 농촌지역 부모교육 모형

주: 이숙희(2002). 농촌지역 부모교육 및 상담을 위한 지원모형 개발 연구

유아교육자문기관은 부모나 육아지원기관에 부모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는 육아지원기관이 부모교육을 맡아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농촌에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농촌 부모들은 도시와 달리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센터가 부족하며, 이들 기관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부모 교육의 관점에서 매우 소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농촌 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무엇보다 소득이 낮은 농촌지역에서 부모교육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의 각종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최윤정, 유가효, 2001).

2. 부모교육 교육과정

가.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이해

부모교육 교육과정(Curriculum for Parent Education)이라는 말은 국내에서보다 외국 문헌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 국내 부모교육 문헌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교육 교육과정이란 말보다는 부모교육 프로그램(김영옥, 박성연, 2011; 전정희, 2008, 이승희, 2009)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과정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외국 선행 연구는 부모교육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부모교육 프로그램(parenting program)’과 ‘부모교육 교육과정(parenting curricula, parenting curriculum)’을 혼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내·외에서 부모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명료한 정의를 내리지는 않지만, 부모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기반이 되는 패러다임, 개발 준거, 전달 방법, 평가에 대한 논의가 예비부모, 영유아 부모교육에서부터 청소년 부모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녀의 발달 단계에 부합하는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중요성과 부모교육을 필요로 하는 부모의 선호도, 흥미, 필요에 따라 부모교육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는 연구도 눈여겨 볼 만하다.

2009년에 개최한 ‘부모 교육과 부모 되기’ 국제 학술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parent education and parenting)에서는 미래의 부모교육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기도 하였다(Jacobson와 Seward, 2011). 내용으로는 아버지 참여, 변화하는 가족 구성, 가정 정책, 부모와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정의내리기, 문화적 맥락 안에서의 부모, 이주와 다문화가족, 유아의 건강에 대한 부모의 역할, 청소년기 발달, 부모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부모의 역량, 부모 역량 성장을 위한 여러 도움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변화하는 가족 구성과 관련하여 부모교육의 교육 내용이나 교육 방법 측면에서 부모나 자녀의 요구를 수용하는 일(Heath, 1998)과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아버지의 참여(김정희, 1999; Meyers, 1993)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보통 교육과정의 개념이 넓은 의미에서 교육 행위를 둘러싸고 있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에서부터 교육 계획,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체계를 포함하는 것과 같이 부모교육 교육과정은 부모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 단계인 요구 조사에서부터 내용 선정, 교육 방법, 평가의 과정을 포함하지만, 대다수의 부모교육 교육과정은 부모교육에 담긴 내용만을 지칭한다.

대표적인 영유아 부모대상의 부모교육 교육과정으로 미국 미네소타 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 교육자 및 관리자들이 만든 부모교육 중핵 교육과정 틀과 지표(Parent Education Core Curriculum Framework and indicators)를 들 수 있다. 이 교육과정은 처방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부모교육에서 반드시 가

르쳐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내용 지표 만드는 틀을 제공한다. 교육과정은 영역, 요소, 범주, 지표의 네 수준으로 개발되었다. 가장 높은 수준인 영역 수준에서는 5개의 영역, 1) 부모 성장, 2) 부모와 자녀의 관계, 3) 영유아 발달, 4) 가족 성장, 5) 문화와 지역 사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에 14개의 요소와 64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나. 부모교육 교육과정 패러다임

부모교육 교육과정에 접근하는 여러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교육과정에 대한 관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부모교육 교육과정이라는 개념이 부모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나 실제에서 교육과정의 개념으로 여전히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Miller와 Seller가 구분한 세 가지 관점과 실천적 문제 중심의 교육과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여러 교육과정 이론 및 실제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봄으로써 부모교육 교육과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 볼 수 있다.

1)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

교육과정을 구분하는 기준은 학자마다 상이하지만 Thomas와 Footrakoon (1998)은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 Miller 와 Seller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Miller와 Seller는 교육과정을 전수(transmission), 교류(transaction), 변혁(transformation)이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제시하였다. 세 가지 관점은 여러 영역에 대한 다른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표 II-2-1>와 같다.

〈표 II-2-1〉 전수, 교류, 변혁 교육과정 비교

	전수 교육과정	교류 교육과정	변혁 교육과정
교육 대상	학습자	전인이면서도 학습자	전인
교육 방법	교육자의 통제	교육자의 통제와 학습자의 주도	학습자의 주도
교육 내용	공적인 지식	개인적인 지식(지식의 탐색과 증명 과정에서 사용됨)과 공적인 지식	개인적인 지식(공적인 지식을 걸러내는 체의 역할을 함)과 공적인 지식
지식의 성격	내용으로서의 지식	과정으로서의 지식	과정으로서의 지식

(표 II-2-1 계속)

	전수 교육과정	교류 교육과정	변혁 교육과정
동기 부여	외부적 동기 부여	내부적 동기 부여	내부적 동기 부여
학습의 관점	학습은 분열적임	학습은 분열적이지도 않으며 통합적이지도 않음	학습은 통합적임
학습자에 대한 관점	각 학습자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음	각 학습자는 서로 다르며,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음	각 학습자는 서로 다르며,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음
학습과정에 대한 관점	학습은 개인적임	학습은 사회적이면서 개인적임	학습은 사회적이면서 개인적임

첫째, 전수 교육과정은 행동주의에 기반을 둔 관점으로 교육과정의 목적은 지식, 태도, 기술 등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이를 전달해주는 것이다. 교육자는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 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학습자는 이러한 지식, 태도, 기술 등이 모자람을 진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수 교육과정은 필요한 영역의 기술이나 지식의 영역을 진단하고, 교육자가 학습자에게 무엇을 강의하고, 보여주고, 혹은 제공하는지를 결정하는 작업이다. 교육과정은 작은 단위나 토픽 중심으로 조직되며, 계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학습자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전 단계를 이수해야한다는 관점을 지니기도 한다. 교육과정의 평가는 학습자가 미리 정해놓은 교육과정의 내용을 얼마나 이수하였는가에 따라 이루어진다(Thomas & Footrakoon, 1998).

둘째, 교류 교육과정은 존 듀이의 교육적 철학과 발달 이론에 바탕을 둔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의 목적은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으며, 지식은 각 학습자가 주위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각 학습자의 경험이나 이해도, 요구, 동기들은 학습자가 배우는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학습은 하나의 탐구 과정으로 학습자와 교육자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함께 참여하는 과정으로 인식된다(Thomas & Footrakoon, 1998).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수 교육과정에서 교육 내용이 미리 정해져 있고, 교육 방법이 기계적이었던 것에 반해 교류 교육과정은 학습의 과정이나 학습자와 교육자의 상호작용이나 학습의 사회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셋째, 변혁 교육과정은 포스트모더니즘적이거나 생태학적인 관점, 사회 재건주의와 같은 관점을 취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목표는 개인의 직관이나 통찰의 계발, 지역사회의 활성화, 불의에 대한 저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변혁 교육과정

내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배하고 있는 규칙이나 구조, 규범들을 문제시하기 때문에, 몇몇의 개인들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이 규칙이나 구조, 규범을 변화시키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Thomas & Footrakoon, 1998). 변혁 교육과정 내에서는 공적인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지식이라는 체를 통해서 걸러지는 작업을 통하며, 학습자의 주도권이 강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변혁 교육과정은 앞서 논의한 전수 교육과정, 교류 교육과정에 비해서 개인의 역량이나 주관에 의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라는 점은 두 교육과정과 차별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Thomas와 Footrakoon이 Miller와 Seller가 사용한 세 가지 관점으로 교육과정을 구분한 데 반하여, 채정현(2006)은 부모교육 교육과정을 위해서 실천적 문제 중심의 교육과정 패러다임을 고찰하였다. 기존의 교육과정 패러다임이 특정 이론이나 명제를 제시한 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나 연습으로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에 착안하여 실천적 문제 중심의 교육과정이 지니고 있는 강점을 밝혔다.

실천적 문제 중심의 패러다임은 기존의 패러다임과 학습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난다. 실천적 문제 중심의 패러다임에서는 먼저 문제를 제시하거나 정의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출발점으로 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기존 패러다임에서는 경험의 단계가 생략되고 ‘일반화/객관화’의 단계에서부터 학습이 시작되기에 학습자 자신의 개인적 의미와 관련성이 있는 주제보다도 교육과정 개발자나 교사에게 의미있고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한다(p. 33).

채정현(2006)은 실천적 문제 중심의 교육과정을 Gadamar의 ‘실천’의 개념을 해석학적으로 이해하고, 학습자의 지식과 경험을 출발점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자아성찰과 토의를 통해 갖게 된 지식은 객관화/일반화되어 실제 유사한 상황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실천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교육과정이 과정으로서의 지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교류 및 변혁 교육과정과 유사한 면이 있으며 학습자의 경험과 맥락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변혁 교육과정과 유사하기도 하다.

2) 부모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관점

앞서 Miller와 Seller의 교육과정에 대한 세 가지 관점과 채정현이 제시한 실천적 문제 중심의 교육과정을 설명하였다. 이는 부모교육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에 바탕이 되어, 본 연구인 부모 특성별 부모교육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틀을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된다.

Thomas와 Footrakoon(1998)은 다수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전수 교육과정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예를 들면 P.E.T나 S.T.E.P과 같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특정한 양육 기술, 자신 혹은 자녀, 자녀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상호작용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며, 이러한 기술, 지식, 태도들은 부모의 자녀 양육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간주된다. 전수 교육과정을 설명한 부분에서 보았듯이, 학습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기술, 지식, 태도의 습득을 강조하기 때문에 부모교육에 담기는 내용에 관심을 가진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러한 내용이 부모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되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실천적 문제 중심의 부모교육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다. 교육과정 개발자에게 의미 있고 관심 있는 주제들로 구성되어진 부모교육의 내용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전수 교육과정에서는 부모교육의 평가가 부모의 사회적인 맥락을 고려하고 장기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보다는, 부모교육 내용을 이수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요약하자면, 전수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부모교육 교육과정은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 평가의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거나 교육의 방법이 기계적일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교류 교육과정의 관점을 가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Reflective Dialogue Parent Education Design(RDPED)을 들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전수 교육과정의 주된 방법인 강의나 시범 보여주기 형식을 벗어나 부모가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근본적인 역할에 대해서 고민한다. 가르칠 내용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반성적인 대화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하고자 한다. 이에 교육내용은 내용으로서의 지식보다는 과정으로서의 지식이 되며, 부모교육 교육과정은 부모가 흥미를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부모는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나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고, 이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들을 잘 조정해 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전수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부모 교육과정이 부모의 모자라는 점을 채워주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교류 교육과정 관점의 부모교육 교육과정은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것이며, 부모의 학습은 자기주도적으로 더욱 강화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Thomas & Footrakoon, 1998).

변혁 교육과정에 바탕을 둔 부모교육 교육과정으로 Oregon Secondary

Practical Reasoning Preant Education Curriculum(PRPE)와 Family Matters Curriculum(FM)을 들 수 있다. 두 부모 교육과정 모두 가족이 처한 상황적 맥락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PRPE는 오레곤 주의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만든 부모교육 교육과정으로 실제로 부모가 직면하는 문제들이 시·공간이나 부모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FM의 주된 목적은 부모교육을 통해서 가족이 속해있는 맥락적 상황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두 부모교육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지식으로 간주되는 것은 전문가의 이론이 아니라 세대 간의 공감이나 지역사회 안에서의 네트워크, 자신들이 속한 문화 내에서 찾을 수 있다(Thomas & Footrakoon, 1998). 변혁 교육과정 관점의 부모교육 교육과정은 부모와 자녀의 상황적 맥락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부모교육 교육과정과 차별화되지만 유아를 위한 부모교육 교육과정보다는 청소년을 위한 부모교육 교육과정으로 더욱 추천할 만하다.

실천적 문제 중심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부모준비 교육을 위한 내용이 주로 영유아를 양육하는 방법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담은 내용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이러한 지식위주의 학습은 학습자의 의식을 깨워서 부모 교육의 효과를 얻기에는 부족한 것이었다. 본 프로그램 내용은 29차시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숙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나는 성숙한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가?”, “나는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나는 자녀를 교육하는 것과 관련된 한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의 하위 실천 문제를 가지고 있다(채정현, 2006). 다음의 표는 이러한 실천적 문제를 지니고 있는 부모 교육의 학습 내용을 보여준다.

〈표 II-2-2〉 실천적 접근 방식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예시

학습주제	학습내용
부모됨의 의미 (7차시)	- 가족의 의미 - 부모됨 - 사람들은 왜 부모가 되려고 하는가? - 부모됨의 책임 - 부모됨 교육의 필요성 - 부모됨에 대한 생각
가족문제와 사회문제의 이해 (4차시)	- 가족과 사회현상과의 관계 - 일과 가족 생활의 조화 - 양성평등 사회에서의 부모의 리더쉽 - 타인과의 관계

지금까지 Miller와 Seller가 분류한 전수, 교류, 변혁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부모교육 교육과정과 채정현에 의해 소개된 실천적 문제 중심의 부모교육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네 가지 부모교육의 모습을 종합해보면, 전수 교육과정 중심의 부모교육 교육과정은 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항목이 명확하고, 가르치는 모습에서도 명확한 계열성이 드러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류 교육과정 중심의 부모교육 교육과정은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하는 과정에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변혁 교육과정 중심의 부모교육 교육과정은 부모교육에서 도외시되었던 부모와 자녀의 상황적 맥락과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채정현이 소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부모교육 프로그램이지만 양육의 방법을 벗어나 부모됨이나 삶에 대한 철학적 고민과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데에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

네 가지 형태의 부모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이 다른 철학적,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배타적인 부모교육 형태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부모교육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해서 각 형태의 장점과 단점을 취한다면 한국 사회에 적절한 영유아기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부모교육 교육과정은 영유아 부모 특성에 따른 부모교육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 특성별 교육내용을 선정하는데 있어 전수 교육과정의 형태를 취하면서 교류 교육과정의 상호작용 측면이나 변혁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부모와 자녀의 상황적 맥락에 대한 중요성, 실천적 부모교육의 실천적 문제 중심의 부모 교육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한다.

3. 실태 및 정책 분야 선행 연구

부모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바, 3가지 정도의 범주로 크게 구분이 될 수 있었다. 그것은 부모교육 실시 실태에 관한 연구,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부모교육 개선 방안 등으로, 각각의 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부모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김희진(2002)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및 계획,

실행, 평가 현황을 파악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60개 사립 유치원의 원장 또는 교사로, 설문조사와 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아교육기관과 가정과의 관계는 일방향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었고, 부모교육을 위한 계획과 지원체계도 미흡하였다. 유아교육기관에서 다양한 부모 교육 활동을 실행하려는 노력은 있었으나 부모의 요구와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체계적인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조사를 실시한 모든 유치원에서 연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학기초에 대부분 계획하고 있었으며, 부모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주로 원장(60%)이었다. 부모요구도 조사를 실시하는 곳은 11개(18.3%)에 불과하였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획에 반영을 하는 부분은 교육을 실시하는 시간과 요일정도로 국한되어 있었으며, 교육내용을 결정 할때는 부모들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회 조직이 운영 되는 유치는 8곳(13.3%)뿐이었으며, 정기적으로 부모회 임원끼리 회의를 하거나 유치원과 협의회를 하는 곳은 1곳에 불과했다. 신입부모 오리엔테이션, 면담, 정보제공, 행사참여, 자원지원은 모든 유치가 실시하고 있었지만, 수업참관(단순3.3%, 기록1.7%), 워크숍(15%), 기타 자원봉사(45%)는 상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유치가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혜린과 김희진(2003)의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의 질적 환경에 따라 부모참여 계획과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유치원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선정된 23곳 기관을 연구자와 훈련된 관찰자 2명이 방문하여 유아교육환경 평가척도를 측정하였으며, 이후 30%를 기준으로 질적 수준이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 17곳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기관에 재직 중인 교사 17명, 학부모 3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부모참여 요청에 있어서 질이 높은 기관에서는 기관과 부모의 인식에서 차이가 없었지만 질이 낮은 기관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즉 부모참여 희망 내용 및 일시조사, 기관의 부모참여 활동의 참여 및 협조 요청 등을 기관에서는 실시하고 있다고 인식한 반면, 학부모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차이를 보였다. 둘째 가정과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부모참여 계획과 활동의 실시에 있어서는 기관의 질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효과는 질이 높은 기관에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과의 연계를 위한 조직 및 지원방안은 기관의 질에 있어 차이를 보였는데, 질적 환경이 높은 기관이 부모회 및 임원회 조직구성과 부모참여를 위한 기관의 도움제공에 관한 만

족도가 높고, 다양하고 양질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 넷째 가정이 기관을 지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질이 높은 기관에서 부모가 유용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된 정보의 활용도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있었으며, 부모와 교사간 상호작용이 양방향 적이며 따뜻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황혜자와 김향숙(2004)의 연구에서는 유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교육방법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참여 및 인식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Y 유치원 학부모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133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치원 정기모임에 참석하는 학부모는 71%, 자녀에 대해서 교사와 의견교환을 위한 면담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는 85%로 나타났다. 부모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해 부모들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42.6%로 가장 많았으며, 유치원의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이유는 '자녀교육에 관해 알기 위해서' 라는 응답이 96.2%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47.7%의 학부모가 가정, 가정교육과 유치원 교육은 대등한 관계라고 보고 있었으며 자녀의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모의 사랑(55.3%), 가정환경(31.5%)순으로 나타났다.

나종혜 등(2005)은 유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교육의 실태와 요구를 살펴보기 위해 대전에 위치한 유치원 원장 59명, 교사 186명과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어머니 179명, 아버지 1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교육 방법은 주로 부모통신문 등을 활용한 비교적 소극적인 형태였으며, 그 밖에 1년에 2-3회 정도 부모참여 프로그램과 개별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특강형태의 부모교육도 한 학기에 1-2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참여율이 낮아 유치원 중심의 일방적인 교육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다. 특강은 주로 교실이나 강당을 이용하여 원장이나 교사회의를 통해 결정된 유아의 발달이나 교육방법, 부모역할을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강을 실시하기 어려운 이유는 원장과 교사 입장에서는 부모의 낮은 참여율 때문이었으며 부모들 입장에서는 참여할 시간이 부족한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어 다소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미향 등(2005)은 서울 및 경인지역에 위치한 유치원과 보육시설 교사 3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65%이었으며, 그 중 재정적·공간적·시간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의 77.3%로 나타났다. 교육을 실시하는 횟수를 살펴보면, 부모회, 가정통

신문, 행사/수업 보조의 경우 1년에 3-5회(58.8%) 실시하고 있었으며, 상담(면담, 전화), 수업참여/참관, 교구제작 참여, 도서/교구 대여는 1년에 1-2회 혹은 3-5회(42.0%)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연회, 워크숍,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44.2%)이 절반가량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부모교육을 실시할 때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건강 및 위생영역(기본생활습관, 유아 성장발달, 건강/안전/위생, 유아 성교육지도), 사회성영역(유아 인성지도, 또래관계지도, 부모역할과 양육방법지도)이 9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인지영역(유아 학습지도, 유아재능지도, 교재, 교구 제작)이 74.5%로 나타났다. 정지영 등(2007)은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들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고, 운영의 보완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시군구 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 안내 메뉴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총 44개 센터의 871개였다. 그 결과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 부모교육이 35.2%로 가장 많이 수행되고 있었다. 특히 2007년에 일괄적으로 계획되어진 4개의 교육프로그램(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예비부부 및 신혼기 부부 참여집단 프로그램, 한 부모 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 프로그램,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생활프로그램) 중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이었다. 교육내용은 부모교육(84개), 부모자녀 대화법(5개), 찾아가는 부모교육(66개), 아버지교육(26개), 찾아가는 아버지교육(43개), 어머니교육(7개), 부모역할훈련(2개), 자녀교육 및 이해(9개) 등으로 297개의 프로그램이 있었다(35.2%). 부모교육 중 일부 프로그램들(35개, 12%)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구성하였고 주로 부모-자녀 대화법과 관계향상 기법, 자녀교육관 정립, 자녀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들(교육, 공부, 세대차이, 리더십 등) 및 부모역할훈련, 예비(학)부모 대상 교육 등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심리검사를 이용한 MBTI 워크숍, PET 부모교육 훈련 등 상담과 통합된 프로그램들도 시행되고 있었다.

임진아와 오재연(2008)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앞둔 유아기(만 5세 유아로 한정) 부모들의 가정, 기관, 기관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참여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활동과 부모들의 생태학적 변인들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주와 전남에 위치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적 수준의 집단이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기관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관에 재원하고 있는 만 5세 유아의 아버지와 어머니 156쌍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 집단의 부모 참여활동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기관이나 기관외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참여율은 어머니 집단이 아버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난 반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참여활동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참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취업상태,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나 교육열, 직장만족도, 유치원만족도 순이었으며, 어머니의 변인은 유치원만족도, 교육열, 부모의 학력, 기관유형, 취업상태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2)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에 관한 연구

이원영 등(2000)은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어머니들의 요구를 파악하고자 만 5세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어머니 1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주길 원하는 내용은 유아들의 표현능력 및 사회정서 발달, 유아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이나 사회·정서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교육방법, 자녀와의 효과적인 대화, 문제행동지도, 특기교육 선택, 칭찬하거나 벌주기, 나쁜 습관 고치기, 좋은 책 선택, 바람직한 행동의 모델 보여주기, 성폭력이나 유괴로부터의 안전지도, 유아들의 정신건강,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 등이었다.

정문자 등(2000)은 저소득층 어머니와 어린이집 교사들의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인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52명, 원아의 어머니 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들이 바라는 부모교육 내용은 자녀발달의 기초 지식과 의사소통, 잘못된 행동의 효과적인 지도 방법이었으며, 자녀발달에 대한 내용 중에서는 ‘창의성 발달’을 도모하는 방법, ‘성교육’과 ‘인지발달’, ‘호기심 유발시키는 방법’, ‘자녀의 나쁜 습관과 행동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특히 학부모와 교사들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은 ‘사회성발달’, ‘창의성발달’, ‘부모가 모범이 되는 말과 행동 보이기’ 인 반면, 교사들보다 학부모들이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교육내용은 ‘인지발달’, ‘동화 들려주기’, ‘부모의 정신건강’, ‘부모의 여가활동 정보와 직업교육’ 등으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김지신 등(2008), 도현심 등(2008), 김상희(2008)의 연구에서는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부모교육의 운영과 내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

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연구결과들이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90%가 넘는 어머니들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남편과 함께 참여하길 원하는 경우도 80%이상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여하기 가장 용이한 시간을 알아본 결과는 어머니 혼자 참여할 경우에는 주중 오전을, 부부가 함께 참여하길 원하는 시간대는 주말 오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호하는 교육시간은 1시간, 교육기간은 6회기, 적정 수강인원은 10명으로 나타났다. 교육 시 다루어 주길 바라는 내용은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 영아기 아동의 발달, 아동의 건강, 영양 및 안전관리, 그리고 영아기 아동을 위한 자녀양육 정보의 순으로 나타났다.

3) 부모교육의 개선에 대한 방안 연구

이현섭(1997)은 경남에 소재한 국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 150명, 학부모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여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학부모들이 안정적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학부모들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유아교육기관이나 지역대학이 적극적으로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셋째, 이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치료적 차원의 교육뿐만 아니라 예비부모를 위한 예방차원의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강연 위주의 피상적이고 수동적인 교육이 아닌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져 부모의 인식이나 행동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어머니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여섯째, 사회적·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실시, 장소의 협찬 및 예산의 지원을 위해 사회적·국가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박성연 등(2003)은 바람직한 미래 부모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미래 부모교육에서는 참여하는 부모들의 사회 문화적 맥락과 그들의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맞벌이가정이 많아지면서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모들을 위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사이버 교육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셋째, 부모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교육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과 심각한 문제를 가진 부모와 가족은 상담과정을 병행하는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넷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가족 모두가 참여하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기능적이고 건강한 가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목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임오숙(2003)은 광주시에 위치한 7개의 어린이집 학부모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모교육 시간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오전 9시-12시나 맞벌이 부모들도 참여가 가능한 오후 6시 이후, 주말을 활용한 교육을 계획하여 부모들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참여가 불가능한 부모들에게는 어린이집 홈페이지를 이용하게 하는 것과 가정통신문을 이용하여 학부모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둘째, 1년의 계획을 세우는 시기부터 부모들의 요구와 의견을 조사하여 학부모들이 원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셋째, 부모교육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검증된 프로그램과 전문 강사 활용, 부모교육 수료증 수여, 아버지들의 부모교육 참여 독려 등 부모를 동기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체계적인 부모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있다.

Ⅲ. 외국의 부모교육 정책

본 장에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부모교육 관련 제도를 선구적으로 수립하고 활발히 진행해가고 있는 미국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의 부모교육 부분은 공동연구진인 Walker 교수가 집필한 것을 번역한 원고이고, 싱가포르는 연구진이 해외 출장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1. 미국의 부모 교육

미국에 있어 강한 가족은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부모와 보호자가 양육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할 때는 자녀를 양육하기가 쉽지 않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더욱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다(Hart Research Associates, 2009). 첫 아이를 집에 데려오는 일이나 어린 자녀에게 읽기를 가르치는 일과 같은 전통적인 쟁점에서부터 실직 시기 동안 가정생활을 관리하거나 10대의 문자 메시지 전송 행동의 영향에 대한 이해와 같은 당대의 관심사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부모는 부모교육과 지식, 경험 및 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행히 미국에는 사회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부모교육 전문가와 조직적이고 국제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잘 갖추어져 있다. Carter와 Khan(1996)은 20세기 말까지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5만회 실시된 것으로 추산한다.

전국부모교육네트워크(the National Parenting Education Network: NPEN)의 비전은 미국 부모 교육의 질적 표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여 가족을 강화하고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장려한다(NPEN 핵심 원리, para.1).” 이는 부모와 가족은 자녀와 함께 부모교육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

1) ‘양육 교육’과 ‘부모 교육’이 문헌에서 사용되지만, 본 장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차적 책임이 있는 보호자를 의미하고 대다수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양육’의 개념에 포함되는 지식과 기술,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점을 인정하여 ‘부모 교육’을 사용한다.

이며 양육이 일어나는 맥락을 중시하고 학습자의 요구와 역량을 존중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촉진시킨다. 부모교육은 광의의 가족 지원과 구분되는 한편 통합적 이기도 하다(Campbell & Palm, 2003; Staton, Ooms, & Owen, 1991; Weissbourd, 1987). 또한 교육에 역점을 두며 가족서비스나 가족치료와 구분되는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Doherty, 1995; Myers-Walls, Ballard, Darling, & Myers-Bowman, 2011).

실제로 미국의 부모교육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부모교육은 다양한 형식과 장소, 방법으로 제공되고, 정부와 비영리 또는 상업 조직과 개인에 의해 후원 및 이행되고 있다. 대상 부모는 자녀의 연령(출산 전부터 청년), 가족 전환기, 부모 유형(예: 아버지, 한부모), 부모의 요구나 위험 상태에 있어서 다양하다. 부모교육을 전달하는 주체도 훈련, 경험 그리고 직업이 천차만별이다. 즉, 미국에서 전달되는 부모교육은 유연하고 분권화된 시스템으로 가족 고유의 학습 및 지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접근방식을 통해 가족 문제를 다룬다(Goddard, Myers-Walls, & Lee, 2004).

본 절은 미국 부모교육의 현황에 대한 개요이다. 먼저 미국 부모교육의 연혁을 간략하게 훑어보고 프로그램 선택 및 개발의 토대가 되는 이론적 모델과 개념적 틀을 검토한다. 또한 최근에 포함된 정보통신기술(ICT) 애플리케이션에 유의하여 부모교육 대상의 구체적인 특성과 독립적이면서 기존 방식의 보완이기도 한 방식을 검토할 것이다. 덧붙여 증거 기반 실행과 경제적 영향의 현대적 분석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학문적인 준비와 인식을 통해 부모교육 전문가의 자질을 양성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살펴볼 것이다.

가. 미국 부모교육의 토대와 전망

기록된 역사가 2세기에 이르는 미국의 부모교육은 미국의 정치적, 인구학적, 경제적, 최근의 기술적 상태를 반영한다. 아울러 아동 발달, 부모의 역할, 그리고 여성과 가족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여러 개념과 연구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Carter & Khan, 1996; Powell & Cassidy, 2001; Stolz, 2010). 여성들이 교회에 모여 종교적 신념을 토대로 효과적인 훈육 방법을 의논하던 1800년대 초부터 Benjamin Spock의 「아기와 보육」(1946년 발간된 이래 25년간 베스트셀러였다)의 인기, 1960년대 Head Start와 1990년대 빈곤층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된

Healthy Families 가정방문 프로그램, 국내 인구 및 가족 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부모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국내 가족의 요구에 부응해 왔다.

현재 부모교육과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국내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증시에 의해 입증되듯이 더욱 가중되었다. 지난 5년간 전체 아동의 약 3분의 1은 한부모 가정이나 정규직 부모가 없는 가족이며 5분의 1은 아직도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 10대 출산율은 1000명당 약 41명으로 변함이 없었다(Kids Count Data Center, 2011). 아동 학대율은 경기침체에 따라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Brown, 2011).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추이는 가족 지원 전략인 부모교육의 입지가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20년간 이루어진 기술 혁명과 부모, 아동, 가족의 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기술 사용의 증가(Daneback & Plantin, 2008)로 인해 부모 교육자는 효율적이고 반응적이며 한편으로는 의도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기술을 실무에 통합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Fiore, 2008; Walker, 2010). 새로운 연구 방법은 부모가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예: Rothbaum, Martland, & Janssen, 2008; Walker, Dworkin, & Connell, 2011)을 연구하며, 온라인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시작했다(예: Cullen & Thompson, 2008).

통합 학습 원리에 대한 현대 신경과학 연구가 제시하는 교육 설계 원리(Bransford, Brown, & Cocking, 2000)는 부모교육 모범사례에 내포되어 있다. 즉, 좋은 부모교육은 좋은 교육이다. 대학교 프로그램은 공동체 중심의 학습 환경을 장려하고, 학습자가 의미를 찾고 새로운 지식을 구축하도록 장려하는 차별화된 환경(학습자 중심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 이해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커리큘럼 전반에 걸쳐 내용과 학습 활동을 구성하고(지식 중심 학습), 부모의 발달을 위해 반성 기회를 비롯한 기타 평가 중심의 방식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전문가를 훈련하고 있다(Walker, Cline, & Cooke, 2010).

미국 부모교육의 미래는 '성취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부모교육의 공적 가치에 호소하는 새롭고 중요한 의견에 의해서도 지지를 받는다. 뉴욕대학교 교육학 교수 Diane Ravitch와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James Heckman은 학교 중심 사업을 통해 진행된 학교의 성공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규모 노력은 부모, 양육, 가족의 맥락이 조기 학습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했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Ravitch(2011)는 “가정과 소

득이 안정된 가족의 아동이 영양상태가 양호하고 건강하며 학습 준비도를 갖춘 상태로 입학하면 교육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Heckman (2011)은 아동의 학습 및 발달에 대한 양육 기술과 개입에 대해 부모에게 직접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양육을 보장하는 어머니 교육, 가족 소득, 고용에 대한 간접 지원을 제공하는 양육 지원에 역점을 두고 조기 투자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질의 양육은 진정한 풍요의 척도라고도 하였다.

국립복지사업의회 가족강화정책센터(FSPC, 2007)는 아동 발달에 영향을 주기 위한 3대 공공 투자 분야, 즉 가족을 위한 공동체 환경 강화, 양육 지원 및 강화, 아동 및 가족 자산 구축을 발표했다. 이와 같이 체계적이며 가족과 부모 중심의 조기 예방 전략을 채택할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의지의 유무는 때가 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부모교육의 지속적인 추진과 부모의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미국 부모교육의 강력한 토대가 된다.

나. 미국 부모교육의 관점

미국 부모교육의 근간이 되는 가정(assumption)은 전문가들이 농무부 협력지도국과 함께 전국확대부모교육모델(NEPEM)에 표명한 가정을 포함하고 있다 (Smith, Cudaback, Goddard, & Myers-Walls, 1994).

프로그램 내용 및 대상과 관련하여

- 부모는 자녀를 일차적으로 사회화하는 사람이다.
- 부모의 태도, 지식, 기술, 행동은 부모교육 노력에 의해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부모뿐 아니라 자녀의 요구도 충족되어야 한다.
- 부모-자녀 관계는 여러 사회적·문화적 체계 안에 있으며 이들의 영향을 받는다.
- 양육은 교육과 경험을 통해 강화할 수 있는 학습된 능력이다.
- 부모교육의 목표는 부모(보호자)가 타인을 배려함과 동시에 유능하며 건강한 자녀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들을 강화 및 교육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전달과 관련하여

- 부모 교육은 부모가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기여할 때 효과가 배가 된다.

- 프로그램은 부모의 다양성에 부응해야 한다.
- 효과적인 부모교육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McGroder와 Hyer(2009)는 “일부 부모는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부모가 되기 위한 능력에 지장을 주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필요한 지원, 능력부여, 서비스 의뢰가 필요하다”고 첨언한다(p.12).

1) 부모교육의 개념적·이론적 근거

프로그램의 설계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커리큘럼 가이드는 이러한 가정을 사용하며 효과적인 양육의 원칙을 설명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앞서 언급한 전국확대부모교육모델(NEPEM, Smith et al., 1994)과 미네소타주 부모교육핵심커리큘럼체계와 지표(Minnesota's Parent Education Core Curriculum Framework and Indicators: PECCFI, Early Childhood Family Education Curriculum Committee, 2011)가 있다. NEPEM은 최적의 양육을 위한 6개의 기술 범주를 29개의 구체적인 양육 실재와 함께 제시한다. 6개의 범주는 부모자신에 대한 교육과 5개 양육 분야이며 5개 양육 분야는 자녀의 이해(즉, 자녀의 발달적 요구와 특수성), 지도, 양육, 동기화, 지지이다. 부모 교육자는 바람직한 기준이 포함되는 교과과정을 선택하거나 교육적 성과로 실재를 이용하여 자체적인 커리큘럼을 설계할 수 있다. 프로그램 계획 과정에 도움이 되는 상세한 사례는 PECCFI로, 이는 공립학군이 지원하는 부모 및 조기 교육 프로그램인 유아가족교육(ECFE) 프로그램으로 전문가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다(Minnesota Department of Education, 2008). PECCFI는 6개 분야의 양육 또는 가족 장점 지표를 포함한다: 부모 발달, 부모-자녀 관계, 아동 발달, 가족 발달, 문화, 지역 사회. 포괄적인 계획 틀은 교육 방법과 자원에 대한 아이디어 - 부모-자녀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아이디어, 자녀 발달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 - 의 포함을 촉진한다.

자녀 발달에 미치는 양육 효과에 대한 이론적 관점과 연구는 오랫동안 부모와 전문가 신념을 좌우해 왔으며,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토대로 작용하고 전문가의 커리큘럼 선택을 좌우해 왔다(Goddard, Myers-Walls, & Lee, 2004; Powell & Cassidy, 2001). Arnold Gesell, Alfred Adler, Carl Rogers, Selma Freiberg, Erik Erikson, Haim Ginott, John Bowlby와 같이 20세기 주요 연구자들의 작업은 지금까지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토대가 되고 있지만, 일부 관점은 더욱 두드

러지고 일부 관점은 대중성이 약화되었다(예: 행동주의). 주요 관점에는 의사소통과 민주적인 양육 원칙을 강조하는 Adlerian 접근방식(예: Baumrind, 1971, Driekurs, 1964)과 부모-자녀의 유대를 강조하는 Bowlby(1969)의 애착 이론(예: Egeland & Erickson, 2004), 아동발달의 이해(예: Spock, 1977), 정서적 성숙, 책임, 공감을 중시하는 인본주의적 관점(예: Ginott, 1965)이 포함된다. Goddard와 그의 동료들(2004)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토대가 되는 다양한 관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Adlerian 관점이 STEP(Dinkmeyer & McKay, 1976) 및 PET²(Gordon, 1975)와 같이 대중적으로 폭넓게 사용된 짜여진 커리큘럼에 지배적었으나 모든 부모와 자녀에게 항상 적용되는 단일한 모델이나 시스템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부모 교육자가 이러한 차이를 검토하고 프로그램의 목표와 부모의 목표를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인간발달에 대한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관점은 구체적인 양육 과정이나 기술을 제시하는 이론은 아니지만 대다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 관점은 부모, 자녀, 가족 간의 양방향 상호작용과 이들이 거주하는 환경은 자녀의 발달과 양육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맥락적 관점은 목표 설정, 가정에서부터 평가 고려사항에 이르기까지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부모교육의 대상과 중점 내용

미국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그 '범위'에 포함되는 대상과 위치, 형식, 내용별로 폭넓게 분류되었다(Carter & Kahn, 1996). 추가 설명(OJJDP, 1999)은 프로그램을 주로 지원적인지, 문제를 예방하려고 하거나 치료적인지를 각각 나타내는 보편적(일반적), 선택적(고위험상태인), 특정한(위기에 있는) 인구에 대한 실행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보편적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은 일반적인 아동 연령과 발달 단계(예: 유아기), 가족 문화, 가족 생활의 복잡한 문제(예: 이혼, 입양, 직장, 군대)와 관계된다. 이어지는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고위험상태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은 일반적으로 장기교육이며 가족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종합 프로그램에 통합된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전달 방식과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전달 방법은

2) 한 주에서 부모 교육자의 절반 이상은 이와 같은 공인 커리큘럼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NYSPEP, 2008).

일대일, 집단, 일대다수, 웹사이트(예: [www.Parenting 24/7.org](http://www.Parenting24/7.org))를 포함하는 미디어 중심 접근방식, 전반적인 교육 프로그램(Feil et al., 2010)이 될 수 있다. 프로그램은 단일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흔히 대상과 결과 요구에 맞게 일대일, 집단 방식을 혼용한다. 예를 들어 Parents as Teachers: Born to Learn 프로그램에는 가정방문과 집단, 아동 발달 검사, 가족을 위한 자원 네트워크가 포함된다.

가) 보편적 교육

(1) 영아부터 청소년기까지 양육

출산전부터 5세 아동의 부모는 의심할 여지없이 부모교육의 주요 대상이다. 병원을 통한 전문적인 영아 관리 프로그램(일반적으로 영아 안전을 비롯하여 수주간 소요되는 주1회 수업), 가정 방문, 자녀-부모 조기 학습 및 발달 프로그램(예: Head Start), 중점을 두는 것이 있는 프로그램(예: 사회정서 발달을 강조하는 Parenting Counts), 가족 문화를 특히 중시하는 프로그램(예: Effective Black Parenting, Center for Improvement of Child Caring), 미디어가 여기에 포함된다. Text4Baby(<http://www.cdc.gov/features/text4baby/>)는 2010년 연방정부에 의해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현재 임신부 20만명에게 주 3회 임신 건강과 영아 양육에 관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조화된 교육의 노력은 수백 권의 양육 서적과 미국 부모(주로 어머니)가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Walker, 2010)와 부모가 특히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비공식적인 출처(Hart Research Associates, 2009)를 보완하는 것이다.

6세 이상된 아동의 부모에게 제공되는 조직적인 프로그램은 거의 없으며 숙제 돕기, 따돌림, 방과후 프로그램 선택과 같은 주제에 대해서 학교나 관련 조직(예: Parent Teacher Association)에서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은 신체 발달과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역동적인 변화를 맞게 되며,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전문적인 Search Institute와 같은 기관은 프로그램과 자료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는 대부분 부모-자녀 관계의 유지, 부모가 발달상의 변화를 이해 및 지원하는 것 돕기, 청소년 범죄와 약물 남용 방지에 대한 것이다(Kaftarian & Kumpfer, 2000).

(2) 부모와 보호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

이혼이나 별거, 입양, 입영과 같은 전환기에 있는 가족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하는 지원을 제공한다. 이혼의 경우, 단기 프로그

램(예: Parents Forever, University of Minnesota)에 양친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주와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표는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협력적인 양육을 조장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데 있다(Bacon & McKenzie, 2004).

아울러 특별한 위기에 처하거나 특별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여기에는 자신을 부모교육에서 전통적으로 언급되는 부모로 생각하지 않으나 미국에서 아동의 일차 양육자로 그 수가 증가추세에 있는 아버지, 한부모, 게이/레즈비언/양성애자/성전환 부모,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가 포함된다.

연방에서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은 한 부모나 양친이 군대에 복무하는 가족이 안고 있는 스트레스, 빈번한 이사, 제대 후 재정착을 다룬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수감 부모를 위한 양육 프로그램은 부모가 복역하는 경우 자녀, 가족, 사회 재진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저지하는데 주안점을 둔다(Parke & Clarke Stewart, 2001). 미국의 대다수 가족이 안고 있는 규범적 스트레스는 직장과 가족생활과의 양립이다(Hart Research Associates, 2009). 직장내 프로그램, 시간 관리와 가족 간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는 양육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다(예: Working Parent Resource, <http://www.workingfam.org/>).

(3) 의료 및 교육

특정 부모교육 시도는 아동의 건강이나 행동 문제를 다루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최근 사례에는 비만 예방이 포함된다(예: Cullen & Thompson, 2008). 특별한 요구가 있는 자녀의 부모에 대해서는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예: Keen, Couzens, Muspratt, & Rodger, 2010). 학업성취는 또 다른 목표이다. Head Start와 같은 프로그램은 아동의 초기 언어능력, 학교 준비도를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둘 수 있으며 나이 많은 아동의 경우 FAST와 같은 프로그램은 아동의 가정에서의 학습에 대한 부모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예: Families and Schools Together, www.wcer.wisc.edu).

나) 위험군을 위한 교육: ‘취약’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노력

경험이 없고 젊고(예: 청소년) 교육이 부족하고 소득이 낮으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부모는 양육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elles, 1989). 아울러 이들의 자녀는 발달, 건강, 학업 성과가 가장 뒤쳐진다. 이러한 부

모는 생활의 스트레스, 발달 이력, 지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특히 위험 요인이 가중될 경우 아동을 학대 또는 방치할 가능성이 통계상 증가할 수 있다(Belsky, 1984; Gelles, 1989). 취약계층이 안고 있는 과제의 해결은 1920년대 이민자 가족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1990년대 복지개혁 사업에 이르기까지 미 연방 지출의 우선순위가 되었다(Weissbourd, 1987; Powell & Cassidy, 2001).

위기에 처한 부모를 위한 일부 프로그램은 독립적으로 실시되지만, 대부분은 자녀와 가족 자산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과 부모교육을 통합하는 '양육 성공 체계'(FSPC, 2007) 모델에 속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Healthy Families(Healthy Families America, 2008)에서 고위험 부모를 자녀를 출생하기 전에 확인하며, 출산전 방문과 가족 평가는 가족 고용, 주택, 건강 영양, 아동의 초기 교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연계해준다. 영아 보호와 양육에 초점을 두는 가정 방문은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계속된다. 성공 사례에는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의 증가, 부모-자녀 관계의 향상, 가정환경 개선이 포함된다. 1992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Healthy Families의 성공은 위험 임신부와 0-5세 자녀를 위한 가정 방문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기금 5년/15억 달러를 이끌어냈다³⁾.

청소년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은 청소년 어머니가 학업을 계속하고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개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영아 양육에 대한 것이다(예: Insights, www.insightstpp.org).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위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행동 문제의 예방이나 관리(예: The Incredible Years, www.incredibleyears.com)와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 및 약물 시험 저지(예: Adolescent Transitions; Dishion & Kavanagh, 2003)와 같은 특정 문제에 중점을 둘 수 있다.

다. 부모교육의 효과

1) 평가 문제

부모교육은 20세기 동안 새로운 대상으로 확대되고 그 방식이나 중점 성과가 다각화되었기 때문에 효과의 입증이 필요했다(Bogenschnieder, 1994). 이는 투자 성과를 확인하고 자녀와 가족의 복지에 영향을 미친 프로그램을 판단하고자 하는 예산지원기관 및 정책 입안자뿐 아니라 진정으로 '효과'를 알고자 하는 전문

3) 현대 가정 방문의 모델에 대한 검토는 USDHHS, 2011 (<http://homvee.acf.hhs.gov/>) 참조.

가들에게서 나왔다(Fiore, 2008; Small, 1990). 시간의 경과에 따라 평가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증거 기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기관의 관심과 요구를 초래하였다(Small, Cooney, & O'Connor, 2008). Stolz(2010)는 평가 설계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해당 프로그램은 효과적으로 재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프로그램 성과의 개연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책 및 활동 조직은 현재 인터넷 이용 검색 툴을 통해 증거 기반 프로그램의 식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Child Trends, <http://www.childtrends.org/Links/>).

그러나 미국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와 평가 실체에 관한 현황은 간단하지 않다. 먼저, Carter와 Khan(1996)이 주장하는 대로 부모교육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에 대한 비전은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이들은 위험에 처한 어머니의 복잡한 생활을 고려하여 “양육 교육은 곤경에 처한 부모에게 이들 자신이 유능함과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이것이 다시 그들이 자녀에게 사랑, 건강, 유산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p.12). 기대는 적절해야 하며,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범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McGroder와 Hyer(2009)는 양육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와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부모와 자녀의 기대되는 사회적 성과를 보여주는 상세한 논리적 모델을 제공한다.

아울러 증거 기반 프로그램의 가치와 부모교육 커리큘럼 및 프로그램의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실험 및 준실험 설계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요인에 대한 통제가 포함되는 엄격한 평가 방식이 적용된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다(Carter & Khan, 1996; McGroder & Hyer, 2009; Shonkoff & Phillips, 2000). 이는 부모교육 실행을 위한 조직에 제공되는 예산의 부족과 특히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평가에 대한 요구에 의한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 전달자에 대한 평가 방법론 교육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사용되는 방법은 직원이 실행하고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단기적인 성과를 드러내기 가장 편한 것이다(New York State Parent Education Partnership, 2008). 결국 부모 교육, 이른바 ‘증거 기반’ 평가 설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는 체계적인 초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이해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및 전달 요인의 식별을 간과한다(Small, 1990; Small et al., 2009). 최근 몇 년간 과정, 성과,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과 데이터 이용 고려를 제안하는 Jacobs의 Five Tiered Model(Jacobs, 2003)과 같은 프로그램 평가의 틀이 장려되었다.

2) 효과 요약

일반적으로 미국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분석 결과 훈련 프로그램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자신감, 공감, 아동 발달과 발달적으로 적절한 행동과 부모의 반응에 관한 지식을 증대시키고 부모가 자녀와 긴밀한 관계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됨을 제안한다(Carter & Khan, 1996; Stolz, 2010). 아울러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자녀의 행동과 학교 준비도, (다양한 인지, 사회, 행동, 학업 척도에 의해 측정된)성공, 건강, 수유 실제 개선과 연계되었다. 최근의 2개 검토를 주목할 가치가 있다.

특히 자녀 행동 문제를 완화하는데 주안점을 둔 부모 중재 가정 방문 프로그램의 메타분석에는 1990-2002년 동안 77개 연구가 포함되었으며, 비교 집단이 포함된 연구만 선정되었다(Kaminski, Valle, Filene, & Boyle, 2008). 연구 방법론과 프로그램 전달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분석 결과 자녀와 함께 참여하고 부모가 자녀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관계-구축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도록 교육하며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관리할 때 일관되게 대응하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떤 구성요소가 특정 맥락에서 기여하거나 다른 구성요소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명확하지 않았다.

핵심 부모 교육 프로그램과 모델에 대한 또 다른 검토는 장기적인 영향과 경제적 투자 측면에서 프로그램 효과를 검토하였다(McGroder & Hyer, 2009). 연구진은 가정 방문 설계와 그룹 중시,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델, 사춘기 직전 및 10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평가 및 국가 프로그램 모델을 포함시켰다. 대상 집단은 백인 및 비백인(예: 북미 원주민), 저소득 및 청소년 부모를 비롯한 취약계층이 포함되었다. 연구진은 연구 결과 중재기간 동안 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 역할과 양육 실제에 있어서 지식, 기술,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1-3년간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아동과 관련하여 반사회적 행동(예; 공격성, 반항적 행동), 안전(아동 학대), 경우에 따라 발달(예; 문해 이전 기술)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연구진은 사용된 척도나 영향력의 크기가 주요 변수에 유의한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아동 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덧붙여 분석할 비용 데이터가 포함된 프로그램이 거의 없고 프로그램의 성과를 사회를 위한 장기적인 금전적 성과와 연계하기에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모교육과 중재 프로그램이 현명한 투자였다고

제안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연구진의 요약은 미국 부모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신념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다: 아동의 안녕에 대한 부모교육의 장기적인 영향력에 관한 증거는 제한적이지만 프로그램이 설계된 강력한 이론적 기반이 있으며 엄격하게 검증된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목표와 아동 발달을 연계하는 경험적 증거가 있다.

라. 부모 교육자의 전문성 개발 및 인정

미국 부모교육은 교육을 받지 않은 개인에서부터 유아교육자(Alvy et al., 2003)나 간호사(Olds, Hill, O'Brien, Racine, & Moritz, 2003)와 같이 다른 분야에서 교육을 받고 특정 커리큘럼을 전달하도록 자격을 받거나 부모교육의 훈련을 받는 개인, 부모교육 분야의 학부나 대학원 학위가 있고 수십 년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인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Carter와 Khan(1996)은 이러한 다양성은 프로그램과 대상의 다양성을 반영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다양성은 부모교육을 직업으로서 인식하지 않고, 훈련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하는 학자도 있다(Fiore, 2008). Cooke(2006)은 이 분야가 정식 인정을 받지 않는다면 “의욕은 넘치지만 준비가 부족한 개인”(p. 787)이 존재하게 되며, 복잡한 양육 문제에 제공되는 지원은 과도하게 단순화되어 부모들은 부적절한 지원과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모교육자의 자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a) 역량 기준에 대한 설명 및 합의, b) 실무를 위한 전문가 양성과 인정 제도, c) 전문적 실체로서 부모교육의 협력과 지원이 포함된다.

1) 역량 기준

부모교육자 능력은 대단히 복잡하고 발달적인 과정이며 광범위한 내용지식기반과 교육학의 숙달을 포함한다(Cooke, 2006). Campbell과 Palm(2004)은 지식, 집단 촉진 기술, 교수 기술, 전문적 정체성과 경계, 다양성 이해의 5개 발달 분야에서 부모교육자가 성장-초보자, 중간자, 숙련자의 3단계를 경험한다고 제안한다. 부모교육의 실행이 다른 분야(예: 간호, 사회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수행의 높은 수준 달성은 지체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부모교육의 단일한 역량은 합의되지 않았지만, 역량 구조의 반

복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구조들은 직업적 준비, 자격부여, 책임성 기준에 대한 지침과 부모가 소비자로서 질을 평가하고 다양한 배경의 부모교육자에게 중요한 자질과 평가에 대한 직업적 반성을 위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가치를 공유한다(Campbell & Palm, 2004; Cooke, 2006). 아울러 Cooke는 특히 양육 기술과 아동 발달에 관한 정보의 제시를 넘어서는 학습을 능숙하게 촉진하고, 부모-자녀 관계의 심층적인 질과 변화시키는 학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부모교육자가 부모 발달의 복합적인 이해를 해야 할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USDA 협력확대국은 NEPEM(앞에서 설명됨)에 의해 확인된 핵심 내용 분야의 보완으로 “전국확대부모교육가모형”(NEPEF, DeBord et al., 2002)을 개발하였다. NEPEF는 *성장*(전문적 성장 및 자기 지식), *프레임*(이론적 틀의 이해), *개발*(교육 프로그램 설계, 실행, 평가), *수용*(다양한 대상의 요구에 부응), *교육자*(효과적인 교육), *구축*(분야의 확대를 위한 전문적 네트워크 구축)의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과정 기술을 포함한다.

개별 주 정부가 표명하는 역량 기준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기준은 미네소타주 교육부가 개발한 것이다. 미네소타주는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부모교육 교사** 면허를 법제화하였다. 법령에 따르면 이 분야의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교사 자격을 위한 10개의 기준 분야(주제, 학생 학습, 다양한 학습자, 교수 전략, 학습 환경, 의사소통, 교육 계획, 평가, 반성과 전문적 발달 및 협력, 윤리와 관계)에서의 증명된 지식, 수행, 기질적 능력과 함께 아동 발달, 성인 발달, 부모-자녀 관계, 가족에 대한 지식 기반이 요구된다.⁴⁾

2) 부모 교육자 인정과 전문성 개발

자격부여 문제는 수십 년간 존속해 온 현안이다(Cooke, 2004; Fiore, 2008). 관련된 자격인증은 존재하지만(예: th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Certified Family Life Educator), 한 분야로 부모교육을 인정하는 것은 부모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준비와 실행을 정당화 한다. 2011년 4월 NPEN은 “부모교육자 직업적 준비와 인정을 이해하기 위한 틀” 작업 초안을 제출하였다. 이 틀은 실행의 엄격성과 기준에 따른 5단계를 명시한다.

최하위 단계는 *자발적 등록이나 명부*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준이나 질관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스스로 부모교육자라고 주장하는 모든 이에게 열려있다. 대표

4) 이러한 법정규정은 ECFE프로그램이 주관하는 교사 면허를 위한 표준지표로 운영되어 있다.

적인 사례가 Texas ROPER(Registry of Parent Educator Resources)이다. 다음 단계는 *전문성 개발과 훈련 기관이나 조직*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정이나 워크숍의 수료가 요구되며 대개 특정 커리큘럼의 전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여기에서 요구되는 조건은 일회성 과정의 이수나 회의 참석,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수준에서부터 가족 복지 사업 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1년 동안 100시간 인턴십이나 최대 7,000달러가 소요되는 수업 및 온라인 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자격인정* 또는 부모교육자 역량 증명은 틀의 중간 단계이다. 여기에서는 주 정부나 국가 조직이 기준을 정하며 교육과 경험에 의해 여러 단계가 부여될 수 있다. 부모교육 자격증을 보유한 주는 3개(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코네티컷)이다. 예를 들어 텍사스 전문가 인정 제도(Professional Recognition System)는 직접 또는 자원봉사로 전문가 교육/부모 참여/가족 지원 서비스에 30시간 이상 참가하고 고등학교 또는 그와 동등한 수준의 학위를 소지한 18세 이상인 자에게 최하위 수준의 자격을 수여한다. 최상위 수준의 자격은 직접적 자원봉사자/전문적 부모교육 서비스를 받고 부모 교육이나 관련 분야의 석사나 박사 학위 소지자에게 수여한다. 뿐만 아니라 코네티컷과 노스캐롤라이나는 자격 갱신을 위해 계속된 교육(예: 3년 동안 45시간)의 증명을 요구한다. *대학 이수*는 두 번째로 엄격한 인정 기준이다. 이는 공인 고등교육기관의 비학점 또는 학점 과정 이수를 포함한다(예: Iowa State University Partnering with Parents 온라인 수업은 6개월간 11개 모듈에서 55시간 접수를 의무화한다, Greder, Diers & Schnurr, 2010). 이 범주에서의 상위 기준은 6개 기관(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NCSU; Wheelock College (MA); Plymouth State University(MA); Rivier College(NH); University of N. Texas; University of Minnesota)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에 대한 수료(주로 특정 과정에서 대학원 학점 12-20시간)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3개 기관(NCSU, St Cloud State [MN], University of Minnesota)이 부모교육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미네소타대학교는 부모교육 중심의 박사학위도 취득할 수 있다. *부모/가족 교육 주립 교사 면허*는 최상위 수준의 전문가 인정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미네소타는 유일하게 면허를 부여하는 곳으로 유아기가족 교육(ECFE)이 후원하는 학군에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1980년대에 ECFE 프로그램이 주 전역에 만들어졌을 때 정책 연구는 직원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의 시행에 결정적인 방안으로 부모 및 유아교육 전문가의

면허를 권장하였다. 면허를 위한 요구사항에는 학사 후 단계에서 공인된 수업 21학점, 아동 발달 분야의 6학점, 학생 교육 경험, 기초 능력 시험(미네소타 교사 면허 시험) 통과가 포함된다.

가장 포괄적인 부모교육자 양성 기관으로서 미네소타대학교 프로그램은 전문가 역량 기준부터 실무 전문성 발달까지의 직접적인 연관을 증명한다(Walker, et al., 2010). 10개의 부모교육자 역량 분야는 부모교육 면허나 대학원 학위 수료로 이어지는 커리큘럼에 골고루 포함되며 석박사 프로그램에 통합될 수 있다. 과정에는 교육학(교수법, 교육과정 개발, 평가, 사정, 성인/부모 학습 및 발달), 내용(가족 관점, 부모-자녀 관계), 경험(학생 교육), 최근에는 교육에 있어서 기술의 통합이 포함된다. 2007년 미네소타대학교 부모교육 과정은 온라인 전달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후자 기준은 일부분 경험을 통해 습득된다.

3) 부모교육 전문가 조직과 협력

미국 내 개별 전문가, 학술 기관, 가족 및 아동 단체의 역량 기준, 전문가 윤리, 인정 체계, 부모교육 분야의 가치 지지에 대한 노력은 서서히 응집력을 갖게 되었다(Heath & Palm, 2006). 이러한 노력은 대부분 자발적이고 재정 지원은 최소화되었으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교육의 잠재력에 전념하는 전문가의 열정적인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지난 수십 년 간, 부모교육자는 힘을 합쳤으나 독립된 관점의 대립으로 인하여 국가적 단체로 결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미국 인구의 다원성을 감안할 때 부모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개별적인 노력은 가치있는 일이다.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며 부모교육이 개별적인 노력으로, 또는 기타 가족 지원 서비스(전문가 또는 예비전문가로서(또는 공동으로)의 부모교육자에 의해 전달되거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전달하는)와 공조할 때 그 기능이 극대화되는 조건은 알 수 없다(Goddard et al., 2004).

하지만 일부 학자의 주장대로(Carter & Khan, 1996; Fiore, 2008), 이 분야가 발언권을 얻고 직업으로서의 인정을 스스로 주장하며 모범사례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리더십과 확고한 입지가 필요하다. 현재 미국의 리더십은 NPEN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NPEN(nd b)은 부모교육, 질 보증을 위한 기준 및 방법 명료화, 회원 간의 의사소통 촉진에 국한된 전국 협회로서의 입지에 덧붙여 최근에는 주정부간 부모교육 서비스 네트워크를 파악하여 이 분야에 기능

성을 부여하였다. Heath와 Palm(2006)의 지적대로 모든 부모교육 제공자는 정체성 확보를 위해 협력할 여지가 있다. 또한 부모교육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면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교육 및 지원이 부모들이 준비되지 않은 과제에 대처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함에 있어서 강점을 강화하는 것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국가이고 섬나라이면서, 이슬람, 중국, 인도 등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섞여 있는 다문화국가이기도 하다. 다인종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고 있는 각 가족은 자녀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자기와 다른 상대를 서로를 이해해야하고 긍정적 관계 속에서 상호 교류해 갈 수 있어야 하므로 건강한 가족구성과 성장에 대한 교육은 중요한 하나의 국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족교육은 싱가포르의 사회개발·청소년·체육부(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Youth and Sports: MCYS)의 소관 업무이며 가족교육 내에는 가족의 생애 주기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 청년기, 젊은 직장인, 결혼 예정 예비부부, 신혼부부 등 인생의 각 시기에 요구되는 교육을 지역사회 내 전달체계를 이용해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교육의 일환으로 부모를 위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가. 가족생애교육 개념

가족생애교육(family life education)의 필요성에 대해 싱가포르 정부가 발행한 "A Guide to family Life education in Singapore"(MYCS, 2011)에 의하면 가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이다. 건강한 가족은 안정을 이루는 중심축이 되고 국가와 개인을 지원해준다. 또한 가족은 균형되고 풍족한 삶과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기초이다. 그러나 강한 가족 관계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독신율의 상승, 이혼율의 증가, 출산율의 감소, 급속한 노령인구 증가와 함께 오늘날 가족은 여러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강하고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해 가족이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해 가야하는 이유이다. (MCYS, 2011: 2)

사회발전·청년·체육부(社會發展·青年及體育部, 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Youth and Sports: MCYS) 산하의 가족발달단(The Family Development Group: FDG)은 싱가포르를 가족과 자녀를 위한 최적의 장소로 만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기구는 가족이 축하받고 격려되고 지원받으며 강화되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고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하위조직으로 가족교육과(Family Education Department: FED)를 두어 공공 교육을 주관한다.

FED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추진 전략을 통해 친가족적 환경을 만들려는 공적, 사적 영역 및 사람들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 가족과 부부와 부모들이 긍정적인 가치와 의식을 가지도록 함.
- 생애를 통해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해가도록 개인에게 정보를 주고 교육하고 격려함.

FED는 가족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직장, 지역사회에서 예방적이고 발달적인 가족교육 노력의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다양한 자발 복지회(Voluntary Welfare Organization)와 그 외 다른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결혼생활, 부모기, 양육, 직업효율성 등에 대한 광범위한 프로그램과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개인과 가족 생활의 질을 강화하고 풍부하게 하며 개선해가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가족 생애 교육 프로그램은 싱가포르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삶의 시기에 있는 가족의 필요성을 만족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통찰적 담화와 세미나에서부터 재미있고 흥미로운 워크숍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넓다. 공적으로 승인된 자격을 지닌 '가족 생애 교육자(family life educator)'가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이 필요로하는 긍정적인 태도와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가족 생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www.family.gov.sg 를 참고할 수 있다.

나. 부모교육 정책의 개요

자녀를 기르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충족감이 큰 일 중 하나이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아기, 유아기, 초등학교 시기, 십대, 그리고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난관들은 언제나 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 책임감은 무거울 수 밖에 없다.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 제공자이고 교사이며 재

정후원자이고 생애코치이기도 한데 이는 모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부모는 자녀의 생애 초기에 그들에게 가치와 의지력을 심어주는 힘을 가진 존재이다. 또한 부모는 십대 시기 자녀를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고 삶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양육정보, 지식, 기술을 제공하여 부모가 부모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부모들은 부모로서의 인생 여정 중 결정적인 단계에서 자녀의 학교를 통해, 또는 직장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취학전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부모교육(the Parent Education in Pre-Schools: PEPS)'와 '학부모 교육(School Family Education: SFE)' 프로그램은 학교 기반(school-based) 가족 생애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이는 자녀가 유아기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부모 역할을 해가야 하는 부모들을 돕기 위해 고안된 부모와 가족 생활 교육의 연속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 가족생활센터(또는 코너)를 세우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생애 교육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가족 생활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채널을 만들고 있다.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부모교육(PEPS) 프로그램은 2005년 4월에 처음 도입되었다. 자녀가 어린이집(child care centers)이나 유치원(kindergartens)에서 긍정적인 가치와 사회적 역량을 키워가는 시기에 부모에게 효과적인 양육 기술을 교육하고 부모-자녀 관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PEPS의 목적이 있다.

학교를 통한 부모교육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시기에도 학부모교육(SFE)에서 계속된다. 이 프로그램은 통합적인(holistic) 가족 학습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바, 부모는 부모 촉진자(parent facilitators)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효과적인 양육 기술을 갖추게 되며, 학교 교직원도 학생 가족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을 하고, 학생 또한 생활 기술 훈련(life skills training)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학교에 참여하는 것은 부모-학교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게 하고 가족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주게 되며, 결국은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로 돌아오게 된다.

한편 정부는 부모 교육 연계 파트너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바, 이들은 국가 전역에서 쉽게 접근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의사소통, 성교육,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 성격발달 등과 같은 유용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지역사회 연계 행사인 ‘싱가포르 육아 대회(Singapore Parenting Congress)’ 또한 양육 방식과 육아문제해결을 위한 최신·최고의 전략을 소개하기 위해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매해 2일간 열리는 이 대회에서는 해외 권위자와 지역내 가족 전문가가 참석하며 네 가지 공식 언어로써 육아관련 세미나가 진행된다.

다. 부모교육 현황

부모교육 현황은 싱가포르 정부가 핵심전달체계(key delivery channels)로 소개하고 있는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 세 가지의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학교 기반 부모교육

학교 기반 부모교육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PEPS와 SFE로 나누어진다.

취학전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PEPS는 2005년 40개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된 이후 2011년 현재 496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참여하고 있다. 2014년까지 전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50%가 이 프로그램을 채택하게 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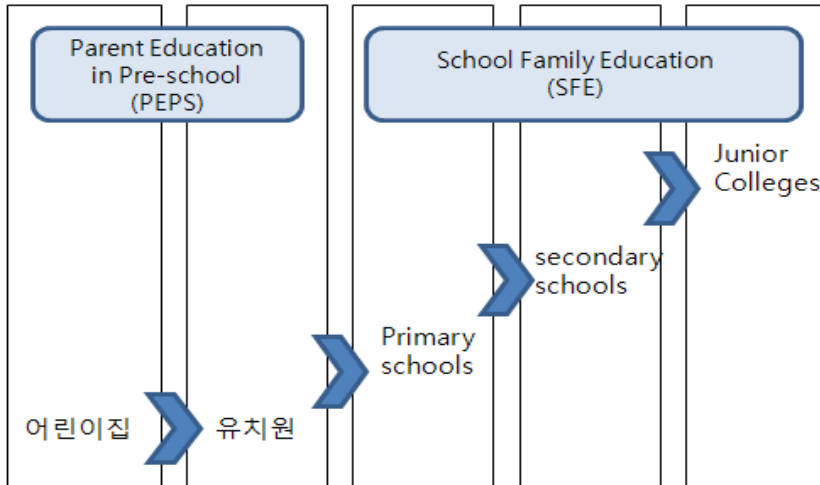
학부모 교육(SFE)은 2002년에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었으며, 그 성과가 성공적이라는 평가에 힘입어 2011년 현재 236개 학교가 이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있다. SFE의 효과를 바탕으로 2005년에 PEPS가 도입된 바 있다. 참여하고 있는 학교로는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가입하여 SFE가 확대되고 있는 중이며, 2014년까지 전체 학교의 90%가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직장에서의 부모교육

싱가포르 정부는 ‘가족생활대사(Family Life Ambassador: FLA)’라는 프로그램을 부모의 일터에서 진행하여 가족 생활 기술과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1,500개 이상의 회사·기관에서 FLA를 채택하여 가족생애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을 직장에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 현재 500,000명 이상이 이 프로그램을 거쳐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지역사회

2010년 통계로, 거의 1,000개 가까운 가족 생애 교육 프로그램이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내에서 진행되었고 380,0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1] 싱가포르의 학교 기반 부모교육 체계

라. 영유아 자녀 부모 대상 부모교육 (PEPS)

취학전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PEPS는 학교기반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전달체계로 하여 교육이 이루어진다. 매 연초 정부(MCYS)는 PEPS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하는 과정을 거치며, 프로그램 설명회에 참석한 후 기관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선택하게 된다. 정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채택하면 가족생애교육가(Family Life Educator)가 정해진 시기에 방문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이 교육행사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소개한 싱가포르 사회발전·청년·체육부(MCYS) 가족교육과 과장인 Pauline Mo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PEPS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는 기관을 전달체계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이므로, 특별히 저소득층이나 위기에 처한 가정 등 특수한 경우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보통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부모교육프로그램입니다. (2011년 11월 10일, 싱가포르 현지 면담)

1) PEPS의 목적과 목표

싱가포르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움으로써 부모를 교육하고 변화시킨다.

둘째, 젊은 부모를 자녀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고무한다.

셋째, 비용부담이 없고 접근성이 높으며 관련성이 깊은 부모교육과 자원을 연속선 상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부모의 역량을 키운다.

PEPS를 구성하는 구성인은 부모와 영유아 자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육아지원기관 등 3개로 볼 수 있고 각각의 측면에 대한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부모에 대한 목표이다.

- 자신감 획득 및 긍정적, 효과적 양육 기술 습득
- 자녀에 대한 이해 증진
- 부모-자녀 관계 개선
- 부부 관계 개선

둘째, 자녀에 대한 목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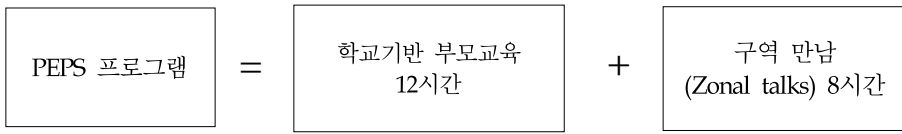
- 긍정적인 생활 기술을 갖춘 사회적 능력자로의 발달
- 영유아기부터 긍정적 가족 가치 발달

셋째,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목표이다.

- 학습 지원적 환경
- 부모-기관 관계의 개선
- 영유아 훈육 관련 문제의 감소
- 위기 가족의 초기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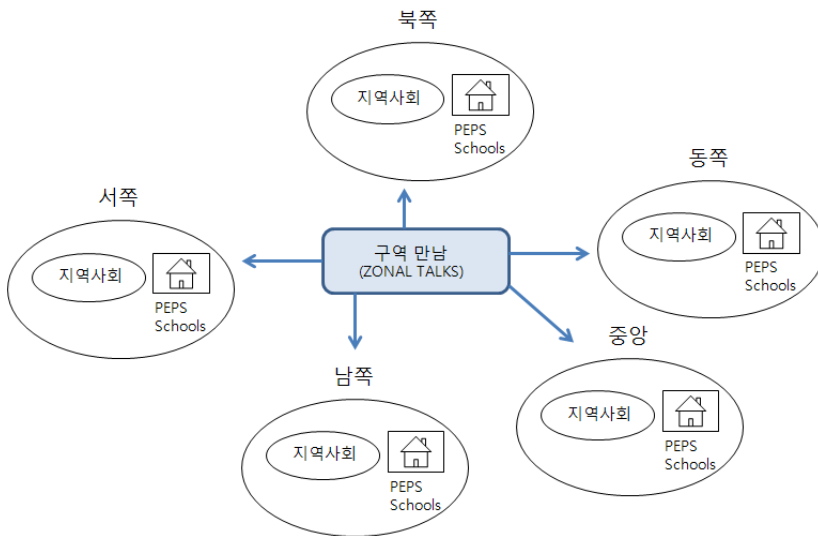
2) PEPS의 운영 구조

PEPS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연간 20시간 부모가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 중 12시간은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육아지원기관(pre-school)내에서 이루어지며 나머지 8시간은 '구역 만남(zonal talks)'을 통해 진행된다. 육아지원기관 내 수업인 경우 지역에 소속된 가족생애교육자가 기관에 가서 그날의 주제에 따라 워크숍식 또는 자녀와 함께 하는 체험식 수업으로 진행하며, 아이들도 연간 12시간 정도 PEPS와 관련한 시간을 교과내에 배정하고 있다.



[그림 III-2-2] PEPS의 연간 시간 구성

‘구역 만남’은 육아지원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시간으로, 보다 넓은 장소에서 주로 주말 시간을 이용하여 3~4시간 동안 집체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 또한 세미나나 강연회 형식이 될 수도 있지만 자녀와 함께 참여하여 체험하고 실습해보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보통 한 번에 300~400명 이상의 참석자가 모여 가족생애교육자의 지도에 따라 교육을 받게 된다. 전체 PEPS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교육내용 중 선별하여 부모교육이 이루어지며 부모는 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구역 만남은 아래의 [그림 III-2-3]에서 보듯이 몇몇 지역의 개별 육아지원기관(pre-school)에 속한 부모들을 한 구역으로 묶어 정해진 날 다 같이 참여하여 대규모로 행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림 III-2-3] PEPS의 ‘구역 만남’ 구성 방식

PEPS는 무료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아니다. 최소의 비용(연간 20시간당 약 5,000원)을 부모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며 나머지 모든 운영비, 재료비, 강의료 등은 국가가 부담한다. 이 최소 부모 부담비용은 부모의 참여를 보장하고자하는 의미일 뿐임을 정부측 담당자인 Ms. June Wong 서기관은 강조했다.

우리는 최소한의 실비, 즉 5달러 정도를 부모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신청한 부모들이 빠지지 않고 교육에 참여를 하기 때문이지요. 무료로 진행을 하게 되면 부모들이 의무감을 전혀 느끼지 않아 참석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적은 액수라도 돈을 내게 하면 부모들이 참석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가지게 됩니다. 하나의 전략이죠. (2011년 11월 10일 싱가포르 현지 면담 중)

PEPS가 6년째 진행되고 있고 그 성과 역시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가장 어려운 점으로 부모의 참여율 유지를 들었다. 많은 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은 주로 주말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한편, 학교의 통신이나 게시판 등을 이용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부모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전달체계로 활용한 것도 같은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PEPS 참여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싱가포르에는 현재 어린이집이 약 950개, 유치원이 500개 정도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496개 기관에서 PEPS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가는 부모교육의 확산에 앞장선다는 의미에서 이들 기관에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다.

- 운영을 위한 사전 오리엔테이션과 브리핑 실시
- 재정 지원
- 중앙 주도 평가
- 사회개발·청년·체육부가 발간하는 가족 생애 교육 관련 자료 배부
: 브로슈어, 부모교육가이드, 도안자료, 웹사이트(www.peps.sg), e-뉴스레터 등
- 행정가, 부모지원그룹, 서비스 제공자 등과의 정기적 협의회 개최

4) PEPS 프로그램의 내용

PEPS는 지역사회가 채용한 전문 가족생애교육자(family life educator)가 중심

이 되고 아동학, 유아교육학, 가족학, 교육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구성한 교육내용을 주제별로 구성하였으며, 전체 주제 리스트에서 연간 계획에 따라 선정된 주제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표 III-2-1〉 PEPS 프로그램의 교육 주제(일부임)

구분	주제
자녀양육	· 자신감 있는 자녀 양육(0-5) · 부모-자녀 유대감 향상 · 경쟁력 있는 아이로 양육하기 · 자녀의 '사랑의 언어' 이해하기 · 자녀의 EQ를 높일 수 있는 재미 있고 창조적인 방법 · DISC 유형에 따른 자녀양육 · 자녀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전략 · 자녀의 자기주도력 향상법 · 자녀의 초등학교 1학년 준비하기 · 효과적인 훈육 · 자녀의 지능 향상시키기 · 자녀양육을 위해 알아야 할 것 · 자녀와 의사소통하는 방법 · 사랑의 언어-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 자녀의 학습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 초등학교 진학 준비 · 학습 코치로서의 부모 · 부모를 위한 사회 정서 코칭
부부관계	· 예비부모교육: 지속적인 관계를 위한 지식과 기술 양성 · 결혼을 위해 알아야 할 것 · 의사소통방법과 갈등 해결 · 사랑의 언어 - 배우자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가족	· “가족화합” 가족결속력 향상시키기 · 가족의 즐거운 시간: 가족규칙정하기 · 가족 나들이 · 탄력성 높이기
직장인	· 무기력 떨치기 · 성공하고 싶은 마음 들여다보기

IV.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현황

본 장에서는 저소득층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다문화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맞벌이부모를 위한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여러 지원 기관에서 이루지고 있는 부모특성별 부모교육의 종류와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영유아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을 수집하고자 하여 관련 기관들을 조사하였으나, 영유아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으므로, 대상 기관의 프로그램 중 영유아부모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정리하였다. 앞서 연구 범위에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본 장의 영유아기 부모교육 현황은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 육아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제외되었다.

저소득층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제도로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매우 활발하게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지원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부모를 특성별로 구분하지 않고 교육내용만 가족구성원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드림스타트 센터 또한 맞벌이든, 다문화이든, 농촌이든 구분하지 않고 저소득층에 속하는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특별히 부모특성에 따른 부모교육 현황을 분류해내는 것을 어려웠다. 따라서 대상 부모 유형별 보다는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현황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위에서 언급된 센터들 이외에 대표적인 영유아기 교육과 보육에 대한 지원 기관인 보육정보센터, 유아교육진흥원,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의 프로그램들도 함께 정리함으로써 영유아기 부모교육 현황을 망라하였다.

1. 부모 지원 기관별 부모교육 현황

가. 드림스타트센터

우리나라의 상대적 아동 빈곤율이 199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빈곤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복지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보건복지부·한국청소년상담원, 2010, p. 3). 이러한 배경 하에 보건복지가족부(현 보건복지부)는 2007년 희망스타트라는 이름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08년에는 드림스타트로 사업으로 확대 개편하여 전국 36개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그 이후 2009년 전국 75개, 2010년에는 101개 지역으로 확대되어 추진되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목표는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며, 나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군·구별로 드림스타트센터를 설치하고 그 지역의 0세부터 만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및 아동·가정의 개별적 욕구 분석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한다. 서비스는 기존에는 건강, 보육, 복지분야로 서비스를 분류하였으나, 2010년도부터는 아동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기초로 하여 아동발달영역별로 서비스를 구분하였다(보건복지부·한국청소년상담원, 2010, p. 20). 이에 따라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영역으로 서비스를 분류하고 있다. 또한 사업 고유기능 및 아동발달지원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서비스 유형을 기본/필수/선택서비스로 구분하였고, 각 드림스타트센터에서는 기본 및 필수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기본/필수/선택서비스의 개념, 해당 서비스 및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표 IV-1-1〉 드림스타트의 서비스 유형

서비스 유형	개념	해당 서비스	운영방식
기본 서비스	- 드림스타트사업 고유기능인 통합사례관리서비스 - 모든 드림스타트센터에서 반드시 제공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아동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 드림스타트센터 팀원이 직접 제공
필수 서비스	-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 - 모든 드림스타트센터에서 필수적으로(선택서비스에 비해 우선적으로) 제공	- 건강검진 및 예방, 정신건강, 산전산후 관리(임산부), 기초 학습지원, 사회정서 지원, 부모교육 서비스	- 연계·혼합방식이 원칙 -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직접 제공 가능
선택 서비스	- 아동발달 및 사업지역의 특성에 따라 필수서비스 이외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 센터별 자율적 선택 제공	- 건강관리, 치료지원, 학습지원, 문화체험, 양육지원 등	- 연계·혼합방식만으로 운영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11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안내. pp. 38-41.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에서 제공하는 지침에 제시된 필수서비스 안에 포함된 아동발달영역별 산전산후관리 및 부모교육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각 지역의 드림스타트센터에서는 이러한 지침에 근거하여 세부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표 IV-1-2〉 드림스타트의 산전산후관리 및 부모교육 서비스

발달영역	소분류	프로그램 예시
신체·건강	산전관리	- 임신부건강길라잡이 - 임신부 영양교육 및 모유수유 지도
	산후관리	- 육아교실
	자녀신체발달 관련 부모교육	- 알쏭달쏭 우리아이 성교육 - 베이비 마사지 부모교육
인지·언어	교육상호작용 관련 부모교육	- 자녀학습지도<이렇게 도와주세요>
	교육환경제공 관련 부모교육	- 가정에 읽기·쓰기 환경 조성하기
정서·행동	부모-자녀관계	- 부모-자녀 코칭 프로그램 - 아이와 소통하는 멋진 부모되기 - 부모교육<자녀와 사랑의 대화>
	자녀 정서, 사회성 지원	- 모-아 애착관계 증진 프로그램
	자녀양육관련 부모교육	- 올바른 아동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11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안내. pp. 42-43.

2010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운영단의 운영결과보고서에 의한 전국의 드림스타트센터 발달영역별 서비스 일수와 인원에 대한 현황 분석 결과 중 부모교육과 관련된 결과는 다음 <표 IV-1-3>과 같다.

〈표 IV-1-3〉 발달영역별 부모교육 서비스 현황

단위: 명, 일

지역		연인원			실인원			연간서비스일수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신체·건강	산전산후관리	258	4,576	4,834	59	544	603	1,401
	부모교육	10,307	13,402	23,709	3,176	4,484	7,660	711
인지·언어	부모교육	11,179	17,348	28,527	2,957	4,573	7,530	1,595
정서·행동	부모교육	13,772	24,895	38,667	5,352	8,938	14,290	1,681
전체		35,516	60,221	95,737	11,544	18,539	30,083	5,388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청소년상담원(2010). 2010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운영결과보고서. pp. 25-28.

전체 영역에서 부모교육 서비스는 실인원 기준 총 30,083명(연인원 95,737명)에게 제공되었으며, 연간 총 서비스 일수는 5,388일이었다. 발달영역별로는 정서·행동 영역 부모교육 서비스가 제공된 인원이 실인원 14,290명(연인원 38,667명)으로 다른 영역에 비하여 두 배 정도로 많았다. 한편 서비스 일수는 신체·건강 영역의 경우 총 2,112일로 가장 많았다.

〈표 IV-1-4〉 발달영역별 부모교육 서비스 현황(대구 달서구드림스타트센터)

영역		프로그램	기간	대상	인원(명)	횟수	내용
신체·건강	산전산후 관리	해피맘헬스PG	4-11월	임산부	125	월2회	임산부건강 프로그램
		아기에게 주는 엄마의 첫선물	4-11월	임산부	49	주1회	임산부 태교교실
	부모교육	신체발달 부모교육	3-4월	양육자	180	2회	부모교육
		엄마하고 마주보고	4-12월	아동, 양육자	10	월1회	신체표현 교육
		셀프쿡 영양나라	5-6월	아동, 양육자	45	5회	이유식/영양식
		식생활건강과 영양교육	5월	양육자	89	1회	부모교육
		영유아안전사고예방·응급처치교육	9월	아동, 양육자	30	1회	부모교육
인지·언어	부모교육	여유만만 스마일맘	4-12월	부모	전체	월1회이상	부모교육
		독서지도	10,12월	양육자	128	2회	부모교육
정서·행동	부모교육	마음의대화 (관계형성)	4-5월	모	(20)	8회	엄마교육
		아빠는 건축가(대화기법)	5-6월	부	(13)	4회	아빠교육
		부모코칭(감정코칭)	5-6월	아동, 양육자	25	6회	부모교육
		인터넷중독예방	6,12월	양육자	113	2회	부모교육
		베이비사인/동화구연	7-8월	아동, 양육자	19	주1회	부모교육
		성학대예방교육	7,10월	양육자	103	2회	부모교육
		예절교육	12월	아동, 양육자	80	4회	부모교육

주: ()속 인원은 회기별 정원임. 정확한 참석 인원의 파악이 안되는 경우임.

자료: 달서구드림스타트센터(2010). 2010년 달서구 드림스타트 사업 성과 및 효과성 분석. pp. 6-9.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의 지침에 따라 각 지역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모서

비스의 현황을 하나의 사례로서 대구 달서구드림스타트센터 2010년 성과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2010년 1년간 달서구드림스타트센터에서 제공한 부모교육 서비스를 발달영역별로 정리한 것은 다음 <표 IV-14>와 같다. 전체적으로 1~3월을 제외한 모든 월별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을 볼 수 있고, 대상은 임신부, 양육자, 부, 모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따라 10명에서 180명까지 수강할 수 있는 여러 규모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달서구드림스타트 센터의 경우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해당 센터에서 관리하고 등록되어 있는 저소득층 300 가정의 부모가 참여할 수 있어 누구에게나 공개되지는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반대 급부로 보면, 저소득층 부모에게 집중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므로 대상에 대해서만은 매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00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부모교육은 방문지도사에 의한 방문교육과 센터에서 제공하는 집체교육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1) 방문교육서비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전문지도사를 양성하여 지리적으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 구성원에게 맞춤형 가족통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구 아동양육서비스)와 2011년도 시범사업인 자녀생활서비스, 방문상담서비스로 구분되는데 부모교육에 해당하는 것은 부모교육서비스로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아동 양육 및 부모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부모교육서비스의 주 내용은 자녀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서비스-부모 성장, 부모-자녀 관계 증진, 영양 및 건강 지도, 생활지도 및 학교입학준비 등이며 가족 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까지 병행하고 있다.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가 지원되어 임신·신생아기(임신-생후 12개월 이하), 유아기(12개월 초과-48

개월 이하), 아동기(48개월 초과-만12세 이하)에 나누어서 실시된다. 서비스 제공은 1년에 5개월씩, 1회가 원칙이며 생애주기별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주로 자녀 출산 전·후로 1회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표 IV-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형태 부모교육 내용과 시기

사업영역	교육내용	교육 시기
방문교육 서비스	- 자녀양육역량강화 · 부모 성장 · 부모-자녀 관계 증진 · 영양 및 건강 지도 · 생활지도 · 학교입학준비 - 가족상담 - 정서지원	- 연중 5개월간 1회 이용 - 자녀 발달시기별 이용 가능 · 임신·신생아기(12개월이하) · 유아기(13-48개월) · 아동기(12세 이하) ※주로 임신/신생아기 이용이 많음

다음 <표 IV-1-6>은 2010년 전국적인 부모교육서비스 지원대상가정 서비스 현황을 보여준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8,657가구가 방문지도사에 의한 부모교육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전라남도, 경상북도에서 서비스 수혜 다문화가정이 가장 많았다.

〈표 IV-1-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별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참여 가정수(2010)

단위: 가구

지역	참여가정	지역	참여가정
서울	560	강원	610
부산	340	충북	567
대구	315	충남	614
인천	311	전북	642
광주	180	전남	1,035
대전	150	경북	1,022
울산	172	경남	884
경기	1,179	제주	78
총계		8,657	

자료: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2010a). 「2010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결과보고서」

2010년 부모교육서비스 만족도는 결혼이민자 통·번역사를 활용한 전화조사와 방문교육 종사자가 직접 방문하는 방문조사로 실시되었다. "지도사의 방문교

육서비스가 도움이 되었습니까?" 하는 질문에는 전화조사로 평균 4.53점, 직접 방문에 4.66점을 보였다. 수업방식이나 내용, 지도사의 친절이나 성실도 측면에서도 모두 4.5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금 지도사에게 부모교육서비스를 다시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까?” 라는 직접방문 질문에 대해서도 4.65점을 받아 부모교육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2010a).

2) 센터 방문 집체교육 서비스

다문화가족 부모들이 받고 있는 부모교육은 주로 방문부모교육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이해교육의 일환으로도 부모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이해교육은 가족교육을 통한 다문화가족 내 갈등해결방법 지원을 통한 가족관계를 향상시키고, 다문화가족 친화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가족문화조성과 결혼이민자 한국사회 적응 및 결혼이민자 출신국 이해를 통한 가족화합을 지원하는 목적을 지닌다.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이해교육의 사업 내용은 <표 IV-1-7>와 같다.

<표 IV-1-7>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이해 주요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

사업 영역	세부사업영역		주요 프로그램 내용	필수 시간
가족 통합 및 다문화 사회 이해 교육	가족 통합 교육	가족통합	- 다문화가족 캠프, 가족관계·의사 소통 향상프로그램	30
		패밀리데이	-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부부	- 다문화가족 부부이해, 관계향상프 로그램	
		배우자	- 다문화가족 배우자역할교육	
		시부모	- 고부관계 향상프로그램	
		부모-자녀	- 부모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 - 육아 및 자녀교육 코칭프로그램 - 자녀와 함께 독서지도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 부모역할교육 - 부모자녀 문화프로그램 체험	
		자녀	- 자녀 정서·학습지원프로그램	

(표 IV-1-7 계속)

사업 영역	세부사업영역		주요 프로그램 내용	필수 시간
가족 통합 및 다문화 사회 이해 교육	다문화 사회 이해 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 다문화가족의 문화갈등과 적응	20
		한국사회 적응교육	- 건강, 교육, 임신, 출산 전반 교육	20
		결혼과가족의 이해	- 결혼과 가족의 이해	5
		법률관 인권	-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	5
		소비자경제교육	- 가정설계, 다문화자녀경제교육	선택
		사회통합 다문화이해과정	-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 사 회이해과정	선택

자료: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2010b). 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다문화사회이해교육은 다문화가족 부모, 특히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것이며, 부모교육은 주로 가족통합교육 중에서 ‘부모-자녀’ 영역에서 실시된다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 육아 및 자녀교육 코칭프로그램, 자녀와 함께 독서지도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부모역할교육, 부모자녀 문화프로그램 체험 등이 있으며, 이는 특별히 영유아 자녀 부모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부모-자녀를 위한 가족통합교육의 일환으로서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부모자녀 관계를 향상시키거나 육아 및 교육에 일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가족통합교육 전체에 할당되어 있는 필수운영시간이 30시간이기 때문에 ‘부모-자녀’를 부모교육에 실제로 배당되는 시간수는 그리 많지 않다.

〈표 IV-1-8〉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이해 총 이용현황

사업 영역	세부사업영역		단위: 명, %	
			합계	비율
			274,499	100.0
가족 통합 및 다문화 사회 이해 교육	가족 통합 교육	가족통합	38,282	13.9
		패밀리데이	10,924	4.0
		부부	7,189	2.6
		배우자	3,571	1.3
		시부모	1,428	0.5
		부모-자녀	26,239	9.6
		자녀	38,196	13.9

(표 IV-1-8계속)

사업 영역	세부사업영역		합계	비율
			274,499	100.0
가족 통합 및 다문화 사회 이해 교육	다문화 사회 이해 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62,731	22.9
		한국사회적응교육	56,251	20.5
		결혼과가족의 이해	7,977	2.9
		법률관 인권	9,004	3.3
		소비자경제교육	7,141	2.6
		사회통합 다문화이해과정	5,566	2.0

자료: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2010b). 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이 조사한 2010년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이해 총 이용현황에 따르면, 전체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이해 사업에서 ‘부모-자녀’ 관련 사업은 9.6%에 해당하여 연간 3시간에 지나지 않는다. 인력 및 예산의 부족으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는 많지 않아 보인다. 결혼이민자와의 면담에서도 대부분 방문부모교육서비스에 대한 경험은 있으나, 센터 내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이해 사업에 대한 전국 평균 만족도는 4.55점으로 나타났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결혼이민자 외 배우자, 시부모 등의 참여 저조, 체험 프로그램에 비해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지속성 확보 어려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프로그램 질 저하, 부모가 프로그램 참여시 자녀를 돌봐줄 공간 및 인력 부족, 흥미나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 강의 내용 등이 있다.

다. 한부모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모교육은 국가가 주도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서는 대표적인 것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프로그램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부모특성을 강조하여 한부모에 맞춤형에 있는 부모교육을 지원하는 국가 주도 센터는 찾아보기 힘들고 여성단체 등이 이끄는 자발적인 자조모임을 통해 상호 교육의 기회를 가진다든지 부모가 처한 상황적 특성, 즉 드러내고 싶지 않은 특수 상황으로 인터넷 카페 등을 활용하여 활동하는 모임들을 찾을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서울시가 2009년 6월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여성재단에 운영을 위탁하여 다양한 한부모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센터의 목적은 한부모에게 자립을 위한 의지를

일깨워주고 가족 및 지역공동체의 지지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상담 및 사례관리, 교육·문화사업, 위기지원사업을 한부모가족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미혼모에 대한 부모교육 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도담학교'라는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미혼모들이 학업을 계속하고 아울러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의 한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이러한 사업은 2년여의 시간 동안 운영한 결과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센터 설립에 대한 계획을 아직은 보이고 있지 않다.

이같은 지자체 지원 기관을 제외하면, 전국조직을 가진 가장 대표적인 한부모 가정에 대한 부모교육기관으로서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가 운영하는 '한부모가정지원센터'를 들 수 있다. 한부모가정지원센터는 2006년 한부모가정연구소(현 (사)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의 부설로 서울시에 설립된 이래, 2011년 현재 서울시 중앙 센터를 비롯해 광주, 울산, 구미, 강원, 경기 지역 등 전국 10개 도시에 11개의 지역 센터를 두고 있다. 전국 회원 수는 1만 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국가 기관은 아니나 한부모 가정 부모교육의 주도적 기관으로서 한부모가정지원센터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부모가정지원센터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는 '한부모가정지도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일정 교육기간을 거치고 일정 자격을 갖춘 한부모가정지도사는 2011년 현재 1,000여명이 있으며, 이들 중 많은 수가 부모교육자로서 한부모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강사와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다.

한부모가정지원센터는 매월 2회씩 정기적으로 부모교육, 또는 부모-자녀 관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부모는 영유아기 자녀부터 청소년기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대상이다. 특히 싱글 대디에 대한 교육을 회기를 두고 장기적으로 참여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 회기당 15~20명의 한 부(父)에게 부모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부모교육의 구체적인 대상이 직장인인지, 저소득으로 인한 재택자인지 확인 후 주말 또는 평일에 교육을 진행한다. 저소득층 남성 한부모인 경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총 1회기 10회 참석을 조건으로 2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모든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된다. 한부모가정지원센터의 부모대상 연간 사업계획은 다음 <표 IV-1-9>와 같다. 참여 수요는 많으나 교육공간의 협소로 인해 매회 20여명으로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표 IV-1-9〉 한부모가정지원센터의 연간 사업 계획(2009년 기준-상반기)

	사업 명	참여대상 및 인원
1월	한부모가정 부모-자녀 교육	한부모가정 부모 및 자녀
	한부모가정 설맞이 정기모임	한부모가정 부모 20명
	한부모가정 부모역할 강화 프로그램	한부모가정 부모 20명
2월	방학맞이 한부모가정과 이혼 이해교육	한부모가정 청소년 10명
	한부모가정 아동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한부모가정 아동 10명
	한부모가정 부모-자녀 교육	한부모가정 부모 및 자녀
	한부모가정 부모역할 강화 프로그램	한부모가정 부모 20명
3월	한부모가정 부모-자녀 교육	한부모가정 부모 및 자녀
	한부모가정 부모역할 강화 프로그램	한부모가정 부모 20명
4월	한부모가정 부모-자녀 교육	한부모가정 부모 및 자녀
	한부모가정 부모역할 강화 프로그램	한부모가정 부모 20명
	한부모가정 반편견교육	경기도 유아교육기관200명
5월	한부모가정 어린이날 축제행사	부모 및 자녀 100명
	한부모가정의 날 기념행사	-
	한부모가정 부모역할 강화 프로그램	한부모가정 부모 및 자녀
	한부모가정 반편견교육	경기도 지역아동센터100명
6월	한부모가정 부모-자녀 교육	한부모가정 부모 및 자녀
	한부모가정 부모역할 강화 프로그램	한부모가정 부모 20명
	한부모가정 반편견교육	경기도 유아교육기관200명
	한부모가정 자원봉사자 양성	총 28시간

자료: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2010), 2009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보고.

라.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유일한 전문 공공기관으로써 부모교육이 주 사업 대상은 아니지만 여성농민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2001년 4개소를 시작으로 매년 확대 설치를 계획하여 2008년까지 여성농업인센터를 전국에 168개소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이 2006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후 사업은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센터수를 보면, 2006년 38개소에서 2010년 37개소로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비도 2006년 36억원에서 2010년 35억 2,100만원으로 축소되었다.

여성 농업인센터의 주 사업은 여성농어민들의 특성을 고려한 고충 상담과,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자녀 학습지도,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교육, 각종 문화활동, 도농교류사업 등 종합적인 생활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로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임실여성농업인센터의 사업 내용을 통해 참고할 수 있다.

〈표 IV-1-10〉 여성농업인센터 사업내용

여성농업인 상담	여성 농업인과 지역 여성들의 고민과 애환을 상담함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생활문화교실	여성농업인이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게 도우며 교양 강좌 및 다양한 문화 활동 기회 제공 -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교육 - 한국농업의 이해, 농업 경영 교육 - 지역농업의 발전과 여성농민의 역할 - 친환경·저비용 고품질 농업교육 - 건강교실, 여성교실, 자녀교육, 문화교실
어린이집 운영	여성농업인들의 보육비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보육을 실시하기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방과 후 공부방	여성농업인의 사교육비 부담을 축소하고 자녀들에게 학습 지도와 생활지도 제공
도농교류	농사현장 체험학습, 녹색체험마을 견학, 도시와 농촌이 함 께하는 어린이 캠프 등

주: 임실 여성농업인센터(2011) 웹페이지 내용을 재구성

여성농업인센터에서의 부모교육은 여성농민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주로 농한기에 부모역할 교육이나 자녀지도 교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모교육 대상자는 영유아 자녀를 지닌 부모에 국한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부모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다. 참여비와 교재비는 거의 무료이며 소정의 활동 재료비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강원도 양구군 여성농업인센터에서는 농민이 아닌 일반 부모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강원도 횡성 여성농업인센터에서는 다양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좌 내용은 다음 <표 IV-1-11>과 같다.

〈표 IV-1-11〉 여성농업인센터 부모교육 강좌 내용

년도	부모교육 내용	강사	시간수
2007	우리 아이 건강 어떻게 지킬까? - 몸과 마음이 튼튼해야 행복하다	한의사	2
	우리 아이 인성 어떻게 키울까? - 세대의 흐름 속에 나타난 정서와 삶	서예가	2
	우리 아이 성교육 어떻게 할까? - 부모가 알아야 할 아름답고 소중한 성	부모교육강사	2
	우리 아이에게 세상을 어떻게 보여줄까? - 신문을 보면 자녀의 삶이 바뀐다	부모교육강사	2

(표 IV-1-11 계속)

년도	부모교육 내용	강사	시간수
2011	글로벌시대,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까?	부모교육강사	4
	자녀 독서지도	부모교육강사	2
	자녀교육관 정립	부모교육강사	2

주: 여성농업인센터(2011) 웹페이지 내용을 재구성

부모교육은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주로 이루어지지만 각 여성농업인센터의 웹사이트에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자료가 탑재되고 있다. 탑재된 자료에는 아동학대나 체벌, 자녀와 대화하는 법, 자녀 교육시 고려할 점 등이 있다.

농촌에서 부모교육을 위한 기관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농업인센터는 농촌 부모교육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마.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5년 시행된 건강가정지원법을 근거로,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달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이다. 2010년 현재 전국적으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를 포함하여 138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건강가정지원센터, 2010). 센터가 진행하는 사업영역은 가족기능강화교육, 가족돌봄지원, 가족친화사회환경, 가족문제해결상담, 다양한가족통합지원, 지역사회연계 등 6 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다양한 가족이란 한부모, 조손, 다문화, 맞벌이, 장애아, 세터민, 군인 가족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부모특성을 가진 부모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영역 중 하나인 가족기능강화교육(일명 가족교육사업)을 보면 생애주기별 교육, 가족성장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사업들이 포함되고 이 중 중요한 프로그램이 부모교육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IV-3-1>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사업에 속하는 프로그램 중 부모교육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을 모아서 정리한 결과이다. 이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보고서에 나타나 있다. 특별히 영유아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하여 두고 있지는 않으나 '찾아가는 아버지교육'이나 가족성장아카데미의 내용을 보면 영유아부모도 대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찾아가는 아버지교육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 모두를 위한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IV-2-1>에 나타난 회기수와 참여자 수는 전국 138개 센터 전체의 수치를 총합한 것으로, 작년 한 해 동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 11만 8천여 명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양한 유형을 가정과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도한 센터 기능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특히 부모교육이 필요한 영유아 부모에 대한 프로그램이 조금은 아쉬운 실정이다.

<표 IV-2-1>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사업 프로그램 유형

단위: 회기, 명

프로그램명	대상	회기수	참여 인원	주요내용
청소년기 부모교육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1,594	41,548	· 부모-자녀간 효과적인 대화방법 · 자녀의 컴퓨터 중독 예방방법 · 자녀의 학습진로 및 지도방법 · 자녀의 생활설계 지도방법 등
남성대상교육 (아버지교육, 찾아가는 아버지교육)	대학생포함 일반 성인남녀	1,367	40,453	· 남성의 가족생활참여의 중요성 · 결혼 및 출산의 중요성 · 나의 성역할 의식 측정 · 성인 자녀와의 갈등해결방법 · 부부간 은퇴 후 가족생활 설계 등
예비부부/ 신혼기 부부교육	예비부부 신혼기부부	1,123	34,087	· 출산의 중요성 · 서로의 차이점 인정하기 · 신혼기부부 갈등요인과 해결방법 · 가족계획 · 예비부모교육 등
가족성장 아카데미	가족구성원 누구나	662	28,962	· 건강가정과 가정의 사명 ·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증진 · 부모코칭 · 일-가정의 조화/가족역할 공유 · 가족자원 봉사 등

출처: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10). 2010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의 전체적은 윤곽과 사업의 성격에 대해 운영 안내서를 발간하여 지역 센터로 보내게 되면, 지역센터는 주어진 사업 영역 안에서 지역 실정을 고려하고 수요를 감안하여 조금씩 융통성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게 된다. 다음에 주어진 <표 IV-2-2>는,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중 2곳의 사업 사례를 보여주는 것으로, 가족교육사업 영역에 포함된 프로그램들을 비교해볼 수 있다.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구

로구 센터에서는 ‘엄마아빠가 배우는 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대구 시 수성구 센터에서는 ‘신바람나는 육아! 똑소리나는 엄마’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으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해 육아, 놀이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 아동기 부모교육이나 직장방문 아버지교육, 부모-자녀 관계개선 교육 등 폭넓은 내용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가 8~10회기 등으로 여러 주기에 걸쳐 적극적인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2〉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 운영현황(일부 사례)

		단위: 회기, 명		
	프로그램명	일자	회기	인원
서울시 구로구	결혼준비교실	4월~10월	6회기	96명
	엄마아빠가 배우는 놀이치료	9월~10월	8회기	116명
	금성자녀와 통하는 화성부모	5월	4회기	57명
	중년기 노후생활설계	5월~9월	7회기	107명
	MBTI로 보는 우리가족	4월	4회기	35명
	에코그램을 통한 가족이해	2월~10월	12회기	125명
	부모-자녀 의사소통 교육	3월~11월	12회기	112명
	가족친화/남성교육	4월~12월	10회기	251명
	우리 엄마의 새로운 이름 가베지도사	6월~9월	12회기	166명
대구시 수성구	‘대구은행’찾아가는 부모교육	1월	1회기	30명
	아버지, 자녀들의 행복건축가	3월	4회기	140명
	예비/신혼부부 교육	4월~12월	8회기	60명
	신바람나는 육아! 똑소리나는 엄마	6월~7월	10회기	131명
	찾아가는 가족생활교육	6월,7월, 11월,12월	4회기	160명
	ADHD! 바르게 알고 대처하기	7월	2회기	54명
	부모교육	8월~10월	10회기	285명
	남성가족생활교육	12월	2회기	17명

2.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기관별 부모교육 현황

가. 보육정보센터

2011년 7월 현재 전국에는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포함하여 총 60개의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보육수요자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보육시설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1a, p. 351).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3조 (2009.6.30개정)에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보육정보센터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는 홈페이지를 통한 육아정보 제공과 센터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부모를 대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자녀 발달 증진을 위한 상호작용에 대한 교육으로 나누어지며 전자의 경우 대부분이 무료이며 후자의 경우는 유료인 경우도 있다. 또한 육아정보와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제공되고 있다. 전국의 보육정보센터에서 부모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황을 서비스 종류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2-3〉 보육정보센터의 부모 대상 서비스 현황

단위: 개소, %

보육정보센터	부모교육 프로그램		육아정보	계
	부모대상 교육	상호작용 교육 프로그램		
수	38	20	53	57
비율	66.7	35.0	93.0	100.0

주: 2010년 기준 자료임. 중앙보육정보센터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지원하는 곳이므로 제외함. 2010년 12월, 2011년 1월에 신설된 보육정보센터 3개소는 포함하지 않았음.

〈표 IV-2-4〉 서비스유형별 프로그램 내용(서울시 M자치구 보육정보센터 사례)

서비스 유형	내용	대상	횟수
부모대상 교육	<우리가족 양육의 힘 기르기>어머니교육: 부모-자녀 마음을 이어주는 비폭력 대화	만 5세이하 영유아 어머니	1회
	생태부모교육	만 5세이하 영유아 부모	1회
	독서의 계절 가을에 만나는 그림책을 통해 자녀 키우기 부모교육	만 5세이하 영유아 부모	1회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형성을 위한 애착 증진 부모교육>: 행복한 마음맞추기	만 5세이하 영유아 부모	1회
상호작용 교육 프로그램	<애착증진 놀이프로그램>다문화가족	33-46개월 영아와 다문화가족 부모	월 4회
	<애착증진 놀이프로그램>조부모	33-46개월 영아와 조부모	월 4회
	베이비마사지	2-15개월 영아와 부모	월 4회
육아정보	영양·건강 관련 정보		수시

주: 2010년 기준 자료임.

나.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진흥원은 종합적인 유아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담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기본 목적은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에게는 적절한 육아정보 및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 6개가 설립되어 있으며, 주로 유아교육연구를 지원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 유아교재·교구 개발, 유아체험 프로그램 제공, 유아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각 유아교육진흥원별로 다양한 학부모 연수가 실시되고 있다. 학부모 연수 대상은 대부분 공식적으로 해당 지역의 공·사립 유치원 학부모라고 제한을 두고 있기에, 학부모 프로그램도 영아보다는 유아 부모교육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 <표 IV-2-5>는 6개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부모연수 프로그램을 정리하였다. 지역 진흥원별로 학부모연수 프로그램 내용이나 개수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데,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울산 및 충청남도 유아교육진흥원을 제외한 서울, 울산, 광주, 부산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연중 10회 이상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부모교육은 다른 기관의 부모교육과 달리 모든 프로그램이 영유아를 위한 부모 교육이며 유치원과 가정의 연계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표 IV-2-5> 2011 유아교육진흥원 학부모연수 프로그램

기관	프로그램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진흥원	일반연수 단기과정 (8개)	가족과 함께하는 숲놀이 1-3기
		마음이 우선인 너발달 교육
		흙·자연·놀이 공동체 교육
		톡! 톡! 언어발달 도와주는 자녀교육방법
		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한 신체활동
		10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육아의 지혜
울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일반연수 심화과정 2개(2010년 기준)	
	학부모 동아리운영 4개(2010년 기준)	
울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학부모멀티교육연수 10시간	
충청남도 유아교육진흥원	부모연수 프로그램 (3개)	아이사랑 아름다운 동행 다문화가정 연수
		함께 성장하는 부모되기 정보화 연수
		행복한 아이 만들기 위해 함께 하는 특강

(표 IV-2-5 계속)

소속	프로그램	
광주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부모연수 프로그램 (13개)	자녀의 오감발달을 위한 학부모 요리교실
		유아의 두뇌발달을 위한 종이접기
		건강한 유아, 행복한 가정 학부모 연수
		우리 아이 쑥쑥 키우는 성장 마사지
		자녀의 오감발달을 위한 아빠 요리 교실
		세상을 움직이는 유아 리더쉽
		오르프(음악활동)를 통한 행복 충전
		웃음꽃이 피는 우리집-웃음치료
		종이접기로 만드는 생활용품
		생활 공예품 만들기
		그림책 여행
		유아 미디어 놀이
		유아기 자녀와의 효과적 대화법
강원 유아교육진흥원	부모 효율성 강화 학부모 연수 (4개)	성격유형검사
		우리 아이 행복한 인재로 키우기
		성공하는 아이로 키우는 대화법
		자녀의 성공적인 삶을 돕는 좋은 부모 되기
	체험활동 학부모 연수 (4개)	팝업북 만들기
		웃음 치료
		가족과 함께하는 숲체험
		유아와 함께하는 놀이문화

다. 시·도 교육청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은 전반적으로 교육청 사이트에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강의 양식이나 읽을 수 있도록 탑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부산, 광주, 인천, 경남, 경북, 제주 교육청에서는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이나 ‘좋은 학부모교실’을 일선 학교에서 개설하여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부모교육의 내용은 자녀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며,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다수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모교육은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열리기 때문에 부모교육의 내용에 상관없이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가 주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부산광역시 교육청만이 유아에 한정하여 학부모 연수를 개설하고 있어 눈에 띄기는 하나 이는 학부

모 연수 54개 과정, 62회 중에서 1개 과정 4회에 불과하다. 요약하자면,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거나 주관하는 부모교육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유아 부모는 교육청 지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표 IV-2-6〉 시·도교육청별 부모교육 관련 프로그램

소속	프로그램
서울특별시 교육청	- 자녀교육 도움방 (부모교육자료, 예비학부모도움방) - 『학부모단체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경기도 교육청	- 부모교육자료 탑재
부산광역시 교육청	- 2011 유아 학부모 연수 개설 - 유아교육 학부모마당에 도움이 되는 자료 탑재
대구광역시 교육청	- 자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 탑재
대전광역시 교육청	- 자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 탑재
광주광역시 교육청	- 학부모 교육-자유강의 보기 - 28개의 강좌개설 (대부분 초등학생 자녀 대상 부모교육)
인천광역시 교육청	-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 사이버교육
울산시 교육청	- 자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 탑재
충남 교육청	- 학부모교육자료 탑재(학습방, 멀티방, 영상방, 교육소식)
충북 교육청	- 자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 탑재
전남 교육청	- 자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 탑재
전북 교육청	- 학부모 교양자료 탑재
경남 교육청	- 사이버 특강, 사이버 학부모 교실 -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좋은 학부모 교실
경북 교육청	- 좋은 학부모 교실
강원 교육청	- 교직원과 학부모를 위한 열린 강좌 운영
제주 교육청	- 사이버 학부모교실 - 거점기관을 통한 학부모교실 -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V.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요구 분석

본 장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포커스집단 면접 내용을 분석하여 각각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먼저 부모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부모교육 참여 실태와 현황, 요구 등을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나서, 포커스 집단 면접에서 나타난 집단 의견들을 총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조사 참여자 특성

만 5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부모를 부모특성별로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부모들은 총 1,002명이었고 특성별로 맞벌이 부모 250명, 한부모 150명, 다문화 부모 150명, 농어촌 부모 199명, 저소득층 부모 253명이었다. 응답자는 어머니가 91.2%로 대다수였고, 아버지는 8.5%, 조부모는 0.3% 있었다. 그 외 부모의 특성 및 가구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 중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가 28.8%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각 시도 거주자는 2.5~9.1% 있었으며 소재지역의 규모별로는 대도시 68.1%, 읍면지역 27.3%, 중소도시 4.6% 순으로 많았다.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50.2%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대와 300만원대가 각각 16.5%, 16.8%있었으며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경우는 8.6%있었다. 응답자의 학력과 직업을 살펴보면 고졸 이하인 경우가 53.4%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인 경우가 22.0%, 4년제 대졸이상인 경우가 24.7%있었으며 직업은 가정주부인 경우가 4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무직/경영·관리직/전문직과 같은 화이트칼라인 경우가 24.9%, 판매·영업·서비스직/기능·숙련직/생산·노무직과 같은 블루칼라인 경우가 20.7%로 많았다. 자녀의 수는 1명인 경우가 46.6%, 2명인 경우가 42.4%로 비슷했고 3명 이상인 경우도 11.0%있었다. 응답자 특성은 다음의 <표 V-1-1>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표 V-1-1〉 조사 참여자 특성

		단위: %(명)	
특성	비율(수)	특성	비율(수)
부모특성		가구소득	
맞벌이 부모	25.0(250)	200만원 미만	50.2(502)
한부모	15.0(150)	200~299만원	16.5(165)
다문화 부모	15.0(150)	300~399만원	16.8(168)
농어촌 부모	19.9(199)	400~499만원	10.2(102)
저소득층 부모	25.2(253)	500만원 이상	6.3(63)
응답자		지역규모	
부	8.5(85)	대도시	68.1(682)
모	91.2(914)	중소도시	4.6(46)
조부/조모	0.3(3)	읍·면	27.3(274)
거주지역			
서울	28.8(289)	강원	3.0(30)
부산	9.1(91)	충북	4.2(42)
대구	6.8(68)	충남	3.3(33)
인천	9.1(91)	전북	2.5(25)
광주	5.2(52)	전남	5.0(50)
대전	5.3(53)	경북	4.9(49)
울산	3.8(38)	경남	3.9(39)
경기	5.2(52)		
기초생활수급 대상여부		응답자 직업	
해당	8.6(86)	농/임/어업	2.9(29)
비해당	91.4(916)	자영업	7.2(72)
응답자 학력		블루칼라	20.7(207)
고졸 이하	53.4(535)	화이트칼라	24.9(249)
전문대졸	22.0(220)	가정주부	42.8(429)
4년제 대졸	23.5(235)	학생	0.7(7)
대학원졸 이상	1.2(12)	무직/기타	0.9(9)
자녀수			
1명	46.6(467)	3명	9.3(93)
2명	42.4(425)	4명	1.7(17)
전체		100.0(1,002)	

2. 부모교육 참여 실태

먼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의 필요성 인식을 알아보고 실제로 참여한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가. 부모교육 필요성 인식 경험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80.4%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응답자 중 아버지의 경우는 57.6%만이 들어봤다고 응답하여 어머니의 경우보다 그 비율이 적었다. 부모 및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부모특성과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다문화 및 저소득층 부모의 경우와 가구소득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모교육’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 외에 부모학력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V-2-1〉 부모교육이란 말을 들어본 경험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chi^2(df)$
전체	80.4	19.6	100.0(1,002)	
부모특성				
맞벌이 부모	84.8	15.2	100.0(250)	29.45(4)***
한부모	81.3	18.7	100.0(150)	
다문화 부모	65.3	34.7	100.0(150)	
농어촌 부모	86.4	13.6	100.0(199)	
저소득층 부모	79.8	20.2	100.0(253)	
응답자				
부	57.6	42.4	100.0(85)	31.22(1)***
모	82.7	17.3	100.0(914)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79.7	20.3	100.0(502)	10.42(4)*
200~299만원	77.6	22.4	100.0(165)	
300~399만원	76.8	23.2	100.0(168)	
400~499만원	88.2	11.8	100.0(102)	
500만원 이상	90.5	9.5	100.0(63)	

* $p < .05$, *** $p < .001$

자녀의 발달 및 양육과 관련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느껴본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92.8%가 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경우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부모특성과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2〉 부모교육의 필요성 인식 경험 여부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chi^2(df)$
전체	92.8	7.2	100.0(1,002)	
부모특성				
맞벌이 부모	95.6	4.4	100.0(250)	9.18(4)
한부모	89.3	10.7	100.0(150)	
다문화 부모	89.3	10.7	100.0(150)	
농어촌 부모	94.5	5.5	100.0(199)	
저소득층 부모	92.9	7.1	100.0(253)	
응답자				
부	83.5	16.5	100.0(85)	11.92(1) ***
모	93.7	6.3	100.0(914)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92.8	7.2	100.0(502)	6.85(4)
200~299만원	90.9	9.1	100.0(165)	
300~399만원	90.5	9.5	100.0(168)	
400~499만원	96.1	3.9	100.0(102)	
500만원 이상	98.4	1.6	100.0(63)	

*** $p < .001$

나. 부모교육 참여 경험

현재 만 5세 이하인 자녀를 임신한 이후 온라인 교육을 제외한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가 26.4%로 적었으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아버지가 11%인데 비해 어머니는 그 보다 2배 이상 많은 27.9%였다. 그 외 부모특성 집단별로는 경험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표 V-2-3〉 자녀 임신 후 부모교육 참여 경험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chi^2(df)$
전체	26.4	73.6	100.0(1,002)	
부모특성				
맞벌이 부모	24.8	75.2	100.0(250)	9.02(4)
한부모	20.0	80.0	100.0(150)	
다문화 부모	34.7	65.3	100.0(150)	
농어촌 부모	25.6	74.4	100.0(199)	
저소득층 부모	27.7	72.3	100.0(253)	

(표 V-2-3 계속)

구분	있다	없다	계	$\chi^2(df)$
응답자				
부	11.8	88.2	100.0(85)	10.38(1)**
모	27.9	72.1	100.0(914)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7.5	72.5	100.0(502)	1.81(4)
200~299만원	26.7	73.3	100.0(165)	
300~399만원	23.2	76.8	100.0(168)	
400~499만원	27.5	72.5	100.0(102)	
500만원 이상	22.2	77.8	100.0(63)	

** $p < .01$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부모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어서가 39.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교육을 어디에서 받는지 알 수 없어서 29.8%, 자녀를 대신 봐줄 사람이 없어서 17.3% 있었다. 부모특성별로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문화·농어촌·저소득 부모의 경우 시간이 없어서인 경우보다 부모교육을 어디에서 받는지 알 수 없어서인 경우가 더 많았고 농어촌·저소득 부모의 경우 다른 특성의 부모에 비하여 자녀를 대신 봐줄 사람이 없어서인 경우가 더 많았다. 아버지의 경우는 어머니보다 부모교육에 대해 알지 못했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인 경우가 더 많았다.

〈표 V-2-4〉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시간 부족	교육 정보 모름	자녀 돌볼 사람 없음	생각해 본 적 없음	장소 까지 갈 수 없음	교육 필요 없음	이미 받았음	기타	계(수)
전체	39.7	29.8	17.3	6.0	2.9	2.4	1.6	0.3	100.0(735)
부모특성									
맞벌이 부모	58.5	20.7	7.4	4.8	3.7	1.6	2.1	1.1	100.0(188)
한부모	52.9	20.2	13.4	5.0	3.4	5.0	0.0	0.0	100.0(119)
다문화 부모	32.7	49.0	12.2	4.1	0.0	2.0	0.0	0.0	100.0(98)
농어촌 부모	23.8	32.7	25.9	6.8	6.1	2.0	2.7	0.0	100.0(147)
저소득층 부모	28.4	32.8	25.7	8.2	0.5	2.2	2.2	0.0	100.0(183)
응답자									
부	46.7	26.7	5.3	14.7	1.3	2.7	1.3	1.3	100.0(75)
모	39.1	30.3	18.4	4.9	3.0	2.4	1.7	0.2	100.0(657)

주: 빈도 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

1) 참여 프로그램 수 및 참여 횟수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부모 265명에게 지금까지 참여한 부모교육의 프로그램의 개수를 조사한 결과 87.5%가 1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1개였다. 이는 부모 및 가구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표 V-2-5〉 참여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수

단위: %(명), 개

구분	1개	2개	3개	4개	계(수)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87.5	8.7	3.4	0.4	100.0(265)	1.2(0.48)	
부모특성							
맞벌이 부모	90.3	6.5	3.2	0.0	100.0(62)	1.1(0.42)	0.83
한부모	90.0	6.7	3.3	0.0	100.0(30)	1.1(0.43)	
다문화 부모	92.3	5.8	1.9	0.0	100.0(52)	1.1(0.36)	
농어촌 부모	84.3	11.8	2.0	2.0	100.0(51)	1.2(0.58)	
저소득층 부모	82.9	11.4	5.7	0.0	100.0(70)	1.2(0.54)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84.8	10.1	5.1	0.0	100.0(138)	1.2(0.51)	1.53
200~299만원	95.5	4.5	0.0	0.0	100.0(44)	1.0(0.21)	
300~399만원	87.2	12.8	0.0	0.0	100.0(39)	1.1(0.34)	
400~499만원	89.3	7.1	3.6	0.0	100.0(28)	1.1(0.45)	
500만원 이상	85.7	0.0	7.1	7.1	100.0(14)	1.4(0.93)	
응답자 학력							
고졸 이하	87.1	8.6	3.6	0.7	100.0(139)	1.2(0.51)	0.55
전문대졸	88.9	11.1	0.0	0.0	100.0(63)	1.1(0.32)	
4년제졸 이상	87.3	6.3	6.3	0.0	100.0(63)	1.2(0.53)	

부모들이 참여했던 부모교육의 프로그램별 참여 횟수를 조사한 결과 1회짜리 프로그램이 58.2%로 가장 많았고, 한편 5회 이상이었던 프로그램이 15.2%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부모특성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맞벌이와 저소득 부모는 특히 1회짜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다문화 부모는 5회 이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표 V-2-6〉 참여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별 참여 횟수

단위: %(건)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계(수)
전체	58.2	14.6	6.4	5.5	15.2	100.0(328)
부모특성						
맞벌이 부모	78.1	11.0	1.4	1.4	8.2	100.0(73)
한부모	57.1	17.1	2.9	8.6	14.3	100.0(35)
다문화 부모	37.3	13.6	1.7	8.5	39.0	100.0(59)
농어촌 부모	41.5	24.6	15.4	9.2	9.2	100.0(65)
저소득층 부모	67.7	10.4	8.3	3.1	10.4	100.0(96)

부모가 참여한 모든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횟수를 합한 총 횟수는 1~60회로 다양했고 평균 4.9회였으며 이는 부모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다른 유형의 부모에 비하여 다문화 부모들은 총 참여횟수가 최대 60회, 평균 약 13회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7〉 참여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총 횟수

단위: 명, 회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범위	F
전체	265	4.9(9.50)	1 ~ 60	
부모특성				
맞벌이 부모	62	2.2(2.68) ^a	1 ~ 13	12.94 ^{***}
한부모	30	3.0(3.17) ^a	1 ~ 14	
다문화 부모	52	12.7(17.11) ^b	1 ~ 60	
농어촌 부모	51	3.9(6.92) ^a	1 ~ 48	
저소득층 부모	70	3.1(5.12) ^a	1 ~ 30	

주: a, b 집단간 차이가 있음.

*** $p < .001$

2)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경로

참여한 부모교육에 대해 알게 된 경로를 조사한 결과, 부모 특성에 상관없이 '기관의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알게 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친구, 친척 등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부모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의 경우 '기관의 문자나 전화'를 통해 안 경우가 80.8%로 다른 집단보다 월등히 높는데 이는 대다수 다문화 가정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로부터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센터가 있으나 기관을 통해 알게 된 경로가 낮은 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에 200개 있는 데 반하여 드림스타트센터는 전국 101개 지역(2010년 기준)에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서비스가 부모교육에 직결되는 데 반하여 드림스타트센터의 부모교육은 정기적 혹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참여자의 수나 참여시수가 다문화 가정보다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관의 문자나 전화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친구, 친척 등 지인의 소개’이며 저소득층 가정에서 높게 나타났다. ‘TV, 신문, 잡지, 광고’나 ‘길거리 전단, 홍보 안내물’은 10%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인터넷 홍보’를 통해서 부모교육에 대해 알게 된 부모들은 응답자 260명 중에 6명으로 2%대에 그쳤다.

〈표 V-2-8〉 참여한 부모교육에 대해 알게 된 경로

단위: %(명)

구분	기관의 문자나 전화	TV,신 문,잡지 광고	인터넷 홍보	길거리 전단, 홍보물	지인의 소개	기타	계(수)
부모특성							
맞벌이가정	60.0	0.0	5.0	5.0	15.0	15.0	100.0(60)
한부모가정	63.3	0.0	0.0	6.7	20.0	10.0	100.0(30)
다문화가정	80.8	1.9	1.9	0.0	3.8	11.5	100.0(52)
농어촌가정	59.2	4.1	2.0	4.1	12.2	18.4	100.0(49)
저소득층가정	53.6	5.8	1.4	2.9	27.5	8.7	100.0(69)

3)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참여한 부모교육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바람직한 부모역할과 훈육방법에 대한 것이 35.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영유아의 건강, 영양, 안전관리,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이론적 내용, 발달을 돕는 놀이 방법이 각각 약 17%정도씩 있었고 부모로서의 자질향상에 관한 내용은 7.0%로 적었다.

부모의 특성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맞벌이 부모는 상대적으로 발달을 돕는 놀이 방법에 대한 부모교육 경험이 많았고 한부모와 저소득 부모는 바람직한 부모역할 및 훈육방법과 발달에 대한 이론적 내용에 대한 경험이, 다문화 부모는 영유아의 건강, 영양, 안전관리에 대한 부모교육이, 농어촌 부모는 바람직한 부

모역할 및 훈육방법과 부모로서의 자질향상에 관한 부모교육 경험이 많았다.

〈표 V-2-9〉 참여한 부모교육의 내용

단위: %(건)

구분	바람직한 부모역할	건강, 영양, 안전 관리	영유아 발달 이론	놀이 방법	부모로서의 자질 향상	한국어	사회성, 리더십	영재 교육	임신, 출산, 육아	기타	계(수)
전체	35.2	17.4	16.8	16.5	7.0	1.5	0.6	0.6	0.6	3.7	100.0(32)
부모특성											
맞벌이 부모	28.8	16.4	15.1	31.5	2.7	0.0	1.4	1.4	0.0	2.7	100.0(73)
한부모	42.9	8.6	20.0	11.4	5.7	0.0	2.9	0.0	5.7	2.9	100.0(35)
다문화 부모	24.1	29.3	17.2	6.9	10.3	6.9	0.0	0.0	0.0	5.2	100.0(58)
농어촌 부모	44.6	15.4	7.7	13.8	13.8	1.5	0.0	0.0	0.0	3.1	100.0(65)
저소득층 부모	37.5	15.6	22.9	14.6	4.2	0.0	0.0	1.0	0.0	4.2	100.0(96)

가장 유용했던 부모교육의 내용으로는 바람직한 부모역할에 대한 것이 37.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이론적 내용, 영유아의 건강·영양·안전 관리, 발달을 돕는 놀이 방법이 각각 17.4%, 16.2%, 14.7%로 많았다.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한부모·농어촌·저소득층 부모의 경우 바람직한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이 유용했던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맞벌이 부모의 경우는 발달을 돕는 놀이 방법을, 다문화 부모는 영유아의 건강·영양·안전 관리에 대한 교육을 상대적으로 유용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 해석시 부모 중 하나의 프로그램만을 경험해본 부모가 약 88%이었고 가장 많이 참여한 부모교육 내용이 바람직한 부모역할이었던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표 V-2-10〉 가장 유용했던 부모교육의 내용

단위: %(명)

구분	바람직한 부모역할, 훈육방법	영유아의 건강, 영양, 안전 관리	놀이 방법	부모자질 향상	기타	계(수)
전체	37.4	17.4	16.2	14.7	7.2	100.0(265)
부모특성						
맞벌이 부모	29.0	17.7	14.5	30.6	4.8	100.0(62)
한부모	46.7	20.0	3.3	13.3	10.0	100.0(30)
다문화 부모	25.0	17.3	30.8	5.8	11.5	100.0(52)
농어촌 부모	47.1	7.8	13.7	13.7	5.9	100.0(51)
저소득층 부모	42.9	22.9	14.3	8.6	5.7	100.0(70)

주: 빈도 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

4) 부모교육 참여 시기 및 개설 시간

부모교육에 참여했을 당시 자녀의 출생순위와 연령을 조사한 결과 첫째 자녀인 경우가 67.6%로 둘째 자녀인 경우 14.1% 보다 훨씬 많았다. 참여 시 첫째 자녀의 연령은 3세, 4세, 2세, 0세, 5세, 1세 순으로 많았다. 부모의 특성과 가구 특성에 따라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자녀의 연령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집단의 특성이 아닌 개인의 상황이 많이 작용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표 V-2-11〉 부모교육 참여 당시 해당 자녀의 연령

단위: %(건)

구분	첫째						둘째			기타	계(수)
	3세	4세	2세	0세	5세	1세	4세	2세	3세		
전체	15.2	13.4	11.6	11.0	8.8	7.6	5.5	4.3	4.3	18.3	100.0(328)
부모특성											
맞벌이 부모	12.3	9.6	16.4	5.5	12.3	9.6	6.8	2.7	4.1	20.5	100.0(73)
한부모	2.9	20.0	5.7	20.0	11.4	20.0	5.7	2.9	0.0	11.4	100.0(35)
다문화 부모	22.0	8.5	20.3	23.7	3.4	10.2	1.7	3.4	0.0	6.8	100.0(59)
농어촌 부모	16.9	12.3	7.7	4.6	9.2	3.1	3.1	1.5	9.2	32.3	100.0(65)
저소득층 부모	16.7	17.7	7.3	8.3	8.3	3.1	8.3	8.3	5.2	16.7	100.0(96)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7.8	13.9	11.1	13.9	7.2	7.2	6.1	5.6	2.8	14.4	100.0(180)
200~299만원	12.5	16.7	8.3	12.5	4.2	14.6	2.1	2.1	2.1	25.0	100.0(48)
300~399만원	19.6	13.0	13.0	0.0	8.7	2.2	6.5	4.3	10.9	21.7	100.0(46)
400~499만원	6.3	9.4	12.5	3.1	21.9	6.3	9.4	0.0	9.4	21.9	100.0(32)
500만원 이상	5.0	10.0	15.0	15.0	15.0	10.0	0.0	5.0	0.0	25.0	100.0(20)

부모교육에 참여했던 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일인 경우가 86.2%로 주말인 경우보다 훨씬 많았고 평일 중에서는 오전 시간이 전체 중에서 51.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평일 오후가 26.2%로 많았다. 부모 특성별로 살펴보면 맞벌이 부모와 한부모의 경우 다른 유형의 부모들에 비하여 주말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고 저소득 부모는 특히 평일 오전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표 V-2-12〉 부모교육 개설 시간

단위: %(건)

구분	평일 오전	평일 오후	평일 저녁	주말 오전	주말 오후	주말 저녁	계(수)
전체	51.5	26.2	8.5	8.2	3.0	2.4	100.0(328)
부모특성							
맞벌이 부모	43.8	24.7	6.8	21.9	1.4	1.4	100.0(73)
한부모	17.1	28.6	25.7	8.6	14.3	5.7	100.0(35)
다문화 부모	49.2	35.6	1.7	0.0	6.8	6.8	100.0(59)
농어촌 부모	49.2	35.4	7.7	6.2	0.0	1.5	100.0(65)
저소득층 부모	72.9	14.6	8.3	4.2	0.0	0.0	100.0(96)

5) 주최기관과 장소

부모들이 참여했던 부모교육의 주최 기관을 조사한 결과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이 37.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2.7%, 사회단체 및 사설기관이 11.5%로 많았으며 기타 기관으로는 (대)학교, 교회, 유아용품업체, 학습지 회사, 언론사 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특성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맞벌이·농어촌·저소득층 부모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주최하는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가장 많았고, 한부모의 경우는 사회단체 및 사설기관 프로그램, 다문화 부모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농어촌 부모는 다른 유형의 부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주최 프로그램에, 저소득층 부모는 사회단체 및 사설기관과 문화센터 주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많았다.

〈표 V-2-13〉 부모교육 주최기관

단위: %(건)

구분	전체	부모특성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	농어촌	저소득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37.8	49.3	31.4	20.3	38.5	41.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2.7	1.4	0.0	59.3	7.7	0.0
사회단체 및 사설기관	11.5	9.6	45.7	0.0	4.6	12.1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	6.5	6.8	2.9	5.1	10.8	5.5
사회복지관	4.6	6.8	8.6	0.0	4.6	4.4
교육청	4.0	4.1	0.0	0.0	13.8	1.1
문화센터	4.0	4.1	0.0	1.7	1.5	8.8
보건소	2.8	0.0	0.0	8.5	3.1	2.2

(표 V-2-13 계속)

구분	전체	부모특성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	농어촌	저소득
보육정보센터	2.5	2.7	2.9	0.0	3.1	3.3
건강가정지원센터	2.5	0.0	0.0	3.4	4.6	3.3
출판사	2.2	5.5	0.0	0.0	1.5	2.2
병원	1.5	4.1	2.9	0.0	0.0	1.1
유아교육 진흥원	1.2	1.4	0.0	0.0	1.5	2.2
기타	6.0	4.1	5.8	1.7	4.6	12.1
계		100.0(323)				

부모교육이 이루어진 장소로는 어린이집이 20.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치원 13.7%, 집 8.5%, 문화센터 7.6%, 복지관 5.8%, 보건소 4.3%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14〉 부모교육 교육장소

		단위: %(건)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어린이집	20.4	학습지	3.0
유치원	13.7	교육청	2.1
집	8.5	주민센터	2.1
문화센터	7.6	대학교	1.5
복지관	5.8	병원	1.2
보건소	4.3	언론사	0.9
다문화 센터	4.0	도서관	0.9
미혼모 보호시설	4.0	출판사	0.9
구청	3.4	기타	12.5
교회	3.0		
계(수)		100.0(328)	

6) 교육형태와 강사

참여했던 부모교육의 교육 형태를 조사한 결과 1회성 집단 강의 형식이 61.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단·장기간의 정기적 프로그램이 16.8%로 많았으며 가정방문 부모교육, 체험활동 위주 워크숍,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인 경우는 적었다. 부모특성별로 살펴보면 맞벌이·저소득층 부모는 1회성 집단강의에 참여한 경우가 70%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다문화 부모는 가정방문 부모교육

에 참여한 경우가 35.6%로 가장 많았다. 한부모·농어촌 부모는 다른 유형의 부모에 비하여 단·장기의 정기적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표 V-2-15〉 부모교육 교육형태

단위: %(건)

구분	1회성 집단 강의	단기/장 기간의 정기적 프로그램	가정방문 부모교육	1회성 체험활동 위주 워크숍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계(수)
전체	61.6	16.8	9.1	7.3	5.2	100.0(328)
부모특성						
맞벌이 부모	72.6	8.2	1.4	11.0	6.8	100.0(73)
한부모	48.6	22.9	14.3	5.7	8.6	100.0(35)
다문화 부모	33.9	20.3	35.6	8.5	1.7	100.0(59)
농어촌 부모	63.1	23.1	4.6	9.2	0.0	100.0(65)
저소득층 부모	74.0	14.6	0.0	3.1	8.3	100.0(96)

참여했던 부모교육의 강사로는 교수를 비롯한 아동관련 전문가였던 경우가 39.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주최기관 인력 28.8%,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원장 22.4%로 많았다. 그 외 관공서 직원, 의사 등이 있었다. 이는 부모특성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맞벌이·농어촌·저소득 부모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의 강사는 아동관련 전문가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한부모의 경우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원장, 다문화 부모의 경우는 주최기관인력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V-2-16〉 부모교육 강사

단위: %(건)

구분	아동 관련 전문가	주최 기관 인력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	관공서 직원	의사	기타	계(수)
전체	39.0	28.8	22.4	5.2	2.5	2.1	100.0(326)
부모특성							
맞벌이 부모	43.8	24.7	24.7	2.7	2.7	1.4	100.0(73)
한부모	34.3	14.3	42.9	2.9	5.7	0.0	100.0(35)
다문화 부모	24.1	50.0	12.1	3.4	5.2	5.2	100.0(58)
농어촌 부모	46.2	27.7	13.8	10.8	1.5	0.0	100.0(65)
저소득층 부모	41.1	25.3	25.3	5.3	0.0	3.2	100.0(95)

이들이 참여했던 부모교육의 주최 및 교육형태와 연관해서 살펴보면 맞벌이·농어촌·저소득 부모가 많이 참여했던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주최 1회성 집단강의 형태 부모교육에서는 아동관련 전문가를 많이 초빙하고, 한부모가 많이 참여했던 사설기관 주최 정기적 부모교육에서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을, 다문화 부모가 많이 참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최의 가정방문 부모교육에서는 센터 인력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7) 프로그램 만족도

참여한 부모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조금 만족과 매우 만족이 각각 47.0%, 33.8%로 만족스러운 경우가 약 81%로 많았다. 부모의 특성별로는 다문화 부모의 경우가 평균 4.32점으로 가장 높았고 매우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52.5%로 가장 많아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어촌 부모와 저소득 부모의 경우 평균 약 4.0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매우 만족 응답 비율도 적은 편이었다.

〈표 V-2-17〉 부모교육에 대한 만족도

단위: %(건)							
구분	매우 만족	조금 만족	보통	조금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수)	평균
전체	33.8	47.0	17.7	1.2	0.3	100.0(328)	4.13
부모특성							
맞벌이 부모	41.1	46.6	12.3	0.0	0.0	100.0(73)	4.29
한부모	37.1	51.4	8.6	2.9	0.0	100.0(35)	4.23
다문화 부모	52.5	32.2	11.9	1.7	1.7	100.0(59)	4.32
농어촌 부모	29.2	46.2	24.6	0.0	0.0	100.0(65)	4.05
저소득층 부모	18.8	55.2	24.0	2.1	0.0	100.0(96)	3.91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1.7	46.7	18.9	2.2	0.6	100.0(180)	4.07
200~299만원	35.4	52.1	12.5	0.0	0.0	100.0(48)	4.23
300~399만원	39.1	39.1	21.7	0.0	0.0	100.0(46)	4.17
400~499만원	37.5	56.3	6.3	0.0	0.0	100.0(32)	4.31
500만원 이상	25.0	45.0	30.0	0.0	0.0	100.0(20)	3.95
응답자 학력							
고졸 이하	34.5	45.6	17.5	1.8	0.6	100.0(171)	4.12
전문대졸	26.3	50.0	22.4	1.3	0.0	100.0(76)	4.01
4년제졸 이상	38.2	47.4	14.5	0.0	0.0	100.0(81)	4.26

주: 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변환하여 산출한 값임.

참여한 부모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서 부모교육 참여자의 95% 정도가 '보통' 이상으로 답했으며, '매우 불만족'에 답한 사람은 항목별로 한 명도 없거나 3%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교육 시간 중 자녀 보호'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프로그램의 주제 및 내용에 4.2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항목은 '교육시간 중 자녀의 보호'로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동안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어려움과 부모교육에 참여하고 싶어도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참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표 V-2-18〉 항목별 참여한 부모교육 만족도

단위: %, 점

항목	매우 만족	조금 만족	보통	조금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균(표준편차)
주제 및 내용	37.3	51.3	10.3	1.1	-	4.25(.67)
강사의 질	35.7	48.3	14.1	1.9	-	4.18(.74)
개설 시간	32.3	46.0	19.4	1.9	0.4	4.08(.79)
실시 기간	28.5	46.0	22.8	2.7	-	4.00(.79)
자녀 보호	26.7	38.5	25.6	6.1	3.1	3.80(1.00)
교육 장소	29.9	47.9	18.8	2.7	0.8	4.03(.81)

가구 특성별로 부모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가정에서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농어촌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의 만족도는 다른 가정들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 항목별 만족도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자녀 보호 측면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맞벌이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보다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 보호 측면에서 만족도가 낮았다.

〈표 V-2-19〉 부모 특성별 참여한 부모교육 만족도

단위: 점

가구특성	주제 및 내용	강사 수준	개설 시간	실시 기간	자녀 보호	교육 장소
맞벌이가정	4.34	4.21	4.2	4.00	4.02	4.18
한부모가정	4.27	4.13	4.07	4.07	3.83	4.17
다문화가정	4.19	4.35	4.19	4.23	3.98	4.13
농어촌가정	4.31	4.22	4.14	3.98	3.71	3.98
저소득층가정	4.14	4.01	3.86	3.83	3.52	3.81

다. 온라인 부모교육 이용

1) 양육정보 검색 경험

인터넷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본 경험에 대해서 62%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자녀 양육 정보를 위한 인터넷 사용 경험은 가구 특성별로 맞벌이 가정에서 71.2%로 가장 높았으며, 다문화 가정에서 37.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문화 가정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 및 한국 생활에의 적응 문제로 인하여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가정보다는 한부모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본 경험이 낮게 나타났다.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자녀 양육 정보 관련 인터넷 사용 경험이 높았으며, 응답자 소득별로 보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인터넷 이용 경험이 늘어나 월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58.0% 수준에서 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82.5%로 늘어남을 알 수 있다. 학력에 비추어 볼 때에도 학력이 높아질수록 자녀 양육 관련 정보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험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에서 자녀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본 경험은 가구 특성, 부나 모, 가구 소득, 응답자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20〉 인터넷에서 자녀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본 경험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chi^2(df)$
전체	62.0	38.0	100.0(1,002)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71.2	28.8	100.0(250)	57.73(4) ***
한부모가정	54.7	45.3	100.0(150)	
다문화가정	37.3	62.7	100.0(150)	
농어촌가정	69.8	30.2	100.0(199)	
저소득층가정	65.6	34.4	100.0(253)	
응답자				
부	48.2	51.8	100.0(85)	7.66(1) **
모	63.5	36.5	100.0(914)	

(표 V-2-20 계속)

구분	있다	없다	계(수)	$\chi^2(df)$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58.0	42.0	100.0(502)	18.56(4) ***
200~299만원	58.8	41.2	100.0(165)	
300~399만원	64.9	35.1	100.0(168)	
400~499만원	69.6	30.4	100.0(102)	
500만원 이상	82.5	17.5	100.0(63)	
응답자 학력				
고졸 이하	55.3	44.7	100.0(535)	21.88(2) ***
전문대졸	68.2	31.8	100.0(220)	
4년제졸 이상	70.9	29.1	100.0(247)	

** $p < .01$, *** $p < .001$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찾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621명에 한하여 월평균 이용 횟수를 조사한 결과, 의외로 다문화 가정 부모가 월 5.13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부모 가정에서 월 2.93회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에서는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다른 가정에 비해서 부모의 인터넷 사용 경험이 낮게 나타났으나 일단 정보를 찾아보는 부모들은 자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정보를 찾아보는 횟수가 많게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사용 횟수는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자녀 양육 관련된 정보를 찾아본 경험과는 달리 가구 특성, 부나 모, 가구 소득, 응답자의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2-21〉 인터넷에서 자녀양육 관련 정보 찾아보는 횟수(월 평균)

단위: %(명), 점

구분	1회 미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계(수)	평균
전체	29.0	26.9	12.4	8.9	22.9	100.0(621)	3.67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26.4	30.9	13.5	6.7	22.5	100.0(178)	3.46
한부모가정	32.9	26.8	11.0	11.0	18.3	100.0(82)	2.93
다문화가정	30.4	21.4	10.7	12.5	25.0	100.0(56)	5.13
농어촌가정	33.8	25.2	14.4	5.8	20.9	100.0(139)	3.27
저소득층가정	25.3	25.9	10.8	11.4	26.5	100.0(166)	4.12
응답자							
부	48.8	22.0	4.9	14.6	9.8	100.0(41)	2.63
모	27.6	27.2	12.9	8.4	23.8	100.0(580)	3.75

(표 V-2-21 계속)

구분	1회 미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계(수)	평균
응답자 학력							
고졸 이하	29.1	29.7	13.2	8.4	19.6	100.0(296)	3.50
전문대졸	27.3	25.3	14.0	11.3	22.0	100.0(150)	3.79
4년제졸 이상	30.3	23.4	9.7	7.4	29.1	100.0(175)	3.86

2) 온라인 부모교육 참여 경험

인터넷을 이용한 자녀 양육 관련 자료를 찾아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62%에 달하였으나, 인터넷 검색 외 특정 기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은 5.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특성별로 보았을 때 다문화 가정 부모들이 참여한 경험이 1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학력으로 보면 전문대졸 부모의 경험이 고졸이나 4년제졸 이상 부모보다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가구 특성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온라인 부모 교육에 대한 참여 경험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22〉 특정기관 주최 온라인 부모교육 참여 경험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chi^2(df)$
전체	5.8	94.2	100.0(1,002)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4.4	95.6	100.0(250)	11.45(4)*
한부모가정	4.7	95.3	100.0(150)	
다문화가정	11.3	88.7	100.0(150)	
농어촌가정	6.5	93.5	100.0(199)	
저소득층가정	4.0	96.0	100.0(253)	
응답자				
부	7.1	92.9	100.0(85)	.26(1)
모	5.7	94.3	100.0(914)	
응답자 학력				
고졸 이하	4.1	95.9	100.0(535)	13.72(2)**
전문대졸	10.9	89.1	100.0(220)	
4년제졸 이상	4.9	95.1	100.0(247)	

* $p < .05$, ** $p < .01$

3) 온라인 부모교육 내용 및 만족도

온라인 부모교육 참여자의 숫자가 58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구 특성별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우나, 가구 특성별로 참여한 온라인 부모교육 내용이 다양하였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영유아 발달에 대한 이론적 내용’, 한부모 가정은 ‘발달을 돕는 놀이 방법’, ‘바람직한 부모 역할, 훈육 방법’, ‘영유아 건강, 영양, 안전 관리’, 다문화 가정에서는 ‘영유아 건강, 영양, 안전 관리’, 농어촌 가정에서는 ‘바람직한 부모 역할, 훈육 방법’,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발달을 돕는 놀이 방법’에 대한 부모교육 빈도가 가장 높았다. 주목할 점은 모든 가구에서 ‘부부, 가족 관계 등 부모로서의 자질 향상에 관한 내용’이 가장 낮게 나왔다는 점이다. 온라인 부모교육이 자녀의 발달이나 놀이, 부모의 역할에 중점을 두면서 부부 사이의 관계나 부모로서의 전반적인 자질 향상에 관련된 부모교육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온라인 부모교육뿐만 아니라 여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부모교육에서도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부모교육은 자녀에 초점을 둔 교육이었지만, 점점 부모의 자아 발견 및 성장이라는 주제로 확장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부모교육의 내용이 더 다양화 될 필요가 있으며 부모교육이 자녀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부모의 자기 발견 및 성장에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겠다.

〈표 V-2-23〉 참여한 온라인 부모교육 내용

단위: %, 명

구분	영유아 발달 이론	놀이 방법	부모 역할	건강,영양, 안전 관리	부모로서의 자질향상	기타	사례수
전체	51.7	44.8	58.6	46.6	17.2	1.7	58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72.7	45.5	45.5	18.2	9.1	9.1	11
한부모가정	42.9	57.1	57.1	57.1	14.3	0.0	7
다문화가정	52.9	35.3	47.1	70.6	17.6	0.0	17
농어촌가정	53.8	30.8	84.6	46.2	23.1	0.0	13
저소득층가정	30.0	70.0	60.0	30.0	20.0	0.0	1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4.6	50.0	53.8	46.2	11.5	0.0	26
200~299만원	75.0	33.3	58.3	66.7	16.7	0.0	12
300~399만원	50.0	37.5	87.5	25.0	12.5	0.0	8
400~499만원	66.7	50.0	33.3	33.3	16.7	16.7	6
500만원 이상	75.0	50.0	50.0	50.0	50.0	0.0	4

(표 V-2-23 계속)

구분	영유아 발달 이론	놀이 방법	부모 역할	건강,영양, 안전 관리	부모로서의 자질향상	기타	사례수
응답자 학력							
고졸 이하	45.5	40.9	54.5	54.5	18.2	0.0	22
전문대졸	50.0	54.2	70.8	37.5	12.5	0.0	24
4년제졸 이상	66.7	33.3	41.7	50.0	25.0	8.0	12

주: 중복응답 결과임.

인터넷 온라인 부모교육을 알게 된 경로를 보면, 대개 ‘기관의 문자나 전화’, ‘인터넷 홍보’, ‘친구, 친지 등 지인의 소개’가 25% 내외의 비율을 고르게 보이며, ‘TV, 신문, 잡지 광고’가 15.8%를 차지하고 있다. 가구 특성별로 보면, 맞벌이 가정은 ‘친구, 친지 등 지인의 소개’, 한부모, 농어촌, 저소득층 가정은 ‘인터넷 홍보’, 다문화 가정은 ‘기관의 문자나 전화’를 통해 알게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표 V-2-8>에 나타난 일반 부모교육을 알게 된 경로와 비교했을 때, ‘인터넷 홍보’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는데 온라인 부모교육을 알게 된 경로이기 때문에 기관의 문자나 전화보다는 인터넷 홍보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경우 ‘인터넷 홍보’에 응답한 사람이 5.9%밖에 되지 않아 인터넷을 통한 부모교육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가 면담에서 인터넷 사용이 경제적인 이유나 시간 부족, 사용의 어려움으로 여의치 않음을 말한 부분과 일치한다.

<표 V-2-24> 온라인 부모교육을 알게 된 경로

단위: %(명)						
구분	기관의 문자나 전화	TV, 신문, 잡지 광고	인터넷 홍보	친구, 친지 등 지인의 소개	기타	계(수)
전체	28.1	15.8	28.1	22.8	5.3	100.0(57)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27.3	9.1	18.2	45.5	0.0	100.0(11)
한부모가정	0.0	33.3	50.0	16.7	0.0	100.0(6)
다문화가정	47.1	23.5	5.9	17.6	5.9	100.0(17)
농어촌가정	23.1	7.7	30.8	23.1	15.4	100.0(13)
저소득층가정	20.0	10.0	60.0	10.0	0.0	100.0(10)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98점으로 양호한 편이나, 오프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한 <표 V-2-17>과 비교해보면,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약간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맞벌이 가정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4.27점)를 보였으며, 한부모 가정(3.71점)과 저소득층 가정(3.70점)의 만족도가 낮았다. 온라인 부모교육 수강 시 만족도를 저해하는 점은 다음 <표 V-2-26>에 잘 나타나 있다.

<표 V-2-25>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만족	조금 만족	보통	조금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수)	평균(표준편차)
전체	19.0	60.3	20.7	-	-	100.0(58)	3.98(.63)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36.4	54.5	9.1	-	-	100.0(11)	4.27(.65)
한부모가정	0.0	71.4	28.6	-	-	100.0(7)	3.71(.49)
다문화가정	17.6	76.5	5.9	-	-	100.0(17)	4.12(.49)
농어촌가정	23.1	46.2	30.8	-	-	100.0(13)	3.92(.76)
저소득층가정	10.0	50.0	40.0	-	-	100.0(10)	3.70(.63)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7.7	61.5	30.8	-	-	100.0(26)	3.77(.59)
200~299만원	16.7	75.0	8.3	-	-	100.0(12)	4.08(.51)
300~399만원	12.5	62.5	25.0	-	-	100.0(8)	3.88(.64)
400~499만원	50.0	33.3	16.7	-	-	100.0(6)	4.33(.82)
500만원 이상	50.0	50.0	0.0	-	-	100.0(4)	4.50(.58)
응답자 학력							
고졸 이하	13.6	63.6	22.7	-	-	100.0(22)	3.91(.61)
전문대졸	16.7	62.5	20.8	-	-	100.0(24)	3.96(.62)
4년제졸 이상	33.3	50.0	16.7	-	-	100.0(12)	4.17(.72)

4) 온라인 부모교육 이용의 장애물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살펴보면, 전체 적으로 '시간 부족'이 31.0%로 가장 많으며 시간 부족은 가구 특성에 상관없이 모든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는 54.5%를 차지하였다. 시간 부족 다음으로는 '자녀들의 방해'가 17.2%, '강사와의 상호작용 불가능'이 12.1%로 나타났다. 또한, '어려움 없음'에 응답한 비율은 예상외로 17.2%로 조사되었다. <표 V-2-22>에서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사람

이 5.8%밖에 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온라인 부모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인터넷 사용의 어려움에 있다기보다는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부재나 홍보 부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시간 부족 외에 맞벌이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방해가 18.2%, 한부모 가정에서는 교육 수준 부적절이 28.6%, 다문화가정에서는 교육수준 부적절이 17.6%, 컴퓨터 이용의 미숙이 17.6%, 농어촌 가정에서는 강사와의 상호작용 불가능이 30.8%,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방해가 30.0%로 조사되었다. 인터넷 상용화로 인하여 ‘인터넷의 낙후, 속도 느림’은 평균 5.2%로 전반적으로 낮은 응답율을 보였지만, 한부모 가정에서는 14.3%가, 다문화 가정에서는 11.8%가 응답하여 여전히 인터넷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V-2-26〉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

단위: %(명)

구분	시간 부족	자녀의 방해	강사와 상호작용 불가능	교육 수준 부적절	컴퓨터 미숙	인터넷 낙후	어려움 없음	계(수)
전체	31.0	17.2	12.1	10.3	6.9	5.2	17.2	100.0(58)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54.5	18.2	0.0	0.0	0.0	0.0	27.3	100.0(11)
한부모가정	28.6	0.0	14.3	28.6	0.0	14.3	14.3	100.0(7)
다문화가정	17.6	11.8	11.8	17.6	17.6	11.8	11.8	100.0(17)
농어촌가정	30.8	23.1	30.8	0.0	7.7	0.0	7.7	100.0(13)
저소득층가정	30.0	30.0	0.0	10.0	0.0	0.0	30.0	100.0(10)
응답자								
부	16.7	33.3	0.0	16.7	33.3	0.0	0.0	100.0(6)
모	32.7	15.4	13.5	9.6	3.8	5.8	19.2	100.0(52)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6.9	19.2	3.8	19.2	11.5	3.8	15.4	100.0(26)
200~299만원	33.3	16.7	25.0	8.3	0.0	16.7	0.0	100.0(12)
300~399만원	37.5	25.0	12.5	0.0	12.5	0.0	12.5	100.0(8)
400~499만원	33.3	16.7	0.0	0.0	0.0	0.0	50.0	100.0(6)
500만원 이상	50.0	0.0	25.0	0.0	0.0	0.0	25.0	100.0(4)

5) 향후 이용 의향 및 이용불가 이유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향을 조사한 결과, 76.8%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집단은 18.5%, 4.8%는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도 하였다. 전반적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응답자보다 '가능하면 활용하겠다'는 응답자가 많아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다고 할 수는 없으나 가구 특성별로 70~80%내외로 활용할 의향을 보이고 있다.

〈표 V-2-27〉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의향

단위: %(명)

구분	적극 활용할 것임	가능하면 활용할 것임	활용하고 싶으나 어려울 것임	활용하지 않을 것임	계(수)	$\chi^2(df)$
전체	14.8	62.0	18.5	4.8	100.0(1,002)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14.4	70.4	13.2	2.0	100.0(250)	39.23(12)***
한부모가정	8.0	64.7	22.7	4.7	100.0(150)	
다문화가정	20.7	48.0	22.0	9.3	100.0(150)	
농어촌가정	18.1	61.8	17.6	2.5	100.0(199)	
저소득층가정	13.0	60.5	19.8	6.7	100.0(253)	
응답자						
부	4.7	69.4	21.2	4.7	100.0(85)	7.57(3)
모	15.8	61.4	18.3	4.6	100.0(914)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1.6	61.0	21.1	6.4	100.0(502)	28.74(12)**
200~299만원	21.2	53.9	19.4	5.5	100.0(165)	
300~399만원	15.5	69.6	13.1	1.8	100.0(168)	
400~499만원	13.7	69.6	14.7	2.0	100.0(102)	
500만원 이상	22.2	58.7	15.9	3.2	100.0(63)	
응답자 학력						
고졸 이하	13.3	59.1	21.5	6.2	100.0(535)	15.50(6)*
전문대졸	14.1	67.3	15.5	3.2	100.0(220)	
4년제졸 이상	18.6	63.6	14.6	3.2	100.0(247)	

* $p < .05$, ** $p < .01$, *** $p < .001$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활용이 어려운 이유는 <표 V-2-26>에 나타난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온라인 교육에 대한 무관심을 볼 수 있는 점이 흥미로웠다. '집에서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음'이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온라인 교육은 별로 관심 없음'도 25.1%로 높게 나타났다. 많은 문헌에서 부모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온라인 부모교육을 제시하였지만, 실제로 부모들은 온라인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농어촌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부모와의 면담에서 동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온라인 부모교육에 대한 질 제고 및 부모교육을 위한 다양한 참여 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표 V-2-28〉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개인 시간 없음	관심 없음	자녀의 방해	컴퓨터 사용방법 모름	집에 인터넷 없음	기타	계(수)
전체	39.4	25.1	16.5	9.5	6.5	3.0	100.0(231)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48.6	29.7	21.6	0.0	0.0	0.0	100.0(37)
한부모가정	58.5	24.4	4.9	2.4	9.8	0.0	100.0(41)
다문화가정	29.8	19.1	8.5	27.7	14.9	0.0	100.0(47)
농어촌가정	47.5	10.0	22.5	10.0	2.5	7.5	100.0(40)
저소득층가정	24.2	36.4	22.7	6.1	4.5	6.1	100.0(66)
응답자							
부	40.9	31.8	13.6	13.6	0.0	0.0	100.0(22)
모	39.6	24.6	16.9	8.2	7.2	3.4	100.0(207)
응답자 학력							
고졸 이하	33.3	29.9	12.2	13.6	9.5	1.4	100.0(147)
전문대졸	47.5	20.0	22.5	5.0	2.5	2.5	100.0(40)
4년제졸 이상	52.3	13.6	25.0	0.0	0.0	9.1	100.0(44)

3.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가. 인식

1) 필요성 인식

전반적으로 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8.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에 그쳤으며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없었다. 부모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정은 가구 특성별로 다문화 가정에서 60.0%, 농어촌 가정에서 62.8%로 조사되었다. 다문화 가정 부모들은 한국 사회 적응이나 자녀 교육을 목

적으로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농어촌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역시 지역적으로 교육, 문화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가구들보다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부모교육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가구 소득이나 응답자 학력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3-1〉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별로 필요하지 않음	계(수)	$\chi^2(df)$
전체	49.2	48.8	2.0	100.0(1,002)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47.6	51.6	0.8	100.0(250)	41.56(8)***
한부모가정	39.3	57.3	3.3	100.0(150)	
다문화가정	60.0	37.3	2.7	100.0(150)	
농어촌가정	62.8	35.2	2.0	100.0(199)	
저소득층가정	39.5	58.5	2.0	100.0(253)	
응답자					
부	36.5	61.2	2.4	100.0(85)	6.08(2)*
모	50.4	47.6	2.0	100.0(914)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6	51.4	2.0	100.0(502)	10.28(8)
200~299만원	49.7	46.7	3.6	100.0(165)	
300~399만원	50.6	47.6	1.8	100.0(168)	
400~499만원	49.0	50.0	1.0	100.0(102)	
500만원 이상	63.5	36.5	0.0	100.0(63)	
응답자 학력					
고졸 이하	47.3	49.7	3.0	100.0(535)	10.25(4)*
전문대졸	46.8	52.3	0.9	100.0(220)	
4년제졸 이상	55.5	43.7	0.8	100.0(247)	

* $p < .05$, *** $p < .001$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별로 필요하지 않거나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자가 20명으로 많지는 않았지만 응답 내용에는 부모교육의 수준 불만족,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무관심, 시간 부족, 다른 방법을 통한 부모교

육 기능이 있었다. 부모교육 수준이나 시간 부족, 다른 방법을 통한 부모교육 선호에 응답한 부모는 부모교육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으나 부모가 교육을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있어 부모교육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V-3-2〉 부모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내용/수준이 자녀양육에 도움 되지 않음	부모가 교육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음	참여할 시간이 없음	책, 마스크, 인터넷 등으로 충분함	계(수)
전체	35.0	30.0	20.0	15.0	100.0(20)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0.0	0.0	100.0	0.0	100.0(2)
한부모가정	20.0	0.0	40.0	40.0	100.0(5)
다문화가정	25.0	75.0	0.0	0.0	100.0(4)
농어촌가정	25.0	75.0	0.0	0.0	100.0(4)
저소득층가정	80.0	0.0	0.0	20.0	100.0(5)
응답자					
부	50.0	0.0	0.0	50.0	100.0(2)
모	33.3	33.3	22.2	11.1	100.0(18)

2) 향후 부모교육 참여 의향

향후 부모교육 기회에 대한 참여 의향에 대해서 응답자의 94.4%가 참여하겠다고 하였으며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한 응답자는 다문화 가정에서 29.3%, 농어촌 가정 22.1% 조사되어 다른 가정들에 비해서 높은 참여 의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부모교육의 일반적인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대한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었다.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적으로 5.6%이나 한부모 가정에서 10.7%, 다문화가정에서 9.3%로 다른 가구들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에서는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의향과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향이 동시에 높게 나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부모교육 참여에 대한 여러 결과에서 보았듯이 어머니의 참여 의향이 아버지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 소득이나 응답자 학력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3-3〉 향후 부모교육 기회 참여 의향 정도

단위: %(명)

구분	반드시 참여할 것임	가능하면 참여할 것임	참여하지 않을 것임	계(수)	$\chi^2(df)$
전체	16.5	77.9	5.6	100.0(1,002)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12.4	82.0	5.6	100.0(250)	53.89(8) ***
한부모가정	9.3	80.0	10.7	100.0(150)	
다문화가정	29.3	61.3	9.3	100.0(150)	
농어촌가정	22.1	76.4	1.5	100.0(199)	
저소득층가정	12.6	83.8	3.6	100.0(253)	
응답자					
부	5.9	81.2	12.9	100.0(85)	15.72(2) ***
모	17.4	77.8	4.8	100.0(914)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5.5	79.1	5.4	100.0(502)	11.78(8)
200~299만원	24.2	71.5	4.2	100.0(165)	
300~399만원	13.1	79.2	7.7	100.0(168)	
400~499만원	12.7	82.4	4.9	100.0(102)	
500만원 이상	17.5	76.2	6.3	100.0(63)	
응답자 학력					
고졸 이하	16.3	77.2	6.5	100.0(535)	2.71(4)
전문대졸	18.2	77.7	4.1	100.0(220)	
4년제졸 이상	15.4	79.8	4.9	100.0(247)	

*** $p < .001$

나. 요구

부모교육의 내용으로서 부모가 원하는 것과 운영 방법의 측면에서의 요구를 살펴보았다.

1) 내용

향후 부모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1순위 내용으로 영유아의 정서·사회성 발달에 대한 지식이 25.2%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와의 대화 방법이 15.5%, 자녀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 방법이 10.5%로 조사되었다. 자녀의 건강, 영양 관리, 신생아 돌보기, 부부 및 가족 관계 향상, 부모의 정신 건강에 관련된 내용은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표 V-3-4〉 가장 배우고 싶은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단위: %(명)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영유아의 신체 발달	7.7	책, 놀잇감, 교육기관 선택 방법	3.3
영유아의 정서·사회성 발달	25.2	초등학교 적응 준비	1.2
영유아의 인지 발달	5.7	영유아의 건강, 영양관리	4.2
영유아의 언어 발달	5.5	영유아의 안전 관리	1.5
자녀와의 놀이 방법	9.0	신생아 돌보는 방법	0.7
자녀와의 대화 방법	15.5	부부 및 가족관계 향상 방법	1.4
자녀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 방법	10.5	부모의 정신 건강을 위한 교육	0.4
자녀의 학습지도 방법	8.2		
계(수)		100.0(946)	

가구 특성별로 부모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내용을 조사한 결과, 가구 특성에 상관없이 영유아의 정서·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식과 자녀와의 대화 방법, 자녀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방법에 대한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3-5〉 가구 특성별 가장 배우고 싶은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2개 선택)

단위: %

부모교육 내용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	농어촌	도시 저소득층
영유아의 신체 발달	10.2	8.2	9.6	8.2	11.5
영유아의 정서·사회성 발달	41.1	37.3	23.5	41.8	29.9
영유아의 인지 발달	11.9	10.4	5.1	7.1	11.5
영유아의 언어 발달	7.2	6.7	29.4	6.1	7.0
자녀와의 놀이 방법	21.6	11.9	16.2	14.8	17.2
자녀와의 대화 방법	31.8	25.4	30.1	41.3	34.0
자녀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 방법	30.1	41.0	27.2	28.1	30.3
자녀의 학습 지도 방법	15.7	20.1	25.0	16.3	24.6
책, 놀잇감, 기관 선택 방법	10.6	17.2	7.4	6.6	12.3
초등학교 적응 준비	3.0	1.5	2.2	3.1	1.6
영유아의 건강·영양 관리	9.3	7.5	14.7	8.2	10.2
영유아의 안전 관리	3.4	3.7	0.0	4.1	0.4
신생아 돌보는 방법	0.4	3.7	0.7	0.5	0.8
부부 및 가족 관계 향상 방법	2.5	0.7	5.1	8.2	6.6
부모의 정신 건강을 위한 교육	1.3	3.7	2.9	5.6	2.0
계	200.0	200.0	200.0	200.0	200.0

가구 특성별로 가장 높은 선호를 보인 부모교육 내용은 맞벌이 가정, 농어촌

가정에서 영유아의 정서·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식으로 각각 41.1%, 41.8%를 나타내었다. 한부모 가정에서는 자녀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 방법이 41%로 조사되었으며 다문화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자녀와의 대화 방법이 30.1%, 34%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표 V-3-5 참조).

자녀가 영아기(만3세 미만)에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유아기(만3세 이상)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 대상 부모교육이 내용상 차이가 있을 것인가를 부모들에게 질문했을 때, 거의 80%에 이르는 응답자가 다를 것이라고 답하였다. 집단별로 보면 부모특성별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비슷한 비율을 보였지만 응답자 학력별 구분 집단에서는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부모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부모교육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에 따라 영아기 자녀 부모와 유아기 자녀 부모 각각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지를 별도로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은 자녀 연령에 따라 부모교육 내용이 다를 것이라고 응답한 부모에 한해 이루어졌다. 결과는 다음의 <표 V-3-6>에 있는 바와 같다.

<표 V-3-6> 영아기와 유아기 자녀의 부모교육 내용 차이 인식

구분	교육내용이 다를 것이다	교육내용이 같을 것이다	계(수)	단위: %(명)	
				$\chi^2(df)$	
전체	79.4	20.6	100.0(1,002)		
부모특성					
맞벌이가정	81.2	18.8	100.0(250)		
한부모가정	78.7	21.3	100.0(150)		
다문화가정	78.0	22.0	100.0(150)	.75(4)	
농어촌가정	78.9	21.1	100.0(199)		
저소득층가정	79.4	20.6	100.0(253)		
응답자 학력					
고졸 이하	76.4	23.6	100.0(535)		
전문대졸	78.6	21.4	100.0(220)		
4년제졸 이상	86.6	13.4	100.0(247)	10.85(2)**	

** $p < .01$

만3세 미만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꼽힌 것은 첫째가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지식’(21.0%)이었고 두번째는 ‘영아의 신체 발달에 대한 지식’(20.2%)이었다. 즉, 신체와 사회·정서 발달 지식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고 더불어 ‘영아의 건강, 영양 관리’(18.8%)도 높은 순위에

올랐다. 반면 ‘영아의 인지 발달에 대한 지식’(11.9%)은 다른 측면의 발달 지식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 외 자녀와의 놀이방법(8.3%), 언어 발달(5.5%), 신생아 돌보기(5.5%) 등이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지적되었다.

〈표 V-3-7〉 영아기 자녀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내용 인식

단위: %(명)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영유아의 신체 발달에 대한 지식	20.2	자녀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 방법	1.3
영유아의 정서·사회성 발달에 대한 지식	21.0	좋은 책, 놀잇감, 교육기관 선택 방법	0.9
영유아의 인지 발달에 대한 지식	11.9	영유아의 건강, 영양관리	18.8
영유아의 언어 발달에 대한 지식	5.5	영유아의 안전 관리	4.3
자녀와의 놀이 방법	8.3	신생아 돌보는 방법	5.5
자녀와의 대화 방법	2.1	부부 및 가족관계 향상 방법	0.1
계(수)		100.0(796)	

만3세 이상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부모교육 내용은 영아기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첫째가 ‘자녀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방법’(20.6%)으로 생각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자녀와의 대화법’(15.1%), ‘유아의 정서·사회성 발달에 대한 지식’(13.6%), ‘자녀의 학습지도 방법’(12.8%), ‘자녀와의 놀이 방법’(12.2%)이 높은 지지를 받았다. 영아기 부모에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신체 발달에 대한 지식이나 인지 및 언어 발달 지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표 V-3-8〉 유아기 자녀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내용 인식

단위: %(명)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영유아의 신체 발달에 대한 지식	1.0	좋은 책, 놀잇감, 교육기관 선택 방법	8.9
영유아의 정서·사회성 발달 지식	13.6	초등학교 적응 준비	0.8
영유아의 인지 발달에 대한 지식	4.4	영유아의 건강, 영양관리	1.8
영유아의 언어 발달에 대한 지식	6.5	영유아의 안전 관리	1.0
자녀와의 놀이 방법	12.2	신생아 돌보는 방법	0.3
자녀와의 대화 방법	15.1	부부 및 가족관계 향상 방법	0.6
자녀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 방법	20.6	부모의 정신 건강을 위한 교육	0.5
자녀의 학습지도 방법	12.8		
계(수)		100.0(796)	

한편, 다음의 <표 V-3-9>는 영아기나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교육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부모교육 내용으로 필요한 것을 선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에 의하면 자녀가 영아이든 유아이든 가장 필요한 것은 '정서·사회성 발달에 대한 지식'(20.4%)이고 다음은 '자녀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 방법'(18.9%), '자녀와의 대화 방법'(12.6%)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유아기 자녀 부모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과 순위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V-3-9> 영유아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내용(영/유아 구분 불필요 입장)

단위: %(명)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영유아의 신체 발달 지식	4.4	자녀의 학습지도 방법	8.3
영유아의 정서·사회성 발달 지식	20.4	좋은 책, 놀잇감, 교육기관 선택 방법	1.0
영유아의 인지 발달 지식	9.2	영유아의 건강, 영양관리	7.3
영유아의 언어 발달 지식	6.3	영유아의 안전 관리	1.0
자녀와의 놀이 방법	7.8	부부 및 가족관계 향상 방법	1.9
자녀와의 대화 방법	12.6	부모의 정신 건강을 위한 교육	1.0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 방법	18.9		
계(수)		100.0(206)	

2) 운영 방법

가) 적정 교육 기간

부모교육의 기간에 대한 선호를 살펴보면,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 형태는 단기교육으로서 1~5회 이내로 이루어지는 방식(54.1%)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10회를 단위로 하는 단기교육(17.7%)과 1회성 교육(17.0%)도 비교적 적절하다고 보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10회가 넘어가는 장기 교육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매우 낮았다.

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물론 모두 5회이내 단기교육을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지만, 맞벌이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1회성 교육을 적절하다고 보는 비율이 높았고 다문화가정은 특히 6~10회의 단기교육을 선호하였다. 또한 어머니보다는 아버지 응답자가 1회성 교육을 선호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고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1회성 교육을 적절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표 V-3-10〉 부모교육 운영방법 개선을 위한 의견: 적절한 교육기간

단위: %(명)

구분	1회성 교육	단기 (1-5회)	단기 (6-10회)	장기 (11-20회)	장기 (21회이상)	계(수)	$\chi^2(df)$
전체	17.0	54.1	17.9	6.5	4.6	100.0(1,002)	
부모특성							
맞벌이가정	25.6	56.8	11.2	4.8	1.6	100.0(250)	
한부모가정	18.7	54.0	16.7	6.0	4.7	100.0(150)	
다문화가정	10.0	43.3	29.3	7.3	10.0	100.0(150)	65.49(16) ^{***}
농어촌가정	10.1	61.3	15.6	6.5	6.5	100.0(199)	
저소득층가정	17.0	52.2	20.2	7.9	2.8	100.0(253)	
응답자							
부	24.7	43.5	20.0	3.5	8.2	100.0(85)	9.76(4) [*]
모	16.1	55.3	17.7	6.8	4.2	100.0(914)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4.9	52.6	20.5	6.6	5.4	100.0(502)	
200~299만원	13.9	50.9	21.8	7.9	5.5	100.0(165)	
300~399만원	18.5	59.5	11.9	6.5	3.6	100.0(168)	28.33(16) [*]
400~499만원	21.6	57.8	12.7	5.9	2.0	100.0(102)	
500만원 이상	30.2	55.6	7.9	3.2	3.2	100.0(63)	

* p<.05, *** p<.001

나) 교육개설 시간

부모들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 부모교육의 시간은 평일 오전(30.4%)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말 오전(20.7%), 주말 오후(20.6%)가 비슷한 비율을 보였고 평일 오후, 평일 저녁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그러나 집단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부모특성 구분에서 맞벌이가정과 한부모가정은 비슷하게 주말오후와 주말오전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다문화가정이나 농어촌, 저소득층 가정은 평일 오전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 평일에는 거의 불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종일근무나 정규직, 시간제 근무 등 모든 경우를 취업으로 포함하고 있어 일부 맞벌이가정 부모는 평일 오전이나 오후가 가능하다고 답했을 수 있다.

부 응답자와 모 응답자간에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 아버지들은 주말 오후(31.8%)와 주말 오전(24.7%)을 부모교육 시간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데 비해 어머니들은 평일 오전(32.4%)을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부모특성과 일면 같이 가는 경향을 보이는 가구소득별 비교 결과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주말 오전이나 오후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고 가구소득이 낮은 가정에서는 평일오전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은 부모 집단에서 평일 오전을 선호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11〉 부모교육 운영방법 개선을 위한 의견: 적절한 개설기간

단위: %(명)

구분	평일 오전	평일 오후	평일 저녁	주말 오전	주말 오후	주말 저녁	계(수)	$\chi^2(df)$
전체	30.4	15.4	10.4	20.7	20.6	2.6	100.0(1,002)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12.8	11.6	13.6	28.8	29.2	4.0	100.0(250)	
한부모가정	17.3	8.7	10.0	27.3	34.0	2.7	100.0(150)	
다문화가정	33.3	27.3	10.0	13.3	12.7	3.3	100.0(150)	154.69(20)***
농어촌가정	38.7	13.1	12.6	17.6	16.6	1.5	100.0(199)	
저소득층가정	47.4	17.8	5.9	15.4	11.9	1.6	100.0(253)	
응답자								
부	8.2	10.6	20.0	24.7	31.8	4.7	100.0(85)	32.58(5)***
모	32.4	15.9	9.5	20.4	19.5	2.4	100.0(914)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8.0	16.3	8.0	17.5	17.5	2.6	100.0(502)	
200~299만원	34.5	16.4	13.9	18.8	14.5	1.8	100.0(165)	
300~399만원	22.6	14.9	7.7	24.4	28.0	2.4	100.0(168)	83.04(20)***
400~499만원	9.8	13.7	11.8	29.4	31.4	3.9	100.0(102)	
500만원 이상	12.7	7.9	25.4	27.0	23.8	3.2	100.0(63)	

*** $p < .001$

다) 교육 수강집단 규모

부모교육을 실시할 때 적절하다고 보는 교육수강자의 규모를 물었을 때 2~10명 이내의 소집단 규모를 가장 선호(67.7%)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다음으로 30명 이내 중규모 집단(19.3%), 개인별 1:1교육(11.0%)로 나타났다.

집단별 비교에서는 상당한 응답 유형 차이를 보이는 바, 다문화가정의 경우 1:1 개인교육을 상대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농어촌가정은 중규모 집단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이었다. 어머니들이 10명이나 소집단 교육에 대해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선호하는 반면 아버지들을 개인교육을 적절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고, 소득이나 학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3-12〉 부모교육 운영방법 개선을 위한 의견: 적절한 교육집단 규모

단위: %(명)

구분	개인 교육 (1:1)	소집단 (2-10명 이내)	중집단 (10-30명 이내)	대집단 (30명 이상)	계(수)	$\chi^2(df)$
전체	11.0	67.7	19.3	2.0	100.0(1,001)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9.6	68.4	19.6	2.4	100.0(250)	40.01(12)***
한부모가정	8.7	70.7	20.0	0.7	100.0(150)	
다문화가정	23.3	64.7	10.7	1.3	100.0(150)	
농어촌가정	8.1	63.1	25.3	3.5	100.0(198)	
저소득층가정	8.7	70.8	19.0	1.6	100.0(253)	
응답자						
부	25.9	51.8	18.8	3.5	100.0(85)	23.16(3)***
모	9.6	69.1	19.4	1.9	100.0(913)	

*** $p < .001$

라) 교육 방식

부모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46.9%의 응답자가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가장 높은 선호를 보였다. 다음으로 ‘활동중심워크숍, 체험, 실습’(25.6%), ‘유명인 특강 등 강연회’(17.8%)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특이 사항은, 다문화가정 부모의 경우 ‘가정방문’ 형식 교육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고(20.0%) 아버지 집단에서도 상대적으로 가정방문을 선호하는 입장(20.0%)이 많았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유명인 특강 등 강연회를 적절하다고 보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학력별로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4년제 대졸 부모의 경우 워크숍이나 체험 등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왔다.

〈표 V-3-13〉 부모교육 운영방법 개선을 위한 의견: 적절한 교육유형

단위: %(명)

구분	유명인 특강 등 강연회	활동중심 워크숍 체험, 실습 등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가정 방문	컴퓨터 온라인 교육	전문 강사	계(수)
전체	17.8	25.6	46.9	7.1	2.5	0.1	100.0(1,002)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21.6	23.6	45.6	4.0	4.8	0.4	100.0(250)
한부모가정	25.3	24.7	42.7	6.0	1.3	0.0	100.0(150)
다문화가정	8.7	19.3	49.3	20.0	2.7	0.0	100.0(150)
농어촌가정	12.6	25.6	51.3	8.0	2.5	0.0	100.0(199)
저소득층가정	19.0	32.0	45.8	2.4	0.8	0.0	100.0(253)
응답자							
부	14.1	23.5	36.5	20.0	5.9	0.0	100.0(85)
모	18.2	25.8	47.8	5.9	2.2	0.1	100.0(914)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8.3	26.7	46.2	8.0	0.8	0.0	100.0(502)
200~299만원	13.9	26.1	49.7	9.1	1.2	0.0	100.0(165)
300~399만원	15.5	20.8	50.6	5.4	7.7	0.0	100.0(168)
400~499만원	23.5	26.5	44.1	1.0	3.9	1.0	100.0(102)
500만원 이상	20.6	27.0	41.3	7.9	3.2	0.0	100.0(63)
응답자 학력							
고졸 이하	18.3	24.9	45.6	9.5	1.5	0.2	100.0(535)
전문대졸	18.2	23.6	52.7	3.6	1.8	0.0	100.0(220)
4년제졸이상	16.2	29.1	44.5	4.9	5.3	0.0	100.0(247)

마) 교육장소

부모들이 부모교육을 위한 가장 적절한 장소로 꼽은 곳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등 육아지원기관(3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지역공공센터(25.4%), 보육정보센터(20.2%), 복지관(16.3%) 등이었고 직장을 교육장소로 선호한 비율은 매우 낮았다(3%).

집단별 비교 결과를 보면, 맞벌이가정과 저소득층가정의 부모들이 특히 유치원 등 육아지원기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고 다문화가정 부모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역센터가 교육장소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14〉 부모교육 운영방법 개선을 위한 의견: 적절한 교육장소

단위: %(명)

구분	유치원/ 보육 시설	보육 정보 센터	지역 센터	복지관	직장	마을 회관	기타	계(수)	$\chi^2(df)$
전체	30.0	20.2	25.4	16.3	3.0	1.2	3.9	100.0(1,002)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35.6	21.6	18.4	14.0	7.2	0.0	3.2	100.0(250)	
한부모가정	25.3	24.0	24.7	20.0	3.3	0.0	2.7	100.0(150)	
다문화가정	22.7	5.3	50.0	6.0	0.7	6.0	9.3	100.0(150)	17.20(24)**
농어촌가정	25.6	19.1	27.1	19.6	2.5	1.5	4.5	100.0(199)	
저소득층가정	35.2	26.1	17.0	19.8	0.4	0.0	1.6	100.0(253)	
응답자									
부	30.6	14.1	23.5	12.9	2.4	3.5	12.9	100.0(85)	27.02(6)***
모	30.0	20.8	25.7	16.5	3.1	0.9	3.1	100.0(914)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0.3	21.5	24.3	17.5	0.6	1.6	4.2	100.0(502)	
200~299만원	26.1	13.3	38.2	16.4	2.4	1.8	1.8	100.0(165)	
300~399만원	31.0	20.2	22.6	16.1	6.5	0.6	3.0	100.0(168)	63.24(24)***
400~499만원	34.3	22.5	17.6	15.7	4.9	0.0	4.9	100.0(102)	
500만원 이상	30.2	23.8	20.6	7.9	11.1	0.0	6.3	100.0(63)	
응답자 학력									
고졸 이하	29.9	17.0	26.7	17.9	2.1	1.7	4.7	100.0(535)	
전문대졸	30.0	22.3	27.7	15.9	1.4	1.4	1.4	100.0(220)	34.00(12)***
4년제졸 이상	30.4	25.1	20.6	13.0	6.5	0.0	4.5	100.0(247)	

*** $p < .001$

다. 부모교육 개선안에 대한 의견

‘부모교육 강화를 위해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를 물었을 때 90%의 부모가 그러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특히 맞벌이가정 부모와 저소득층 부모에게서 동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들이 더 많이 그러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또한 소득이 높고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동의비율이 상대적으로 높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5점 척도에서의 평균 점수로 비교하면 모든 집단에서 4점이 넘는 응답을 하여 대부분 부모교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노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3-15〉 부모교육 강화를 위해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수)	$\chi^2(df)$	평균
전체	49.1	40.9	9.3	0.6	0.1	100.0(1,002)		4.38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51.6	40.4	7.2	0.8	0.0	100.0(250)		4.43
한부모가정	38.7	48.7	12.7	0.0	0.0	100.0(150)		4.26
다문화가정	46.7	38.7	12.0	2.0	0.7	100.0(150)	45.59(16) ^{***}	4.29
농어촌가정	61.8	27.6	10.6	0.0	0.0	100.0(199)		4.51
저소득층가정	44.3	48.6	6.7	0.4	0.0	100.0(253)		4.37
응답자								
부	31.8	48.2	18.8	1.2	0.0	100.0(85)	16.50(4) ^{**}	4.11
모	50.7	40.3	8.4	0.5	0.1	100.0(914)		4.41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8.4	42.8	8.0	0.8	0.0	100.0(502)		4.39
200~299만원	43.6	38.8	17.0	0.0	0.6	100.0(165)		4.25
300~399만원	53.0	38.7	8.3	0.0	0.0	100.0(168)	33.86(16) ^{**}	4.45
400~499만원	44.1	44.1	9.8	2.0	0.0	100.0(102)		4.30
500만원 이상	65.1	33.3	1.6	0.0	0.0	100.0(63)		4.63

** $p < .01$, *** $p < .001$

부모교육 시간동안 자녀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91.3%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거의 대부분의 조사참여자가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집단별 비교에서 맞벌이가정이나 한부모가정 부모의 경우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농어촌가정 부모의 경우는 '매우 그렇다'라는 강한 동의를 보인 비율에서 가장 높았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 어머니들의 찬성비율은 92.2%로 전체 평균보다 높이 나타났으나 아버지는 81.2%로 전체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양상을 보여, 부모교육에 자녀 돌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아버지들은 크게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V-3-16〉 부모교육 개선안: 부모교육 시간 동안 자녀 돌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수)	$\chi^2(df)$	평균
전체	56.0	35.3	7.6	1.1	0.0	100.0(1,002)		4.46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54.0	41.6	4.0	0.4	0.0	100.0(250)		4.49
한부모가정	53.3	38.7	8.0	0.0	0.0	100.0(150)		4.45
다문화가정	52.0	34.7	10.7	2.7	0.0	100.0(150)	41.06(12)***	4.36
농어촌가정	66.8	22.1	8.0	3.0	0.0	100.0(199)		4.53
저소득층가정	53.4	37.9	8.7	0.0	0.0	100.0(253)		4.45
응답자								
부	31.8	49.4	17.6	1.2	0.0	100.0(85)	27.39(3)***	4.12
모	58.3	33.9	6.7	1.1	0.0	100.0(914)		4.49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55.8	35.7	8.0	0.6	0.0	100.0(502)		4.47
200~299만원	52.7	30.9	13.3	3.0	0.0	100.0(165)		4.33
300~399만원	56.0	38.1	4.8	1.2	0.0	100.0(168)	22.80(12)*	4.49
400~499만원	56.9	37.3	4.9	1.0	0.0	100.0(102)		4.50
500만원 이상	63.5	34.9	1.6	0.0	0.0	100.0(63)		4.62

* $p < .05$, *** $p < .001$

아버지교육의 기회가 충분하다고 보는지를 물었을 때, 그렇지 못하다라는 응답이 57.3%로 과반이 넘는 경향을 보였다. 21.0%가 충분하다고 보는 입장이었고 5점 척도상 평균은 2.51점으로 상당히 낮았다. 즉, 부모교육 중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아버지교육의 기회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집단별로는 농어촌가정과 맞벌이가정 부모들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고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들이 오히려 아버지 교육 부족을 인식하고 있었다.

〈표 V-3-17〉 부모교육 중 아버지 교육의 기회가 충분함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수)	$\chi^2(df)$	평균
전체	8.7	12.3	21.7	36.5	20.9	100.0(1,001)		2.51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7.6	12.4	20.4	38.8	20.8	100.0(250)		2.47
한부모가정	9.3	9.3	33.3	32.7	15.3	100.0(150)		2.65
다문화가정	7.4	20.1	16.1	34.2	22.1	100.0(149)	42.47(16)***	2.56
농어촌가정	11.1	9.0	12.6	43.2	24.1	100.0(199)		2.40
저소득층가정	8.3	11.9	26.5	32.4	20.9	100.0(253)		2.54

(표 V-3-17 계속)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수)	$\chi^2(df)$	평균
응답자								
부	1.2	16.5	27.1	42.4	12.9	100.0(85)	12.13(4)**	2.51
모	9.3	11.9	21.2	35.9	21.6	100.0(913)		2.51

** $p < .01$, *** $p < .001$

부모교육을 첫 아이 임신 이후 1회 이상 반드시 참여하도록 국가적으로 의무화하는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의견을 물어본 결과, 과반수 이상(55.3%)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4.4%는 이 방안에 대해 절대 찬성(‘매우 그렇다’)을 보였다. 부모특성 별로는 다문화가정과 농어촌가정의 부모가 특히 부모교육 참여 의무화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나 모 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3-18〉 부모교육은 첫 아이 임신 이후 1회 이상 참여를 의무화해야 함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수)	$\chi^2(df)$	평균
전체	24.4	30.9	32.4	11.6	0.7	100.0(1,000)		3.67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20.5	33.3	35.3	10.4	0.4	100.0(249)		3.63
한부모가정	16.7	34.0	38.0	11.3	0.0	100.0(150)		3.56
다문화가정	26.7	36.0	28.7	8.0	0.7	100.0(149)	36.22(16)**	3.80
농어촌가정	36.7	22.1	28.1	12.1	1.0	100.0(199)		3.81
저소득층가정	21.8	30.6	31.7	14.7	1.2	100.0(253)		3.57
응답자								
부	16.5	32.9	34.1	16.5	0.0	100.0(85)	5.11(4)	3.49
모	25.1	30.7	32.2	11.2	0.8	100.0(912)		3.68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3.4	31.1	30.5	14.2	0.8	100.0(501)		3.62
200~299만원	24.2	29.7	33.9	10.9	1.2	100.0(165)		3.65
300~399만원	26.2	29.2	35.7	8.9	0.0	100.0(168)	15.28(16)	3.73
400~499만원	22.8	31.7	36.6	8.9	0.0	100.0(101)		3.68
500만원 이상	31.7	34.9	27.0	4.8	1.6	100.0(63)		3.90

** $p < .01$

부모교육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라할 수 있는 82.8%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부모교육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농어촌과 저소득층 가정 부모들이 홍보부족에 대해 매우 절실히 동의하고 있었고 맞벌이부모도 ‘부족하다’라는 응답을 86.4%가 하여 전체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V-3-19〉 부모교육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수)	$\chi^2(df)$	평균
전체	37.9	44.9	13.8	2.5	0.9	1000(1,002)		1.84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39.2	47.2	10.8	2.4	0.4	100.0(250)		1.78
한부모가정	32.0	50.0	13.3	4.0	0.7	100.0(150)		1.91
다문화가정	23.3	47.3	24.0	3.3	2.0	100.0(150)	38.97(16)**	2.13
농어촌가정	45.2	37.7	13.6	2.5	1.0	100.0(199)		1.76
저소득층가정	43.1	43.9	11.1	1.2	0.8	100.0(253)		1.73

** $p < .01$

다음으로는 ‘내가 원하면 부모교육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라는 질문을 통해 부모교육에 대한 접근성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 35.4%만이 그러하다는 응답을 하여 접근성이 높다는데 동의하였고 5점 척도상은 2.98점이 평균점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비교 결과를 보면 농어촌가정 부모들이 참여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가장 낮아 접근성이 낮다고 보고 있었고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접근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표 V-3-20〉 내가 원하면 부모교육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음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수)	$\chi^2(df)$	평균
전체	9.4	26.0	25.6	31.2	7.7	100.0(1,002)		2.98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6.8	30.4	25.6	28.8	8.4	100.0(250)		2.98
한부모가정	14.0	20.7	24.7	30.0	10.7	100.0(150)		2.97
다문화가정	12.0	25.3	22.7	36.7	3.3	100.0(150)	26.84(16)*	3.06
농어촌가정	9.5	20.1	25.6	36.2	8.5	100.0(199)		2.86
저소득층가정	7.5	30.0	28.1	27.3	7.1	100.0(253)		3.04

(표 V-3-20 계속)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수)	$\chi^2(df)$	평균
응답자								
부	2.4	23.5	27.1	43.5	3.5	100.0(85)	11.92(4)*	2.78
모	10.1	26.4	25.5	30.0	8.1	100.0(914)		3.00

* $p < .05$

마지막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부모의 참여 의지를 알아보기 위해 '육아지원기관에 기꺼이 자원봉사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얼마나 동의하는 지를 조사하였다. 이에 대해 '매우 그렇다'가 14.6%, '조금 그렇다'가 31.7%로 총 46.3%정도가 육아지원기관의 활동 참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2.1%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표 V-3-21〉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요청하면 기꺼이 자원봉사 할 수 있음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수)	$\chi^2(df)$	평균
전체	14.6	31.7	31.5	17.5	4.6	100.0(999)		3.34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11.6	29.6	32.4	23.6	2.8	100.0(250)		3.24
한부모가정	10.0	26.0	34.7	22.7	6.7	100.0(150)		3.10
다문화가정	18.1	27.5	30.2	21.5	2.7	100.0(149)	50.50(16)***	3.37
농어촌가정	20.2	30.3	28.3	13.1	8.1	100.0(198)		3.41
저소득층가정	13.9	40.9	32.1	9.5	3.6	100.0(252)		3.52
응답자								
부	5.9	23.5	40.0	25.9	4.7	100.0(85)	12.59(4)**	3.00
모	15.4	32.6	30.7	16.8	4.5	100.0(911)		3.38

** $p < .01$, *** $p < .001$

집단별 비교에서는 농어촌가정의 부모들이 특히 참여 의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데 비해 맞벌이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의 부모는 비교적 낮은 참여의지를 보였다. 이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타당한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부모 성별로는 어머니의 48%가 긍정적인 응답을 한 데 비해 아버지는 29.4%가 그렇게 하겠다는 의견을 보여 차이가 나타났다.

4. 포커스집단 면접 분석에 의한 부모특성별 요구 분석

가. 저소득 가정 부모

저소득층에 속하는 부모는 대도시인 D시 D드림스타트센터에 등록된 가정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7명이 면접에 참여하였다. 참여자의 일반적 정보는 다음 <표 V-4-1>과 같다.

<표 V-4-1> 저소득 부모 포커스집단 참여자

부모 구분	자녀(연령)	월평균 가구소득	가장의 직업	비고
모1	아들(7), 딸(5), 딸(1)	200만원	자영업	조부모 동거
모2	딸(10), 아들(9), 딸(3)	200만원	서비스직	
모3	딸(14), 딸(11), 아들(1)	200만원	서비스직	
모4	딸(12), 딸(3)	100만원	공장근로자	조부모 동거
모5	아들(12), 아들(11), 딸(5)	105만원	자영업	한부모가족
모6	딸(7), 아들(5)	11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모7	아들(8), 아들(6)	70만원	상업	

1) 부모교육 참여 실태

가)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 선호

저소득층 영유아부모들은 지자체나 정부 지원 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주로 참여하고 있었다. 소속 행정구인 D시 D구청 보육담당부서에서 개최한 부모교육프로그램(‘우리아이 좋은 습관 길들이기’)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부모코칭교실’(1회기 8회실시), 시(市) 주관 녹색주부교실의 경제교육 프로그램 등에 여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면접 중 문화센터를 가고 싶으나 비용이 들어 힘들다는 언급이 있었다.

작년에 애기하고 수업하는 거 (드림스타트센터에서) 받았었거든요. 엄마들이 애기들하고 문화센터나 그런데 가고 싶어도 솔직히 경제적인 문제도 많고, 교통편 같은 것도 힘들고...(연구자: 방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은 따로 비용을 지불하셨어요?) 아니요. 여기서 내주시거든요. 가끔씩 필요한 씨디(CD)라든지 필요한 물품은 개인적으로 살 수도 있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문화센터에 가면 만만치 않더라고요. (모4)

나) 육아지원기관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참여자 다수가 만3세 지나서 보낸다고 함) 보육시설에서 개최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부분 참여한다고 하며, 자녀 발달과 관련한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서 좋게 평가하였다.

저는 2주전에 유치원에서 참여수업하기 전에 아동학과 교수님이 오셔서 유아심리에 대해서 하셨는데, 엄마들이 아이를 이해 못하고, 아이는 엄마들을 잘 모를 때 대처하는 법 같은 거...(중략)... 아이심리를 프린트 딱 해가지고 교육하고 책으로 주니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연구자: 그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전에는 그런 기회가 없으셨어요?) 그전에는 육아서를 먼저 만나죠. 육아서는 한정되잖아요. ...(중략) 아이마다 특징이 다 다르잖아요. 책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직접 바로 강의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더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어 좋았어요. (모5)

그러므로, 저소득층 부모집단에서는 정부 지원이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부담없이 생각하고,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강연식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좋은 기회로 여겨 참석에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

2) 부모교육에 대한 평가

가) 자녀와 엄마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참여한 경험으로 볼 때 부모들은 자녀와 엄마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매우 좋게 평가했다. 드림스타트센터의 ‘베이비마사지’ 프로그램이나 ‘엄마와 함께하는 음악·율동’ 프로그램을 유용한 교육으로 손꼽았다.

이제 14개월 된 애기베이비마사지 하면서 애기요가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내놓고 배우기는 선생님한테 배우고, 집에 가서 애기한테 해주고. 아기와 같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애도 좋지만 저도 좋아요. 저도 좋은게. 선생님이 하시면서 애도 가르쳐 주지만 피곤한 엄마한테도 스트레칭을 가르쳐주시고 하니까,...(중략) ... 애들은 요런요런 점이 있고, 어른은 요런요런 점이 있다고 비교를 해주시니까 그런 점이 더 좋았어요. 그리고 신랑한테도 해주고. 그게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애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모2)

나) 육아스트레스 해소에 도움

부모교육을 받는 시간과 장소가 어머니들이 쌓인 육아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탈출구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면접에 참여한 저소득 가정들의 특징

은 3명 이상 자녀를 둔 다둥이 가정이 많다는 것인데 특히 여러 자녀를 키우면서 갖게 되는 고됨과 스트레스를 교육내용의 활용을 통해 풀어감으로써 부모교육참여가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전체 가족 관계를 호전시키는 역할도 하는 것 같다.

솔직히 육아라는 게 저만 혼자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도 같이 키운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배운 것을 남편한테 해주면서, 남편도 애기한테 해줄 수 있게 하고....(중략)... 그러면 서로서로 애도 아빠랑 친밀감도 느끼고, 우리 큰애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큰애하고 관계도 더 좋아지고, 그래서 저는 베이비마사지를 해보니까 우리 막내도 좋아하는 가족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면 육아를 못한다니까요. 솔직히 그럴잖아요. 한국사회에서는 육아는 엄마가 다 감당한다는 것이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육아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모2)

다) 영아기 자녀 부모의 교육 참여 어려움

부모교육을 받고 싶지만 아이가 아직 어려(3세 이하)서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영아인 경우 부모는 꿈쩍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 그러므로 영아부모에 대한 센터 집체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영아를 둔 엄마에 대해서는 개별적 방문 접근을 하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TV나 책자로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드림스타트센터) 부모코칭교육을 받으러 왔었거든요 애기를 업고. 그런 엄마가 몇 명이 있었는데, 봉사선생님들 오셔서 애기 봐주시고 저희가 교육을 받았어요. 그때 교육 받았을 때 우리애가 돌이 안됐었거든요. 저는 교육을 듣고 싶었는데, 애가 자꾸 우니까, 선생님도 애가 엄마를 찾으니까,... 잠깐 나가서 애를 보고, 진정되면 들어와서 교육 듣고. 그랬는데... (모6)

제가 “위기탈출 넘버원”을 항상 보거든요. 우리 애들이랑 같이 우린 넘버원은 꼭 봐야된다. 이래가지고.... 큰애도 앉아서 보다가, 작은애도 보다가 놀다가 하니까..... TV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아요. (모1)

애가 칭얼칭얼 거리거나 막 뛰어다니면 그것도 민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애기들은 엄마가 맡길 사람이 없으면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엄마들이 교육을 받으려면 어린이집 정도는 다녀야 오전에 엄마들이 교육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디를 교육을 해도 ‘엄마들 오세요’ 하며는 애기가 있는데 한 살 두 살 그런 애기가 있는데 데리고가면 따로 놀이방 같은게 있는 그런데는 없거든요. (모3)

라)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부모교육이 주로 어머니교육에 그치는 경향이 있음을 염려하며, 아버지에 대한 교육이나 영유아를 돌보는 기회가 많은 조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모교육 뿐만 아니라 조부모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부모교육이 아니라 양육자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울수도 있는거고, 아빠가 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1) 그런 분들은(할머니, 아빠...) 이런데 안온다. (모7).... 할머니가 어린이집 부모교육에 오셨는데. 할머니가 정말 못하시는 거예요. 분리를 해서... 엄마들 같이 받을 때 받는다는 건 힘든 거 같아요. (모1)

3) 요구

가)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1) 영아기 자녀에 대한 안전 교육

자녀를 키우면서 닥치게 되는 사고에 대처하는 법, 안전사고 방지 등 안전교육을 철저히 누구나 제대로 받을 수 있었으면 하였다.

제가 여기서도 영유아 안전교육 받고, 어린이집에서도 얼마전에 받았거든요? 확실히 안전교육 같은 거는 받아야 겠더라고요.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흔한거. 모서리에 인제 넘어지면서 다치고, 작년에 우리 애기가 24개월 때 장난감이 떨어지면서 깨지면서 그것도 전신마취 수술을 했어요. 특히 응급처치 같은 경우엔 인공호흡하고 그런 거. 갑자기 다쳤을 때 그런걸 봐야 되는데 애가 막 우니까.. (생략) (모4).

(2) 임신기간 중 육아 교육

일반적으로 임신을 하고 있는 기간에는 기회가 있다하더라도 의사 등의 전문가가 출산 준비, 태교, 출산시 호흡법 등과 관련한 교육만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임신을 했을 때 자녀 양육을 준비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였다. 자녀가 일단 태어나면 교육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 임신기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영아 안는 법, 목욕법, 잠재우기 등 구체적인 양육방법뿐 아이의 발달, 부모-자녀 관계 등과 육아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두 명 이상의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등 미리 알게 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산하고 나서의 교육보다 출산하기 전의 교육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은 뱃속에 있으니까, 첫째 같으면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잖아요. 애를 하나 놓기 시작하면 다니기가 힘들니까. (모3) 하나 보다 둘이, 둘보다 셋이 더 어렵죠. (모4) 어려우니까. 차라리 임신했을 때나 임신하기 전의 교육이 필요하죠. 예비엄마들을 위한... (모3)

뭐가 문제냐면은, 첫째를 낳아서 내가 씻겨주고, 내가 뭔가를 해주는 것. 그거 말고,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첫째와 둘째사이에서 둘이 그 심리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해줘야 하는지. 그게 너무 어렵더라구요. 분명히 불만이 있거든요. 큰애는 불만이 있고, 작은애도 불만이 있고. 나중에 크니까 둘이 막 싸우고... (모1)

나) 교육방법에 대한 요구

교육방법과 관련해서는 교육의 지속성, 저소득층이 많은 주택지역 특성상 자조모임의 구성을 지원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1) 1회성이 아닌 지속적 교육의 필요

참여한 부모들은 안전교육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교육이 1회성에 그치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고 어느 정도 회기 동안, 혹은 주기적으로 안전을 주제로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지속적 교육 기회를 요구하고 있었다.

영상보고 인공호흡하는 거 하고.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몸에 익힐 정도까지 교육을 해주면 좋겠고. 애기가 어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4)

(2) 저소득 주택지역 소규모 부모 모임의 조직

저소득층 지역의 특성 중 하나는 아파트 단지보다는 일반 주택집들이 모여 있는 전통적인 형태의 동네가 많다는 것이다. 면접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 또한 주택이 많은 동네였는데, 이 동네에 대해 면접자들은 노인인구가 많고 아이를 기르는 젊은 집들이 소수여서 서로간 알게 되기가 힘들다고 하였다. 엄마들이 홀로 떨어져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주택지역인 경우에 특히 아이 엄마들이 만날 수 있는 소집단 모임이 활성화 되면 좋겠고 그것을 조직하는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었다. 저소득 고령인구 사이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소외감을 같이 나눌 수 있는지 집단이 필요한 듯 하다. 사실 꼭 그런 것이 아닐텐데, 이들은 아파트 동네는 주택가와 달리 젊은 엄마들간 교류가 활발할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들의 환경과

비교하는 말을 하였다.

아파트 단지는 보통 그런게 잘 되어 있는데, 주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주택은 보면 옆집에 누가사는지... 보통 주택은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사시거든요....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 많이 사니까, 주택단지에는 몇집 건너. 심지어 한사람만 살수도 있고. (모2) 진짜 우리동네엔 우리 막내가 만 3살넘었잖아요. 애 밖에 없어요. (모4) 우리 첫째 낳았을때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놀이터에도 잘 보세요. 요새 애기 정말 없어요. (모7) 같은 나이 또래 키우는 엄마가 내 주위에 정도는 좀 알면 서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우리 애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우리 애도 그럴더라. 이런 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모6)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소속된 소집단이 있으면 상호 정보교환, 아이돌보기 품앗이 등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부모교육이 있으면 영아의 어머니이더라도 익숙한 집에 아이를 맡기고 소집단의 대표로서 교육을 듣고 와 집단내 다른 어머니들에게 교육내용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즉 소집단 조직과 집단활용을 통한 부모교육강화 방법을 논의하였다.

그 엄마들은 처음엔 어색하지만, 한번보고 두 번보고 세 번보면 엄마들끼리 애기들끼리도 친하거든요. 정보 교환도 하고, 애기들끼리 놀고. 엄마들끼리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동네에서도 보면 같은 또래 엄마들끼리 모임을 가지면 무슨일이 생길때도 마음편하게 말하고 그럴 수 있는거 같아요. 옆에 누가사는지도 모르거든요.(중략) (모4)

소수집단을 만들어서 그 중에 대표엄마 한명씩이 배워서, 다른 엄마들 (애를)보고. 그것도 좋은방법 아니예요? 우리 동네에 요만한 그룹이 있어. 그러면 그중에 한두명 빠져서 보고 있다가. 같이...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모2)

4) 기타 의견

가) 온라인 부모교육의 비현실성

일반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어려운 부모들의 경우 집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유용할 것으로 생각하여 온라인 부모교육 강화를 확대할 필요성을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다(홍정호, 황해익, 2007).

그러나 부모 면접 참여자들은 인터넷이 사실상 아이를 키우면서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였다. 영아인 아이를 두고 컴퓨터를 켜 시간이 없고, 커더라도 아이의 방해가 심하여 지속하여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부모교육이 영유아 부모에게는 그다지 적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

다.

많이들 인터넷. 이런것도 말씀하시는데. 이런것도 마음놓고 불안한 상황이 안된다는 거죠. (모6)

인터넷? 인터넷도 있지요. 애가 와가지고 키보드 건드리고, 꺼버리는데, 만지고, 칠 수가 없지. 내가 글을 칠 수가 없지. (모1)

나) 핫-라인 상담전화의 개설 필요

영유아 자녀를 키우면서 알고 싶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어디에 물어보아야 할이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런 경우에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센터 등)에 전화를 걸어 궁금하고 불안한 것들에 대해 물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다.

애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낳았는데,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둘째가 태어나니까 이제 좀 낫고 이런 거예요. 첫째를 낳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육아용품만 사지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는 모르겠고. 막상 낳았을 때 내가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 데,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보가 없으니까 내가 어디에서... 닥쳤을 때 마음놓고 전화해서 물어볼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2)

다) 휴대전화를 통한 교육 홍보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이를 가장 잘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응답자들은 주저없이 휴대폰 문자를 들었다. 주민센터 등에서 일괄적으로 중요한 교육 안내를 개인 휴대폰으로 보내주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편리하다고 보았다. 또는 tv 광고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으로 꼽았다.

제가 보니까 사람들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핸드폰 문자메세지가 최고인 것 같아요. 광고하는 효과보다는... (모3)

주민센터를 통해서 문자를 해주시던지... 뭐 그런게 좋은거 같아요. ‘주민센터입니다. 이번주에 이런교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믿음이 가고. (모4)

라) 일하는 엄마를 위한 주말 부모교육

맞벌이 부부이거나 한부모 가족 등 엄마가 일을 나가야 하는 경우 부모교육

을 주말에 해 준다면 참석하고 싶다고 하였다. 주말 중 특히 토요일 오후를 꼽았다. 그러나 주중의 저녁시간 등은 일과 후의 피곤 등으로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일하는 엄마들도 뭔가를. 애가 어리니까 뭔가 배우고 싶고, 해줄 것을 찾고 싶은데. 잘 못하겠어요. 그런 것도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5)

주말이 아무래도.. 밀렸던 일하느라고 주말에도 할 일이 너무 많죠. 그래도 토요일 오후 같은 주말에는 하면 좋겠어요. (모7)

나. 다문화가정 부모

다문화가정 배경을 가진 부모는 중소도시인 경기도 S시 S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등록된 가정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7명이 포커스 집단 면접에 참여하였다. 참여자의 일반적 정보는 다음 <표 V-42>와 같다.

<표 V-4-2> 다문화 부모 포커스집단 참여자

부모 구분	자녀(연령)	출신 국가	한국거주기간	비고
모1	딸(4), 딸(2)	베트남	4년	27세
모2	아들(10), 아들(3)	일본	13년	한국어 능숙
모3	딸(6), 딸(4)	중국	5년	활달한 성격
모4	아들(4)	중국	3년	
모5	딸(2)	캄보디아	2년	한국어 미숙
모6	아들(10개월)	베트남	3년	20대 초반
모7	아들(6), 딸(3)	몽골	6년	한국어 능숙

1) 부모교육 참여 실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보내주고 있는 ‘방문지도사’에 의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부분 참여하고 있었고, 그 이외는 전무하다시피 이야기 하였다.

가) 방문지도사를 통한 양육방법 학습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방문지도사 이용을 신청하면, 5개월을 1회기로 하여 1인당 1회 신청이 가능하고, 주당 2회, 회 당 2시간씩 40회 동안 80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 때 2시간은 한 시간은 한국어교육, 나머지 한 시간은 자녀양육교육으로 구성되며,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이 방문지도사에 의한 양육지도 교육을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하였다.

방문지도사. 집에가서 어머니 한국어 가르쳐주는 거하고, 애기를 상담해주는거하고. (모3)

저는 그냥 한 선생님이 같이 해줬어요.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애기도 봐주고. (모4)

봐주는거 아니고 두 시간 정도 가르쳐준거죠. 애기 어떻게 키우는지하고, 뭐뭐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한 선생님이 다 해주셨어요. (모2)

저는 2년 전에 가정방문지도사 선생님께서 5개월동안 사실 받아본적이 있는데, 좀 괜찮은거 같았어요. 저는 한국어 잘 모르고, 육아에 대한 정보 잘 모르잖아요.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고. 선생님이 오셔서 인제 애기 키울 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시고.....선생님이 오셔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 그 때 우울증도 있었고 집에만 있었을 때 선생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된다고. 제가 정말 알고 싶었던 답을 해주셨어요. (모7)

나) 보육시설에서의 부모교육 강좌

방문지도사에 의한 자녀양육방법 교육 이외에는 전혀 기회가 없다가 자녀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서 육아지원기관에서 개최하는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기회가 생긴다. 다문화부모들은 부모교육 관련 강연을 듣는 기회가 없으므로 기관의 이러한 서비스를 매우 좋게 생각하지만, 한국어 능력에 따라 이해가 어렵다는 반응도 있었다.

저는 지난번 어린이집에서 하는 부모교육에 참여했어요. 거기는 어디 대학교, 아주대학교 교수님이 와서 해줬거든요. 그런데 진짜 도움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여길 떠나서도 좀 많이 해주시면 우리 다문화 부모님들 어머니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텐데 그런데 별로 없어요. (모3)

다문화어머니들은 한국어가 한국사람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2-3년 3-4년된 엄마들은 거기 가서 부모교육 들으면 알아듣기가...너무 빨라서 힘들어요. (모5)

다문화 엄마들만 따로 .천천히 천천히 맞춰서 해주면 좋겠어요. (모5)

2) 요구

가) 부모교육 내용면에서의 요구

(1) 영유아기 양육방법

자녀 양육방법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지속적으로 알고 싶다는 요구가 있었다. 다문화 가정 면접자들은 자녀양육에 대해 매우 자신이 없는 듯하고 많은 도움을 원하고 있으나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제 생각엔 그거 중요한 거 같아요. 부모자녀양육방법. 그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양육방법을 몰라서 애들이랑 소통도 안되고 대화도 안되서. 엄마도 잘해주고 싶은데, 엄마가 할 줄을 모르니까. 여기 센터에서는 지도사 빼고 또 다른데 교육도 있었으면... (모3)

(2) 유아기 어린이집 문제 해결 방안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가 있을 경우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고, 어린이집과의 소통 문제, 자녀의 적응문제 등을 알고 싶다고 하였다.

어린이집에서 무슨 문제들이 생기거나 또 문의하고 싶은 문제들이 생기면 어디서 그걸 해결해야 할지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지 그런걸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모7)

(3) 초등학교 적응 및 학습지도

다문화어머니의 가장 큰 걱정이 자녀들의 초등학교 입학 문제였다. 유아기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들이 제대로 지도해 줄 수 있을지,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등 여러 면에서 궁금해하고 그러한 어려움에 대해 누군가가 해결방안을 이야기해 주었으면 하였다.

애들 학교에 갈 것도 걱정되고. 큰애도 어린이집 보내도 자신감도 별로 없고, 첨에는 친구들도 안놀아주고.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거두. 보통 학교가서도 그런걸 잘해야될 거 같아요. 단어 같은 것도... (모7)

(4) 아이의 발달 지식, 언어발달능력 수준

면접 참여자들은 자신의 한국어 능력 부족이 자녀의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한 염려가 커서 이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데 관심이 높았다. 그러한 맥락에서 자녀의 발달에 대한 지식을 알고 싶어 했고, 특히

언어발달능력을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보였다.

언어발달 같은거요. 발음이나 억양같은 거 엄마한테 배우니까. 엄마한테 배우다 보니까 이게 잘하고 있는건지 엄마가 판단을 못하는거예요. 괜찮은건지. 사람들이 애 억양이 이상해. 학교 입학하며는 친구들 사귀면.. 당연히 애들이랑 어울리지 못할까봐 제일 걱정이 컸었거든요. (모5)

나) 부모교육 방법 측면의 요구

(1) 지속적 교육 필요, 1회기에 그치는 방문지도의 불충분

부모교육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방문지도사 프로그램을 단 1회기 5개월만으로 종료해야 한다는 데 매우 큰 아쉬움을 보였다. 여건상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좀 더 지속적인 지도와 관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랬다.

지속적으로 하는거 있잖아요. 부모교육, 자녀양육교육 같은 것 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모4)

저는 한번 받았어요. 하고 싶는데 계속 못해가지구. 결혼이민자들이 하도 많아서. 하고 싶는데 안되니까 너무 많으니까 우리만 하면 안되잖아요. 다들 차례차례로 해야 되니까. 이거 말고도 단체로 수업에서도 어떻게.. 애들 양육방법도, 자녀하고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문제 해결하려면 애기가 그때는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지.(단체수업이라도 지속적으로 받고 싶음) (모3)

(2) 아버지 및 가족전체 교육

다문화 어머니들은 한결같이 자녀의 아버지들이 육아에 너무 무신경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아버지에 대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아버지들은 분명히 수업에 나오려하지 않겠지만 강제적으로라도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아버지들도 그럴잖아요. 아빠가 회사일로 바쁘다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고. 엄마만 애기 애들한테 신경을 쓰게 되고. 엄마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엄마가 어떻게든 해야되니까. 아버지들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모5)

근데 애들 아빠가 관심이 없어요.아빠가 밖에서 일하고, 엄마는 집에서 일하고 애기키워야 된대요. 프로그램 있어도 아빠는 절대 안와요. (모1)

나와야 된다고. 자녀들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설득시켜야 되나? 저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는 못살겠다. 이런 기회있으면 같이 배우자고 하니까. “내가 왜?” 하면서 혼자 배우라고 하더라구요. (모7)

한편 아버지교육뿐만 아니라 시부모를 포함한 함께 사는 가족 모두가 다문화인에 대해 이해하고 서로 도울 수 있도록 가족치료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때 가족상담은 공개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개별적으로, 전문가의 가정방문 등을 통해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가족상담치료 그런거 있잖아요. 다 같이 해야된다. 엄마만 하면 소용없어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시부모 같이 살면 시부모도 같이. 그래야 효과를 보지요. 엄마만 혼자 그렇게 하면 다른사람 아무도 관심없는데 아무소용 없어요. (모2)

3) 기타 의견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제시된 의견들을 실었다.

다문화 면접자들은 대체로 자녀양육에 대해 확신이 없고 불안해하며, 양육자체를 몹시 힘들어했다. 새로운 문화에서 익숙하지 않은 언어와 가족 사이에서 개인 스스로의 정서가 안정적이지 못함에 이에 더하여 육아부담까지 지려니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일반 한국인 부모에 비해 어려움이 배가 되는 듯하다. 특히 연령이 어리고 한국에 온 기간이 3-4년 이내로 짧은 경우 육아 부담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고달픔은 많은 경우 우울증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면접 참여자들 중 3-4명은 '육아가 정말 힘들다'고 울먹였고 우울증을 앓았다고 말한 사람도 2명 있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자녀의 안정적 발달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다문화 어머니들에게 안정적인 심리상태에서 육아를 하고 자신의 육아에 대해 확신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맥락에서 면접자들이 제안한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핫-라인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에게는 믿고 기댈 곳이 오직 남편과 시집 식구들 밖에 없으나 이들이 지지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불안이 극으로 향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심리적으로 기대고 육아에 대해 물어보거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육아상담소나 육아지원센터가 있어 필요한 경우 전화를 하고 의지하고 싶어 한다. 급할 때 전화할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했다.

앞으로는 이민자들도 애기 키우는 방법도 많이 가르쳐주고, 자녀한테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도록, 전화해서 쉽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거 있으면아이가 이런 경우 어떻게하면 좋으나...이런걸 받아주는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결혼한다고 하면 각자마다 요구사항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전화상담 같은 거 그런게 있으면 좋겠어요. (모2)

나) 육아정보지, 육아책자

면접자들은 자신들이 매우 육아정보에 어둡다고 평가했다. 어디에 가면 아이 발달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아이들을 어디에 데리고 가면 좋은지, 비용이 적게 드는 놀이공간은 지역 내에 어디에 있는 지 등 육아와 관련된 정보들을 알고 싶어했지만 어떻게 정보에 접근 가능한지를 모르고 있었다. 면접한 7가정 중 인터넷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정이 2집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컴퓨터 이용의 문제 때문이거나 한글에 익숙지 않아서 이거나 어떤 이유에서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은 듯 했다. 그러므로, 육아와 관련한 정보를 소식지나 정보지 형태로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육아와 관련한 도서를 보고 싶으나 번역된 것이 거의 없어 집에 는 육아서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또한 육아서는 비싸다는 인식이 있었다. 육아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찾아볼 수 있는 도서조차 접근이 안된다고 하므로, 이들이 가진 불안이나 불안정은 당연한 결과이다. 육아정보와 육아방법 을 보여주는 번역서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

실내 놀이터 같은 것 어디있는지 알려주고 하면 좋겠고. 문제행동 같은 것 보이면 애들한테 놀이치료 같은 것 하는 데도 어딴지도 알려주고. (모7)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소식지) 레인보우라는 거 있는데, 원하는게 아니고 그냥 소식일 뿐이지, 정보는 아니고요. 정보지가 집에까지 오면 좋죠. 우리가 어디 어디 갈수도 없고. 어디있는지 장소같은거도 알려주고. (모6)

책을 집에다 두면 좋겠지만....한국어책이라도,,,어린이집에라도 양육방법 책 같은 게 많이 있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모3)

다. 맞벌이 부모

영유아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모는 서울시내 모 회사 사원을 중심으로 모집 하였으며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 2명과 어머니 3명이 면접에 참여하였다. 참여자의 일반적 정보는 다음 <표 V-43>과 같다.

〈표 V-4-3〉 맞벌이 부모 포커스집단 참여자

부모 구분	자녀(연령)	직업	비고
부1	딸(유아)	사무직	유치원 이용
부2	아들 둘(30개월, 2개월)	사무직	기관이용 안함 모 출산휴가중
모1	딸(7개월)	사무직	집에서 외조부모가 키워줌
모2	아들(6세), 딸(16개월)	사무직	아들은 5세때부터 놀이학원 이용 딸은 집에서 조부모가 키워줌
모3	딸(23개월)	사무직	남편 직장의 어린이집 이용 중 둘째 임신중

1) 부모교육 참여 실태

가) 부모교육에 접근하기 어려운 맞벌이 부모의 상황

맞벌이 부모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를 하다보니 육아에 신경을 쓸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녀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양육에 대한 알고자 하는 욕구는 가지고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기본적인 육아만을 하는 데 급급하게 되었다.

아기 낳기 전에 관심을 가져서 찾아보려고 하던 찰나에 (중략) 8개월에 조산을 했어요. 출산전에 해야지 했던 걸 놓치고, 그 이후에는 육아와 그런 기타등등에 휩쓸려서 관심을 못가졌죠. (모3)

가족 사이에 상호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우고 싶는데 사실은 생각만 하지 찾아본 적은 없습니다. (모3)

조금 잊어먹었다 싶으면 나중에 찾게 되고, 하다보면 에이 못찾겠네 하게 되고. (부2)

키우는 거에 급급해서 교육이나 더 나은 거는 접어두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모3)

나)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

맞벌이 부모들은 기본적인 육아 이외에 관심을 기울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교육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고 기관을 이용하는 부모의 경우는 기관에서 하는 부모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학습지 회사에서 하는 교육에 참여한

것이 전부였다. 참여 시기로는 직장을 다니다 보니 자녀들과는 주로 주말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고 부모교육도 주말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런게 있나요? 하나? 어딘가에서는 하겠죠? 일반인들이 그런거를 알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부1)

이들이 주로 육아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방법은 손쉬운 방법인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관련 서적,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었다.

주로 컴퓨터로 많이 작업을 하니까 이유식이나 그런 것도 찾아보고. 육아포털 사이트가 많이 도움이 되요. 카페나 블로그, 파워블로거들 많이 찾게 되고. (모1)

전반적으로 엄마아빠가 되기 위한 준비단계는 주워들은 걸로 다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미리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때 그때 필요한 지식을 그냥 인터넷으로 습득하는 것 같아요. (부2)

하지만 이들 부모들은 이렇게 얻는 정보들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과 비체계성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때 그 때 아이에게 필요한 단계. 어딜 가야한다하면 인터넷으로 ‘어디가 뭐가 좋다더라’ 교보도 ‘뭐가 좋다더라’ 물론 거기 정보가 다 있겠죠. 체계적이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부2)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의 경험들이잖아요. 그 내용들의 신빙성이 없거나, 우리 애한테는 전혀 안맞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제 상황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중에서 제 걸 뽑아내야 되니까. 많은 정보 서치를 해야 하는 거죠. (부2)

교육이라고 하면 어느정도 부모가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것들이 검증된 기관에서 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나 믿음이 가는 그런 것들(교육이나 정보)은 접하기가 힘들고. 인터넷에서 각자의 경험들이나. 옆집 누구 엄마, 친구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야 애를 바로 키울 수 있지 않나 해서. (중략) 그런 프로그램이나 하는 건 접해보 적도 없어요. (모2)

2)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가) 부모교육의 필요성

자녀의 연령에 상관없이 부모들은 모두 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보통 여자들이 아기를 뱃속에 가질 때는 태교를 해야든지 그런건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막상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고 그런 준비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산까지만의 고민을 갖고 있다가 애를 낳고보니 너무 당황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교육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정말 양육 조차(모르겠더라고요).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는데 물을 얼마나 섞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했었구요. (모2)

집에만 있으니까 아이가 사교성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가 징징거리니까. 아이가 어린이집 가지 않고서는 바깥 접촉이 없잖아요. 아이의 상태를 판단하기가, 아이들을 적게 나오니까 적게 만나게 되고 판단기준도 모르겠고. (부2)

또한 믿을만한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처럼 부모교육에 참여할 의사 또한 있었다.

분명히 있구요. 그런데 그런 방법들이 다양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뽀한 자료들...(그런 것 말고). 제가 선생님께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가 된다면, (중략) 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때는 맨날 오구 그래요. 거기에서 부모교육 하는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가볼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자료들이 있다면, 다들 부모입장에서는 애지중지하면서 내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부2)

나) 내용

교육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는 아이의 발달에 따른 부모의 역할, 아이와의 상호작용 방식, 현대 사회에 필요한 양육방식 등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다.

내 아이가 두 살이 되고, 세 살이 되고, 네 살이 되면 아이는 점점 성장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 눈높이나, 행동하는 거 그런 게 조금씩 변화를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엄마가 대화도 해주고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해줘야 하는데, 그거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이한테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 싶으면 아이는 또 어느 샌가 자라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데 엄마는 이거에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성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성인들하고의 도덕적인 가치기준, 이런 거를 아이한테 얘기를 해서 하다 보면 아이는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그런 거를 잘 맞춰서 성장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데 전혀 (중략) 그런 기회나 정보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맞벌이다 보니까) 아침먹이고 유치원 보내기 바쁘고 (후략) (모3)

이 나이 때에는 아이한테 이렇게 하면 아이가 못 받아들인다거나. 상처를 받거나 이런 걸 좀 안다고 하면 다른 식으로 풀어나가지 않을까. (중략) 이런 걸 제가 알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부2)

아이의 발달단계에 따른 훈육방법이나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성교육 그런 걸 어떻게 해야되는지 엄마 아빠가 알고 있어야지. 너무 위험한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사는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모1)

다) 방법

맞벌이 부모들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얻는 방법을 원하고 있었다. 그 예로는 부모교육이나 육아에 대한 문자메시지 안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이용, 신뢰할 수 있는 방송매체 등이 있었다.

EBS 다큐 프로그램 같은거. 괜찮다고 하는 것들을 보거나. 육아관련도서는 많이 있지만 읽다보면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하면서 아이를 이론대로 바라보게 되니까. (모2)

또한 맞벌이 부모의 자녀가 어릴 경우에는 조부모가 돌봐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조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원하는 부모도 있었다.

엄마아빠 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도 받아야 될 것 같구. (모1)

라. 농촌 가정 부모

농촌 가정 영유아 부모는 경상남도 G시 여성농업인센터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소속 영유아 부모를 통해서 모집하였다.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 2명과 어머니 4명이 면접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어머니 2명은 결혼이민자였다. 참여자의 일반적 정보는 다음 <표 V-4-4>와 같다.

<표 V-4-4> 농촌 가정 부모 포커스집단 참여자

부모 구분	자녀(연령)	월평균 가구소득	가장의 직업	비고
부1	딸(3)	무응답	농업	귀농, 맞벌이 가정
부2	아들(6), 아들(3)	100만원	축산업	귀농 가정/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모1	딸(9), 딸(6), 아들(3)	무응답	전문/자유직	귀농 가정
모2	(2), (1)	무응답	농업	일반 농촌가정
모3	무응답	무응답	농업	다문화가정
모4	딸(5), 아들(3)	무응답	농업	다문화가정

1) 부모교육 참여 실태

가) 부모교육에 접근하기 어려운 농촌의 상황

농촌 가정 부모들을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도시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였다. 이는 도시보다 교육적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교육 시설을 비롯한 인프라 구축이 열악하며, 부모들의 직업이 대개 노동집약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부모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저조하여 부모교육에 대한 참여는 더욱 제한적이었다.

우리 애가 저절로 될 것이다. 시골 분들은 애들 교육에 별 관심이 없어요. 농사 짓느라 바쁘시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유도 애를 (농사일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보내는 거죠. 요번에 했던 것도 취지는 좋기는 한데요. (모2)

일반 농촌 가정뿐만 아니라 요즘 늘어나고 있는 농촌 다문화 가정의 경우도 부모교육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은 유사하다. 농촌 인구 중에 다문화가정 수가 늘어나면서 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부모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부모교육을 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 가정을 보면 시어머니 시아버지들이. 못하게 해요. 엄마는 집에 그냥 있고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엄마도 나가기도 싫고, 애기 때문에 밖에도 못가고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집안에 선생님을 오게 하기도 그러니까. 애기까지도 (교육을 못 받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다문화 센터에서 남편이나 친구 중에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걸 무서워하죠. (모4)

또한, 부모교육에 참여한다고 해도 다문화가정 부모의 언어수준이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부모교육에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저는 혼자 왔는데. 주부들한테 얘기해보니까 남편이랑 같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말을 잘 못 알아 들으니까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언니 가지마라” 그랬죠. 그 다음에 계속 왔어요. 좀 힘들어도 다 얘기하면 쉽게 가르쳐주려고 하시니까. (모4)

농촌은 기본적으로 주위 환경이나 인적 자원의 측면에서 부모교육의 기회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부모 교육 기회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 또한 언어 문제, 지리적 문제, 가족의 지원 부족 등으로 부모교육에 쉽게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나) 기관을 통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

농촌의 제반 사항이 부모교육의 측면에서 열악하다 보니 부모교육을 주로 접할 수 있는 장소는 자녀들의 육아지원기관이었다. 육아지원기관은 농촌 부모교육의 유일한 통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타 기관을 통한 부모교육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본 인터뷰에 참여한 부모들도 어린이집을 통해서 부모교육을 경험하고 있었다. 최근에 참여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 코칭 프로그램으로 자녀의 성격 유형 및 자녀의 기 살리는 방법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어린이집 외에 여성 농민회에서 부모교육을 주관하는 경우가 있으나 아주 간헐적이며 그 이외의 공식적인 부모 교육의 기회는 없었다.

자기 아이를 계기로 해서 (어린이집에 보내니까) 애기를 계기로 해서 모일 수는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라든지, 지역에 있으면서 그걸 교육에 적용하는 그런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거든요. 저도 거창 들어온 지 10년째인데요. 결혼하기 전이든 애를 갖 낳았을 때든 어린이집을 보내기 전이든 그 어떤 형태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제가 알기로 없어요. 몰라도 또 읍내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도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처음 접한 부모교육이었지요. 책이나 TV를 통해서가 아니라 강사를 통해서 직접 들어보는 건 처음인데 충격을 받은 부분도 많이 있었죠. (부1)

다문화가족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G시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으나 그 곳은 거리상으로 너무 멀어 어린이집 근처에 있는 다문화센터에서 부모교육을 받고 있지만 일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이민자 대상의 방문 교육에 비하면 미흡한 수준이다.

2) 부모교육에 대한 평가

가) 부모교육의 필요성 인식

농촌 가정 부모들이 경험하는 부모교육은 제한적이지만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실제로 참여하는 부모교육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대중 매체를 부모교육의 주요 통로로 이용하고 있었다.

부모교육이라는게 잘 없잖아요.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들도 없고. 오로지 저 같은 경우는 SBS 프로그램을 많이 보다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에서....(다른 아빠가 “EBS 아닌가?”) 아... EBS 구나. 부모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5주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 받아본 것은 처음이구요. 교육을 받고 나면 한 달 동안, 아니다 열흘 동안은 잘해주게 되고 (웃음). 이런 교육을 계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받으면 좋

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구요. (부1)

EBS 뭐 이런 거. 시골에 오니까 더 불안하니까 더 찾게 되고. 그런 불안감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모1)

부모교육 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농촌 가정에서 가장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모교육의 방법이었다. 특히, 텔레비전을 통해서라도 부모교육을 접할 수 있음을 다행스러워 하였으며 텔레비전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농촌 가정 부모의 조바심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나) 부모 수준에 맞지 않는 교육의 비효율성

부모들이 경험한 부모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것 만으로도 긍정적이었지만 개인별 평가는 다양하였다. 본 면담에 참여한 부모들이 최근에 경험한 부모교육에 대해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좋았다는 부모도 있었지만 농촌 가정 부모들이 참여하기에는 어렵거나 부담스러웠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교육 자체를 여기가 농촌이고 처음 있는 일이고 하니까 우리 수준에 적절하게 해줬으면 좋지 않았겠다. 내용은 참 좋았는데 우리하고 너무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서 배려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농촌은 그리고 시기를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도시지역에 비해서 여기가 조건이 많은 것 같아요. (모2)

결국엔 부담스럽다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아이들 교육하는데 있어서 자기를 제대로 보고 자기 성격유형을 보고. 선생님은 박사이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저희가 적응을 잘 못했던 것 같고. 저는 단계별로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모1)

부모교육의 내용은 좋았지만 농촌가정 부모에게 주로 대화식의 부모교육 방법을 적용한 것이 농촌 가정 부모들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진 것으로 해석되었다. 부모 교육의 내용 선정도 중요하지만, 전달 방법에 있어 부모들이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3)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가)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필요

농촌 가정은 예상보다 다양한 인구 구성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 농촌 가정 외에도 귀농가정, 조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이 있어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의 아버지들을 모아서 그 가정형태에 맞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기존의 농사를 지으면서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을 위한 것도 있을 것 같고. 귀농한 부부는 또 귀농한 부부대로 필요가 있거든요. 어린이집을 보면 농촌지역은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대다수가 읍내로 이사를 가서 애들 교육 때문에 출퇴근하면서 농사를 지어요. 애가 자연스럽게 읍 어린이집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빈 농촌을 누가 채우냐하면 다문화가정이나 귀농자들이 채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반수가 다문화가정이나 귀농자들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야 고만고만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부모들은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으니까 옛날처럼 단순하게 농사짓는 엄마 아빠가 아닌 엄마 아빠를 상대로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죠. (부1)

(1) 귀농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귀농한 농촌 가정 중 젊은 층은 대부분 자녀 교육 때문에 귀농한 가정이 많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고 부모 교육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보였다. 자녀 교육을 위해 귀농을 선택할 만큼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자녀 교육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있어 일반 농촌 가정의 부모와는 다른 부모 교육의 요구를 가지고 있었다.

제가 사는 데가 집이 두 집 밖에 없는데, 그 뒷집이랑 우리 집이랑 조금 더 들어올 예정이긴 한데. 같이 어울려 살면서 어차피 애들이 한명 두 명이니까 애들 놀이방을 같이 만들자. 부모들이 다 대학을 나왔고 전공이 다 다르니까 한가지씩이라도 애들을 가르치자. 우리 아이들이라도 읍에 보내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순간적으로 의욕이 생기지만, 당장 취학할 때가 되면 마음이 또 흔들리죠. 대단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그걸 지키기가 힘들죠. (부2)

어떻게 극복할건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들어올 때는 모르고 왔는데, 저는 아이 교육 때문에 시내에 나가야될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너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가기 싫은데. 어떻게든 그 극복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와이프랑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답은 아직 못 구했지만 웬만한 것은 직접 하고, 그게 조금 모아지면 성향이 맞는 부모들이 모여지면. (부1)

귀농한 부모의 교육적 관심은 일반 가정의 요구와는 달리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교육적 경험을 지속시키면서 학업 문제로 자녀에게 부담 주는 사회의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것에 있었다. 농촌 부모 교육은 귀농한 부모가 있을 귀농 가정의 특성 및 부모의 신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다문화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농촌 다문화가정 아버지는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으며, 다문화 가정 어머니

의 경우 한국말이 서툴러 보다 세밀한 교육적 관심이 요구된다. 농촌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기관 접근성이 떨어져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우리는 너무 끝이니까. 처음엔 애들 없을 땐 계속 가고. 공부도 하고. 아이 기본 교육도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애기 낳고. 이제는 근처밖에 못 가는데. 자기 차도 없고. 또 계속 하기가 부담스럽고. 그래요. 여기서 혹시나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교육 있을 때 참석하고. (모3)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는 이동이 자유로워 한국어 공부나 부모 교육의 기회를 가졌지만 자녀가 태어나고 난 뒤에는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도시와 달리 다문화가정이 지역적으로 산재해있는 농촌의 현실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부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육아지원기관이나 지방자치제 기관을 통해서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또한, 부모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교통편을 제공하여 부모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3) 조부모 가정을 위한 부모 교육

농촌에서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조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일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을 권장하고 있지만 조부모가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조부모가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영유아의 신체, 정서, 학습적인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 환경에서 올 수 있는 정서적 불안에 대해서는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오기는 오셨는데 왔다가 가셨죠. 우리말을 잘 안 들으시죠. 실제 부모님들(어르신들)은 이런 교육자체가 의미가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워낙 자기가 가져왔던 철학이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애 가르치는 건 선생님이 하고, 집에서는 애 오냐오냐 키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어려서의 교육은 조손가정에선 힘들다고 합니다. 조손가정 애들이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솔직히 할머니들이 책을 읽어주겠습니까? 대부분 발에 대려 다니면서 놀고 할머니 티비 보는 거 같이 보고 뭐 사달라고 하면 사주는 게 다고 하니까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없어요. (모2)

농촌 부모들 중에는 조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영유아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들의 자녀에게 끼칠 영향을 걱정하기도 하였다.

이런 말 드리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귀농을 했는데. 애 또래가 10명 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할머니 손에서 크는 애들이 몇 명 있다 이러면 그냥 불안한 거예요. 도시에선 애들이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그 영향을 적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적은 아이 속에 그 중에 몇 명이 문제아가 있다고 하면 불안하거든요. 훨씬 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 애만 교육이 잘 돼서 될 일이 아니고, 농촌 자녀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것들이 강의들이 다양하게 부분적으로 있어서 평준화시키면 불안함이 덜할 것 같아요. (부2)

조부모를 (조)부모 교육에 참여시키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해서는 안 되며,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여러 방안을 동원하여 조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부모들이 참여하는 부모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조부모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겠다.

나) 다양한 경로를 통한 부모교육의 기회 확대

농촌 부모교육의 대부분이 육아지원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모들은 부모교육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도맡아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예전과 달리, 농촌에서도 여성 농민의 권익, 문화, 보육에 관심을 두면서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부모교육을 육아지원기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면사무소와 같은 곳에서도 부모 교육을 제공하여 농촌 부모들이 손쉽게 부모교육에 참여하기를 원하였다. 아래 면담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많은 농촌 지역은 여전히 부모 교육이나 보육 서비스의 측면에서 열악한 편이다. 현재 농촌에서 운영 중인 여러 공공기관이나 육아지원기관을 통해서 부모 교육의 기회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귀농민,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여성농민들의 권익을 도모하는 기관들이 만들어지면서. 전부터 생산자 조직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농협에서 운영하는 여성농업대학.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작목 이런건 있지. 보육이나 이런 여성 농민들의 문화 이런 걸 위한 기관은 전무후무했거든요. 최근에는 조례도 만들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모이고 하니까. 그래도 여기는 이런 혜택을 받지만 이런 것도 못 받는 곳도 많습니다. 거의 방치입니다. 방치. 엄마들은 일만하고 애들은 애들대로 방치. (부2)

인터넷을 통한 부모교육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농촌 지역의 많은 인구가 고령이며 인터넷보다는 실제로 참여하거나 직접 볼 수 있는 책과 같은 자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부모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소책자 및 리플렛을 배부하는 것도 부모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다) 부모 및 자녀 교육을 위한 지역 공동체 형성

농촌 가정 부모들은 도시에 거주하는 부모들보다 이웃이나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인구밀도가 낮고, 자녀 양육이나 교육에 대한 자원이 부족하다보니 자녀의 또래 부모나 이웃에 대한 의존성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되며, 귀농 가정의 많은 지역일수록 교육이나 보육을 위한 공동체에 대한 요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뜻이 있는 부모들이 모여서 아이들 책 읽어주기 모임을 하든지. 이 부모들이 뭔가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면서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하면 (시내로) 안 보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도 시도조차도 안한 것 같고. 이런 모임을 통해서 그런 부모들이 모일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번은 한 번인데 계속 체계적으로 해나간다면 교육에 관심 없던 부모님도 관심을 갖게 되고 맞는 부모들이 모여서 그룹으로 몇 팀이 모여서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2)

본 면담을 한 곳에서도 부모 교육이나 자녀 교육을 위한 지역 공동체 형성에 대한 희망이 있었을 뿐 실제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관심 있는 부모들이 선도적 역할을 하여 부모 교육 및 자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부모 교육 지도자 연수 및 부모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함께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의 경우 면접 대상자 모집이 매우 어려웠다. 한부모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야 하는 면접이 부담스러울 수 있었기 때문에 집단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었다. 몇몇 기관을 접촉한 결과 서울특별시 산하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참여자를 섭외하였다. 면접자는 총 5명으로 모두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 모-한부모 가정이었으며, 이혼으로 인해 한부모가 된 경우들이었다. 참여자의 일반적 정보는 다음 <표 V-45>와 같다.

<표 V-4-5> 농촌 가정 부모 포커스집단 참여자

구분	자녀(연령)	직업	비고
모1	아들(5)	시간제 취업	친정의 도움
모2	딸(17), 아들(4)	친척집 입주 가사도우미	자녀 유치원 다님
모3	아들(10), 아들(5)	시간제 취업	국공립어린이집장애통합반 다님
모4	딸(5), 딸(3)	무직	기관 다니다 현재 집에 있음.
모5	아들(4)	무직	

1) 부모교육 참여 실태

가) 육아지원기관의 부모교육 참여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들을 이야기 하였다.

부모교육은 유치원에서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제가 교회에 속해있는 유치원에 보내고 있어요. 종교단체 하시는 데라 제 사정을 듣고 그걸 많이 참작해주셔서 아이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셔서 보내요. (모2)

저같은 경우는 구립어린이집에 보냈는데, 1학기 때 1번 있었던 것 같고, 2학기 때 부모들 오라고 해서 부모들 특강을 한적이 있어서 참여했었죠. ...특강같은 경우는 영어라든가 한문, 오르프라는 음악프로그램이 있는데 체험을 엄마랑 아이랑 같이 할 수 있게했고, 애들 교육하고 그런 것들은 프린트물로 한달에 한번씩 보내주시기도 해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모4)

나) 공공기관 주관 프로그램 참여

면접 참여자들은 한부모 가정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센터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정규직 직장은 아니고(실제로 정규직에 묶여 일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 시간제 취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일을 하지 않을 때는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런 중에 모3은 보육정보센터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하였고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센터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일 안할 때 마포구 보육정보센터에 몇 번 갔었어요. 거기 가면 놀이터, 도서관, 장난감 같은 것 체험하는 공간도 있고, 부모교육도 있고 발달장애에 대한 것도 있고. 잘 기억은 안나는데 교육 받으러가면서 프로그램도 보고 했어요. 저희 아이가 장애통합반 치료 같은 걸 했었거든요. 토요일에는 3시까지만 열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하면 좋는데 그때는 문을 닫아가지고. 이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거의 이용할 수가 없어요. (모3)

강서구 인력센터에서 한 친구를 알게 됐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한부모가족센터라는 걸 알게 됐고, 초창기에 애 데리고 가서 같이 놀고 참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예산 때문인지 안하더라고요. (모1)

그 외에 도서관에서 영유아 자녀를 위한 가정 방문식 책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자녀에 대한 책읽기 교육 지식을 알게 되었다는 언급도 있었다.

동작구 어린이 도서관에서 독서 코칭을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책을 가지고 오셔서 집에서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좋아요. 독서코치지도사라는 과정에 있는 선생님들이 자원봉사로 해주시는데. 최소한 30분 있다가세요. 책을 골라와서 거기에 맞는 만들기라든지. 완벽하게 해오시더라고요. 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1년에 한번 신청하면 10번 오는건데, 다행히도 제가 동생네 집에 있으니까 낮에 신청해서 하지. 직장 다니는 한부모엄마들, 일하는 엄마들은 하지도 못해요....저도 이제 집에서 책을 재미있게 읽어 주게 되었어요... (모2)

다) 기타 교육 프로그램 활용

공공기관이나 육아지원기관 이외에 한 부모 집단은 종교단체에 대한 언급을 여러 번 하였고 교회 등 종교 단체에서 육아지원과 함께 부모교육, 한부모 친교 활동 지원 등을 한다는 보고를 하였다. 또한 가장 효용성이 높고 편리한 접근 방식으로 TV 방송을 통한 육아지식 습득을 긍정적 경험으로 들었고 특히 자녀가 어린이집 등 기관에 다니기 전에는 TV를 통한 부모교육이 더욱 유용했다는 의견을 주었다.

교회에서도 부모교육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큰 애 키울때는 교회에서 뭐 PET 교육 이런거 했었거든요. 유아학교 이런 것도 있고. ...복지관에서도 부모교육 가끔 하거든요. (모3)

저도 큰 교회를 다녔었는데, 거기서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는 못갔고, 중간 중간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쳐주실 때 몇 번 갔었고. 부모교육은 교회에서 광고가 많이 났었는데, 시간적으로 애들하고 가기가 어려웠고, 큰 교회에서 많이 했었고. 제가 몇 번 가본 데는 홈스쿨 하는 엄마들이 가보자고 해서 그 엄마들은 더 절실하잖아요. 몇 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모5)

(애가 어릴 때는) EBS 방송을 많이 봤어요. 부모프로그램. 도서관에서 유아 책 같은 거 빌려서 보고. (모4)

EBS 부모 60분. 그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모3)

요일마다 이렇게. 틀린 내용을 가지고 하니까. 10시 30분에 하는 것어요. 애기 어렸을 때는 그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모1)

2) 요구

가) 보육서비스가 포함된 부모교육

한부모가정은 특히 부나 모 혼자서 일과 자녀를 모두 돌보아야 하므로 부모 교육을 할 경우 자녀를 돌보아 주는 보육서비스가 같이 제공되지 않으면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주말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였다.

나)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및 상담전화

혼자서 양육에 대한 책임으로 모두 져야 하는 한부모 가정의 특성상 자녀 양육이나 교육의 측면에서 알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 질문이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요청이 나왔다. 또한 이러한 문의 및 상담이 전화를 통해 쉽게 접근될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엄마가 혼자하면서 안되는 부분들. 주말 같은 날 주민자치센터 그런데서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상담을 해주신다면 참 좋겠어요. (모4)

전화를 하는게 더 좋죠. (모1)

전화로 뭐를 여쭙보고, 오늘 어려웠던 점. 어떻게 해야 되는지 15분이면 되잖아요. 1시간 동안 다 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4)

다) 자존감 등 한부모 특성화 부모교육

어린이집 등 육아기관에서 하는 대규모 부모교육은 양부모가 있는 일반적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한부모인 면접참여자들은 실제 적용이 불가능한 일이 많다는 지적을 하였다. 그러한 맥락에서 한부모인 경우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는 부모교육의 내용으로서 한부모 가정이지만 당당하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있었으면 하는 의견이 나

왔다. 또한 한부모 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한부모로서 특히 유의해야 할 것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다고도 하였다.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더 많은 것을 공유하잖아요. 양부모들이랑 함께 하는 부모교육보다는 한부모를 위한 것이 있길 바라죠. 우리도 이렇게 만나니까 편하잖아요. (모5)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문제행동을 보였을 때, 양부모인 엄마들보다 한부모 엄마인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혼자 키워서 애가 이러나...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양부모인 애들도 그런 행동을 하는데, 한부모이기 때문에 위축되서 괜히 내가 한부모여서 그런가 하고 자책해요. 이런 한부모인 엄마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것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모2)

한부모로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육할 때 양부모보다 훨씬 힘들어요. 한부모 가정 특유의 다른 방식으로 양육할 수 있는 방법도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모3)

바. 집단간 부모교육 요구의 비교

지금까지 부모특성에 따라 구분된 집단별 포커스 그룹 면접을 하고 그를 통해 얻게 된 결과를 비교해 보면, 집단 간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의 <표 V-4-6>은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5. 소결

본 장은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참여 현황과 요구를 알아보기 위한 부모 대상 설문과 심층 면담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부모특성별 표집을 위하여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 농어촌, 저소득층으로 나누었으며, 부모특성별로 소집단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전반적인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인식 정도를 보면, 부모교육에 대해서 들어본 부모는 응답자의 80.4%를 차지하나 실제로 참여한 부모는 26.4%에 머무는 수준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가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부모교육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나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가정 특성별 부모가 필요로 하는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부모교육 참여 현황을 보면, 육아지원기관이나 지역 센터에서 1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바람직한 부모 역할이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였다. 특히, 다문화가정 부모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정 방문교육이 있어 부모교육 참여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았다.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부모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이유는 개인적인 시간 부족과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이었다. 부모교육을 알게 된 경로를 보더라도 기관의 문자나 전화에 의존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 이는 부모 스스로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보다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가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부모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 사항은 적극적인 홍보, 교육시간 동안 자녀 돌봄, 소집단으로 이루어지는 단기간의 교육, 적절한 강사 및 주제 선택 등이며 교육 내용으로는 부모특성에 상관없이 영유아의 정서·사회성 발달에 관한 지식, 자녀와의 대화 방법, 자녀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 방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설문이나 심층 면담을 바탕으로 한 부모특성별 의견을 다른 가정과 비교해보면, 맞벌이 가정에서는 자녀와의 놀이 방법, 한부모 가정에서는 자녀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 방법, 다문화 가정에서는 영유아의 언어 발달에 관한 지식과 영유아의 건강·영양 관리, 농어촌 가정에서는 자녀와의 대화 방법,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자녀의 학습지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교육 개선을 위해서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나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다수의 부모가 적극적으로 동의하였다. 부모교육 참여를 위해 부모의 개인적인 의지나 여건이 충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부모가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부모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와 관련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표 V-4-6〉 부모특성 집단별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비교

	도시 저소득층 부모	다문화 부모	맞벌이 부모	농어촌 부모	한부모
참여 경험	- 정부·지자체 지원 프로그램 - 유치원·보육시설 부모교육	- 다문화가정지원센터·방문지도사 - 보육시설 부모교육	- 유치원·보육시설 부모교육 - 학습지 주최 부모교육 -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역할 - 현대사회에 필요한 양육 방식	- 유치원·보육시설 부모교육 - 여성 농업인센터 부모교육 - 농촌의 다양한 가족 (귀농, 조손, 다문화 등)을 고려한 차별적 내용 필요	- 유치원·보육시설 부모교육 - 보육정보센터 도서관 주최 교육 - 한부모를 위한 자존감향상 - 한부모를 위한 양육방법 - 상담에 대한 요구
요 구	교육 내용	- 영아기 자녀의 안전 보호 - 임신 중 양육법 교육 필요			
	교육 방법	- 1회성이 아닌 지속적 교육 - 소규모 부모모임 지원 - 가족구성원 전체 교육 - 영아자녀 부모 개별교육 - 온라인·부모교육은 비현실적	- 1회성이 아닌 지속적 교육 - 아버지 및 가족전체 교육, 상담 - 온라인 부모교육은 불가능	- 쉽게 접근하는 방식 - 주말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	- 1회성 아닌 지속적 교육 - 지역 공동체 운영 - 가족구성원 전체 교육 - 온라인 부모교육보다는 면대면을 교육 방식 선호
기타 의견	- 수시이용가능한 상담전화 필요 - 휴대전화를 활용한 교육홍보 - 취업모를 위한 주말 부모교육	-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담전화 - 육아정보지나 육아도서 접근성	- 조부모 교육 필요함	- 접근성이 낮은 교통편 - 다양한 기편을 통한 참여 필요 - 방치 영유아에 대한 관심 필요	- 개별화된 전화 상담 필요 - TV교육 활용성 높음
연구자 관찰 의견	- 비용 부담없는 교육기회가 많으면 적극적 참여 가능. - 지역 자조집단 구성지원 필요	- 육아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므로 심리적 지지 대상이 필요	-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간부족을 참여 못함:	- 육아지원 부모교육의 한계성 - 농어촌 현실에 맞는 내용 및 방법 필요 - 다문화가정 가족체제에 따른 (조)부모교육 필요	- 양부모에 대해 피해의식이 있는 한부모가 많아 이들을 위한 특화된 교육 및 상담 접근성을 높일 필요

VI. 부모교육 기본 교육과정 내용 개발

부모교육의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아동학과, 유아교육학과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쳤다. 델파이 조사는 부모교육의 영역과 내용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도록 했던 1차 조사와 그 결과를 정리하여 리커드 척도화하고 다시 의견을 물어 선호도를 파악했던 2차 조사, 그리고 2차 조사에서 상위 3위에 랭크된 의견들만을 선별하여 의견 편차를 줄여 합의도를 높이하고자 했던 3차 델파이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부모교육 교육과정을 도출하였다. 본 장에서는 3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 각각에 대한 결과 분석과 함께 최종적으로 합의된 부모교육 기본 교육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의의

본 연구에서 부모교육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로서 알아야 하고 생각해보아야 할 자녀 양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부모교육을 통해 접하게 함으로써 부모됨에 대해 보다 자신감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역량있는 부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내용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데 있다.

둘째는 다양한 기관에서 개별적,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부모교육 기관으로 하여금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계획 수립 시 의지하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부모교육 교육과정이 일반적인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농어촌, 한부모, 맞벌이, 다문화, 저소득층 등 특별한 요구를 가진 부모에게 적합한 맞춤형 부모교육 내용과 지도의 주안점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부모특성을 가진 부모 대상 부모교육을 실시하

는 기관에 대해 교육 계획 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 또 하나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전국의 유아교육과 아동학, 보육학과 등 관련 학과의 교수에서 부모교육의 개념과 의의에 대해 의견을 달라고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언급들이 있었다. 아래와 같은 논의들은 모두 본 연구가 추구하는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성격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부모교육 교육과정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자녀의 발달단계별/발달영역별로 부모가 획득해야 할 지식, 기술 및 태도의 체계적 배열이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학습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부모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그러한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11. 9. 2. 제1차 델파이조사 응답 중, B대학교 L교수)

부모됨의 중요성과 의미, 자녀성장과 발달 이해, 자녀양육 지원 지역사회와 국가 정책 활용 및 참여 등에 대한 지식과 생각해보기를 통해 바람직한 부모 역할과 부모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2011. 9. 4. 제1차 델파이조사 응답 중, S대학교 S교수)

부모교육 교육과정은 부모들이 유아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자신의 자녀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 및 태도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내용을 의미하며, 이러한 교육과정의 수립을 통해 우리나라 부모들이 보편적으로 갖추어야 할 부모로서의 소양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011. 9. 6. 제1차 델파이조사 응답 중, J대학교 L교수)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의의는 부모로서 알아야 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1. 9. 6. 제1차 델파이조사 응답 중, E대학교 Y교수)

2.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델파이조사 절차

본 연구에서는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수립 과정에서 보다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련 학계의 현직 대학 교수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1차 조사의 참여자 수는 123명에 이르렀다.

2011년 9월 실시된 제1차 델파이조사는 총 5개의 개방형 응답식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1)부모교육 교육과정의 개념 및 의의, (2)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영역 구성, (3)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영역별 핵심 내용, (4) 5개 부모 특성 집단별 중점 부모교육 내용, (5)부모교육 교육과정 활용 활성화 방안 등이었다. 이 중 첫 번째와 다섯 번째 문항은 교육과정 개발과 활용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한 것이므로, 2, 3차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 델파이 문항은 결국 (2), (3), (4) 등 세 문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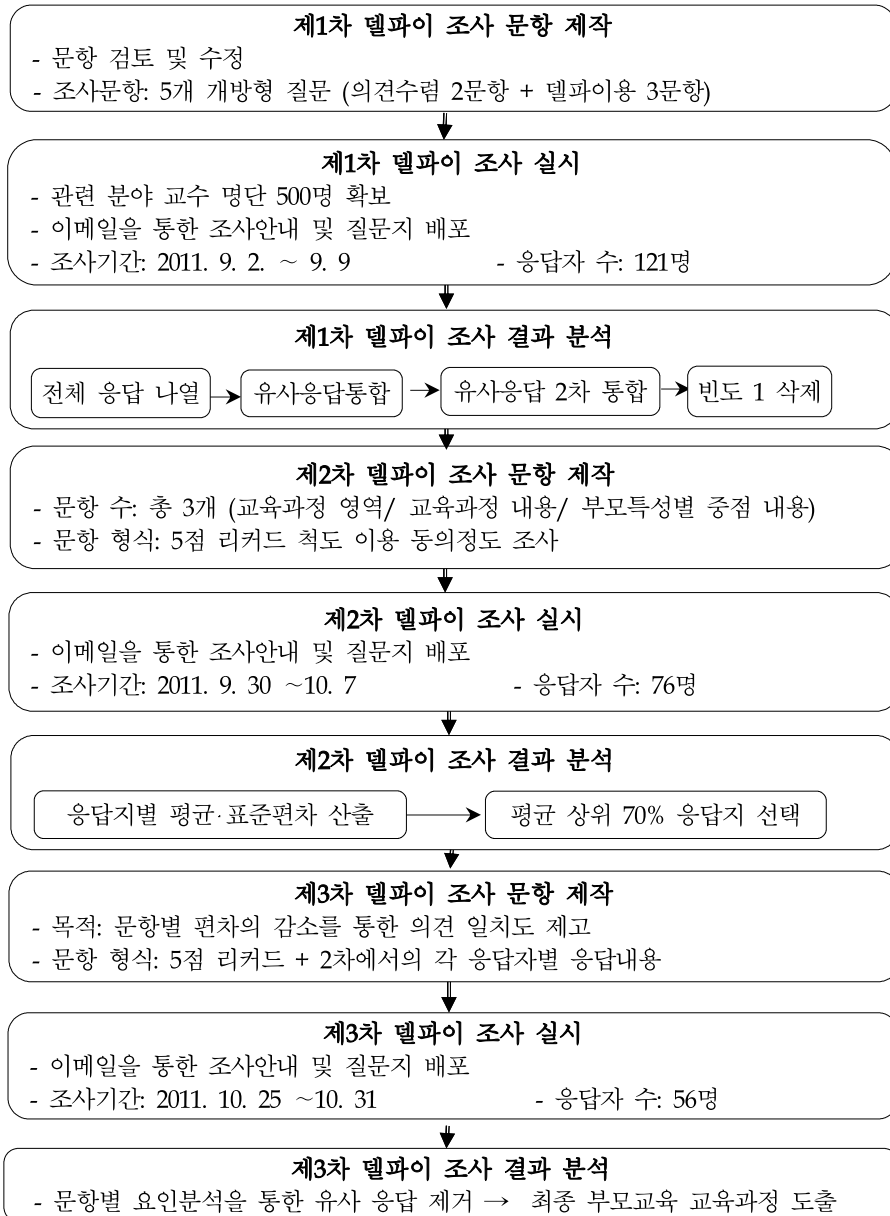
제1차 조사에서는 응답을 자율적으로 적을 수 있는 개방형 문항을 주었으므로 응답자들은 자신의 견해를 수에 제한 받지 않고 마음껏 제시하였고, 연구진이 응답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비슷한 내용들을 묶어 제시 빈도를 산출하였다.

예를 들어 (1)번 문항의 경우 전체적으로 나열된 응답지의 수는 222개였으며 이를 다시 검토하여 재분류하는 과정을 거쳐 비슷한 응답으로 묶을 수 있는 내용들을 합치고 나열된 응답지 중 빈도가 한 번에 지나지 않는 응답은 제외를 하여 2차 조사를 위한 문항을 선별하였다. 결과적으로, 1차 조사 분석에서 30개의 응답지를 최종 선정하였다. 비슷한 과정을 거쳐 (2)번 문항과 (3)번 문항에 대해서도 델파이 2차 문항 제작을 위한 응답지를 선택하였다.

제2차 델파이는 5점 리커드식 척도를 이용하여 주어진 각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표하게 하였고 연구자는 결과를 분석하여 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 최상위 항목부터 최하위항목까지 나열하였다. 2차 조사의 (1)번 문항인,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영역으로 적절한 것에 대한 의견에서, 30개의 선택지에 대해 평균 2.96~4.55까지 점수의 분포를 보였고 표준편차는 0.62~1.10 정도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를 줄이는 작업이 될 제3차 델파이조사를 실시하기 전, 연구자들은 2차 조사에서 제시한 선택지 중 평균점수 상위 70%까지를 선택하여 다음 단계로 넘기는데 동의하였다. 2차에서 제시한 선택지가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수였으므로 이를 축소하는 단계가 필요했고 그 기준을 2차 조사 평균 점수에 두고 30%의 하위 선호 응답을 제거한 것이다.

따라서 제3차 델파이조사에서는 2차에서 상위로 선별된 70%의 선택지 수를 가지고 다시 3개 각 문항(교육과정 영역, 교육과정 영역별 내용, 부모집단별 중점 교육내용)별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을 실시하였다. 2차조사에서는 약 70명의 전문가가 응답에 참여하여 1차 조사 참여자의 56.9%가 재참여하였고 3차 조사에는 2차 참여자의 72.9%인 51명이 다시 참여하였다. 각 조사별로 일주일 정도만의 온라인 응답기간을 제공하였음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재참여를 하여 응답률이 상당히 높았다. 전체적인 델파이 조사의 과정을 도식화

해보면 다음 [그림 VI-2-1]과 같다.



[그림 VI-2-1] 델파이 조사의 절차

3. 교육과정 영역 및 내용

델파이 조사의 결과는 2차와 3차 조사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차 조사는 개방형 질문에 의한 자유서술식 응답이므로 이를 분류하고 유사 응답끼리 조정한 후, 빈도가 1로 매우 저조한 제안 횟수를 보인 응답은 제외를 한 결과가 2차 조사의 질문지이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2차 조사 설문 결과와 이를 다시 실시하여 편차를 줄인 3차 조사 결과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델파이 2차 조사의 신뢰도는 $\text{chronbach } \alpha=.95$ 로 확인되었다.

가.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영역

1차 응답 결과 중 빈도 2 이상 항목을 제시하고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영역 E 또는 영역 제목으로 적절한 정도를 표하라는 질문에 대해 2차 조사에서 나온 결과는 다음의 <표 VI-3-1>과 같다.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항목은 ‘부모 역할’로 평균 4.55($SD=0.62$)점이며, 다음은 ‘부모-자녀 관계’($M=4.46$, $SD=0.72$),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상호작용’($M=4.32$, $SD=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2차와 3차 간 비교해 보면, 각 항목에 대해 평균은 높아지고 표준편차는 낮아져 응답자들의 의견이 좁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부모교육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기본 영역을 설정할 수 있다.

<표 VI-3-1>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영역 - 델파이 조사 결과

항 목	평균		표준편차	
	2차 (n=70)	3차 (n=51)	2차	3차
부모 역할	4.55	4.65	0.62	0.52
부모-자녀 관계	4.46	4.57	0.72	0.60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상호작용	4.32	4.53	1.02	0.68
영유아 발달	4.31	4.40	0.85	0.84
부모기 이해 및 발달	4.17	4.26	0.93	0.81
가족관계	4.08	4.14	0.93	0.71
영유아 문제행동, 부적응행동	4.08	4.15	0.87	0.65
아버지 양육참여	4.06	4.26	0.93	0.69
부모 발달	4.00	3.97	0.90	0.72
현대사회의 부모, 가족, 양육, 교육문제	3.99	4.05	1.10	0.90

(표 VI-3-1 계속)

항 목	평균		표준편차	
	2차 (n=70)	3차 (n=51)	2차	3차
부모 됨의 의미	3.95	3.91	0.92	0.69
가족에 대한 이해	3.91	3.78	0.98	0.80
놀이 발달 및 놀이지도	3.88	3.79	0.89	0.82
자녀 발달	3.87	3.88	1.05	0.80
부모교육 프로그램	3.86	3.69	0.96	0.84
부모의 자아개념, 자기이해	3.84	3.79	1.05	0.85
발달에 대한 이해	3.80	3.74	0.91	0.87
부모로서의 철학과 신념	3.79	3.64	1.09	0.83
영유아 교육	3.78	3.67	1.02	0.83
부모 자아발견, 자아성장	3.74	3.59	1.10	0.94
가족발달	3.67	3.55	0.92	0.78
아동 권리	3.64		0.95	
육아지원기관의 종류, 역할, 참여	3.58		0.93	
부모와 지역사회와 협력/관계	3.55		1.05	
가족과 지역사회	3.54		0.97	
인간 발달	3.47		0.90	
가족과 교육기관의 관계	3.47		0.92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3.42		1.10	
가족 문화	3.33		0.93	
지역사회와 문화	2.96		1.01	

주: 음영부분은 델파이 2차 조사 결과에서 평균점수가 상위 70%에 해당되는 항목임. 이 항목들이 3차 조사의 문항으로 재구성됨.

그러나 위에서 제시된 것은 내용상 서로 중복되기도 하고 비슷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므로, 이를 모두 영역으로 수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바, 이들을 유사한 내용들은 묶음으로써 몇 개의 큰 영역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이후 영역별로 대표적인 항목을 선택하여 그 영역의 제목으로 둘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항목들을 우선 묶어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3차 응답 데이터를 이용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 VI-3-2>와 같다.

결과에 따르면, 4개의 요인으로 분류하였을 때(추출요인 수 부여 방식 이용, Varimax 회전), 현대사회의부모-부모역할-부모됨의의미-부모의자아개념-부모자아발견-부모로서의 철학과 신념 등 ‘부모’와 관련한 항목들이 제1요인으로 묶여졌다. 부하량에 따른 제2요인은 영유아발달-부모발달-유아교육-영유아문제행동 등으로 구분되었고, 제3요인에는 부모교육프로그램-놀이발달 및 놀이지도가, 제4요

인에는 가족관계-가족에대한이해-가족발달 등 ‘가족’ 관련 항목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표 VI-3-2〉 부모교육 교육과정 영역 결정을 위한 요인분석 결과

	요 인			
	1	2	3	4
가족관계	.024	.160	.216	.834
가족에대한이해	.401	.078	-.011	.693
가족발달	.176	.299	.256	.603
부모역할	.595	.048	.000	.239
부모됨의의미	.542	.340	.395	.006
부모의자아개념, 자기이해	.760	.386	.267	.113
부모자아발견, 자아성장	.708	.269	.462	.008
부모-자녀간의의사소통, 상호작용	.706	.324	.144	.192
아버지양육참여	.706	.026	.105	.180
현대사회의부모, 가족, 양육, 교육문제	.690	-.030	.057	.246
부모로서의철학과신념	.680	.214	.450	-.034
자녀발달	.661	.237	.202	-.030
영유아발달	.110	.791	-.118	.236
영유아교육	-.055	.725	.318	.183
부모기이해및발달	.462	.679	.023	-.164
부모-자녀관계	.219	.631	.049	.247
부모발달	.450	.486	.292	-.049
영유아문제행동, 부적응행동	.438	.483	.367	.201
발달에대한이해	.226	.100	.651	.096
놀이발달및놀이지도	.146	.150	.611	.110
부모교육프로그램	.103	-.084	.753	.149

주: 1)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2)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6회전반복계산)

앞서 제시한 바 있는 각 항목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참고하고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각 요인을 구분하여 4개의 영역으로 교육과정을 이름 붙인다면, 각 영역의 주제는 (1)부모 (2)영유아 (3)가족 (4)지도(교육) 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기존의 이론과 요구, 선행연구자료, 전문의견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총합에 의해서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영역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나.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내용

부모교육 교육과정은 유치원교육과정이나 표준보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그 구성상 기본 영역으로 구분이 되고 각 영역 하에 구체적인 교육내용이 포함되는 형식이다. 따라서 델파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부모교육 교육과정이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1차 자유헌술식을 거쳐 2차, 3차에서 정리된 내용은 영역과 비교했을 때 훨씬 많은 항목으로 구성된다. 다음의 <표 VI-3-3>은 내용으로 전문가들이 추천한 항목들과 각각의 평균 및 표준편차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 VI-3-3> 부모교육과정의 내용 - 델파이 조사 결과

항 목	평균		표준편차	
	2차 (n=70)	3차 (n=51)	2차	3차
부모-자녀 간 대화 및 의사소통 방법	4.83	4.82	0.38	0.39
맞벌이 부부의 효과적인 양육법	4.55	4.47	0.60	0.60
양육스트레스와 대처방안	4.53	4.52	0.58	0.54
부모-자녀 관계 문제 및 치료	4.52	4.51	0.62	0.60
영유아기의 중요성	4.48	4.55	0.70	0.65
아버지 양육 참여	4.48	4.45	0.64	0.63
영유아기 영양, 건강, 안전	4.42	4.38	0.68	0.67
자녀 훈육 기술	4.41	4.51	0.77	0.63
자녀의 특성 이해	4.40	4.49	0.79	0.66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	4.40	4.42	0.74	0.68
부모의 심리적 건강	4.39	4.40	0.72	0.70
부모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효능감	4.39	4.43	0.73	0.73
인성 지도	4.36	4.38	0.69	0.70
영유아기 기질과 부모의 성격	4.36	4.36	0.76	0.67
영유아기 정서 발달	4.34	4.33	0.76	0.78
기본생활습관 지도	4.33	4.46	0.72	0.63
부모됨의 의미	4.32	4.23	0.76	0.76
영유아기 심리, 성격 발달	4.30	4.29	0.73	0.68
문제 행동 및 부적응행동	4.29	4.40	0.73	0.62
발달 단계별 발달과업	4.29	4.29	0.85	0.79
부모의 자기이해와 성격분석	4.28	4.26	0.76	0.78
영유아기 인지 발달	4.26	4.24	0.77	0.78
영유아기 사회성 발달	4.25	4.21	0.82	0.81
애착의 개념과 중요성	4.22	4.21	0.86	0.79
자신감 및 주도성 지도	4.21	4.09	0.72	0.68
영유아기 언어 발달	4.20	4.12	0.77	0.77

(표 VI-3-3 계속)

항 목	평균		표준편차	
	2차 (n=70)	3차 (n=51)	2차	3차
영유아기 신체 발달	4.20	4.19	0.80	0.78
또래관계의 중요성 이해	4.20	4.10	0.73	0.67
부모와 교육기관의 소통 및 부모의 참여	4.19	4.02	0.73	0.72
양육 태도	4.18	4.18	0.78	0.63
부모역할의 변화 및 어려움	4.16	4.16	0.86	0.79
놀이의 이해(이론, 의의, 종류, 방법)	4.16	4.11	0.82	0.72
가족갈등, 스트레스 및 해소방안, 가족치료	4.08	4.02	0.89	0.74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부모의 역할	4.08	3.88	0.76	0.62
자녀관 등 가치관 교육	4.08	4.02	0.82	0.64
부모 발달 단계 및 특징	4.04	4.10	0.97	0.81
양육 신념	4.04	3.98	0.77	0.61
영유아가 도덕성 발달	4.04	3.97	0.84	0.72
건강한 가족 및 가족문화	4.03	3.88	0.94	0.73
직장과 부모 역할 균형	4.01	3.84	0.85	0.73
양육정보·사회적자원활용(교육·보육기관정책 등)	3.99	3.91	0.76	0.57
창의성 계발	3.97	3.91	0.79	0.63
부모교육 프로그램	3.95	3.86	0.92	0.74
언어 지도	3.95	4.00	0.83	0.75
임신 및 태교의 중요성 인식	3.95	3.91	0.91	0.68
자녀 성교육	3.95	3.76	0.90	0.76
아동 학대	3.93	3.88	0.80	0.68
영유아기 뇌 발달	3.93	3.86	0.98	0.76
다양한 가족 이해하기	3.88	3.81	0.85	0.71
발달장애 및 고위험군 영유아	3.86		0.78	
아동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이해	3.85		0.90	
현대사회의 변화와 가족	3.84		0.86	
가족 및 가족구성원의 역할	3.83		0.86	
아동행동 관찰 및 이해	3.83		0.94	
가정 내 교육에 대한 이해	3.81		0.94	
부모의 법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	3.79		0.91	
임신과 출산	3.79		0.87	
장애아동과 부모역할	3.73		0.78	
부모교육에 대한 이해	3.73		0.97	
부모 대상 반편견 교육	3.73		0.83	
독서 지도	3.72		0.88	
부모모임 및 네트워크 활성화	3.65		0.85	
매체 및 컴퓨터를 활용한 자녀 교육	3.64		0.86	
가족과 문화, 사회 간의 관계	3.62		1.03	
원가족에 대한 이해	3.53		1.06	

(표 VI-3-3 계속)

항 목	평균		표준편차	
	2차 (n=70)	3차 (n=51)	2차	3차
조부모의 역할 및 관계	3.53		0.84	
가족발달 개념 및 이론	3.50		0.97	
학습 지도	3.45		0.84	
전통적 가치관과 자녀 양육	3.32		0.92	
가정 경영 및 경제	2.92		1.04	

주: 음영부분은 델파이 2차 조사 결과에서 평균점수가 상위 70%에 해당되는 항목임. 이 항목들이 3차 조사의 문항으로 재구성됨.

유사한 내용들을 묶어내는 방법으로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네 개의 요인으로 특정하여 분석하였을 때, 다양한 가족 이해하기-가족형태에 따른 부모 역할 등 ‘가족’ 중심 요인(요인 4), 발달단계별 발달과업을 비롯한 ‘발달’(요인 1), 부모됨의 의미-부모/자녀 관계 등 ‘부모’(요인 3), 자녀교육-훈육 등의 문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자녀지도’(요인 2) 등으로 비교적 뚜렷하게 묶여졌다. 다음의 <표 VI-3-4>는 각 항목별 요인부하량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각 요인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요인부하량과 영역구분, 기존 연구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타당하게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표 VI-3-4> 부모교육 교육과정 영역별 내용 결정을 위한 요인분석 결과

항목	요 인			
	1	2	3	4
아동학대	.240	.203	.185	.647
다양한 가족 이해하기	.108	.057	.003	.791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부모의 역할	-.003	.109	.077	.751
부모와 교육기관의 소통 및 부모의 참여	-.023	-.069	.420	.538
발달단계별 발달과업	.505	.262	.326	.214
영유아기 기질과 부모의 성격	.544	.080	.328	.193
영유아기 뇌 발달	.642	.165	.182	.040
영유아기도덕성발달	.758	.007	.171	.166
영유아기사회성발달	.879	.081	.282	.043
영유아기신체발달	.875	.142	.069	.088
영유아기심리, 성격발달	.744	.267	.208	-.164
영유아기언어발달	.903	.107	.222	.113
영유아기영양, 건강, 안전	.721	.040	.033	.224
영유아기인지발달	.865	.124	.287	.053
영유아기정서발달	.879	.125	.275	-.061

(표 VI-3-4 계속)

항목	요 인			
	1	2	3	4
영유아기의중요성	.543	.024	.317	.271
또래관계의중요성이해	.531	.274	.290	.119
기본생활습관지도	.456	.267	.297	-.140
애착의개념과중요성	.394	.173	.522	.077
부모발달단계및특징	.202	.213	.603	.344
부모교육프로그램	.175	.047	.657	.127
부모됨의의미	.173	.008	.651	.307
부모의자기이해와성격분석	.103	.363	.596	.041
부모의자아존중감및양육효능감	.205	.225	.703	-.003
자녀관 등 가치관 교육	.338	.276	.631	-.023
부모의심리적건강	.402	.328	.604	.090
양육신념	.367	.375	.576	-.063
부모의법적의무와사회적책임	.149	.388	.533	.039
부모-자녀관계의특성	.324	.172	.569	.248
양육스트레스와대처방안	.158	.671	.232	.038
양육정보사회적자원활용(교육·보육기관, 정책등)	.310	.409	-.245	.243
양육태도	.465	.465	.376	.028
임신및태교의중요성인식	.316	.424	-.055	.064
직장과부모역할균형	-.043	.501	.234	.253
부모-자녀간대화및의사소통방법	-.032	.567	.205	.145
부모-자녀관계문제및치료	-.040	.606	.198	-.032
자녀훈육기술	-.012	.552	.120	-.077
자녀의특성이해	.236	.444	.255	-.090
놀이의이해(이론, 의의, 종류, 방법)	.309	.401	.142	-.092
자녀성교육	.261	.441	.160	.331
언어지도	.577	.596	-.129	.136
창의성개발	.439	.559	.042	.075
인성지도	.469	.659	.064	.022
자신감및주도성지도	.341	.682	.186	-.046
문제행동및부적응행동	.170	.450	.269	.178
맞벌이부부의효과적인양육법	.099	.450	.197	.231
가족갈등, 스트레스및해소방안, 가족치료	-.032	.453	.029	.126
아버지양육참여	.142	.392	.180	.346

주: 1)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2)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6반복회전)

다.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중점 내용

본 연구에서는 부모특성을 5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특별히 관심을 두고 그들의 부모교육이 어떻게 달라야 할지라는 문제를 논의해 왔다. 5개 부모특성 집단은 도시 저소득층,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 농어촌 가정의 부모들이 포함된다. 텔파이 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부모 집단에는 어떠한 교육 내용이 특히 포함되어야 할지 알아보았다.

먼저 저소득층 부모에 대한 부모교육의 내용에서 강조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부모-자녀 간 질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편차도 상당히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M=4.67$, $SD=0.43$). 텔파이 2차와 3차를 통해 얻어진 각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 <표 VI-3-5>와 같다.

<표 VI-3-5> 부모 특성별 중점 교육 내용 1 - (도시) 저소득층 부모 대상

항 목	평균		표준편차	
	2차 (n=70)	3차 (n=51)	2차	3차
부모-자녀 질적인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4.67	4.76	0.50	0.43
부모의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4.64	4.72	0.58	0.56
부모가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해	4.59	4.62	0.52	0.49
부모의 자기이해 및 자아존중감 높이기	4.57	4.59	0.62	0.59
부모역할의 의미와 중요성	4.55	4.62	0.66	0.56
부모-자녀 애착 형성 및 정서적 지지	4.48	4.52	0.70	0.66
영유아 발달의 특성 및 중요성 이해	4.45	4.47	0.74	0.71
영유아 건강, 위생, 영양, 안전 교육	4.44	4.47	0.72	0.68
영유아기 문제행동의 유형 및 지도법	4.43	4.47	0.60	0.57
영유아 자녀 양육 방법	4.32	4.37	0.79	0.77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권리 교육	4.25	4.29	0.81	0.65
가정환경의 중요성/ 풍부한 교육적 환경 구성	4.24	4.29	0.87	0.77
영유아 자녀의 양육관/ 양육태도 이해	4.23	4.29	0.83	0.75
영유아기 조기 개입의 필요성과 중요성	4.21	4.19	0.78	0.67
정부 제도와 지역사회 자원 이해 및 활용	4.19	4.21	0.88	0.77
자녀의 열등감, 자존감, 자긍심 교육	4.12	4.18	0.90	0.89
자녀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활동	4.09	4.02	0.77	0.58
육아지원기관의 소통 및 참여	4.03		0.75	
영유아 자녀 취학전 준비 교육	4.00		0.93	
삶의 비전 및 가치관 교육	3.93		1.06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 및 효과	3.81		1.02	
가계 및 사회 경제(소득, 소비, 빈곤탈출 등)	3.69		1.08	

(표 VI-3-5 계속)

항 목	평균		표준편차	
	2차 (n=70)	3차 (n=51)	2차	3차
저소득이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3.67		0.99	
영유아 자녀 독서 지도	3.64		0.82	

주: 음영부분은 델파이 2차 조사 결과에서 평균점수가 상위 70%에 해당되는 항목임. 이 항목들이 3차 조사의 문항으로 재구성됨.

맞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할 때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으로도 앞서의 저소득 부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모-자녀 질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방법’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다음으로 ‘아버지의 양육 및 교육 참여’, ‘가정 내 역할 분담 및 협력’ 등이 추천되었다.

〈표 VI-3-6〉 부모 특성별 중점 교육 내용 2 - 맞벌이 부모 대상

항 목	평균		표준편차	
	2차 (n=70)	3차 (n=51)	2차	3차
부모-자녀 질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방법	4.71	4.77	0.56	0.50
아버지 양육 및 교육 참여	4.68	4.67	0.55	0.57
맞벌이 가정 내 역할 분담 및 협력	4.67	4.69	0.48	0.50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직장스트레스 관리	4.57	4.56	0.66	0.68
맞벌이 가정 내 부모 역할의 이해	4.56	4.57	0.60	0.53
부모-자녀 간 애착 및 분리불안	4.49	4.54	0.78	0.71
부부관계 및 의사소통	4.32	4.38	0.89	0.72
대리양육의 이해 및 활용	4.27	4.31	0.76	0.68
교육/보육 기관 정보 제공 및 선정 준거	4.25	4.25	0.79	0.66
여가시간/주말 가족문화 및 양육 방안	4.21	4.10	0.86	0.79
일-가정 양립 및 균형	4.21	4.14	0.91	0.80
부모의 자기이해 및 자아존중감 높이기	4.20	4.21	0.79	0.69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및 놀이, 놀잇감	4.20	4.19	0.77	0.61
자녀 방임 및 유해환경 노출 보호	4.19	4.17	0.75	0.63
맞벌이 가정 제도/정책/사회서비스 이해	4.13	4.05	0.70	0.51
또래 관계 및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관심	4.12		0.75	
맞벌이가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4.11		0.80	
맞벌이 가정 특성 이해	3.97		0.82	
시간 관리의 중요성 및 방법	3.96		1.13	
수퍼맘에서 벗어나기	3.96		0.92	
아동 학대 예방 및 아동 권리 교육	3.83		0.92	
조기교육 이해	3.51		1.02	

주: 음영부분은 델파이 2차 조사 결과에서 평균점수가 상위 70%에 해당되는 항목임. 이 항목들이 3차 조사의 문항으로 재구성됨.

어머니나 아버지 중 한 사람만 자녀와 살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한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중요성 및 방법’, ‘한부모 가정의 부모 역할’,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 건강’ 등이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나, 한부모 가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가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자기이해 및 자아존중감 높이기’는 앞서 포커스 집단 면접에서 한부모들이 요구한 부모교육 내용과도 일치하는 부분으로, 이에 대한 주의 깊은 교육 내용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VI-3-7〉 부모 특성별 중점 교육 내용 3 - 한부모 대상

항 목	평균		표준편차	
	2차 (n=70)	3차 (n=51)	2차	3차
한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중요성 및 방법	4.71	4.81	0.56	0.40
한부모 가정의 부모 역할	4.65	4.76	0.56	0.43
한부모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건강	4.64	4.66	0.54	0.48
한부모 가정 대상 지역사회지원 제도 이해·활용	4.55	4.55	0.62	0.60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이해 및 유형별 자녀 특성	4.47	4.52	0.72	0.63
부모의 자기이해 및 자아존중감 높이기	4.44	4.50	0.70	0.60
편견 극복 및 사회적 인식에 대처	4.41	4.40	0.78	0.75
영유아 자녀 양육 방법	4.41	4.47	0.68	0.63
자녀 문제행동의 유형 및 지도법	4.36	4.41	0.63	0.53
한부모 가정 모임 및 네트워크	4.36	4.31	0.75	0.71
자녀의 자아존중감 높이기	4.36	4.34	0.73	0.71
한부모의 죄책감 및 고립감 극복	4.35	4.34	0.85	0.78
한부모 양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4.29	4.31	0.75	0.63
방임 유해환경 노출에서의 자녀 보호	4.23	4.33	0.88	0.76
또래 관계 및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관심	4.19	4.16	0.75	0.56
일-가정 양립의 이해 및 방법	4.19	4.17	0.88	0.80
아동 학대 예방 및 아동 권리 교육	4.19	4.31	0.83	0.75
미혼모, 십대모에 대한 지원 및 보호프로그램	4.17		0.89	
결손된 부모역할 보상 및 대리자 연결	4.15		0.88	
자녀 놀이지도	4.11		0.71	
자녀의 성역할 발달 이해 및 지도	4.03		0.97	

주: 음영부분은 델파이 2차 조사 결과에서 평균점수가 상위 70%에 해당되는 항목임. 이 항목들이 3차 조사의 문항으로 재구성됨.

네 번째는 다문화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교육과정이 특히 주의를 두어야 할 내용을 전문가들에게 물었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항목은 ‘다문화가정 부모 네트워크 및 양육지원 제도’ 평균 4.76으로 매우 높은 지지를

얻었다. 다음으로는 부모스트레스, 이중문화 적응 등 다문화 부모가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부모교육 중점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표 VI-3-8〉 부모 특성별 중점 교육 내용 4 - 다문화가정 부모 대상

항 목	평균		표준편차	
	2차 (n=70)	3차 (n=51)	2차	3차
다문화가정 부모 네트워크 및 양육지원 제도	4.69	4.76	0.49	0.47
다문화 가정 부모스트레스 이해 및 대처	4.68	4.74	0.50	0.44
부모의 이중문화 적응과 긍정적 수용	4.67	4.71	0.55	0.53
다문화 가정 부모로서의 정체성 확립	4.67	4.71	0.64	0.53
자녀의 이중문화 적응과 부모 역할	4.67	4.70	0.55	0.57
아버지 교육	4.60	4.67	0.70	0.57
이중언어 환경 및 문해 환경	4.57	4.66	0.60	0.51
다문화 가정의 부모 역할	4.56	4.60	0.70	0.59
자녀의 정체감 형성	4.53	4.53	0.62	0.57
부모-자녀 관계 맺기 및 의사소통	4.53	4.62	0.68	0.56
부모로서의 자신감 및 자아존중감 높이기	4.52	4.48	0.64	0.63
지역사회 자원 및 사회제도 이해와 활용	4.49	4.41	0.60	0.59
부부 간 상호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	4.47	4.42	0.62	0.63
부모의 공동협력 및 양육 참여의 중요성	4.45	4.40	0.68	0.62
부모 문화 이해 및 자긍심 갖기	4.43	4.44	0.64	0.60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장단점)	4.35	4.35	0.76	0.64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이해와 방법	4.33	4.46	0.72	0.66
한국 문화 및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	4.27	4.26	0.83	0.64
부부관계	4.24		0.84	
또래 관계 및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관심	4.20		0.77	
한국적 양육 문화 및 방법 이해	4.20		0.93	
가정폭력방지	4.16		0.79	
한국의 가족문화 이해	4.13		0.95	
가족의 의미, 기능, 관계 이해	4.08		0.82	
한국의 교육에 대한 이해	4.05		0.91	
아동 학대 예방 및 아동 권리 교육	4.00		0.87	

주: 음영부분은 델파이 2차 조사 결과에서 평균점수가 상위 70%에 해당되는 항목임. 이 항목들이 3차 조사의 문항으로 재구성됨.

마지막으로, 농어촌 부모에 대한 부모교육 내용으로서는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모와 마찬가지로 ‘부모-자녀 질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꼽혔고, 농어촌의 특성을 살린 ‘농어촌 환경 이용 양육 및 교육’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농어촌 가정의 경우 조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으므

로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에 대한 교육도 포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표 VI-3-9〉 부모 특성별 중점 교육 내용 5 - 농어촌 부모 대상

항 목	평균		표준편차	
	2차 (n=70)	3차 (n=51)	2차	3차
부모-자녀 질적인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4.48	4.57	0.76	0.60
농어촌 환경을 활용한 양육 및 교육	4.40	4.34	0.79	0.71
조부모-손자녀 관계 및 조부모 역할 교육	4.36	4.32	0.75	0.69
교육적 자극이 풍부한 가정환경 만들기	4.35	4.40	0.73	0.62
지역사회 자원과 제도 이해 및 활용	4.27	4.14	0.72	0.58
농어촌 가정의 자녀 양육	4.25	4.24	0.87	0.78
농어촌 가정의 건강, 위생, 안전 교육	4.25	4.29	0.76	0.68
영유아 발달 이해	4.23	4.22	0.83	0.75
농어촌 가정의 부모 역할	4.20	4.21	0.89	0.79
취학 전 학습 지도 및 학교 적응	4.12	3.98	0.77	0.66
자녀와 여가 및 문화생활 즐기기	4.03	3.95	0.81	0.57
아동 학대 예방 및 아동 권리 교육	4.00		0.89	
매체 및 인터넷 활용 방법	4.00		0.75	
교육/문화 격차·실조에 대한 이해와 대응	4.00		0.90	
양성평등적 양육 참여	3.95		0.79	
농어촌 및 농어촌 가정에 대한 이해	3.84		0.93	

주: 음영부분은 델파이 2차 조사 결과에서 평균점수가 상위 70%에 해당되는 항목임. 이 항목들이 3차 조사의 문항으로 재구성됨.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내용의 항목들은 이미 집단별로 구분되어 조사를 한 경우이므로, 별도로 요인분석 등 통계 처리를 하지 않고 평균 점수를 중심으로 포커스 집단 면접에서 드러난 요구, 기존 자료와 전문가의 제안 등을 함께 근거로 하여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였다.

4. 부모교육 교육과정 제안

지금까지의 요구 조사, 면접, 그리고 특히 델파이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 부모교육의 기본 틀이 될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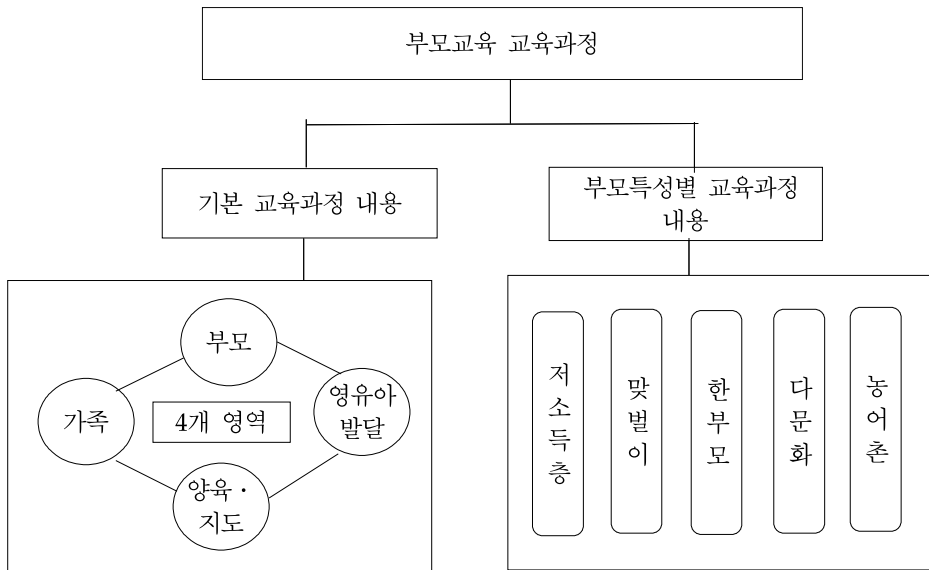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부모교육 교육과정은 4가지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영역의 선택은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평균점수가 높고 표준편차가 적었던 항목

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고 텔파이결과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의 요인부하량이 큰 항목 또한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교육과정의 영역은 (1) **부모역할**, (2) **영유아발달**, (3) **가족과 사회**, (4) **양육과 지도**로 구성하였다.

각 영역에 따른 내용은 앞서 살펴본 텔파이의 요인분석과 지지도 평균점수에 근거하였으며 연구진 자체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중복 7개 항목은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위의 각 영역별로 교육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부모 특성별로 제안된 교육내용은 전문가 텔파이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근거로 하여 선정하되 기본 교육과정 영역 및 내용과 중복되는 항목은 제외하였다. 5개 부모특성 집단별로 각각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열개는 다음 [그림 VI-4-1]과 같다.



[그림 VI-4-1]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구성

최종적으로 개발된 부모교육 교육과정은 다음 <표 VI-4-1>과 같다. 각 영역별로 합의된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표 VI-4-2>는 기본 교육과정이 아닌, 선택과정으로서, 특별한 요구를 지닌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특성별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합의한 부모교육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VI-4-1〉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영역 및 내용 1 - 기본과정

부모교육 교육과정 (기본 과정)	
제 1 영역 : 부모 역할	제 3 영역 : 가족과 사회
- 부모됨의 의미 - 부모 발달 단계 및 특징 - 자녀관 등 가치관 교육 - 부모의 법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 - 부모의 자기 이해 - 부모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효능감 - 부모의 심리적 건강 - 양육신념과 양육태도 - 애착의 개념과 중요성 - 부모-자녀관계의 특성 - 부모교육 프로그램	- 가족 형태에 따른 부모의 역할 - 다양한 가족 이해하기 - 가족갈등, 스트레스 및 해소 - 부모와 교육·보육 기관의 소통 - 양육정보, 사회적 자원 활용 - 아동학대 및 아동권리 - 아버지 양육 참여 - 직장상 부모 역할 균형
제 2 영역 : 영유아 발달	제 4 영역 : 양육과 지도
- 영유아기 기질 - 영유아기 뇌 발달 - 영유아기 도덕성 발달 - 영유아기 사회성 발달 - 영유아기 신체 발달 - 영유아기 정서 발달 - 영유아기 심리, 성격 발달 - 영유아기 언어 발달 - 영유아기 인지 발달 - 또래관계의 중요성 이해 - 영유아기 영양, 건강, 안전	- 기본생활 습관 지도 - 자녀 훈육 기술 - 놀이의 이해(이론, 의의, 종류, 방법) - 자녀 성교육 - 언어지도 - 창의성개발 - 인성지도 - 자신감 및 주도성 지도 - 문제행동 및 부적응행동 - 부모-자녀 간 대화 및 의사소통 방법 - 부모-자녀 관계 문제 및 치료 - 양육 스트레스와 대처 방안

〈표 VI-4-2〉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영역 및 내용 2 - 부모특성별 선택과정

부모교육 교육과정 (부모특성별 선택 과정)	
저소득층 부모	맞벌이 부모
- 부모-자녀 질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 부모의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 부모의 자기이해 및 자아존중감 높이기 - 영유아 건강, 위생, 영양, 안전 교육 - 영유아기 문제행동의 유형 및 지도법 - 가정환경의 중요성/풍부한 교육적 환경 구성 - 영유아기 조기 개입의 필요성과 중요성 - 정부제도와 지역사회 자원 이해 및 활용 - 자녀의 열등감, 자존감, 자긍심 교육	- 부모-자녀 질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방법 - 아버지 양육 및 교육 참여 - 맞벌이 가정 내 역할 분담 및 협력 - 부모의 양육/직장 스트레스 관리 - 부모-자녀 간 애착 및 분리불안 - 부부관계 및 의사소통 - 대리양육의 이해 및 활용 - 여가시간/주말 가족문화 및 양육 방안 - 부모의 자기이해 및 자아존중감 높이기 - 자녀 방임 및 유해환경 노출 보호 - 맞벌이가정 제도/정책/사회서비스이해

(표 VI-4-2 계속)

부모교육 교육과정 (부모특성별 선택 과정)	
한 부모	다문화가정 부모
- 한부모-자녀 의사소통 중요성 및 방법 - 한부모 가정의 부모 역할 - 한부모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건강 - 한부모가정대상 지역사회자원제도 이해·활용 - 부모의 자기이해 및 자아존중감 높이기 - 편견 극복 및 사회적 인식에 대처 - 자녀 문제행동의 유형 및 지도법 - 한부모 가정 모임 및 네트워크 - 자녀의 자아존중감 높이기 - 한부모의 죄책감 및 고립감 극복 - 방임 유해환경 노출에서의 자녀 보호	- 다문화가정 부모네트워크 및 양육지원 제도 - 다문화가정 부모스트레스 이해 및 대처 - 부모의 이중문화 적응과 긍정적 수용 - 다문화 가정 부모로서의 정체성 확립 - 아버지 교육 - 이중언어 환경 및 문해 환경 - 자녀의 정체감 형성 - 부모-자녀 관계 맺기 및 의사소통 - 부모의 자신감 및 자아존중감 높이기 - 부부 공동협력 및 양육 참여의 중요성 - 부모 문화 이해 및 자긍심 갖기
농어촌 부모	
- 부모-자녀 질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 농어촌 환경을 활용한 양육 및 교육 - 조부모-손자녀 관계 및 조부모역할 교육 - 교육적 자극이 풍부한 가정환경 만들기 - 지역사회 자원과 제도 이해 및 활용 - 농어촌 가정의 건강, 위생, 안전 교육 - 농어촌 가정의 부모 역할 - 취학 전 학습 지도 및 학교 적응 - 자녀와 여가 및 문화생활 즐기기	

VII.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강화 방안

본 연구의 주제는 부모특성별로 영유아부모에 대한 부모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때 부모특성은 특별한 요구를 가진 부모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등 소외계층과 맞벌이부모 등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일반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이 활성화되어 있고 접근성도 높다면 특별한 요구를 지닌 부모들도 부모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부모대상 부모교육도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는 현실에서 볼 때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강화 방안은 보다 포괄적 대상의 부모교육을 고려하여 광범위하게 제안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연구에서 개발한 부모교육 교육과정이 활발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일반 부모와 부모특성별 구분이 가능한 부모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더불어 부모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1.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이용 활성화

본 연구에서 부모교육 교육과정을 개발한 것은 부모교육을 행하는 기관에서 이를 기본 틀로 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이고 꾸준한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인구를 늘리고 부모교육 경험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해 가고자 하는 목적에 있다. 개발된 부모교육 교육과정을 100% 모두 포함하여 실행하도록 하기보다는 실제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취사선택하여 일부 내용만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부모교육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드림스타트센터 등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에서 사업 중 하나로 부모교육을 채택하여 자체 프로그램을 일부 진행하고 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므로 부모교육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다. 본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98%에 이르는데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영유아부모는 26.4%에 지나지 않는다(표 V-1-3 참조). 특히 아버지의 경우에는 11.8%로 나타났다. 그것도 부모의 58.2%는 단1회만 참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부모교육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갈 기관을 확보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홍보와 배포, 교육자의 양성 등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가. 교육과정의 배포와 홍보

먼저 부모교육 교육과정이 개발되었음을 홍보하기 위한 브로슈어, 안내문, 관련 책자 등을 제작하여 전국 교육청, 건강가정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드림스타트센터 등 부모교육을 주도하고 하고 있는 기관과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보낸다. 뿐만 아니라 부모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교육과정에 따라 일정 기간 부모교육을 받을 필요성을 설명하는 부모용 홍보 브로슈어 등도 제작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다.

부모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해설서 및 운영지침을 제작하여 교육과정과 함께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부모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부모교육 교육과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유익한 선택임을 기관과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나. 부모교육 전문 교육자의 양성

부모교육 교육과정에 따라 전문적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교육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교육자의 자격은 관련 대학의 교수나 유치원,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교사,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근무자 등이 될 수 있고 일정 학력을 가진 관심 있는 일반인이 될 수도 있다.

전문 교육자는 부모교육 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모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격을 갖출 필요가 있다.

부모교육 전문 교육자 자격은 국가가 인정한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자격증이 되어야 하고, 교육청이나 보육교사보수교육 기관 등에서 교육자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다. 온라인 부모교육 과정의 확충

부모교육 교육과정에 의거한 온라인 부모교육을 과목(영역/내용)별로 개설하여 부모들이 쉽게 접근하고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교육은 부모교육 전문 교육자에 의해 진행되고 기존 온라인 교육기관의 인프라에 의존하여 실시될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교육은 부모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일정 기간(5-10회) 지속적인 접근과 참여가 요구되는 만큼 교육 이수에 대한 사회적 크레딧(예, 이수자에 대한 교육비나 보육료의 할인제도,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이 인정되는 것도 필요하다.

2. 부모교육에 대한 정책적 접근의 강화

가. 영유아 부모교육 업무 담당자 지정

교육의 대상으로서 ‘부모’를 두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 업무를 책임지고 맡아 볼 중앙 및 지방 정부에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 연간 부모교육 지원에 대한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평가까지 과정을 총괄할 인력이 요구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의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평생교육, 가족복지의 측면과도 연결되어 있다.

나. 홍보 다양화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진행하고 있는 기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얻게 되는 결과, 장점들을 매체 광고나 브로슈어 배포 등을 통해 알릴 필요가 있다. 또는 인터넷을 통해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에서나 한번 쯤 참여를 고려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정책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부모들은 휴대전화 문자나 전화 안내를 통해 부모교육 광고를 접할 때 가장 잘 알게 된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특정한 프로그램

이나 교육 행사는 주민 센터 등의 라인을 통해 문자알림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유치원, 어린이집을 전달체계로 한 접근성의 강화

우리나라 영유아들이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육아지원기관을 다니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부모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달체계는 이러한 기관들이 될 것이다. 기관에 다니는 영유아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청이나 관련 센터 등이 부모교육 전문가를 활용한 부모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육은 부모가 함께 참여할 것을 유도하고 주말에 개설되도록 한다. 이 때 자녀를 돌보아주는 서비스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부모교육에 많이 포함해야 한다. 자녀와의 공동 체험·협력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교육적인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셋째, 하나의 육아지원기관만으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역을 구분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별로 몇 개 기관이 공동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역내 부모 간 교류를 도모하고 부모지지모임 등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다.

넷째, 회원가입을 통한 혜택 제도 등 지속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3. 부모특성을 고려한 부모교육 방식의 다양화

반드시 한 자리에 모여 부모교육을 세미나 형식으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부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가. 맞벌이 부모 대상

1) 온라인 교육과 직장 부모교육의 활용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보면 맞벌이 부모들이 특히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고

자 하는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며 특히 아버지 교육에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회사나 공공기관 등 직장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부모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직원 복지 수준과 직장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주말 프로그램

맞벌이 부모는 평일에도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은 만큼 주말이라도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 하고 싶어 한다. 주 5일 근무의 비중이 높아진 요즘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이틀 중 하루 정도는 자녀와 함께 외출을 하여 자녀가 체험하고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싶어 하는 추세이다. 이런 경우 자녀들이 다니는 육아지원기관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혹은 교육청 등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부모가 자녀와 함께 참여하여 같이 놀이를 하면서 전문가로부터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이 때 주관 기관에서는 참여수요를 미리 파악하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참여 부모로부터 소액의 참가비를 받아 신청자들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참여율 확보 장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조부모 교육

맞벌이 부부에 대한 조사 결과 조부모 교육 실시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조부모는 물론 자녀를 키운 경험이 있는 분들이기는 하나 세대가 변하여 양육에 대한 의식과 방법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세월이 흘러 자녀 양육 경험을 잊어버린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맞벌이를 나가는 자녀 부부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준비와 양육에 필요한 사항들을 다시 한 번 배우는 것은 손자녀를 잘 키우는 것뿐 아니라 자녀부부를 안심시키고 조부모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서도 확신감을 가지게 되는 기회일 수 있다.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 센터에서 주말을 이용해 조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말에는 맞벌이 자녀가 집에서 그들의 영유아 자녀를 돌볼 수 있어 조부모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부모 교육은 장년기 또는 노년기 조부모들이 흥미를 갖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영아, 유아 등 연령에 따른 손자녀의 발달과 이를 고려한 세심한 양육 방식, 그리고 부모가 아닌 조부모 양육의 장단점 등 그들이 처한 현실적인 부분을 잘 포괄해야 할 것이다.

4)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맞벌이 부모들이 별도로 시간을 내어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출퇴근, 점심시간 등 틈새 시간 동안 개별적으로 부모교육을 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천만이 넘는 인구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부모교육을 손 안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자녀연령대별 부모교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젊은 부모들이 쉽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또는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어머니나 아버지들을 위해 부모교육 강좌를 라디오에서 흥미롭게 진행함으로써 부모들이 원하는 내용을 가까이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된다.

5) 교육내용의 특성화

맞벌이 부모 대상 부모교육을 계획할 때 앞 장에서 제시된 부모교육 교육과정 내용을 참조해보면, 특히 육아분담의 중요성, 아버지의 양육 참여 관련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고 대리양육의 선택에 대한 교육도 주요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직장과 가사를 병행하며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이 고려되어 맞벌이 부부를 위한 부모교육이 구성되는 편이 효과적일 것이다.

나. 다문화 부모

1) “육아 도움 다문화 핫라인”의 개설

본 연구의 포커스 집단 면접 결과를 보면 다문화가정의 외국 출신 어머니들은 무엇보다 자녀양육에 대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아 누군가 심리적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였다. 일반적인 한국 출신 영유아 부모인 경우는 부모나 형제가 있어 의논 상대가 되어 줄 수 있으나 다문화 가정 어머니는 양육에

대해 의지할 대상이 시부모외에는 거의 없으며 시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는 전혀 지지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은 편하게 전화하여 물어보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상담전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해결책을 스스로 제시하였다.

다문화 가정 자녀 양육을 위한 전화 핫라인은 특히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어야 하는 바, 지자체나 지원 센터가 중심이 되어 한국에서 자녀를 키운 선배 다문화가정 부모를 언어지원인력으로 활용하고 육아 전문가를 상담원으로 함께 참여시켜 팀을 이루어 지원해야 한다.

다문화 가정 부모는 인터넷 부모교육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응답하고 있는데 반해 전화를 통한 개별 부모교육은 특별히 사용방법 교육을 할 필요가 없고 특별한 장치를 설치할 사전 요건 없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개별 요구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면 이를 수행할 서비스 인력이 많아야 하므로 지자체 등 주관 기관에서 예산 확보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2) 육아정보지 및 육아도서의 번역·보급

다문화 가정 외국 출신 어머니들은 한국 내에서 육아정보에 대해 거의 사방으로 막힌 벽 안에 있는 듯하다. 어느 곳을 보더라도 시원하게 열린 정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물론 언어 소통의 문제이지만 자녀는 태어나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데 없는 한국어 실력이 자녀 성장보다 더 빨리 나아져 자녀 연령에 맞는 육아도서를 읽어내려 갈 수준에 이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많은 수의 외국인 어머니들이 학력 수준 또한 높지 않으므로 그들의 신속한 한국어 습득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한 답답함으로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은 자국어로 된 육아도서를 읽고 싶어 하였다.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으므로 현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육아에 대한 가이드, 육아지식을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이 믿고 참고할 수 있는 도서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책이 화려하고 두껍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육아 관련 내용, 육아에 대한 지원 정보, 지역 내 육아지원 관련 내용 등을 빠른 시일 내에 번역하여 보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이 자녀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에 참여했을 때조차 언어 문제로 강의 이해가 쉽지 않아 참석을 꺼리게 된다고

털어 놓는 것을 보더라도 자신의 언어로 된 육아서를 집안에 비치해 두고 개별적으로 편안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집체교육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3) 아버지 및 가족구성원 전체 대상 교육

다문화 가정은 말 그대로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가정인 만큼 서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고는 쉽게 갈등이 발생하고 이것이 금방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자녀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을 크게 한다.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상황에 따라 개선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 부모교육은 특히 한국인 아버지에 대해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부부이해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시집의 부모나 형제와 동거하는 경우 전체 가족에 대해 상호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는 영유아의 발달적인 특성과 양육 환경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 손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농어촌 저소득 다문화 가정 시부모 등 고연령 세대를 위한 교육은 흥미 위주 행사, 식사 제공 등을 함께 동반하여 많은 수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유인가를 줌으로써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 농어촌 부모

1) 교통편 제공을 통한 참여율 확보

농어촌 부모에게는 가장 먼저 부모교육 장소까지의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거리상의 문제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기관까지 오는 것이 우선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차량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 조부모 교육 실시

농어촌은 가족해체를 통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가정이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영유아가 방치되어 자라는 경우가 많고 조부모는 전혀 육아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도 있다. 조부모들에게 물질적인 유인가를 지원하더라도 손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조부모 교육에 대해서는 실시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며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직접 방문하거나 가가호호 전화를 하여 교육을 알리고 참석의 중요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

3) 농어촌 단체의 부모교육 개설 비용 지원

농어촌에는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센터 등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여성농민회, 농어가주부모임 등 농어촌에 관심을 둔 단체로 하여금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강사 초빙 등 필요한 비용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부모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라. 한 부모 가정

1) 매체 활용을 통한 부모교육 방법 다양화

한 부모 가정인 경우 자녀들을 두고 또는 데리고 외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혼자서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꾸려가야 하고 가사 및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야간이나 주말 외출이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그런 점에서 한 부모 가정 어머니들은 특히 TV를 통한 부모교육이 가장 유용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현재 교육방송이나 케이블방송 등에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기는 하나, 한 부모의 TV 프로그램 수요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에게 보다 적절한 내용과 흥미롭고 재미있는 구성으로 이루어진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다면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2) 전화 상담 핫라인 개설

면담 결과, 한 부모들은 사회 속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사회의 편견을 의식하여 처해진 환경과 자녀들을 생각할 때 있는 그대로 자신을 남들에게 보이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한 부모들을 부모교육 센터로 불러내기만 하기보다 혼자 느낄 수 있는 막막한 자녀 양육의 어려움들을 쉽게 논의할 수 있는 전화 상담 서비스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전화를 통해 의문점을 문의할 수 있고 육아정보를 들을 수도 있고 상담을 할 수도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별적 접근을 선호하는 한 부모에게 적절할 것이다.

3) 특화된 부모교육 내용

한부모 가정은 특히 피해의식이 있는 경우가 많고 자존감 회복 등 심리적 건강 유지에 신경 써야 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편견 극복, 한부모로서의 부모역할, 자기 스트레스 관리, 자아존중감 키우기 등 앞 장에서 개발, 제시된 한부모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교육과정 내용을 주의깊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하도록 한다.

마. 도시 저소득층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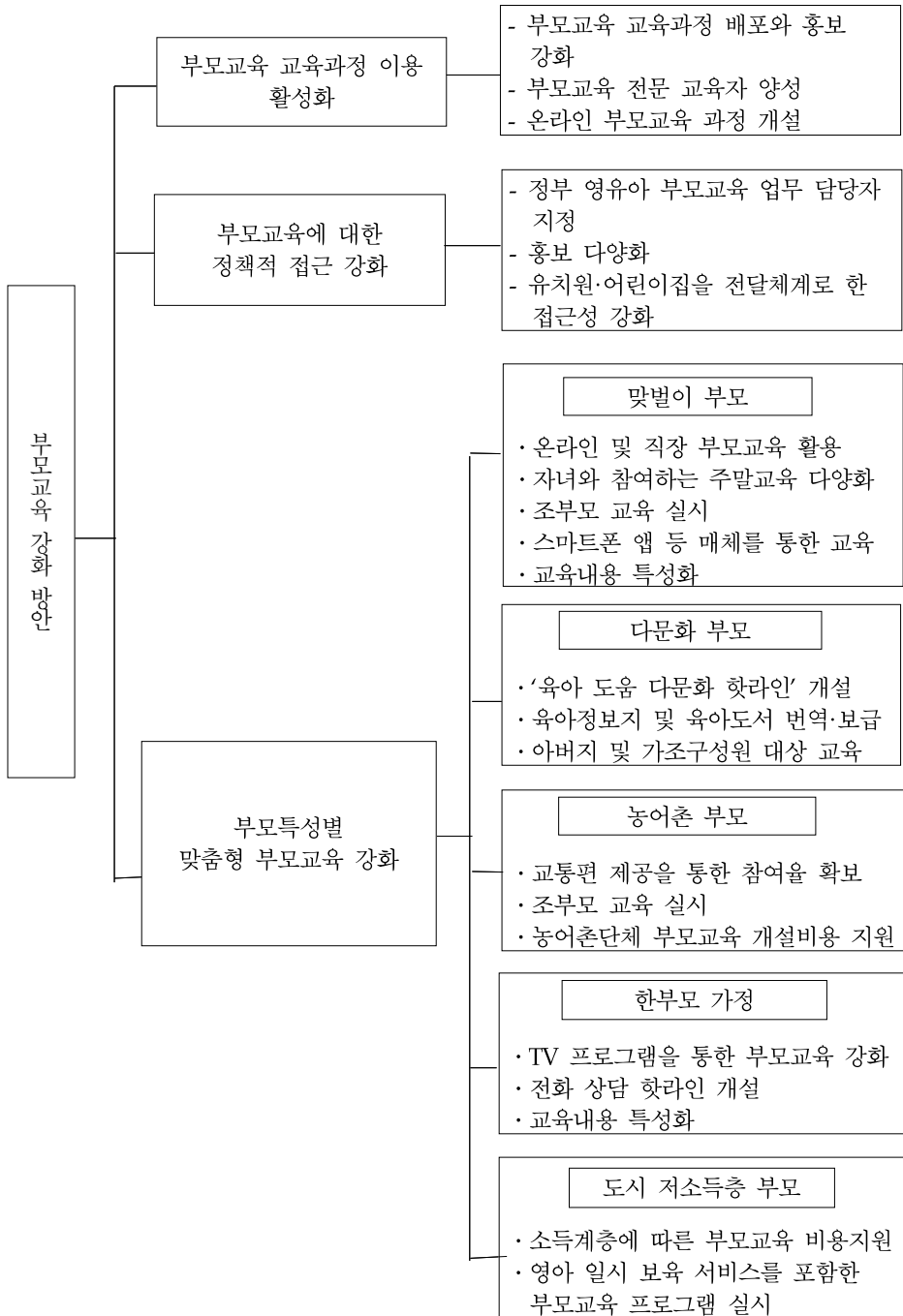
1) 소득계층에 따른 부모교육 비용지원

도시 저소득층 부모들은 자녀 양육과 관련한 지식과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반면 교육이 다양하지 못하고 무료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농어촌에 비해 양질의 프로그램은 찾을 수 있으나 이들이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참여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육아지원을 위한 예산에 유료 부모교육 참여에 대한 비용 지원을 포함하는 방안은 부모교육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고 참여율을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다.

2) 영아 일시 보육 서비스를 포함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도시 저소득층이면서 맞벌이가 아닌 경우, 자녀를 일시적으로 돌보아 주면서 부모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된 프로그램일 때 부모의 호응도가 높다. 특히 육아지원기관을 가지 않는 영아를 둔 부모의 경우 영양, 안전과 환경의 영향 등 육아 관련 내용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주 1-2회 회당 2-3시간 등 일시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모가 프로그램에 참여토록하면 일면 부모에게는 양육 스트레스의 해소 기회도 될 뿐만 아니라 교육 참여를 통한 부모로서의 자신감도 상승할 수 있다.



[그림 VII-3-1]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강화 방안

참고문헌

- 강문희·문미옥·박경자·서영숙·우남희·이강이 외(2002). 21세기 유아교육. 서울: 학지사.
- 김경희·김선영·김신영·김지은·김혜금·문혁준 외(2006). 보육학개론. 창지사.
- 김금주·유윤영(2005). 부모,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부모 참여. 정민사.
- 김상희·이희선·박보경·황은영·선우현정(2008).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도 조사연구: 유아기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국아동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8(1), 149.
- 김영옥(2008). 부모교육. 경기: 공동체.
- 김영옥·박성연(2011). 걸음마기 母-兒 놀이에서의 긍정적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아동학회지, 32(1), 1-15.
- 김은설·최진·조혜주·김경미(2009). 육아지원기관 부모교육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최윤경·조혜주·김선화(2010). 예비부모교육 실태 및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정희(1999). 유아를 둔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7, 251-192.
- 김지신·김민정·김은혜·이유리·최정희(2008). 영아기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 한국아동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8(1), 146-147.
- 김진아·정문자(2006). 어머니를 위한 상담활용 부모교육(CUPEM) 프로그램의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4(7), 53-62.
- 김혜린·김희진(2003). 유아교육기관의 질적환경에 따른 부모참여. 교육과학연구, 33(2), 93-119.
- 김희진(2002).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교육에 대한 조사 연구. 교육학연구, 40(6), 239-260.
- 김희진(2005). 삼성영유아 프로그램Ⅱ: 포괄적 보육 서비스 - 부모지원 프로그램.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 서울: 다음세대.

김희진(2008).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교육과 지원. 서울: 파란마음.

나종혜·김수연·안영규(2005).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부모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 원장, 교사, 부, 모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4(4), 505-519.

달서구드림스타트센터(2010). 2010년 달서구 드림스타트 사업 성과 및 효과성 분석.

도미향·마미정(2005).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교육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부모교육연구, 2(1), 23-37.

도현심·박선영·이선희·오유리·최규리·김경미·강나현(2008).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도 조사연구: 걸음마기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국아동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8(1), 148.

민성혜·김경은·김리진(2011).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아동학회지, 32(1), 31-49.

박성연·김상희·김지신·박응임·전춘애·임희수(2003). 자녀와의 진정한 만남을 위한 부모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박화윤(2002). 유치원에서의 부모 자원봉사활동 운영에 대한 교사의 인식. 유아교육연구, 22(1), 163-184.

백선희(2006). 영국의 국가아동보육전략 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발전 방안 모색: Sure Start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7, 79-113.

보건복지부(2010). 2011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11a).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1b).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1.4.22).

보건복지부·한국청소년상담원(2010). 2010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운영결과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2008) 부산 유아교육계획.

서영희·권미량·김은주(2006). 유아교육기관의 부모참여 인식과 요구에 대한 질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26(6), 33-57.

송진숙·권희경(2000). 가정과 학교간의 연계교육을 위한 부모의 가정내 교육적

- 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에 대한 연구. 아동학회지, 21(2), 233-251.
- 송현애(2007). 한부모가정의 부(父)를 위한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생활과학회지, 16(1), 1-15.
- 안선희(2004). 부모참여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과 태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3), 27-49.
- 유희정(2005). 미국의 이혼 후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평가에 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43(6), 81-96.
- 유희정·김은설·유은영(2006).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숙희 (2002). 농촌지역 부모교육 및 상담을 위한 지원모형 개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9(2), 35-67.
- 이순형·민하영·권혜진·정윤주·한유진·최윤경·권기남(2011).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 이승희(2009). 부모교육 프로그램 유형이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 아동의 충동성과 반항성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 13(1), 75-94.
- 이원영·배소영(2000).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 아동학회지, 21(2), 17-31.
- 이현섭(1997). 보육시설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태와 개선방안. 논문집, 36, 161-180.
- 임오숙(2003). 어린이집의 부모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신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진아·오재연(2008). 만 5세 유아의 부모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변인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13(4), 51-69.
- 장명림·이운진·이정림·민현숙·이세원·송운정·소수정(2010).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KICCE 부모교육 프로그램(개별용). 육아정책연구소.
-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2010a). 2010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결과보고서.
-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2010b). 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2011). 20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가이드북.
- 전정희(2008). 창의성 부모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적용: 부모의 인지적·정의적 특성과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아동교육, 17(4), 225-241.
- 정계숙·노진형(2006). 부모역할에 대한 자기반성의 부모교육을 위한 함의. 열린 유아교육연구, 11(4), 79-105.
- 정금자(2001). 일본의 부모교육의 연구동향. 한국일본교육학연구, 5(1), 35-50.
- 정문자·어주경(2000). 저소득층 어린이집 교사와 유아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교육 요구도 비교. 유아교육학연구, 20(3), 23-46.
- 정지영·정영금·조성은(2007).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4), 93-114.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08). 유아교육 운영계획.
- 조형숙(2000). 유아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부모교육 실태. 한국교육문제연구소논문집, 1(1), 235-249.
- 채정현(2006). 실천적 문제 중심의 부모교육. 실천적 문제 중심 가정과 교육의 이해와 적용. 2005 한국가정과교육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31-57.
- 최순자(2008). 일본의 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에 관한 일고찰-동경도 무사노기 '0123 길상사 사례.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2(2), 79-93.
- 최영신(2003). 일본의 「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33, 133-154.
- 최윤정·유가효(2001). 농촌지역사회에 적합한 부모교육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科學論集, 27, 39-73.
- 최정신(2002). 일본의 보육지원시책과 자녀양육의식에 관한 연구-Family Support Center와 지역양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형운(2007). 유아교육기관의 부모교육·부모참여에 대한 맞벌이 부모의 인식 및 요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2010). 2009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보고.
- 현미숙(2004). 유아기 부모를 위한 부모역할지능척도(PIS)의 개발. 아동학회지, 25(6), 15-34.

- 황혜자·김향숙(2004). 유아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부모참여 및 인식에 관한 연구. *동아논총*, 41, 25-36.
- Alvy, K., Plunkett, S., Rosen, L., Pichardo, N., Salinas, V., Kulkin, N. and Gonzalez, A. (2003). *Bringing Parenting Education into the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System* VenturaCity, CA: Center for the Improvement of Child Caring.
- Bacon, B. L., & McKenzie, B. (2004). Parent education after separation /divorce: Impact of the level of parental conflict on outcomes. *Family Court Review*, 42, 85-98.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Monograph]. *Developmental Psychology*, 4(1, Pt. 2),1-103.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rk, L. E.(2005). *Child Development*. Boston, MA: Pearson Education, Inc.
- Bogensneider, K. (1994). *Innovative policies and programs that promote competent parenting and support families*. Madison, WI: Wisconsin Family Impact Seminars.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Vol.1)*. NewYork: Basic Books.
- Bransford, J. D., Brown, A. L., & Cocking, R. R. (2000). *How people learn: Brain, mind, experience and school*. Washington, D.C: Committee on Developments in the Science of Learning. Retrieved from <http://www.nap.edu/catalog/9853.html>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wn, E. (2011). Abuse-related head injuries in kids rose during recession. *LosAngeles Times*. Retrieved September 19, 2011 from <http://www.latimes.com/>
- Campbell, D., & Palm, F. G. (2003). *Group parent education: Promoting parent learning and Support*. Thousand Oaks. CA: Sage.
- Carter, N., & Kahn, L. (1996). *See how we grow: A report on the status of*

parenting education in the U.S. Philadelphia, PA: Pew Charitable Trusts.

- Center for Improvement of Child Caring (nd). *Effective Black Parenting*. Retrieved from http://www.ciccparenting.org/EffBlackParenting_Desc.aspx#A
- Child Trends(2011). LINKS Data base. Retrieved from [http:// www.childtrends.org/Links/](http://www.childtrends.org/Links/)
- Collins, W. A., Mccoby, E. E., Steinberg, L. D., Hetherington, E. M., & Bornstein, M. H.(2000). Contemporary research on parenting: The case for nature and nurture. *American Psychologist*, 55, 218-232.
- Cooke, B. (2006). Competencies of a parent educator: What does a parent educator need to know and do? *Child Welfare*, 85, 785-802.
- Cullen, K. W., & Thompson, D. (2008). Feasibility of an 8-week African American web-based pilot program promoting healthy eating behaviors: Family eats. *American Journal of Health Behavior*, 32, 40-51.
- Daneback, K., & Plantin, L. (2008). Research on parenthood and the internet: Themes and trends. Cyber psychology: *Journal of Psychosocial Research on Cyber space*, 2(2).
- Debord, K., Bower, D., Goddard, H. W., Kirby, J., Kobbe, A. M., & Myers-Walls, J. A.(2002). *National extension parenting educators' framework* [http://www1.cyfernet.org/ncsu_fcs/NEPEF/ index.htm](http://www1.cyfernet.org/ncsu_fcs/NEPEF/index.htm).
- Dinkmeyer, D., & McKay, G. D. (1976). *The parent's handbook Systemat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ing*. Circle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
- Dishion, T., & Kavanagh, K. (2003). *Intervening i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 family-center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 Doherty, W. J. (1995). Boundaries between parent and family education and family therapy. The levels of family involvement model. *Family Relations*, 44, 353-358.
- Doherty, W. J., Jacob, J., & Cutting, B. (2009), Community Engaged Parent Education: Strengthening Civic Engagement Among Parents and

- Parent Educators. *Family Relations*, 58, 303 - 315.
- Dreikurs, R. (1964). *Children: The challenge* NewYork: Hawthorn Books.
- Early Childhood Family Education Curriculum Committee(2011). *Parent education core curriculum framework A comprehensive guide to planning curriculum for parent education programs*. Retrieved from <http://www.cehd.umn.edu/ci/programs/fyc/docs/newDocs/Parent%20Curriculum%20Core.pdf>
- Egeland, B., & Erickson, M. F. (2004). Lessons from STEEP: Link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for the well-being of infants and parents. In A. J. Sameroff, S.C. McDonough, & K.L. Rosenblum (Eds.), *Treating parent-Infant relationship problems: Strategies for intervention*(pp.213-242). NewYork: Guilford.
- Family Strengthening Policy Center(2007). *The parenting imperative: Investing in parents and children for children and youth succeed* (Policy Brief No. 22). Washington, DC: National Human Services Assembly.
- Feil E. G., Baggett, K. M., Davis, B., Sheeber, L., Landry, S., Carta, J. J., & Buzhardt, J. (2008). Expanding the reach of preventive interventions: Development of an internet-based training for parents of infants. *Child Maltreatment*, 13, 334-346.
- Fiore, L. B. (2008). *Envisioning, energizing, and empowering relationships - Findings from the parenting education summit*. Retrieved from National Parenting Education Network website: www.npen.org/
- Galinsky, E. (1994). Families and work: The importance of the quality of the work environment. In S. Kagan & B. Weissbourd(Eds.), *Putting families first: America's family support movement and the challenge of change* (pp.112-136). Jossey-Bass Publishers.
- Gelles, R. J. (1989). Child abuse and violence in single-parent families: Parent absence and economic deprivat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 492 - 501.
- Ginott, H. (1965). *Between Parent and Child* NewYork: MacMillan
- Goddard, H. W., Myers-Walls, J. A., & Lee, T. R. (2004). Parenting: Have we

- arrived? Or do we continue the journey?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33, 21-38.
- Greder, K., Diers, J. A., & Schnurr, M. P. (2010).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online and traditional classroom delivery format for training parenting educators. *Family Science Review*, 15(1), 40-63.
- Hart Research Associates(2009). *Parenting and toddlers today: Research findings*. Retrieved from Zero To Three website: http://www.zerotothree.org/about-us/funded-projects/parenting-resources/final_survey_report_3-11-2010.pdf
- Healthy Families America(2008) Research Spotlight on Success: *Healthy Families America Promotes Positive Parenting*. Retrieved May, 2008 from http://www.healthyfamiliesamerica.org/about_us/index.shtml
- Heath(1998). *Choosing parenting curricula based on the interests, needs, and preferences of the parents who will use it*. Retrieved March 15, 2011 from <http://parenthood.library.wisc.edu/Heath/Heath.html>.
- Heath, H., & Palm, G. (2006). Future challenges for parent education. *ChildWelfare* 85, 885-95.
- Heckman, J. (2011, February). *The American family in black and white: A post-racial strategy to improving skills to promote equality* (IZA DP No. 5495). Bonn, Germany: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 Jacobs, F. H. (2003). Child and family program evaluation: Learning to enjoy complexity.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7, 62-75.
- Jacobson, A. L., & Seward, R. R. (2011). International research on parenting and parent education: collaborative conference and beyond.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42(1), 1-13.
- Kaftarian, S. J., & Kumpfer, K. L. (Eds.). (2000). Family-focused research and primary prevention practice [Special issu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21(2).
- Kaminski, J. W., Valle, L. A., Filene, J. H., & Boyle, C. L. (2008) A meta-analytic review of components associated with parent training

- program effectivenes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 567-589.
- Keen, D., Couzens, D., Muspratt, S., & Rodger, S. (2010). The effects of a parent-focused intervention for children with a recent diagnosis of autism spectrum disorder on parenting stress and competence. *Research in Autism Spectrum Disorders*, 4(2), 229-241.
- Kurz-Riemer, K. (Ed.)(2004). *A guide for implementing Early Childhood Family Education programs*. Roseville, MN: MN Department of Education. Retrieved from http://education.state.mn.us/MDE/Learning_Support/Early_Learning_Services/Coordinator_Resources/Manuals/
- McGroder, S., & Hyer, A. (2009). Developmental and Economic Effects of Parenting Programs for Expectant Parents and Parents of Preschool-age Children. *Partnership for America's Economic Success*. Issue Paper #10. Retrieved from <http://www.partnershipforsuccess.org/index.php?id=89&MenuSect=3&rid=53>
- MCYS(2011). *A Guide to Family Life Education in Singapore*
- Meyers, S. A. (1993). Adapting parent education program to meet the needs of fathers: An ecological perspective. *Family Relations*, 42(4), 447-452.
- Minn. R. (2011). *Standards of Effective Practice for Teachers of Parent and Family Education*. Retrieved from <http://www.revisor.leg.state.mn.us/arule/8710/2000.html>
- Minnesota Department of Education (n.d.). Early Childhood Family Education. Retrieved from http://education.state.mn.us/MDE/Learning_Support/Early_Learning_Services/Early_Childhood_Programs/Early_Childhood_Family_Education/index.html
- Myers-Walls, J. A., Ballard, S. M., Darling, C. A., & Myers-Bowman, K. S. (2011). Reconceptualizing the domain and boundaries of family life education. *Family Relations*, 60, 357-372.
-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2009). *Certified family life educator*. Retrieved from http://ncfr.org/pdf/cfle_cert/CFLE_Content_and_Practice_Guidelines_2009.pdf

- National Parenting Education Network (n.d.a). NPEN Core principles. Retrieved from <http://npen.org/about/core-principles.html>
- National Parenting Education Network (n.d.b). Framework for understanding parent educator professional preparation and recognition. Retrieved from <http://npen.org/profdev/degrees-cert.html#framework>
- New York State Parent Education Partnership (2008). Survey of parenting education providers use of evidence: Preliminary results. Retrieved from <http://npen.org/pdfs/NYSPEP-EE-Survey-Summary-Results.pdf>
-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1999). Strengthening America's Families. Effective Family Programs for Prevention of Delinquency. Retrieved from http://www.strengtheningfamilies.org/html/programs_1999/matrix_1999.html
- Olds, D. L., Hill, P. L., O'Brien, R., Racine, D., & Moritz, P. (2003). Taking preventive intervention to scale: The Nurse-Family Partnership. *Cognitive and Behavioral Practice*, 10, 278 - 290.
- Parke, R. D., & Clarke-Stewart, K. A. (2001). Effects of Parental Incarceration on Young Children. Available at <http://aspe.hhs.gov/hsp/prison2home02/parke-stewart.htm>
- Powell, L. H., & Cassidy, D. (2001). *Parenting education. In Family Life Education: An Introduction*(pp. 185-205). Mountain View, CA: Mayfield.
- Ravitch, D. (2011). Waiting for a school miracle.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May 31, 2011, from <http://www.nytimes.com>
- Rothbaum, F., Martland, N., & Jannsen, J. B. (2008). Parents' reliance on the web to find information about children and families: Socio-economic differences in use, skills, and satisfactio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9, 118-128.
- Shonkoff, J., & Phillips, D. (Eds.) (2000). *From neurons to neighborhoods: The science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Small, S. A. (1990). Some issues regarding the evaluation of family education

- programs. *Family Relations*, 39, 132-135.
- Small, S. A., Cooney, S. M., & O'Connor, C. (2009). Evidence-informed program improvement: Using principles of effectiveness to enhance the quality and impact of family-based prevention programs. *Family Relations*, 58, 1 - 13.
- Smith, C. A., Cudaback, D., Goddard, H. W., & Myers-Walls, J. (1994). *National extension parent education model*. Manhattan, KS: Kansas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 Retrieved from [http:// www.k-state.edu/wwparent/nepem/nepem.pdf](http://www.k-state.edu/wwparent/nepem/nepem.pdf)
- Spock, B. (1977). *Baby and childcare(Reved)*. New York: Bantam.
- Staton, J., Ooms, T., & Owen, T. (1991, October). *Family resource support, and parent education programs: The power of a preventive approach*. Washington, DC: Family Impact Seminar.
- Stolz, H. E. (2010) Parenting education. In S. Duncan & W. Goddard(Eds.), *Family life education: Principles and practices for effective outreach*(2nd ed., pp. 191-210). Thousand Oaks, CA: Sage.
- Texas Registry of Parent Educator Resources(2000). *Core knowledge for parents and professionals who work with families*. Denton, TX: University of North Texas Center for Parent Education.
- The Annie E. Casey Foundation(2011). *Kids count data book* Retrieved from <http://datacenter.kidscount.org/databook/2011/?cmpid=db1102>
- Thomas, R., & Footrakoon, O. (1998). *What curricular perspectives can tell us about parent education curricula*. Retrieved March 15, 2011, from [http://parenthood.library.wisc.edu/ Thomas/Thomas.html](http://parenthood.library.wisc.edu/Thomas/Thomas.html).
- Thompson, P. J., & Harm, N. J. (2000). Parenting from Prison: Helping Children and Mothers. *Issues in Comprehensive Pediatric Nursing*, 23, 61-81.
- U. S. Department of Education (nd). Support for Military Families. Retrieved from <http://www.ed.gov/oii-news/support-military-families>
-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d). Home Visiting

Effectiveness. Retrieved from <http://homvee.acf.hhs.gov/>

University of Minnesota Extension (nd). Parents Forever. Retrieved from <http://www.extension.umn.edu/parentsforever/components/what-is-parents-forever.html>

Walker, S. (2010, Summer). Changing technologies, changing learners: A challenge to parent and family education.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Report*, F14-F16.

Walker, S. K., Cline, H., & Cooke, B. L. (2010). Innovation with integrity: Preparing parent educators online. *Michigan Family Review*, 14, 71-90.

Walker, S., Dworkin, J., & Connell, J. (in press). Variations in parents'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Does quantity matter?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Weissbourd, B. T. (1987). A brief history of family support programs. In S. Kagan, D. Powell, B. Weissbourd, & E. Zigler (Eds), *America's family support programs: Perspectives and prospects*(pp.38-56).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부 록

부록 1. 전국 보육정보센터의 부모교육 현황

부록 2. 학부모조사 설문지

부록 3. 델파이 설문지(1차)

부록 4. 델파이 설문지(2차)

부록 1. 전국 보육정보센터의 부모교육 현황

〈부표 1〉 보육정보센터별로 제공하는 부모 대상 서비스 종류

번호	보육정보센터명	부모교육 프로그램		육아정보
		부모대상 교육	상호작용 교육 프로그램	
1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	×	○
2	강남구 육아지원센터 (개포, 논현, 대치, 삼성, 청담)	○ (조부모교육 포함)	○(유료 포함)	○
3	강동구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	×	×
4	강서구 보육정보센터	○	○(유료 포함)	○
5	관악구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	○	○
6	광진구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	○(유료 포함) (다문화 가정 포함)	○
7	금천구 보육정보센터	○	×	○
8	노원구 보육정보센터	○	○(유료 포함)	○
9	도봉구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방학동)	○	○	×
10	동대문구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	○(유료 포함)	○
11	동작구 보육정보센터	○	×	○
12	마포구 보육정보센터	○	○ (조부모, 다문화 가정 포함)	○
13	서초구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 (조부모교육 포함)	○(유료 포함)	○
14	성동구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 (아버지교육 포함)	○	○
15	성북구 영유아플라자	×	×	○
16	종로구 영유아플라자	○	○(유료 포함)	○
17	구로구 보육정보센터	○ (아버지교육 포함)	○(유료 포함)	○
18	송파구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	×	×
19	은평구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	○	○

(부표 1 계속)

번호	보육정보센터명	부모교육 프로그램		육아정보
		부모대상 교육	상호작용 교육 프로그램	
20	영등포구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	○	○
21	부산 보육지원센터	○(유료 포함)	×	○
22	대구 보육정보센터	○(유료 포함)	×	○
23	인천시 보육정보센터	×	×	○
24	인천 부평구 보육정보센터	○	×	○
25	인천 남구 보육정보센터	×	×	○
26	광주시 보육정보센터	×	×	○
27	대전시 보육정보센터	×	×	○
28	울산시 보육정보센터	○ (아버지교육 포함)	×	○
29	경기도 보육정보센터	×	×	○
30	경기 고양시 보육정보센터· 육아지원센터	○(유료 포함)	×	○
31	경기 군포시 보육정보센터	○	×	○
32	경기 부천시 보육정보센터	○	○	○
33	경기 성남시 보육정보센터	○	○	○
34	경기 수원시 보육정보센터	×	×	○
35	경기 시흥시 보육정보센터	×	×	○
36	경기 안산시 보육정보센터	○ (아버지교육 포함)	×	○
37	경기 안양시 보육정보센터	×	×	○
38	경기 의왕시 보육정보센터	○	○(유료 포함)	○
29	경기 의정부시 보육정보센터	○	×	○
40	경기 이천시 보육정보센터	○	○(유료 포함)	○
41	경기 평택시 보육정보센터	×	×	×
42	경기 화성시 보육정보센터	×	×	○
43	경기북부 보육정보센터	×	×	○
44	강원도 보육정보센터	○ (아버지교육 포함)	○	○
45	강원 강릉시 보육정보센터	×	×	○
46	충북 보육정보센터	○	×	○
47	충남 보육정보센터	○	×	○

(부표 1 계속)

번호	보육정보센터명	부모교육 프로그램			육아정보
		부모대상 교육	상호작용 교육	프로그램	
48	충남 천안시 보육정보센터	○		×	○
29	전북 보육정보센터	×		×	○
50	전남 보육정보센터	×		×	○
51	경북 보육정보센터	×		×	○
52	경북 포항시 보육정보센터	○		×	○
53	경남 보육정보센터	○		×	○
54	경남 진주시 보육정보센터	○		○	○
55	경남 창원시 보육정보센터	×		×	○
56	제주도 보육정보센터	×		×	○

주: 2010년 기준 자료임. 중랑구와 양천구 보육정보센터의 경우는 2010년 12월, 광명시 보육정보센터는 2011년 1월에 신설되어 포함하지 않았음.

자료: 각 보육정보센터 웹 사이트 내용을 참고함.

부록 2. 학부모조사 설문지

부모교육 현황 및 요구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부모교육 강화 방안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부모관련 교육 수강 현황 및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31조에 따라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연락처 김은설 연구위원 02-398-7716, eskim@kicce.re.kr

장혜진 부연구위원 02-398-7741, hjjang@kicce.re.kr

김문정 연구원 02-398-7719, moon@kicce.re.kr

※ 귀하의 간략한 인적사항을 기록해 주십시오.

성명	
연락처	- -
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_____
지역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읍면
가정 특성 (해당사항에 모두 V)	☐ 맞벌이 가정 ☐ 한부모 가정 ☐ 다문화 가정
자녀 현황	자녀1: 만_____세 남/녀 ☐ 학생 ☐ 어린이집/유치원/학원 ☐ 기타 자녀2: 만_____세 남/녀 ☐ 학생 ☐ 어린이집/유치원/학원 ☐ 기타 자녀3: 만_____세 남/녀 ☐ 학생 ☐ 어린이집/유치원/학원 ☐ 기타 자녀4: 만_____세 남/녀 ☐ 학생 ☐ 어린이집/유치원/학원 ☐ 기타
자녀와의 관계	☐ 부 ☐ 모 ☐ 조부 또는 조모 ☐ 기타

1. 귀하는 부모교육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2. 귀하는 자녀의 발달 및 양육과 관련하여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 부모교육이란 자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켜 부모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효율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부모에게 제공하는 교육활동입니다. 부모교육 내용에는 양육방법, 부모-자녀 관계 향상, 자녀교육지도, 놀이방법 등 부모로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 활동이 모두 포함되며, 부모교육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건강가정지원센터, 문화센터 등 교육기관과 전문가의 방문지도를 통한 가정에서의 개별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모교육에 대한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3. 귀하는 첫 자녀 임신이후 부모교육(방문교육 포함, 온라인 교육 제외)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 1) 참여한 적 있다 (→문 3-2로)

☐ 2) 참여한 적 없다 (→문 3-1로)

3-1.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 6 으로)

☐ 1) 부모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 2) 부모교육을 어디에서 받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 3) 부모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 4) 자녀를 직접 돌보아야 하고 대신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 5) 부모교육을 받는 장소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 6) 부모교육에 대해 알지 못했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 7) 기타()

온라인 교육을 제외하고 귀하가 참여하신 부모교육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3.2. 아래에 주어진 해당 보기를 참고하여 각 칸에 적절한 번호를 선택하여 적거나 해당 내용을 직접 적어 주십시오.

	1. 프로그램명 (적어주세요)	2. 내용 (보기1 참조)	3. 참여 횟수 (적어주세요)	4. 참여시기 (적어주세요)	5. 개설시간 (보기2 참조)	6. 주최기관 (보기3 참조)	7. 교육장소 (적어주세요)	8. 강사 (보기4 참조)	9. 교육형태 (보기5 참조)	10. 만족도 (보기6 참조)	11. (10번 만족도에서 보기4,5번을 선택한 경우)불만족 이유 (보기7 참조)
1)			총____회	____째 자녀 만____세 때							
2)			총____회	____째 자녀 만____세 때							
3)			총____회	____째 자녀 만____세 때							
4)			총____회	____째 자녀 만____세 때							
5)			총____회	____째 자녀 만____세 때							
6)			총____회	____째 자녀 만____세 때							
7)			총____회	____째 자녀 만____세 때							

(※위의 칸이 모자라면 아래 공간을 이용해 더 적으셔도 됩니다.)

<보기 1> 부모교육 내용					
1)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이론적 내용	2) 발달을 돕는 놀이 방법	3) 바람직한 부모역할, 훈육방법			
4) 영유아의 건강, 영양, 안전관리	5) 부부, 가족 관계 등 부모로서의 자질향상에 관한 내용	6) 기타()			
<보기 2> 개설 시간					
1) 평일 오전	2) 평일 오후	3) 평일 저녁	4) 주말 오전	5) 주말 오후	6) 주말 저녁
<보기 3> 주최기관					
1)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2) 보육정보센터	3) 유아교육진흥원	4) 건강가정지원센터		
5) 드림스타트센터	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 사회단체 및 시설기관	8)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		
9) 교육청	10) 병원	11) 여성농업인센터	12) 사회복지관		
13) 문화센터	14) 기타()	15) 모름			
<보기 4> 강사					
1)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	2) 주최기관 인력(센터직원, 방문지도사 등)	3) 관공서 직원	4) 의사	5) 아동관련 전문가(교수 등)	6) 기타()
<보기 5> 교육 형태					
1) 1회성 집단 강의	2) 1회성 체험, 활동 위주 부모워크숍	3) 단기 또는 장기간의 정기적 부모교육프로그램			
4)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5) 가정방문 부모교육	6) 기타()			
<보기 6> 만족도					
1) 매우 만족	2) 조금 만족	3) 보통	4) 조금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보기 7> 불만족 이유					
1) 프로그램의 주제 및 내용	2) 강사의 질	3) 교육프로그램 개설 시간	4) 교육시간 중 자녀 보호	5) 교육장소(환경, 거리 등)	6) 기타()

7-3.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1) 매우 만족 ☐ 2) 조금 만족
- ☐ 3) 보통 ☐ 4) 조금 불만족
- ☐ 5) 매우 불만족

7-4.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하미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1) 교육 수준 부적절(너무 쉽거나 어려움) □ 2) 컴퓨터 이용의 미숙
□ 3) 자녀들의 방해 □ 4) 시간 부족
□ 5) 인터넷의 낙후, 속도 느림 □ 6) 강사와의 상호작용 불가능
□ 7) 기타 () □ 8) 어려움 없음

8.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소개 받는다면 활용하시겠습니까?

- ☐ 1)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임 ☐ 2) 가능하면 활용할 것임
☐ 3) 활용하고 싶으나 어려울 것임 (→문 8-1 로) ☐ 4) 활용하지 않을 것임 (→문 8-1 로)

8-1. (활용하기 어렵다고 답한 경우) 온라인 프로그램 활용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 집에서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없음 ☐ 2) 컴퓨터 사용 방법을 모름
- ☐ 3) 온라인 교육은 별로 관심 없음 ☐ 4) 자녀방해 등으로 컴퓨터 사용이 불가함
- ☐ 5) 집에서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음 ☐ 6) 기타()

다음은 전반적으로 부모교육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9. 귀하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매우 필요하다 (→문 10 으로) ☐ 2) 조금 필요하다 (→문 10 으로)
- ☐ 4) 거의 필요하지 않다 (→문 9-1 로) ☐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 9-1 로)

9-1.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부모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 부모가 교육을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 ☐ 2) 책, 매스컴,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 3) 부모교육의 내용과 수준이 자녀양육에 별로 도움이 못 된다
- ☐ 4)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다
- ☐ 5) 기타()

10. 앞으로 부모교육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

- ☐ 1)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
☐ 2) 가능하면 참여할 것이다
☐ 3)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이유:_____)

11. 기회가 된다면 부모교육의 내용으로서 귀하가 가장 배우고 싶은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다음 중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 1) 영유아의 신체 발달에 대한 지식
☐ 2) 영유아의 정서·사회성 발달에 대한 지식
☐ 3) 영유아의 인지 발달에 대한 지식
☐ 4) 영유아의 언어 발달에 대한 지식
☐ 5) 자녀와의 놀이 방법
☐ 6) 자녀와의 대화 방법
☐ 7) 자녀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 방법
☐ 8) 자녀의 학습지도 방법
☐ 9) 좋은책, 놀잇감, 교육기관 선택 방법
☐ 10) 초등학교 적응 준비
☐ 11) 영유아의 건강, 영양 관리
☐ 12) 영유아의 안전 관리
☐ 13) 신생아 돌보는 방법(수유, 이유식 방법 등)
☐ 14) 부부 및 가족 관계 향상 방법
☐ 15) 부모의 정신건강을 위한 교육
☐ 16) 기타(_____)

12. 귀하는 영아(만0-2세)기와 유아(만3-5세)기 자녀를 둔 부모가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예. 다를 것이다(→문 12-1 로) ☐ 2) 아니오. 같을 것이다(→문 12-2 로)

12-1. 영아와 유아 부모에게 필요한 내용이 다르다면, 귀하는 각 시기에 가장 필요한 부모교육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 문항 11의 보기 중에서 한 가지씩만 골라 아래 빈 칸에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문 13 으로)

- 1) 영아기 자녀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부모교육 내용 _____
 2) 유아기 자녀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부모교육 내용 _____

12-2. 영아와 유아 부모에게 필요한 내용이 같다면, 귀하는 영유아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부모교육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 문항 11의 보기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 아래 빈 칸에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_____

13. 다음은 부모교육 운영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의견을 묻는 문항입니다. 왼쪽에 주어진 항목에 대해 가장 호하는 내용에 V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 교육 기간	☐ 1) 1회성 교육 ☐ 3) 단기 교육(총 6~10회) ☐ 5) 장기 교육(총 21회 이상)	☐ 2) 단기 교육(총 1~5회) ☐ 4) 장기 교육(총 11~20회) ☐ 5) 기타()
13-2. 교육 시간	☐ 1) 평일 오전 ☐ 3) 평일 저녁 ☐ 5) 주말 오후	☐ 2) 평일 오후 ☐ 4) 주말 오전 ☐ 6) 주말 저녁
13-3. 수강집단형태	☐ 1) 개인교육(1:1) ☐ 3) 중집단(10-30명 미만) ☐ 5) 기타()	☐ 2) 소집단(2-10명 이내) ☐ 4) 대집단(30명이상)
13-4. 교육유형	☐ 1) 유명인 특강 등 강연회 ☐ 3)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 5) 컴퓨터 온라인 교육	☐ 2) 활동중심 워크숍(체험, 실습 등) ☐ 4) 가정 방문 ☐ 6) 기타()
13-5. 교육장소	☐ 1)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 ☐ 3) 지역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5) 직장 ☐ 7) 기타()	☐ 2) 보육정보센터 ☐ 4) 복지관 ☐ 6) 마을회관

14. 다음에 주어진 내용에 귀하께서 동의하는 정도에 V표 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부모교육 강화를 위해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시간 동안 자녀 돌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3)	아버지 교육의 기회가 충분하다					
4)	부모교육은 첫 아이 임신 이후 1회 이상 참여를 의무화해야한다					
5)	부모교육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6)	내가 원하면 부모교육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7)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일손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가서 도와줄 수 있다.					

15. 부모교육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부모 인적사항

※ 귀하 가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월 평균소득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만원

2. 귀하의 가정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3. 부모님의 최종학력(졸업기준)은 무엇입니까? 부/모 각각에 대하여 해당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구분		부	모
① 고졸 이하	② 전문(2 3년제)대 졸		
③ 4년제 대졸	④ 대학원 이상 졸		

4. 부모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부/모 각각에 대하여 해당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직업유형	부	모
① 농업/임업/어업		
② 자영업(상업, 소규모 장사, 개인택시운전사 등)		
③ 판매/영업/서비스직 (상점 점원, 세일즈맨, 방문 판매원, 미용사 등)		
④ 기능/숙련직 (운전기사, 세탁, 전반, 목공, 기능공 등)		
⑤ 생산/노무직 (제조업 생산직, 현장직업, 일용노무직, 청소관리, 경비원 등)		
⑥ 사무직 (차장이하 사무직, 초중고 교사, 6급이하 공무원)		
⑦ 경영/관리직 (5급이상 공무원, 기업체 부장 이상)		
⑧ 전문/자유직 (변호사, 의사, 건축사, 교수, 예술가, 종교지도자 등)		
⑨ 가정주부 (가사와 육아만 하는 전업주부)		
⑩ 학생		
⑪ 무직		
⑫ 기타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3. 델파이 설문지(1차)

영유아기 자녀 부모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커리큘럼) 개발용 델파이 조사(1차)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2011년 연구과제로 ‘영유아기 자녀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강화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일환으로 영유아기 자녀 부모교육을 위한 기본 부모 교육 교육과정(parent education curriculum)을 개발하여 배포함으로써 우리나라 부모 교육이 보다 체계화되고 활성화되는 길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기초과정으로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바, 본 조사는 **제1차 델파이**로서 선생님의 의견을 제한없이 듣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차 조사에서 수렴된 의견은 이후 2차와 3차 델파이 조사 조정 과정을 거쳐 올 12월에 부모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최종안으로 제시될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국가 정책 개발의 기초가 될 본 조사서 작성을 위해 바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조사관련 문의처 김문정 연구원 02-398-7719, moon@kicce.re.kr, www.kicce.re.kr

※ 선생님의 간략한 인적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성 명			
연 락 처	- -		
소 속	_____대학(교) _____(학)과		
직 위	☐ 교수	☐ 시간강사	☐ 연구원
전 공	☐ 유아교육학	☐ 아동학	☐ 교육학
	☐ 사회복지학	☐ 기 타	_____
성 별	☐ 남 ☐ 여	연 령	_____ 세

※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교육 교육과정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다음의 문항에 선생님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개념 및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2. 영유아기 자녀 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 교육과정은 어떤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인지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예) 미국 미네소타주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5개 영역: 부모 발달, 부모-자녀 관계, 영유아 발달, 가족 발달, 문화와 지역사회

3. 영유아기 자녀 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 교육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위에서 제시하신 '영역'보다는 하위 분류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4.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자 합니다. 아래 부모 특성별로 부모교육 교육과정에서 특히 주의를 두고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특성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모교육 내용
(도시) 저소득 부모	
맞벌이가정 부모	
한부모가정 부모	
다문화가정 부모	
농어촌가정 부모	

5. 부모교육 교육과정이 개발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전달체계 또는 활용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록 4. 델파이 설문지(2차)

영유아기 자녀 부모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커리큘럼) 개발용 델파이 조사(2차)

안녕하십니까?

먼저, 육아정책연구소 2011년 연구과제 ‘영유아기 자녀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강화 방안’을 위한 1차 델파이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난 1차 조사에서 알려드렸듯이,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 부모교육을 위한 기본 부모교육 교육과정(parent education curriculum)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 부모교육이 보다 체계화되고 활성화되는 길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내드리는 질문지는 제2차 델파이로서, 1차 조사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응답 빈도와 타당도가 높은 항목을 선정하여, 5점 척도 문항으로 다시 구성하였습니다. 본 2차 조사의 결과가 수합되는 대로 최종 라운드인 제3차 델파이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국가 정책 개발의 기초가 될 본 조사서 작성을 위해 바쁘시더라도 다시 한 번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 10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조사관련 문의처 김문정 연구원 02-398-7719, moon@kicce.re.kr

김은설 연구위원 02-398-7716

장혜진 부연구위원 02-398-7741

※ 선생님의 간략한 인적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성명			
연락처	- -		
소속	_____대학(교) _____(학)과		
직위	☐ 교수 ☐ 시간강사 ☐ 연구원		
전공	☐ 유아교육학 ☐ 아동학 ☐ 교육학 ☐ 사회복지학 ☐ 간호학 ☐ 기 타 _____		
성별	☐ 남 ☐ 여	연령	_____세

1. 영유아기 자녀 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 교육과정을 개발할 경우, 아래에 주어진 각 항목은 **교육과정의 영역(또는 영역명)**으로서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정도를 찾아 √표 해주십시오. (교육과정의 영역은 최종 4~6개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번호	항 목	영역으로서의 적절성				
		전혀 적절하지 않음 1	적절하지 않음 2	보통 3	적절함 4	매우 적절함 5
1	지역사회와 문화					
2	가족과 지역사회					
3	부모와 지역사회와 협력/관계					
4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5	가족관계					
6	가족에 대한 이해					
7	가족 문화					
8	가족발달					
9	현대사회의 부모, 가족, 양육, 교육문제					
10	육아지원기관의 종류, 역할, 참여					
11	가족과 교육기관의 관계					
12	부모 역할					
13	부모 발달					
14	부모 됨의 의미					
15	부모기 이해 및 발달					
16	부모의 자아개념, 자기이해					
17	부모 자아발견, 자아성장					
18	부모로서의 철학과 신념					
19	영유아 발달					
20	인간 발달					
21	자녀 발달					
22	발달에 대한 이해					
23	부모-자녀 관계					
24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상호작용					
25	영유아 교육					
26	영유아 문제행동, 부적응행동					
27	놀이 발달 및 놀이지도					
28	부모교육 프로그램					
29	아버지 양육참여					
30	아동 권리					

2. 아래 각 항목은 제1차 델파이에서 영유아기 자녀 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제시하신 것입니다. 각 항목을 **부모교육 교육과정 내용**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를 √표 해주십시오.

항 목		내용으로서 동의하는 정도				
		전혀 동의하 지 않음	동의하 지 않음	보통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2	3	4	5
1	가정 경영 및 경제					
2	가족갈등, 스트레스 및 해소방안, 가족치료					
3	가족과 문화, 사회 간의 관계					
4	아동 학대					
5	가족발달 개념 및 이론					
6	가족 및 가족구성원의 역할					
7	건강한 가족 및 가족문화					
8	다양한 가족 이해하기					
9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부모의 역할					
10	원가족에 대한 이해					
11	조부모의 역할 및 관계					
12	문제 행동 및 부적응행동					
13	발달 단계별 발달과업					
14	발달장애 및 고위험군 영유아					
15	영유아기 기질과 부모의 성격					
16	영유아기 뇌 발달					
17	영유아가 도덕성 발달					
18	영유아기 사회성 발달					
19	영유아기 신체 발달					
20	영유아기 심리, 성격 발달					
21	영유아기 언어 발달					
22	영유아기 영양, 건강, 안전					
23	영유아기 인지 발달					
24	영유아기 정서 발달					
25	영유아기의 중요성					
26	또래관계의 중요성 이해					
27	맞벌이 부부의 효과적인 양육법					

항 목		내용으로서 동의하는 정도				
		전혀 동의하 지 않음 1	동의하 지 않음 2	보통임 3	동의함 4	매우 동의함 5
28	부모 대상 반편견 교육					
29	부모 발달 단계 및 특징					
30	부모교육 프로그램					
31	부모교육에 대한 이해					
32	부모됨의 의미					
33	부모와 교육기관의 소통 및 부모의 참여					
34	부모의 자기이해와 성격분석					
35	부모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효능감					
36	부모의 심리적 건강					
37	아동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이해					
38	아동행동 관찰 및 이해					
39	아버지 양육 참여					
40	애착의 개념과 중요성					
41	양육스트레스와 대처방안					
42	양육 신념					
43	양육정보·사회적자원활용(교육·보육기관,정책 등)					
44	양육 태도					
45	임신 및 태교의 중요성 인식					
46	전통적 가치관과 자녀 양육					
47	부모의 법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					
48	부모역할의 변화 및 어려움					
49	장애아동과 부모역할					
50	직장과 부모 역할 균형					
51	부모-자녀 간 대화 및 의사소통 방법					
52	부모-자녀 관계 문제 및 치료					
53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					
54	자녀 훈육 기술					
55	자녀의 특성 이해					
56	자녀관 등 가치관 교육					
57	임신과 출산					

항 목		내용으로서 동의하는 정도				
		전혀 동의하 지 않음 1	동의하 지 않음 2	보통임 3	동의함 4	매우 동의함 5
58	부모모임 및 네트워크 활성화					
59	현대사회의 변화와 가족					
60	가정 내 교육에 대한 이해					
61	기본생활습관 지도					
62	놀이의 이해(이론, 의의, 종류, 방법)					
63	매체 및 컴퓨터를 활용한 자녀 교육					
64	자녀 성교육					
65	언어 지도					
66	창의성 계발					
67	인성 지도					
68	자신감 및 주도성 지도					
69	독서 지도					
70	학습 지도					

3. 다음은 **부모의 특성에 따라** 저소득, 농어촌,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으로 구분하였을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교육과정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을 1차 델파이에서 수렴한 결과입니다. 부모 특성별로 각 항목을 부모교육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정도를 √표 해주십시오.

(1) (도시) 저소득 부모

항 목	동의하는 정도				
	전혀 동의 하지 않음 1	동의 하지 않음 2	보통임 3	동의함 4	매우 동의함 5
1 가정환경의 중요성/ 풍부한 교육적 환경 구성					
2 가계 및 사회 경제(소득, 소비, 빈곤탈출 등)					
3 삶의 비전 및 가치관 교육					
4 부모가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해					
5 부모역할의 의미와 중요성					
6 부모의 자기이해 및 자아존중감 높이기					
7 부모의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8 부모-자녀 애착 형성 및 정서적 지지					
9 부모-자녀 질적인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10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권리 교육					
11 영유아 발달의 특성 및 중요성 이해					
12 영유아기 문제행동의 유형 및 지도법					
13 영유아기 조기 개입의 필요성과 중요성					
14 영유아 자녀 독서 지도					
15 육아지원기관의 소통 및 참여					
16 영유아 자녀 양육 방법					
17 영유아 자녀의 양육관/ 양육태도 이해					
18 영유아 자녀 취학전 준비 교육					
19 자녀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활동					
20 자녀의 열등감, 자존감, 자긍심 교육					
21 영유아 건강, 위생, 영양, 안전 교육					
22 저소득이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23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 및 효과					
24 정부 제도와 지역사회 자원 이해 및 활용					

(2) 맞벌이 가정 부모

항 목	동의하는 정도				
	전혀 동의 하지 않음 1	동의 하지 않음 2	보통임 3	동의함 4	매우 동의함 5
1	교육/보육 기관 정보 제공 및 선정 준거				
2	대리양육의 이해 및 활용				
3	맞벌이 가정 내 부모 역할의 이해				
4	맞벌이 가정 내 역할 분담 및 협력				
5	맞벌이 가정 제도/정책/사회서비스 이해				
6	맞벌이 가정 특성 이해				
7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직장스트레스 관리				
8	부모의 자기이해 및 자아존중감 높이기				
9	맞벌이가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10	시간 관리의 중요성 및 방법				
11	아동 학대 예방 및 아동 권리 교육				
12	부모-자녀 간 애착 및 분리불안				
13	부모-자녀 질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방법				
14	부부관계 및 의사소통				
15	아버지 양육 및 교육 참여				
16	여가시간/주말 가족문화 및 양육 방안				
17	수퍼맘에서 벗어나기				
18	일-가정 양립 및 균형				
19	자녀 방임 및 유해환경 노출 보호				
20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및 놀이, 놀잇감				
21	또래 관계 및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관심				
22	조기교육 이해				

(3) 한부모 가정 부모

항 목		동의하는 정도				
		전혀 동의 하지 않음 1	동의 하지 않음 2	보통임 3	동의함 4	매우 동의함 5
1	미혼모, 십대모에 대한 지원 및 보호프로그램					
2	방임 유해환경 노출에서의 자녀 보호					
3	아동 학대 예방 및 아동 권리 교육					
4	일-가정 양립의 이해 및 방법					
5	자녀 놀이지도					
6	자녀 문제행동의 유형 및 지도법					
7	영유아 자녀 양육 방법					
8	또래 관계 및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관심					
9	자녀의 성역할 발달 이해 및 지도					
10	편견 극복 및 사회적 인식에 대처					
11	한부모 가정 모임 및 네트워크					
12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이해 및 유형별 자녀 특성					
13	한부모 가정 대상 지역사회자원, 제도 이해·활용					
14	결손된 부모역할 보상 및 대리자 연결					
15	한부모 가정의 부모 역할					
16	한부모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건강					
17	한부모 양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18	자녀의 자아존중감 높이기					
19	부모의 자기이해 및 자아존중감 높이기					
20	한부모의 죄책감 및 고립감 극복					
21	한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중요성 및 방법					

(4) 다문화 가정 부모

항 목		동의하는 정도				
		전혀 동의 하지 않음 1	동의 하지 않음 2	보통임 3	동의함 4	매우 동의함 5
1	가정폭력방지					
2	가족의 의미, 기능, 관계 이해					
3	다문화가정 부모 네트워크 및 양육지원 제도					
4	다문화 가정 부모로서의 정체성 확립					
5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장단점)					
6	다문화 가정의 부모 역할					
7	다문화 가정 부모스트레스 이해 및 대처					
8	부모로서의 자신감 및 자아존중감 높이기					
9	부모의 공동협력 및 양육 참여의 중요성					
10	부모의 이중문화 적응과 긍정적 수용					
11	부모-자녀 관계 맺기 및 의사소통					
12	부부 간 상호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					
13	부부관계					
14	아동 학대 예방 및 아동 권리 교육					
15	아버지 교육					
16	이중언어 환경 및 문해 환경					
17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이해와 방법					
18	부모 문화 이해 및 자긍심 갖기					
19	또래 관계 및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관심					
20	자녀의 이중문화 적응과 부모 역할					
21	자녀의 정체감 형성					
22	지역사회 자원 및 사회제도 이해와 활용					
23	한국 문화 및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					
24	한국의 가족문화 이해					
25	한국의 교육에 대한 이해					
26	한국적 양육 문화 및 방법 이해					

(5) 농어촌 가정 부모

항 목	동의하는 정도				
	전혀 동의 하지 않음 1	동의 하지 않음 2	보통임 3	동의함 4	매우 동의함 5
1	교육/문화 격차·실조에 대한 이해와 대응				
2	교육적 자극이 풍부한 가정환경 만들기				
3	농어촌 가정의 건강, 위생, 안전 교육				
4	농어촌 가정의 부모 역할				
5	농어촌 가정의 자녀 양육				
6	농어촌 및 농어촌 가정에 대한 이해				
7	농어촌 환경을 활용한 양육 및 교육				
8	매체 및 인터넷 활용 방법				
9	부모-자녀 질적인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10	아동 학대 예방 및 아동 권리 교육				
11	양성평등적 양육 참여				
12	영유아 발달 이해				
13	취학 전 학습 지도 및 학교 적응				
14	자녀와 여가 및 문화생활 즐기기				
15	조부모-손자녀 관계 및 조부모 역할 교육				
16	지역사회 자원과 제도 이해 및 활용				

4. 앞서 제시된 영역이나 내용 이외에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시거나 혹은 부모교육 교육과정 개발에 대해 조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보고 2011-16

영유아기 자녀 부모 특성별 부모교육 강화 방안

발행일 2011년 12월

발행인 이 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7층, 10층, 11층

전화: 02) 730-707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양동문화사 02) 2272-1767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2396-82-0 93370

